

QA시스템
聖經研究
시리즈

12

열왕기하

기독교지혜사

성서연구원

BIBLE RESEARCH GROUP

열왕기하

2 Kings

유다도 그 하나님 여호와와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의 세운 율례를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붙이시고 심지어 그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17:19, 20)

גַּם־יְהוּדָה לֹא שָׁמְרָה אֶת־מִצְוֹת יְהוָה אֱלֹהֵיהֶם
וַיֵּלְכוּ בְּחֻקֹּת יִשְׂרָאֵל אֲשֶׁר עָשׂוּ: וַיִּמְאַס יְהוָה
בְּכָל־זֶרַע יִשְׂרָאֵל וַיַּעַנְם וַיִּתְּנֵם בְּיַד־שָׂסִים עַד
אֲשֶׁר הִשְׁלִיכֵם מִפָּנָיו:

열왕기하 차례

열왕기하 서론	〈6제〉	137
제 1 장 이스라엘 왕 아하시야와 엘리야	〈16제〉	140
제 2 장 엘리야의 승천과 엘리사의 초기 이적들	〈18제〉	145
제 3 장 이스라엘 왕 여호람과 유다 왕 여호사밧 동맹군의 모압 원정	〈17제〉	151
제 4 장 엘리사가 행한 5가지 기적들	〈18제〉	156
제 5 장 아람 사람 나아만의 문둥병 치유와 게하시의 범죄	〈15제〉	162
제 6 장 엘리사의 기적과 사마리아의 참상(慘狀)	〈14제〉	167
제 7 장 양식이 풍성해지리라는 엘리사의 예언과 그 성취	〈10제〉	172
제 8 장 하사엘의 벤하닷 살해와 유다 왕 여호람과 아하시야의 악정(惡政)	〈12제〉	175
제 9 장 예후가 이스라엘 왕국에서 혁명을 일으키다	〈15제〉	179
제 10 장 아합의 집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13제〉	184
제 11 장 요아스가 유다 왕으로 즉위하다	〈17제〉	189
제 12 장 유다 왕 요아스의 성전 수리	〈12제〉	195
제 13 장 이스라엘 왕 여호아하스, 요아스의 치세	〈17제〉	199

제 14 장	유다 왕 아마샤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의 치세	〈19제〉	… 205
제 15 장	유다의 두 왕과 이스라엘의 다섯 왕	〈15제〉	… 211
제 16 장	유다 왕 아하스의 악정(惡政)	〈12제〉	… 217
제 17 장	호세아 왕 때에 이스라엘이 망하다	〈20제〉	… 221
제 18 장	유다 왕 히스기야 때 앗수르가 침입하다	〈17제〉	… 228
제 19 장	히스기야가 기도로 앗수르를 물리치다	〈16제〉	… 234
제 20 장	히스기야가 병이 나온 후 실수(失手)하다	〈17제〉	… 240
제 21 장	유다 왕 므낫세와 아몬의 악정(惡政)	〈14제〉	… 245
제 22 장	요시야 왕 때에 율법책이 발견되다	〈12제〉	… 250
제 23 장	요시야의 개혁 운동	〈13제〉	… 254
제 24 장	유다의 마지막 왕들	〈11제〉	… 259
제 25 장	유다의 멸망과 여호야긴의 석방	〈13제〉	… 263

열왕기하 특별 자료 차례

열왕기하 서론 〈연구 자료〉	앗수르(Assyria)와 바벨론(Babylonia)	… 139
제 1 장 〈화보 자료〉	아하시야 왕의 군대를 태우는 불	… 144

제 2 장	〈화보 자료〉	불수레를 탄 엘리야	150
제 4 장	〈화보 자료〉	기름을 담은 항아리	161
제 5 장	〈화보 자료〉	몸을 씻는 문둥병자	166
제 6 장	〈연구 자료〉	아람(Aram)	171
제 10 장	〈본장의 요절〉	188
제 11 장	〈화보 자료〉	요아스의 즉위	194
제 12 장	〈본장의 요절〉	198
제 13 장	〈화보 자료〉	사마리아의 폐허	204
제 14 장	〈지도 자료〉	아마샤와 요아스의 전쟁	210
제 15 장	〈화보 자료〉	디글랏 빌레셀 3세(Tiglath-Pileser III)의 원정 ..	216
제 17 장	〈화보 자료〉	우주의 별들	227
제 18 장	〈화보 자료〉	뱀의 상(像)	233
제 19 장	〈연구 자료〉	산헤립(Sennacherib)	239
제 20 장	〈본장의 요절〉	244
제 21 장	〈화보 자료〉	주술사(呪術師)	249
제 22 장	〈화보 자료〉	성전의 수리	253
제 23 장	〈본장의 요절〉	258
제 24 장	〈본장의 요절〉	262
제 25 장	〈화보 자료〉	예루살렘 성의 붕괴	267
제 25 장	〈연구 자료〉	성(城)	268

열왕기하 서론

1. **㉠** 본서의 제목과 기타 서론적 의미를 말하라.

열왕기상 서론 ㉠ 1-㉠ 10을 참조하라.

2. **㉡** 본서의 내용에 나타난 특징은 무엇인가?

- ㉠** (1) 열왕기상에 이어지는 본서는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의 흥망 성쇠, 그리고 바벨론 포수(捕囚)의 경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2) 이러한 기록은 한마디로 종교적인 역사라고 할 수 있다. 즉 본서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각 왕들을 종교적(신앙적)인 면에서 평가하고 있다.
 (3) 따라서 본서는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강조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백성이 율법에 순종하여 살 것을 교훈하고 있다.
 (4) 그러므로 본서는 영적이고 교훈적인 의미를 주는 한 편의 장편 설교라고 할 수 있다.

3. **㉢** 본서에 나타난 신학적 의미는 무엇인가?

- ㉠** (1) 본서는 이스라엘 분열 왕국들의 표면적인 역사만을 단순하게 서술한 것이 아니다.
 (2) 본서의 내용은 그것이 모세의 계시와 조화되고 또한 대대로 모세를 계승한 선지자들의 예언 내용과 일치된다는 의미에서 볼 때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가 있다.
 (3) 또한 각 시대의 왕국들과 개인적인 왕들은 모세와 예언자들을 통하여 주어진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심판을 받고 포로 생활을 한다고 가르친다.
 (4) 따라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오늘날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받은 모든 백성들의 삶 전체를 주관하시며 지금도 계속 구속 사역을 이루어 가신다.

4. **㉣** 분열 왕국으로부터 예루살렘 함락까지의 연대표를 만들어라.

㉠

유 다		이 스 라 엘		왕 국의 흥망 성쇠
1. 르호보암	931-913	1. 여로보암 1세	931-910	1. 살만에셀 3세 858-824 (Shalmaneser III) 2. 아드다-나라리 3세 810-783 (Adad-Nirari III) 3. 디글랏 빌레셀 3세 744-727 4. 살만에셀 5세 727-722 5. 사르곤 2세 722-705 6. 산헤립 705-681 7. 에살핫돈 680-669 8. 니느웨의 함락 612 9. 므깃도의 전쟁 609 10. 갈그미스의 전쟁 605 11. 느부갓네살 2세 605-562
2. 아 비 암	913-910	2. 나 답	910-909	
3. 아 사	910-869	3. 바 아 사	909-886	
4. 여호사밧	872-848	4. 엘 라	886-885	
5. 요 랍	848-841	5. 시 르 리	885	
6. 아하시야	841	6. 오 르 리	885-874	
7. 아 달 라	841-835	7. 아 합	874-853	
8. 요 아 스	835-796	8. 아하시야	853-852	
9. 아 마 사	796-767	9. 요 랍	852-841	
10. 아사랴/웃시야	790-739	10. 예 후	841-814	
11. 요 답	751-736	11. 여호아하스	814-798	
12. 아 하 스	742-728-725	12. 요 아 스	798-782	
13. 히스기야	728-725-697	13. 여로보암 2세	793-782-753	
14. 므 낫 세	697-642	14. 스 가 라	753-752	
15. 아 몬	642-640	15. 살 롬	752	
16. 요 시 야	640-609	16. 므 나 험	752-742	

17. 여호아하스 609-608	17. 브가히야 742-740	(바벨론의 왕)
18. 여호야김 608-597	18. 베가 752-740-732	
19. 여호야긴 597	19. 호세아 732-722	
20. 시드기야 597-586	20. 사마리아 함락 722/721	
21. 예루살렘의 함락 586		

※ 참고 : 위 연대는 B.C.임

5. ㉠ 본서의 개요를 말하라.

㉠ (1) 분열 왕국 시대 / 1:1-17:41

- ① 아하시야의 이스라엘 통치 / 1:1-18
- ② 여호람의 이스라엘 통치 / 2:1-8:15
 - ㄱ. 엘리야의 승천 / 2:1-11
 - ㄴ. 엘리사 사역의 시작 / 2:12-25
 - ㄷ. 여호람의 모압 정벌 / 3:1-27
 - ㄹ. 엘리사의 사역 / 4:1-8:15
- ③ 여호람(요람)의 유다 통치 / 8:16-24
- ④ 아하시야의 유다 통치 / 8:25-29
- ⑤ 예후의 이스라엘 통치 / 9:1-10:36
- ⑥ 아달랴의 유다 통치 / 11:1-16
- ⑦ 여호아스(요아스)의 유다 통치 / 11:17-12:21
- ⑧ 여호아하스의 이스라엘 통치 / 13:1-9
- ⑨ 여호아스(요아스)의 이스라엘 통치 / 13:10-25
- ⑩ 아마샤의 유다 통치 / 14:1-22
- ⑪ 예로보암 II세의 이스라엘 통치 / 14:23-29
- ⑫ 아사랴(웃시야)의 유다 통치 / 15:1-7
- ⑬ 스가라의 이스라엘 통치 / 15:8-12
- ⑭ 살룸의 이스라엘 통치 / 15:13-15
- ⑮ 므나헴의 이스라엘 통치 / 15:16-22
- ⑯ 브가히야의 이스라엘 통치 / 15:23-26
- ⑰ 베가의 이스라엘 통치 / 15:27-31
- ⑱ 요담의 유다 통치 / 15:32-38
- ⑲ 아하스의 유다 통치 / 16:1-20
- ⑳ 호세아의 이스라엘 통치 / 17:1-41

(2) 유다 왕국이 멸망할 때까지 / 18:1-25:30

- ① 히스기야의 통치 / 18:1-20:21
- ② 므낫세의 통치 / 21:1-18
- ③ 아몬의 통치 / 21:19-26
- ④ 요시야의 통치 / 22:1-23:30
- ⑤ 여호아하스의 통치 / 23:31-33
- ⑥ 여호야김(엘리아김)의 통치 / 23:34-24:7
- ⑦ 여호야긴의 통치 / 24:8-16
- ⑧ 시드기야(맛다니야)의 통치 / 24:17-25:21
 - ㄱ. 바벨론에 대한 반역과 성전의 파괴 / 24:17-25:10
 - ㄴ. 3차 바벨론 포로 / 25:11-21

⑨ 바벨론의 앞잡이 그달리아 / 25:22-26

⑩ 여호야긴이 바벨론에서 풀려남 / 25:27-30

6. ㉔ 본서의 요절을 말하라.

㉔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향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온전히 준행한 임금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23:25).

연구자료

앗수르 (Assyria) 와 바벨론 (Babylonia)

본서에는 이스라엘 역사와 관련하여 앗수르와 바벨론이 자주 언급되고 있다 (15:19, 29; 18:13; 25:1, 27). 그러므로 본고는 이 두 나라의 역사에 관하여 간략하게 살펴보려고 한다.

1. 앗수르

고대 메소포타미아 왕국들 중의 하나인 앗수르는 시리아 사막과 아르메니아, 페르시아 산을 접경으로 하는 고원 지대에 자리잡고 있었다. 앗수르의 역사는 B. C. 5000년 이전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가지만 하나의 왕국으로서 면모를 보이기 시작한 때는 B. C. 1800년경이며 바벨론, 이집트, 팔레스틴, 시리아, 엘람 등과 같은 나라들을 굴복시키고 대제국으로서의 위엄을 떨치던 때는 B. C. 900-600년의 약 300년간이다. 이 당시에 활약했던 왕으로서 본서에 언급되고 있는 자들로써 디글랏 빌레셀 3세 (15:19), 살만에셀 5세 (17:3) 등이 있다. 한편 앗수르는 문화적, 종교적인 면에서 바벨론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언어에 있어서 그들은 바벨론과 같이 아카드어 (Akkadian language)를 사용하였으며, 종교에 있어서 바벨론의 여러 신들과 함께 그들 고유의 신인 '앗수르' (Assyria)를 숭배하였었다.

2. 바벨론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의 지역을 영토로 삼았던 바벨론 제국의 역사는 선사 시대의 역사를 제외하고는 크게 고 (古) 바벨론 시대 (B. C. 1830-1530), 중기 바벨론 시대 (B. C. 1530-630), 신 바벨론 시대 (B. C. 630-539)로 나눌 수 있다. 바벨론 왕국의 창시자는 수무아뱀 (Sumuabum)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는 오늘날의 '텔 엘 우케이미르' (Tell-el-Ukheimir)인 기스 (Kish)에 최초로 바벨론 도시를 세웠다 한다. 바벨론은 함무라비 (B. C. 1728-1886) 시대에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다가 중기 바벨론 시대에 이르러 앗수르에 의해 거의 멸국 (滅國) 되었으며 그 후 나보폴라살 (Nabopolassar B. C. 625-605)에 의해 다시 재건되어 페르시아 제국의 지배하에 들어가기까지 일시적 영화를 누리었다. 한편 이때와 관련된 성경 역사로는 바벨론의 예루살렘 침공 및 이스라엘 멸망, 바벨론의 유수 (24, 25장) 등을 들 수 있는데 당시 바벨론 왕은 느부갓네살 (Nebuchadnezzar, B. C. 605-562)이었다.

제 1 장 이스라엘 왕 아하시야와 엘리야

단락구분 1-3-이스라엘의 여덟번째 왕 아하시야의 발병(發病) / 3-8-아하시야의 죽음에 대한 엘리야의 예언 / 9-14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102명을 죽이다 / 15-16 엘리야가 전히 아하시야에 대하여 그의 예언을 반복하다 / 17-18 아하시야의 죽음과 이스라엘의 아홉번째 왕 여호람의 즉위

1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 하였더라

2 아하시야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때 사자를 보내며 저회더러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뱌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 보라 하니라

3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서 저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 없이 너희가 에글론의 신 바알세뱌에게 물으러 가느냐

4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5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6 저회가 고하되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로 돌아가서 저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네가 에글론의 신 바알세뱌에게 물으려고 보낸느냐 그러므로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더라

7 왕이 저회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고한 그 사람의 모양이 어떠하느냐

8 저회가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더라 왕이 가로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9 이에 오십부장과 그 오십 인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저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서 본즉 산 꼭대기에 앉았는지라 저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였나이다

10 엘리야가 오십부장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

려와서 너와 너의 오십 인을 사를지로다 하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서 저와 그 오십 인을 살랐더라

11 왕이 다시 다른 오십부장과 그 오십 인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니 저가 엘리야에게 일러 가로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였나이다

12 엘리야가 저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너와 너의 오십 인을 사를지로다 하매 하나님의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서 저와 그 오십 인을 살랐더라

13 왕이 세번째 오십 부장과 그 오십 인을 보낸지라 세째 오십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의 앞에 이르러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컨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오십 인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14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전번의 오십 부장과 그 오십 인들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하매

15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저를 두려워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저와 함께 내려와서 왕에게 이르러

16 고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어 에그론의 신 바알세뱌에게 물으러 하니 이스라엘에 그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없으니나 그러므로 네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17 왕이 엘리야의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저가 아들이 없음으로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제이 년이었던라

18 아하시야의 남은 사적은 모두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1. ㉠ 본장의 주요 내용과 중심 교훈을 말하라.

- ㉠ (1) 열왕기하가 시작되는 본장은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한 후 아하시야가 병에 걸려 죽게 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 (2) 특히 아하시야의 우상 숭배의 범죄와 그에 따른 하나님의 진노가 암시되어 있고 선지자 엘리야의 활동이 언급되어 있다.
- (3) 그런데 신정 국가에 있어서의 '왕'은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대신하는 자이다. 이러한 위치에 있는 왕이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다. 본장은 이러한 자의 결국은 파멸과 죽음임을 교훈하고 있다.

2. **㉠ 모압이 이스라엘 왕국을 언제 배반하였는가? (1절)**

- ㉠** (1) 모압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제 7대 왕 아합(B.C. 874-853)이 죽은 후에 배반하였다.
- (2) 앓수르 왕 살만에셀(Shalmaneser)이 남긴 기록에는 당시 아합 왕은 2,000대의 전차(戰車)와 10,000명의 군사를 지휘했다고 언급되어 있다. 이것으로 미루어 볼 때 아합은 막강한 왕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 (3) 또한 모압 비문에 보면 모압이 이스라엘 왕국에 반기를 든 것은 오므리의 아들 때부터라고 언급되어 있는데 오므리의 아들은 곧 아합 왕을 가리킨다.
- (4) 결국 모압은 강력한 오므리 왕이 통치할 때는 꿈쩍 못하였으나 그 아들 아합 때부터 반역을 꾀하다가 아합이 죽은 후 본격적으로 반란을 일으켰다.
- (5) 일반적으로 용감하고 활동적인 한 통치자의 죽음은 고대 근동에 있어서 언제나 복속 국가들의 반역의 신호로 여겨졌다.

3. **㉠ 아하시야 왕이 곤경에 빠진 이유는 무엇인가? (1, 2절)**

- ㉠** (1) 이스라엘의 속국이었던 모압이 아합 왕 서거 이후에 반기를 들었으며 설상 가상으로 그가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질병에 걸렸기 때문이다.
- (2) 당시 아하시야 왕은 아합 왕의 아들이자 바알 신을 숭배하였다.
- (3) 그러므로 그가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은 죄를 깨닫게 하여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를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이었다(참조, 은 1:12).
- (4)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도 고난과 어려움이 닥칠 때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먼저 기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4. **㉠ 아하시야 왕이 곤경을 당했을 때 그 신하들을 누구에게 보냈는가? (2절)**

- ㉠** (1) 에그론의 우상 '바알 세불'에게 보냈다.
- (2) '바알세불'에서 '바알'은 '신' (god) 또는 '주인' '소유주' 등을 의미하며 '세불'은 '파리'라는 뜻이다. 그러므로 바알세불은 '파리의 신'이라는 말로 직역될 수 있다.
- (3) 파리 형상으로 된 이 우상은 날벌레들의 재난을 막는 힘이 있다고 여겨졌다.
- (4) 그러나 본래 '세불'은 왕이란 뜻의 '세불'이었다. 그러므로 마 10:25에 나오는 '바알세불'은 '바알 왕'이라는 말로 대치될 수 있다.
- (5) 또 '바알세불'은 '벨세불'이라고도 불렀는데 '벨'은 '바알'의 변음(變音)이다.
- (6) 이 말은 후에 '바알세벨'이라고 불리어졌다. 즉 '왕'이란 뜻의 '세불'이 '분토'(糞土)라는 뜻의 '세벨'로 바뀐 것이다. 이세벨의 경우에서도 '세벨'은 분토라는 뜻이다.
- (7) 그러므로 세불이 '세불' '세벨' 등으로 불리어진 것은 될 수 있는 한 나쁜 인상을 주려고 했던 것으로 짐작된다.
- (8) 따라서 바알세불이 후에는 여호와의 적대자인 사단의 칭호로 쓰이게 되었다(마 10:25; 12:24; 막 3:22; 눅 11:15).

5. **㉠ 아하시야 왕이 바알세불에게 사자(使者)를 보낸 이유는 무엇인가? (2절)**

- ㉠** (1) 자신의 병이 나올 수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를 알기 위해서였다.
- (2)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의 종교적 무지와 그들의 어리석은 사실을 나타내고 있다(참조, 왕상 18:25-29; 시 115:4-8).
- (3) 특히 아하시야의 어리석음은 자기 병에 대해서 낮겠나 물어보라고 한 말에서 잘 나타

나고 있는데 여기서 그의 불신앙을 엿볼 수 있다.

- (4) 따라서 성도들은 어떤 경우에서도 마술적 행위나 미신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전 10:14).
- (5)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 자기의 문제를 내놓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한다(참조, 롬 12:2, 3).

6. **㉠** '여호와와의 사자'는 구체적으로 누구를 가리키는가? (3절)

- ㉠** (1) 성경에서 여호와와의 사자는 천사를 의미한다(참조, 창 22:11; 31:11; 시 91:11; 마 2:8-14; 눅 1:11-20).
- (2) 그러나 여기서 '여호와와의 사자'는 천사를 의미하지 않는다.
- (3) 이 말은 여호와 자신의 일시적인 현현(顯現)을 뜻한다.
- (4) 구약 시대에서 '여호와와의 사자'는 여호와와 일체(一體) 되신 분으로 나타난다(참조, 창 18:1-8).
- (5) 그러므로 '여호와와의 사자'는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계시된 그리스도이시다.

7. **㉠**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해 아하시야 왕에게 주신 말씀은 무엇인가? (3, 4, 6절)

- ㉠** (1) 하나님이 없어서 이방 신(바알세뵘)에게 병세를 문의하러 가느나는 것과 그로 인하여 죽게 되리라는 것이다.
- (2)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능멸하는 아하시야의 교만한 태도를 지적하는 말이다.
- (3) 어려움에 부딪힐 때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다른 대상을 찾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태도이다.
- (4) 그것은 일종의 우상 숭배로서 그 결과는 파멸이다.
- (5) 따라서 성도들은 매순간마다 하나님께 복종하고 의지하는 삶의 자세를 지녀야 한다(시 37:5; 잠 16:3).

8. **㉠** 엘리야가 여호와와의 사자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은 후 그가 보인 태도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가? (4절)

- ㉠** (1) 엘리야는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기 위해 즉시 떠나 하나님의 명령을 아하시야의 사자들에게 전하였다.
- (2) 즉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창 12:1-4).
- (3) 또한 어떠한 유혹과 핍박이 와도 그것을 뿌리치고 말씀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
- (4)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확신있는 증거는 곧 능력으로 나타난다.

9. **㉠** '털이 많은 사람'이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8절)

- ㉠** (1) 이는 엘리야를 가리키는 말로서 엘리야의 몸에 털이 많다는 뜻이 아니라 그가 털옷, 즉 양이나 산양의 가죽 옷 또는 거칠은 낙타 털로써 만든 옷을 입고 있다는 뜻이다.
- (2) 일반적으로 선지자들은 이러한 옷을 입고 다녔는데 그것은 단순한 금욕의 표시로서 뿐만 아니라 '회개와 설교자'란 표식에서도 입었던 것이다.
- (3) 또한 이런 거친 가죽 털옷은 사치와 방탕함과 우상 숭배로 흥청거리는 타락한 국가에 내릴 하나님의 심판의 가혹성을 뜻했다.
- (4) 따라서 선지자에게 있어서의 겉옷은 '사명자의 표시'이며 또한 '권위'를 상징하였다.

10. **㉠**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8절)

- ㉠** (1)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죽띠가 아닌 무명과 같은 부드러운 천으로 만든 띠를 띠고 다녔다.
- (2) 대제사장이 매는 예봇의 '진기한 띠'는 세마포로 만들었으며 금실과 청색, 자색 그리고 홍색실로 수놓았다(출 28:8).
- (3) 가죽띠는 매우 거칠었기 때문에 착용하기 불편하였으나 대단히 가난한 사람과 고행자들에 의해서 사용되었다.

- (4) 엘리야는 죄악된 세상의 경멸과 또한 그것에 대한 심판의 상징으로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다녔다.
- (5) 그것은 백성의 죄악에 대한 슬픔과 회개를 촉구하는 의미에서 뿐만 아니라 육체를 응징하고 복종시키기 위한 의미도 있었다.
- (6) 사도 바울은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 (엡 6:14)고 가르치고 있다. 즉 우리의 진리는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다(요 14:6).
- (7) 이처럼 성도들은 자기 생활의 편리를 도모하지 않고 겸소한 생활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 사역에 총매진 하여야 한다.

11. **㉠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왕의 사자에게 전달한 후 어디에 있었는가? (9절)**

- ㉠** (1) 산꼭대기에 앉아 있었다. 이런 그의 도망하지 않고 아하시야가 취할 다음 단계의 행동을 조용하고 냉정하게 기다리고 있음을 의미한다.
- (2) 한편 그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대화와 경건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 항상 들이나(왕상 19:4) 산(왕상 19:8,9)과 같은 인적이 드물고 한적한 자연 상태의 처소에서 거처하였다.
- (3) 오늘날 성도들도 경건한 삶을 위해서는 세상의 유행과 욕심을 끊어 버려야 한다.
- (4) 또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계속적인 만남을 이루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힘써야 한다(롬 12:2).

12. **㉠ '하나님의 불'이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12절)**

- ㉠** (1) 불은 '하나님 임재'의 상징을 나타낸다. 비록 문자 그대로의 불은 자연적인 현상이지만 그것은 신성과 관련된 요소인 기적의 특성을 지니고 있었다(참조, 창 15:17; 출 3:2; 13:21; 왕하 6:17).
- (2) 하나님의 불은 심판의 상징으로서 백성들에게 '징벌'로 나타나기도 한다. 소돔과 고모라는 여호와께서 내리신 '유황과 불'로 멸망했으며 예수께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마 7:19)고 말씀하셨다.
- (3) 또한 불은 죄인을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상징한다(마 3:11).
- (4) 따라서 우리는 징벌을 피하고 최후의 심판 때 불(지옥)에 던지움을 받지 않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야 한다.
- (5)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은 곧 속죄를 보증받는 길이며 나아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다(참조, 요 1:12; 3:20, 엡 1:7).

13. **㉠ 세번째 온 오십부장과 오십인도 죽임을 당했는가? (13-15절)**

- ㉠** (1) 아하시야 왕은 엘리야를 붙잡으려고 3번이나 오십부장과 오십인을 보내었다.
- (2) 첫번째와 두번째의 오십부장 및 그 오십인들은 하늘에서 내려온 불에 의하여 죽임을 당했다. 이것은 엘리야가 하나님의 참 선지자임을 증명하는 것이었다.
- (3) 그러나 세번째 엘리야를 찾아온 오십부장은 겸손히 무릎을 꿇고 엎드려 간구하므로써 생명을 보전하게 되었다.
- (4) 이처럼 겸손히 무릎을 꿇는 것은 은혜를 받는 비결이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약 4:6).
- (5) 오늘날 성도들은 겸손히 무릎 꿇는 자세로 하나님 섬기는 법을 배워야 한다.

14. **㉠ 여호와와 사자가 엘리야에게 말한 '두려워 말고 함께 내려가라'란 무슨 뜻인가? (15절)**

- ㉠** (1) 오십부장을 따라가 아하시야 왕 앞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라는 뜻이다.
- (2) 여기서 '두려워 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길을 지켜 보호해 주시니 담대하라는 것이다.
- (3)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무엇보다 담대해야 한다(참조, 수 1:6,7).
- (4) 오늘날 성도들은 마음의 근심을 떨쳐 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담

대히 복음을 증거해야 한다(참조, 시 27:14; 요 16:33).

15. **㉠** 이스라엘 왕국 8대 왕인 아하시야(B.C.853-852)가 죽자 그 뒤를 이어 여호람(852-841)이 왕위에 올랐는데 이 기록은 3:1의 내용과 그 연대가 상충되고 있다. 이 난제를 해결해 보라(17절).
- ㉡** (1) '여호람'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9대 왕이 된 것은 남왕국 유다의 5대 왕 '여호람'(B.C.848-841)제 2년이었다.
- (2) 3:1에서는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된 해를 유다의 4대 왕 여호사밧(유다 왕 여호람의 부친, B.C.872-848) 18년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 (3) 이 문제의 해결은 다음과 같다. 즉 여호사밧이 실제 왕이 된 것은 유다 3대 아사 왕(B.C.910-869)이 죽은 뒤부터이다(B.C.869).
- (4) 또한 그의 아들 여호람이 왕위에 오른 것은 여호사밧이 죽기 6년 전부터였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16. **㉠** 본장에 나타나지 않은 아하시야의 나머지 역사는 이스라엘 역대 지략(왕조 실록)에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성경에는 그 내용이 없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18절)
- ㉡** (1) 성경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인간 역사를 통하여 나타난다.
- (2) 그러나 인간의 모든 역사가 성경에 빠짐없이 기록된 것은 아니다.
- (3) 다만 구속사에 필요한 사건과 인물들은 그것이 선하든지 악하든지 모두 기록되었다.
- (4) 그러므로 성경에 나타난 모든 내용을 통해서 인간이 구원받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이것을 가리켜 성경의 충족성이라고 한다.
- (5) 또한 인간이 성경을 통해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교육받기에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딤후 3:16, 17).

화보자료

아하시야 왕의 군대를 태우는 불. 옆의 사진은 엘리야를 잡으러 온 아하시야의 부하 50인이 하늘에서 내려온 불에 타 죽는 모습이다. 이 사건은 두 번이나 반복되어 백명의 군사가 죽임을 당했다.



본장에는 이방 우상을 따르면서 여호와를 대적한 아하시야 때문에 백명의 군사들이 죽었지만 세 번째의 오십 부장과 군사들은 겸손함으로 자신들의 생명을 구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

제 2 장 엘리야의 승천과 엘리야의 초기 이적들

단락구분 1-6 엘리야를 따라 다니는 엘리사 / 7-8 엘리야가 요단을 가르다 / 9-10 엘리사에게 주어진 감정의 영감 / 11 엘리야의 승천 / 12-14 엘리사가 요단을 가르다 / 15-18 엘리야의 승천을 못 믿는 선지자의 생도들 / 19-22 물을 고친 엘리야의 기적 / 23-25 엘리사에 대한 조롱으로 죽임을 당한 42명의 젊은 아이들

1 여호와께서 회리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에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로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2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뱀엘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와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에 두 사람이 뱀엘로 내려가니

3 뱀엘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아와 이르되 오늘날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취하실 줄을 아나이까 가로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4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엘리야야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기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와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매

5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이 엘리사에게 나아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날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취하실 줄을 아나이까 엘리사가 가로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6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저가 가로되 여호와와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에 두 사람이 행하니라

7 선지자의 생도 오십 인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섰더니

8 엘리야가 걸옷을 취하여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육지 위로 건너더라

9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네게서 취하시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엘리사가 가로되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10 가로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네게서 취하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네게 이루어니와 그렇지 않으면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고

11 두 사람이 행하며 말하더니 홀연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격하고 엘리야가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하더라

12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들에 찢고

13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걸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서 요단 언덕에 서서

14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걸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가로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이까 하고 저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15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이 저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영감이 엘리사의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저를 영접하여 그 앞에서 땅에 엎드리고

16 가로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사 오십 인이 있으니 청컨대 저희로 가서 당신의 주를 찾게 하소서 열려컨대 여호와와 신이 저를 들어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엘리사가 가로되 보내지 말라 하나

17 우리가 저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하매 보내라 한지라 저희가 오십 인을 보내었더니 사흘을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18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우리가 저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저희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19 그 성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고하되 우리 주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터는 아름다우나 물이 좋지 못하므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20 엘리사가 가로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해매 곧 가져온지라

21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가로되 여호와와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 좃차 다시는 죽음이나 토

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짐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22 그 물이 엘리사의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날에 이르렀더라

23 엘리사가 거기서 뱀엘로 올라가더니 길에 행할 때에 젊은 아이들이 성에서 나와서 저를 조롱하여 가로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24 엘리사가 돌이켜 저희를 보고 여호와와 이름으로 저주하며 곧 수풀에서 암퇘지들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사십이 명을 찢었더라

25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 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1. **㉠ 본장의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하라.**

㉠ (1) 본장에는 엘리야의 승천과 엘리사의 초기 사역이 기록되어 있다.

(2) 특히 엘리야의 뒤를 이어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엘리사는 끈질긴 열심으로 엘리야가 갖고 있던 능력에 대해 갑절의 영감을 받았다.

(3) 엘리사는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엘리야 못지 않은 많은 능력을 행하며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였다.

(4) 이와 같이 오늘의 사역자들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능력을 받아 주의 일을 감당해야 한다(행 1:8; 고전 16:10).

2. **㉠ ‘엘리야’가 성경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어떠한가? (1절)**

㉠ (1) 엘리야란 이름의 히브리어는 <엘리야> 또는 <엘리야후>인데 그 뜻은 ‘하나님은 아버지시라’, ‘여호와와는 나의 하나님이니시라’이다.

(2) 그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7대 아합 왕(B.C.874-853) 때부터 8대 아하시야 왕(B.C.853-852) 때까지 주로 북왕국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담당한 선지자이다.

(3) 그의 사역의 중대성은 ‘여호와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오기 전에 엘리야가 나타나리라는 예언에서 알 수 있다(말 4:5).

(4) 이러한 예언적 기대로 예수 당시에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이 엘리야인지 아닌지를 물어 보기도 했다(요 1:21, 25).

(5) 그는 에녹의 경우처럼 죽지 않고 승천하였는데(창 5:24) 후에 선지자의 대표로서 변화산상에 예수님과 모세와 함께 나타났다(막 9:2-4).

(6) 오늘날 우리들도 엘리야와 같이 정결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야 한다(고전 6:17).

3. **㉠ 승천을 앞 둔 엘리야는 길갈을 출발하여 급기야 어디까지 갔는가? (1-6절)**

㉠ (1) 엘리사와 함께 길갈을 출발하여 뱀엘과 여러고를 거쳐 요단까지 갔다.

(2) 여기에 나오는 ‘길갈’은 요단 계곡에 있는 여호수아의 도강 작전에 나오는 길갈(수 4:19)이 아니다.

(3) 이곳의 길갈은 실로에서 뱀엘로 가는 큰 길목인 에브라임 산지(뱀엘에서 북서쪽으로 약 12.8km 지점)에 있는 길갈(신 11:30)을 가리킨다.

4. **㉠ 승천을 앞 둔 엘리야가 엘리사를 때어 놓으려고 한 이유는 무엇인가? (2, 4, 6절)**

㉠ (1) 엘리야가 엘리사를 자신에게서 때어 놓으려고 세 번씩이나 시도한 이유는 분명치 않다.

(2) 그러나 엘리야가 마지막 시간을 혼자 보내기 위해서이거나 또는 그의 승천을 보이지 않으려는 겸손에서와 엘리사의 신실성과 사랑을 시험해 보려는 욕망에서 그랬을 것이다.

(3) 또한 이것은 엘리사로 하여금 엘리야의 걸음을 받게 하여 엘리사가 엘리야의 젊은 제자로서의 온전한 직임을 물려받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로 볼 수 있다.

5. **㉠ ‘여호와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한다’는 엘리사의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2, 4, 6절)**

㉠ (1) ‘당신의 혼의 삶’은 ‘소멸되지 않는 생명(영혼)’을 의미한다(삼하 11:11).

(2) 그러므로 여호와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한다는 것은 엘리사가 그의 스

승 엘리야와 헤어지지 않겠다는 단호한 결심을 가리킨다.

- (3) 또한 이것은 엘리야에 대한 깊은 애정과 충성심을 의미하며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를 보고자 하는 강한 집념을 보여 준다.
- (4) 이와 같이 성도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변함없는 충성심과 사랑을 드러내야 하며 또한 말씀에 순종하며 은혜를 사모하는 열정이 있어야 한다(딤후 2:10; 계 2:10).

6. **㉠** '선지자의 생도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라 (3절).

- ㉠** (1) 여기서 '생도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베네>로서 직역하면 '아들들'이 된다. 히브리인들은 제자를 아들이라고도 불렀다.
- (2) 이것은 삼상 10:5-13에 처음 나타나는 표현이지만 이들의 본래적 기원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다.
- (3) 그러나 당시의 영적이며 도덕적인 몰락을 막으려는 사무엘에 의해 '선지자 학교'에 생도들이 모이기 시작했을 것으로 본다.
- (4) 이들 선지자 무리들에 대해서 사무엘 시대에는 더 이상의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았으나 그들은 엘리야와 엘리사의 시대에 다시 나타나 '선지자의 생도들'로 불리어졌다(왕상 20:35).
- (5) '선지자의 생도들'이란 말이 때로는 결혼한 사람들을 뜻하기도 하므로(4:1) 항상 청소년이나 젊은이들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 (6) 그들은 공동 생활을 하였고(2:5; 4:38-44), 때때로 물질을 헌납받아 생계를 유지하였으며 대부분이 스승을 두었다(6:1-7).
- (7) 또한 그들은 털이 있는 겂옷을 입음으로써 자기의 신분을 나타내었고(1:8) 특별한 수건을 지니고 다니기도 하였다(20:41).
- (8) 그들은 전쟁에서 이스라엘의 군대를 따라 다니는 열정적인 애국자들이었고(3:11-19), 집단적으로나(22:1-28) 개인적으로(3:15) 예언을 하기도 하였다.

7. **㉠** 엘리야가 오늘 승천할 것을 아느냐는 선지자 생도들의 물음에 엘리사는 어떻게 대답했는가? (3절)

- ㉠** (1) 하나님께서 오늘 엘리야를 하늘로 데려가려는 것을 알고 있으니 너희는(선지자의 생도들) 잠잠하라 하고 하였다.
- (2)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된 사역에 대해 경거 망동(輕舉妄動)하지 말 것을 가르친다.
- (3) 사람의 경솔한 말은 많은 잘못을 저지르며 때로는 형제 자매들을 실족케 한다.
- (4) 따라서 성도는 말에 실수가 없도록 항상 자신을 살피야 하며 입에서 나오는 말이 칭찬과 감사의 말이 되도록 자신을 온전히 주께 맡겨야 한다(잠 10:19; 약 3:2).

8. **㉠** 엘리사란 이름의 뜻은 무엇이며 그의 사역 활동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 (4-6절)

- ㉠** (1) 엘리사는 히브리어로 <엘리샤>인데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는 의미이다.
- (2) 이 이름은 엘리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명령에서 처음으로 나타난다.
- (3) 이에 따라 엘리야는 그의 후계자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야 했으나(왕상 19:16, 17), 실제로 기름을 부었다는 기사는 없다.
- (4) 엘리사가 선지자로 활동을 처음 시작한 때는 이스라엘 왕국의 7대 왕 아합(B.C. 874-853)의 통치 말년이거나(왕상 19:1-7), 또는 아합의 아들 여호람(B.C. 852-841)의 통치 초반으로 본다(3:1).
- (5) 이때부터 제 12대 왕 요아스(B.C. 798-782) 통치 초반기에 이르기까지 약 반세기에 걸쳐 예언 활동을 하였다(13:14-19).

9. **㉠** 엘리야는 요단 강을 어떻게 가르고 건너 갔는가? (8절)

- ㉠** (1) 자기의 겂옷을 벗어 맡아 가지고 물을 찼을 때 요단 강이 좌우로 갈라져 건너갔다.

- (2) 여기에서 ‘겉옷’이란 그의 어깨를 감싸고 있던 양가죽 어깨 망토 또는 두건 달린 긴 외투를 가리킨다.
- (3) 이 일은 모세가 그의 지팡이로 홍해를 갈랐던 사건(출 14:16, 21)을 생각나게 하는데 엘리야의 겉옷이나 모세의 지팡이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임재의 징표이다.
- (4) 이 사건을 통해 엘리야는 선지자로 사명을 받은 증거를 성도들 앞에서 나타냈다.

10. ㉠ 요단 강을 건너 뒤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요청한 것은 무엇인가? (9절)

- ㉠ (1) 엘리야가 갖고 있는 영감의 갑절이 있기를 구하였다. 이 영감의 갑절은 ‘당신 영의 갑절’ 즉 ‘당신이 받은 영력의 갑절’을 뜻한다.
- (2) ‘영감’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루아흐>는 ‘영’이란 말인데 이는 예언자적 영감이란 의미보다는 어떤 초인간적인 능력을 가리킨다.
- (3) 그리고 ‘갑절’이란 말도 양적인 비율을 나타내는 표현이 아니라 엘리야를 계승하여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하기에 충분한 영력(灵力)을 의미한다.
- (4) 오늘날 사역자도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먼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고 간구하는 경건 훈련이 절실히 요청된다(히 4:16).

11. ㉠ 갑절의 영감을 구하는 엘리사의 요구에 대해 엘리야는 어떤 태도를 보였는가? (10절)

- ㉠ (1) 내(엘리야)가 떠나는 것(승천)을 보면 요구가 이루어질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루지 못한다고 하였다.
- (2) 즉 엘리사가 요청한 갑절의 영감은 엘리야 자신이 줄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다는 뜻이다.
- (3) 그러므로 엘리야는 그 소원을 성취시켜 줄 능력이 없다는 뜻에서 ‘어려운 일’이라고 했다.
- (4) 또한 자기가 승천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 시기와 방법은 하나님만이 아시고 주관하시는 것이므로 ‘보면...그렇지 않으면’이란 가정법을 사용하였다.
- (5) 이처럼 엘리야는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바라보면서 그 뜻을 신뢰하였으며 그 명령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선지자적인 태도의 모범을 보여 주었다.
- (6) 오늘날 성도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을 통해 나타난다고 주장하며 자신을 신격화시키고 남에게 헛되이 하나님의 은혜를 약속하는 자들을 멀리해야 한다(참조, 왕상 16:13).

12. ㉠ 엘리야는 어떻게 승천하였는가? (11절)

- ㉠ (1) 엘리사와 마지막 대화를 하고 있는 동안 갑자기 불수레와 불말이 나타나서 두 사람을 갈라 놓았을 때 엘리야는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했다(1, 11절).
- (2) 여기서 ‘불’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한 것을 보여 주며, ‘수레’와 ‘말’은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임재한 천군 천사의 능력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3) 어떤 주석 학자는 불수레와 불말은 하나님의 권능과 의지를 나타내는 구름을 의미한다고 했다(Lange).
- (4) 어쨌든간에 엘리야는 모든 인간이 필연적으로 거쳐야 할 죽음을 보지 않고 그대로 하늘 나라로 올라간 예복에 이은 두번째 사람이 되었다(참조, 창 5:24; 히 11:5).
- (5) 이러한 엘리야의 승천 사건은 엘리야 자신의 구원을 의미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성도들이 받게 될 영혼과 육체의 부활을 예표하는 사건이었다(고전 15:12-21).
- (6) 따라서 모든 성도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모든 소망을 두고 경건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행 23:6; 딤후 1:2).

13. ㉠ ‘회리바람’의 의미는 무엇인가? (11절)

- ㉠ (1) ‘회리바람’은 히브리어로 <셰아라>인데 몰아치는 바람으로 태풍 상태를 의미한다.
- (2) 이 바람은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상징한다.

- (3) 왜냐하면 모든 바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으로(암 4:13) 하나님의 통제를 받기 때문이다(시 107:25).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바람의 길을 정하시고(전 11:5) 입의로 불어나게도 하시며(시 147:18) 모으시기도 하신다(잠 30:4).
- (4) 이런 사실은 대홍수 이후 육체에 있는 물을 바람을 사용해 마르게 하신 사건(창 8:1)이나 홍해를 가르실 때 그 물을 큰 동풍을 사용해 마르게 하셨던 사건(출 14:21)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 (5) 어쨌거나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하늘 나라로 올리우게 하신 일에는 '회리 바람'을 사용하셨다.

14. ㉠ 승천하는 엘리야를 보고 엘리사는 무엇이라고 외쳤는가? (12절)

- ㉠ (1)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라고 외쳤다.
- (2) 여기서 '내 아버지' 라고 부른 것은 엘리사가 엘리야를 영원한 스승으로 고백한 표현이고,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 이라고 한 것은 엘리야가 이스라엘을 지키는 강력한 영적 능력의 소유자인 것을 가리키는 표현이다.
- (3) 또한 엘리야 한 사람은 온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을 합친 것 이상의 힘을 갖고 있었다는 뜻이다.
- (4) 결국 엘리사의 이러한 외침은 이스라엘의 안전과 백성들의 신앙을 염려하는 진실한 애통이었다.

15. ㉠ 엘리사가 엘리야의 온을 가지고 물을 치면서 어떤 말을 하였는가? (14절)

- ㉠ (1)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와는 어디 계시나' 고 하였다.
- (2) 즉 이 말은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불신앙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 그와는 반대로 질문 형식을 빌어 더욱 하나님께 신앙과 신뢰를 쏟아 붙겠다는 결심에서 나온 말이다.
- (3) 뿐만 아니라 그의 스승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평강과 뜻을 전적으로 따르는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는 신앙 고백에서 나온 말이다.
- (4) 이러한 그의 자세는 본질의 질문과 더불어 엘리야가 승천하면서 떨어뜨린 그 겹옷을 가지고 요단 강을 헤쳐 건너던 사건에서도 잘 나타난다.
- (5) 왜냐하면 그로 인해 요단 강이 말라지는 이적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이 이적은 한편으로는 엘리사에게 그의 소원이 이루어졌다는 확신을 줌과 동시에 선지자의 생도들과 백성들 앞에서 그를 엘리야의 신이 임명한 후계자로 인정한 사건이었다.
- (6) 이와 같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 지도자를 존경하고 협력하여 주의 뜻을 이루는 것은 옳은 일이다(롬 12:10; 빌 1:27; 딤후 5:17).

16. ㉠ 선지자의 생도들이 용사 오십인을 보내어 승천한 엘리야를 찾고자 했을 때 엘리사의 태도는 어떠했는가? (15-18절)

- ㉠ (1) 처음에 엘리사는 보내지 말라고 하였다. 그러나 선지자의 생도들이 계속 고집하므로 이를 허락했다.
- (2) 이것은 자기의 지위로 타인의 행위를 속박시키지 않는 엘리사의 온유한 태도를 보여준다.
- (3) 그들이 헛수고를 하고 돌아왔을 때, 엘리사는 그들의 잘못을 엄히 꾸짖지는 않고 단지 '내가 가지 말라고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고 부드럽게 일깨워 주었다.
- (4) 이와 같이 지혜로운 자들은 남의 판단이 소용없고 불필요한 줄 알면서도 화평을 위해 타인의 의사를 존중하며 양보를 한다(참조, 고전 8:13).

17. ㉠ 엘리사가 예리고에서 물을 고쳤다는 것은 결국 무엇을 말해주는 것인가? (19-22절)

- ㉠ (1) 예리고의 물은 생명력이 없어 농작물과 사람에게 이익을 주지 못하였다.
- (2) 그러므로 엘리사는 소금을 뿌려 물근원을 고쳐 생명력 있는 좋은 물이 되게 하였다.
- (3) 이 이적은 엘리야가 승천한 후에 엘리사에 의해 백성들 앞에서 이루어진 첫 이적이었다.

- (4) 이것은 백성들로 하여금 엘리사가 엘리야를 이어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었음을 알게 해 준 사건이다.
- (5) 결국 물을 고친 엘리사의 이적은 그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은 선지자로서의 첫 출발을 의미한다.
18. **Q** 엘리사를 조롱하던 42명의 아이들이 암콰 두 마리에 의해 물려 죽은 것은 어떤 의미와 교훈을 주는가? (23, 24절)
- A** (1) 하나님의 선지자를 대머리라고 조롱한 것은 하나님을 경멸하는 태도이다. 이것은 당시에 엘리사가 대머리였는지 아닌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 (2) 그러나 엘리사에 대한 젊은 아이들의 공격은 단순한 모욕을 주는 그런 성격의 것만은 아니었다.
- (3) 그것은 엘리야가 승천했다고 말하는 엘리사의 진실함에 대해서 의심하며 엘리사의 선지자직을 무시하는 행위였다.
- (4) 이와 같은 그들의 태도는 하나님을 반대하는 악한 범죄 행위로 취급되어 그들은 죽임을 당하고 말았다.
- (5) 이와 같이 오늘날 하나님을 대적하고 복음을 배척하는 자들의 결국은 심판으로 인한 파멸에 이른다는 사실을 교훈해 준다(참조, 롬 6:23).

확보자료

불수레를 탄 엘리야. 아래의 사진은 링컨 성당에 있는 스테인드 글라스로서 엘리야가 승천하는 장면을 묘사한 19세기의 작품이다.



엘리야가 승천할 즈음에 엘리사가 그를 좇아 길갈에서 벳엘로 벳엘에서 여리고로, 또 그곳에서 요단 강으로 갔다는 본장의 기록은 엘리사가 선지자 엘리야의 후계자라는 사실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엘리야가 회리 바람을 타고 승천한 뒤 엘리사가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겂옷으로 요단 강을 가르고 건넌 것으로서 확인되었다(13-15절).

제 3 장 이스라엘 왕 여호람과 유다 왕 여호사밧 동맹군의 모압 원정

단락구분 1-3 이스라엘 제 9대 왕 여호람의 통치 / 4, 5 모압 왕 메사의 배반 / 6-8 여호람과 여호사밧의 동맹 / 9-12 갈증으로 인해 동맹군의 왕들이 엘리사를 찾아가다 / 13-20 엘리사가 이스라엘 군대에게 물과 승리를 예언해 주다 / 21-25 이스라엘군이 모압을 이기다 / 26-27 모압 왕의 만행

1 유다 왕 여호사밧의 십 팔 년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십 이 년을 치리하니라

2 저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 하였으니 이는 저가 그 아버지의 만든 바알의 주상을 제하였음이라

3 그러나 저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로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4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양 십 만의 털과 수양 십 만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받치더니

5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6 그 때에 여호람 왕이 사마리아에서 나가서 온 이스라엘을 점고하고

7 또 가서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보내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저가 가로되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일반이요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일반이요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일반이니이다

8 여호람이 가로되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이까 저가 대답하되 에돔 광야 길로니이다

9 이스라엘 왕이 유다 왕과 에돔 왕으로 더불어 행하더니 길을 둘러 행한 지 칠 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생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10 이스라엘 왕이 가로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붙이려 하시느도다

11 여호사밧이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이스라엘 왕의 신복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12 여호사밧이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있도다 이에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과 에돔 왕으로 더불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13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

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이스라엘 왕이 저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붙이려 하시나이다

14 엘리사가 가로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 왕 여호사밧의 낫을 붙이 아니면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15 이제 내게로 거문고 탈 자를 불러 오소서 하니라 거문고 타는 자가 거문고를 탈 때에 여호와께서 엘리사를 감동하시니

16 저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17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육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18 이것은 여호와 보시기에 오히려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붙이시리니

19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과 모든 아름다운 성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밤을 헐리이다 하더니

20 아침에 미처 소제드릴 때에 물이 에돔 편에서부터 흘러와서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21 모압 모든 사람이 왕들이 올라와서 자기를 치려 한다 함을 듣고 갑옷 입을 만한 자로부터 그 이상이 다 모여 그 경계에 섰더라

22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이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취므로 맞은편 물이 붉어 피와 같음을 보고

23 가로되 이는 피라 필연 저 왕들이 싸워서 죽인 것이로다 모압 사람들아 이제 노략하러 가자 하고

24 이스라엘 진에 이르니 이스라엘 사람이 일어나 모압 사람을 쳐서 그 앞에서 도망하게 하고 그 지경에 들어가며 모압 사람을 치고

25 그 성읍을 쳐서 헐고 각기 돌을 던져 모든

좋은 밭에 가득하게 하고 모든 샘을 메우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길하레셋의 들들은 남기고 물땀군이 두루 다니며 치니라
 26 모압 왕이 전세가 극렬하여 당하기 어려움
 을 보고 칼 찬 군사 칠백을 거느리고 충돌하여

지나서 에돔 왕에게로 가고자 하되 능히 못하고 27 이에 자기 위를 이어 왕이 될 말아들을 취하여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통분함이 임하여 저희가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1. **㉠ 본장에 나타난 사건과 그 교훈을 말하라.**

- ㉠** (1) 본장에는 이스라엘 왕 여호람(B.C.852-841)이 바알의 주상을 철거하는 기사와 이스라엘과 유다 동맹군이 모압을 토벌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
 (2) 그런데 이들 동맹군은 모압을 토벌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의 군대를 신뢰하는 과오를 범하여 매우 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었다.
 (3) 그러나 그들은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함으로써 위기를 벗어나게 되었고 아울러 모압을 정벌할 수 있었다.
 (4) 이처럼 본장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시작하는 일의 결국은 곤경과 파멸이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힘을 얻을 수 있음을 보여 준다(참조, 느9:37; 렘6:11).

2. **㉠ 여호람은 여로보암(B.C.931-910)이 저지른 죄를 버리지 못했는데 여로보암은 어떤 죄를 범했는가? (3절)**

- ㉠** (1) 여로보암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1대 왕으로 금송아지 둘을 벨벳과 단에 세우는 죄를 범하였다(왕상 12:29,30).
 (2) 또한 그는 레위 지파 야닌 사람을 마음대로 제사장으로 임명했고(왕상 12:31), 제사의 절기까지 뜯어 고쳤는데(8월 15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기와 부합하지 않는다(참조, 왕상 6:1; 느2:1; 예8:9; 숙7:1).
 (3) 여호람은 이러한 여로보암의 죄 가운데서 송아지 숭배를 계속 고수했는데 이는 자기에게 이득이 되는 것은 무엇이든지 버리지 않겠다는 것을 뜻한다.
 (4) 이와 같이 우상을 만들거나 자기의 유익을 위해 우상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큰 죄악이다(출 20:4,5).

3. **㉠ 모압 왕 메사는 이스라엘 왕국에 얼마만큼의 조공을 바쳤는가? (4절)**

- ㉠** (1) 메사는 양을 치는 자이므로 새끼양 10만의 털과 수양 10만의 털을 이스라엘 왕국에 바쳤다.
 (2) 양치는 자는 히브리어로 <노케트>인데 이는 목자(암 1:1)와 양의 소유자를 의미한다.
 (3) 또한 이것은 상등품의 양과 염소의 소유자를 가리키기도 한다.
 (4) 그러므로 새끼양 10만의 털과 수양 10만의 털을 이스라엘에게 바쳤다는 것은 그가 이스라엘을 위하여 10만 마리의 새끼양과 10만 마리의 수양을 길렀다는 것을 의미한다(참조, 사 16:1).

4. **㉠ 아합이 죽은 후 모압이 이스라엘에 반기를 들었을 때 여호람 왕은 이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5-7절)**

- ㉠** (1) 모압 원정을 위해서 전(全)이스라엘 군대를 소집하였고 그 다음으로 유다 4대 왕 여호사밧(B.C. 872-848)에게 전갈을 보내어 자기와 동행 할 것을 요청했다.
 (2) 이것은 여호람이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한 것보다 병거와 말을 신뢰했음을 보여 준다.
 (3) 그러나 오늘의 성도는 하나님의 도움을 떠나서 이룰 수 있는 일은 아무 것도 없음을 분명히 인식하고 오직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마 7:7,8).

5. **㉠ 여호람의 질문에 여호사밧은 어떤 길로 모압을 치러 가자고 말했는가? (8절)**

- ㉠** (1) 에돔 광야 길로 가자고 말했다. 당시 모압에 이르는 길은 둘이 있었는데 하나는 사해 윗 지방을 통해 요단 강을 지나 모압 북쪽으로 가는 길이었다.

- (2) 또 하나는 사해 남단을 돌아서 에돔 북편을 지나 모압 남쪽에 이르는 길이었다.
- (3) 이중 후자는 보다 먼 길이었고 험하고 위험한 곳이 많이 있었다. 그러나 여호사밧은 이 길을 택하였다.
- (4) 그 이유는 전자의 북쪽 길을 취한다면 길르앗 라못에 있는 아람을 건드릴까 염려해서이며 모압이 남방의 불가침성을 믿어 방어가 허술했기 때문이다.
- (5) 그리고 이 노선을 택하므로 에돔의 합세를 유인해 에돔 왕이 유다를 침공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였다.
- (6) 그러나 그들은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지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였다(잠 6:9).
- (7) 그러므로 성도에게는 자기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성숙한 신앙이 필요하다(잠 3:5, 6; 약 4:13-15).

6. **㉠** 이스라엘 왕국의 여호람 왕은 물이 떨어졌을 때 어떻게 불평했는가? (9, 10 절)

- ㉠** (1) 슬프라, 여호와께서 우리 세 왕(이스라엘, 유다, 에돔 왕)을 불러 모아 모압 군대의 밭이 되게 하셨다고 불평했다.
- (2) 이것은 여호람이 자기를 거스려 싸우는 것은 모압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인식한 것의 의미한다.
- (3) 이처럼 하나님의 손길은 번영사가 아닌 고난 중에 인식되기도 한다. 그것은 하나님을 등한히 여긴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하나님 안에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이다(참조, 시 107:10-15).
- (4) 그럼에도 여호람은 자신의 곤경을 하나님의 뜻으로 돌리고 있다. 이런 자의 마지막은 멸망과 죽음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한다(참조, 민 10:35; 사 1:28).

7. **㉠** 물이 떨어져 절망에 빠져 있는 여호람 왕에게 여호사밧은 뭐라고 말했는가? (11 절)

- ㉠** (1)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기 위해서 여기 여호와와 선지자가 없느냐고 물었다.
- (2) 이것은 여호사밧이 신앙과 소망을 견지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만일 그가 처음부터 여호와께 물었다면 지금 이 곤란 가운데 처해 있지는 않았을 것이다.
- (3)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 전혀 묻지 않는 것보다는 늦게라도 묻는 것이 더 나음을 가르쳐 주고 있다.
- (4) 따라서 하나님을 대적한 죄인일지라도 죄를 깨닫는 즉시 하나님께 통회 자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한다(사 6:5-8; 은 3:5-10).

8. **㉠** 여호와의 말씀을 듣기 위해 엘리사에게 내려간 왕들은 누구인가? (12 절)

- ㉠** (1) 이스라엘 왕 여호람, 유다 왕 여호사밧 그리고 에돔 왕이 친히 엘리사를 찾아 내려갔다.
- (2) 이것은 그들이 직면한 어려움으로 인해 겸손해진 증거이며, 특히 에돔 왕도 유다에 예속 되어 있었으므로(삼하 8:13, 14) 여호사밧과 동행하여 엘리사에게로 갔다.
- (3) 이처럼 사람들은 환난이 오고 죽음이 닥쳐와야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찾고 그들의 도움과 기도를 바란다.
- (4)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들 이전에 먼저 우리의 삶이 주께로 향하기를 원하고 계신다(참조, 마 6:33).

9. **㉠** 엘리사는 자기를 찾아온 여호람 왕에게 누구에게 가라고 말했는가? (13 절)

- ㉠** (1) 당신 부모(아합과 이세벨)의 선지자들에게 가서 도움을 구하라고 하였다.
- (2) 이것은 여호람 왕이 바알 신상들을 치워 버리기는 했지만 아직 그에게 바알 선지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한 말이다.
- (3) 또한 이 말은 여호람 뿐 아니라 그의 부모가 저지른 우상 숭배의 죄악을 지적하는 말로서 세상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대언자인 엘리사의 담대함을 나타내

어 준다

- (4) 이와 같이 하나님의 종들은 세상의 권세를 무서워 말고 잘못을 담대히 책망하여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해야 한다(삼상 15:22, 23; 왕상 18:18; 사 3:13-15).

10. **㉠** 엘리사는 누구를 보아서 여호람의 요청을 들어 주겠다고 했는가? (14절)

- ㉠** (1) 유다 왕 여호사밧의 낫을 보아 들어 주겠다고 하였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의 선한 일을 기억하고 있다는 뜻이다.
 (2) 즉 여호사밧이 길르앗 라못에서 불경건한 아합을 도운 일이나(대하 19:2) 오벨로 가는 배들을 건조하기 위해서 아하시야와 결합하는 일등은 불의한 일이었다(대하 20:36).
 (3) 뿐만 아니라 현재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재가를 전혀 받지 않는 원정에 참여하며 우상 숭배하는 두 군왕과 동맹을 맺고 있는 일은 옳지 못한 일이었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산당과 우상을 제거하고 선지자들과 레위인들을 세워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친 그의 선행(대하 17:3-9)을 기억하고 자비를 베푸셨다.

11. **㉠** 거문고 소리를 들을 때에 엘리사는 하나님으로부터 감동함을 받았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15절)

- ㉠** (1) 거기에 관해서 두 가지 견해가 있다. 첫째는 엘리사가 자신의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둘째는 왕의 마음을 외부 세계의 상념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였다.
 (2) 이처럼 신경과 믿음으로 연주되는 음악은 영혼을 세상적이고 외부적인 것들로부터 잇게하고 영혼을 진정시키며 신적 감응을 잘 받을 수 있도록 해준다.
 (3) 이런 사실은 다윗의 수금 타는 소리를 듣고 사울이 새 힘을 얻으며 그의 영을 진정시켰던 사건에도 잘 나타난다(삼상 16:23).
 (4) 또한 사울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블레셋 성읍으로 들어갈 때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운 선지자의 무리를 만난 이후 여호와와 그의 신이 크게 임하였고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며 변하여 새사람이 되었던 사건에도 잘 나타난다(삼상 10:5).

12. **㉠** 엘리사가 여호와와의 말씀을 받아 여호람에게 지시한 예언은 성취되었는가? (16-25절)

- ㉠** (1) 엘리사가 지시한 예언의 내용은 ①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16절) ② 바람과 비도 없는데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해 너희와 육축과 짐승이 마시리라(17절) ③ 모압을 당신 손에 붙이리라(18, 19절) 등이다.
 (2) 이 첫째, 둘째 예언은 예언이 있는 다음날 아침 소제를 드릴 때에 에돔 쪽에서 물이 흘러나와 이루어졌다(20절).
 (3) 세째 예언은 모압의 공격을 이스라엘군이 반격함으로써 이루어졌다(24, 25절).
 (4) 이처럼 하나님의 예언은 비록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납득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에 의하여 반드시 성취되고야 만다.
 (5)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약속이 꼭 성취되리라는 믿음을 갖고 소망가운데 인내하면서 살아야 한다(약 1:4).

13. **㉠** 아침 소제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여호람 군대에게 물을 주었는데 이것이 주는 상징적 의미는 무엇인가? (20절)

- ㉠** (1) 예루살렘 제단에서 아침 소제를 드릴 그 시기에 맞춰 물이 나온 것은 구원이 성전 예배와 연관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2) 이것은 성전에서 드러지는 제사(예배)로 인해 여호와께서 백성들에게 그의 은총을 베푸신 것이다.
 (3) 왜냐하면 이 예배 속에서 자신의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현현(顯現)을 경험하면서 주께 영광 돌리기 때문이다.
 (4) 따라서 성도의 신앙 생활은 온전히 교회 중심이어야 한다.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 되시

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이다(엡 5:23).

14. **㉠** 모압군이 이스라엘 진으로 쳐들어 가게 된 근본 이유는 무엇인가? (22, 23절)

- ㉠** (1) 모압군들은 아침에 일어나 맞은편 물이 피처럼 붉게 물들어 있음을 보고 이것이 이스라엘 동맹군의 내분으로 인해 흘린 피로 착각하고 쳐들어 갔다.
 (2) 이렇게 물이 피로 물들게 보인 것은 땅에 깔려 있는 사석(沙石)에 의한 것이든지 아니면 아침 햇살이 반사되어 생긴 현상이다.
 (3) 그러나 모압군들은 스스로 속았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인간들로 하여금 스스로 착각하게 하여 함정에 빠지게도 하신다(참조, 예 5:11, 12).
 (4) 그러므로 성도는 일체의 유혹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먼저 분별하도록 해야 한다(롬 12:2).

15. **㉠** 이스라엘 동맹군은 길하레셋을 남겨 놓고 모압 성읍을 초토화시켰는데 이 길하레셋의 전략적 위치는 어떠한가? (24, 25절)

- ㉠** (1) 길하레셋은 당시 모압의 가장 중요한 요새들 중 하나로 '길헤레스'와 같은 고장이며 현재는 '케락'이란 이름으로 불리우고 있다(사 16:7, 11; 렘 48:31, 36).
 (2) 이곳은 모압 남방에 있는 주요 도시로서 모압 최남단의 보루이며 '길하레셋' (사 16:7)이나 '모압길' (사 15:1)은 모두 이 고장을 말한다.
 (3) 이곳은 홍해 방면으로 가는 통로를 장악하는 가장 중요한 관문이었으며 군사상 전략적 요새의 하나였다.

그러므로 중세의 십자군도 이 지역을 손에 넣기 위해 처절한 전투를 반복했었다.

16. **㉠** 모압 왕은 이스라엘 동맹군에 의해 전세(戰勢)가 불리해지자 어떤 행동을 취하였는가? (26, 27절)

- ㉠** (1) 모압 왕은 마지막 궁여지책(窮餘之策)으로서 비교적 방어선이 약하다고 생각되었던 에돔 왕의 진지(陣地)로 돌격해 나갔다.
 (2) 그러나 이 일이 실패하자 자기의 맏아들을 취해 모압 신인 그모스(신 12:31)에게 번제를 드렸다. 이는 그모스 신의 진노를 가라앉혀 도움을 얻고자 했기 때문이다.
 (3) 모압 왕의 이런 수치스런 행위는 사람이 얼마나 가증한가를 보여 주는데 성도는 이런 악에서 떠나야 한다(사 7:15).

17. **㉠** '이스라엘에게 크게 통분(痛憤)함이 임하매' 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27절)

- ㉠** (1) 간략하고 요약된 이 문장은 매우 애매하고 난해한 부분으로 그 의미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2) 첫째로 이 '통분함'은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이라는 견해이다. 즉 모압 왕이 침략군에 대한 최후의 방어 수단으로서 그의 맏아들을 자기들의 우상인 그모스 신에게 바치는 가증스러운 일을 자행한 근본적인 책임이 모압을 포위한 채 공격하고 있는 이스라엘 연합군에게 있다는 것이다.
 (3)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같이 율법에 엄격히 금지된 사람 제물(레 18:21; 20:3)을 야기하게한 이스라엘 연합군에게 진노하셨다는 견해이다.
 (4) 그 결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을 느끼면서 모압을 그들의 속국으로 다시 만들고자 하는 목적을 포기한 채 퇴각하였다는 것이다.
 (5) 둘째로 이 '통분함'이 인간의 통분함이라는 견해이다. 즉 모압 군은 자기들의 왕이 직접 자신의 맏아들을 제물로 삼는 모습을 보고 적군에 대해서 극도로 중요하고 미워하게 되며 분노했다는 것이었다.
 (6) 그로 인해 이스라엘 연합군은 그들의 결사적인 모습을 보고 그만 공포에 질려서 포위를 풀고 돌아갔다.

제 4 장 엘리사가 행한 5 가지 기적들

단락구분 1-7 엘리사가 기름으로 과부를 구제하다 / 8-10 엘리사를 대접하는 수넵 여인 / 11-17 수넵 여인에게 아들을 갖도록 축복해 주다 / 18-20 수넵 여인 아들의 죽음 / 21-27 엘리사를 찾아가는 수넵 여인 / 28-31 엘리사가 수넵 여인 집으로 가다 / 32-37 수넵 여인의 아들을 소생시키다 / 38-41 국에 있는 독을 없애다 / 42-44 엘리사가 떡 20개로 100명을 먹이다

1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채주가 이르러 나의 두 아이를 취하여 그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2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네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고하라 저가 가로되 제집종의 집에 한 병 기름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3 가로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라 빈 그릇을 빌되 조금 빌지 말고

4 너는 네 두 아들과 함께 들어 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5 여인이 물러가서 그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저희는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 오고 그는 부었더니

6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들이 가로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7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가서 고한대 저가 가로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네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8 하루는 엘리사가 수넵에 이르렀더니 거기 한 귀한 여인이 저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한 고로 엘리사가 그 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9 여인이 그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에게로 지나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10 우리가 저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짓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진설하시이다 저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 유하시이다 하였더라

11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서 누웠더니

12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넵 여인을 불러오라 곧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13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저에

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생각이 주밀하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왕에게나 군대 장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여인이 가로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하나이다 하니라

14 엘리사가 가로되 그러면 저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꼬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15 가로되 다시 부르라 부르매 여인이 문에서 서니라

16 엘리사가 가로되 뉘이 되면 네가 아들을 안으리라 여인이 가로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제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17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뉘이 돌아 오매 엘리사의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18 그 아이가 저이기 자라매 하루는 곡식 베는 자에게 나가서 그 아버지에게 이르렀더니

19 그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아 내 머리아 하는지라 그 아버지가 사환에게 명하여 그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 하매

20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 무릎에 앉았다가 죽은지라

21 그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서

22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컨대 한 사환과 한 나귀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23 그 남편이 가로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어늘 그대가 오늘날 어찌하여 저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여인이 가로되 평안이니이다

24 이에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몰아 앞으로 나아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의 달려가기를 천천하게 하지 말라 하고

25 드디어 갈매 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저를 보고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저기 수넵 여인이 있도다

26 너는 달려가서 저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

안하나 네 남편이 평안하나 아이가 평안하나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27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안은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저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가로되 가만 두라 그 중심에 괴로움이 있다마는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28 여인이 가로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29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네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30 아이의 어머니가 가로되 여호와와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좇아 가니라

31 게하시가 저희의 앞서 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는 모양도 없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가로되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32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놓혔는지라

33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34 아이의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 입에, 자기 눈을 그 눈에, 자기 손을 그 손에 대고 그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35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일곱 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36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서 저 수넵 여인을 불러 오라 하니 곧 부르매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가로되 네 아들을 취하라

37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38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생도가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술을 걸고 선지자의 생도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39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서 야들덩굴을 만나 그것에서 들 외를 따서 옷자락에 채워가지고 돌아와서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되 저희는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40 이에 떠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외쳐 가로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술에 사망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41 엘리사가 가로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술에 던지고 가로되 떠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솥 가운데 해독이 없어지니라

42 한 사람이 바알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익은 식물 곧 보리떡 이삭과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저가 가로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43 그 사환이 가로되 어쩔이니이까 이것을 일백 명에게 배플것나이가 하나 엘리사는 또 가로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와 말씀이 무리가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44 저가 드디어 무리 앞에 배플었더니 여호와와 말씀과 같이 다 먹고 남았더라

1. ㉠ 본장에 나타난 기적과 그 의미를 말하라.

- ㉠ (1) 본장에는 엘리사가 행한 5가지 기적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모두 자비에 관한 기적들이다.
- (2) 이 기적 중에서 특히 수넵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리는 사건이 크게 부각되고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엘리사의 능력을 입증하려는 것이 아니다.
- (3) 그것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진리를 보여 주기 위한 것이다. 즉 사람이 부활하리라는 미래의 약속을 믿게 하기 위해 지금 그 약속의 일부분을 성취시킴으로써 부활에 대한 확신을 주었다.
- (4) 따라서 성도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한 신앙으로 소망과 기쁨을 갖고 살아야 한다(롬 12:12; 살전 5:16).

2. ㉠ 선지자 생도의 한 아내가 엘리사에게 와서 무엇을 호소하였는가? (1절)

- ㉠ (1) 남편이 죽은 후 빛을 갖지 못하였기 때문에 자기의 두 아들을 채주(채권자)가 종으로 삼으려 한다고 하소연했다.
- (2) 이러한 것은 히브리 사회에서 합법적인 일이었는데(출 21:7; 레 25:39; 느 5:5; 사 51:1; 렘 34:8-11) 일정한 기간내 채무자가 빛을 갖지 못하면 자기의 자녀와 함께 종살이를

하였다.

- (3) 그러나 비록 빗을 못값아 종이 되었을지라도 엄격히 부러서는 안되었다(레 25:43, 46).
- (4) 그러므로 채무자들의 짐을 덜기 위해 안식년(매7년마다 돌아옴) 끝에 채무가 면제되었고(신 15:1-6), 희년(매50년마다 돌아옴)에는 저당 잡힌 채무자의 재산이 본인에게 되돌아 왔다(레 28:28).
- (5) 이것은 아무리 보잘것없는 사람일지라도 인권을 유린해서는 안 된다는 생명 존중의 사상을 오늘의 성도들에게 보여 주고 있다(출 22:22; 신 5:17).

3. **㉠ 집에 무엇이 있느냐는 엘리사의 물음에 생도의 아내는 어떻게 대답했는가? (2절)**

- ㉠** (1) 기름 한 병 외에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대답했다.
- (2) 이 기름은 히브리인에게 있어서 식용(11:8), 조명용(출 27:20), 약용(사 1:6), 화장용(룻 3:3), 접대용(눅 7:46) 등의 생활 필수품으로 사용되었다.
- (3) 또한 종교용으로도 사용되어 왕이나(삼상 10:1), 제사장(레 8:30), 선지자(사 61:1) 등을 세울 때 기름을 부었고 성소에서 소제, 번제를 드릴 때도 사용되었다(레 2:4-6).
- (4) 이처럼 기름은 그들에게 중요한 생활 품목이었는데 선지자 생도의 아내는 기름 한 병만을 갖고 있었으므로 빈궁한 생활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 주고 있다.
- (5) 그러나 이렇게 적은 기름도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사용되어질 때 큰 일을 행하게 된다(5-7절).

4. **㉠ 엘리사는 선지자 생도의 아내에게 기름 한 병을 어떻게 처리하라고 했는가? (3, 4절)**

- ㉠** (1) 이웃에게 그릇을 많이 빌려다가 집에서 문을 닫고 두 아들과 함께 그릇에 기름을 가득 부으라고 말했다.
- (2) 물론 이 '기름'은 그녀가 가진 마지막 재산이었다. 또한 '조금 빌지 말라'는 엘리사의 말은 여인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위대함을 나타내 보여 주기 위한 명령이었다.
- (3) 또한 '문을 닫고' 하란 것은 다른이들에게 방해받지 않고 은밀히 수행하기 위해서이다.
- (4) 이처럼 엘리사는 모든 일에 먼저 신앙으로 순종할 것을 여인에게 가르치고 있다.
- (5) 따라서 오늘의 성도는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어리석어 보일지라도 먼저 신앙으로 순종하는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한다(창 12:1-5; 22:9-12).

5. **㉠ 그릇이 없었을 때도 기름은 계속 공급되었는가? (5, 6절)**

- ㉠** (1) 아니다. 그 여인에게서 빌려온 그릇들이 가득차서 더 이상 받을 그릇이 없을 때까지 기름은 계속 공급되었다.
- (2) 이 사실은 첫째, 기름의 양이 그녀의 믿음의 양, 즉 준비한 그릇의 수에 정비례 하였으며 둘째, 그릇은 여인이 준비한 것이고 기름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베푸시는 데 있어서 때때로 인간의 노력과 능력도 사용하심을 보여 준다(창 1:2; 수 6:20; 사 6:36-40; 대하 7:1).
- (3) 따라서 우리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항상 믿음을 준비하여야 한다(마 25:1-13).

6. **㉠ 수넵 여인은 엘리사를 극진히 대접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8-10절)**

- ㉠** (1) 수넵 여인은 엘리사가 진실로 헌신하는 여호와의 종임을 알았기 때문이다.
- (2) 그래서 그녀는 엘리사를 위해 작은 방을 담 위에 지었다. 여기서 작은 방에 해당되는 히브리어(아리아트키르)는 담 위에 벽돌로 지은 이층 방을 가리킨다.
- (3) 아마도 이 방에서 엘리사는 방해를 받지 않고 안경 명상, 기도 등을 하였을 것이다.
- (4) 이런 수넵 여인의 태도는 참된 신앙과 헌신에서 나온 친절과 사려였다.
- (5) 이와 같이 오늘날의 성도는 손대접을 극진히 하되 억지로가 아니라 주를 사모하는 심정으로 해야 한다(롬 12:13; 히 13:2).

7. **㉠ 엘리사는 수넵 여인과 말할 때 직접 만나서 얘기 했는가? (12, 13절)**

- (1) 엘리사는 자기의 사환 게하시를 동반하고 수벡 여인과 이야기를 했다.
- (2) 이것은 엘리사 자신의 권위와 위엄을 나타내려는 것이 아니다. 또한 율법의 선생된 자로서 여인과 직접 얘기하는 것이 합당치 못했기 때문도 아니었다.
- (3) 그것은 단지 건덕(建德) 상의 모본을 보이기 위해서였는데, 오늘의 성도도 이러한 자세가 요청된다(참조, 고전 6:12-20).

8. **㉠ 수벡 여인이 엘리사의 도움을 거절하면서 말한 '내 백성 중에 거한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13절)**

- ㉠** (1) 이것은 나는 내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라는 말이 아니라 나는 내 동족들 가운데서 평안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뜻이다.
- (2) 즉 왕과 같은 권력자의 도움을 필요로 할 만한 불평도 분쟁도 없다는 뜻이다.
- (3) 또한 그것은 그러한 행위를 통하여 자기의 순수한 봉사를 그릇되게 만들고 싶지 않다는 여인의 순수한 마음의 표현이기도 하다.
- (4) 이와 같이 성도에게는 대가를 바라지 않는 순수한 봉사와 정결한 마음이 요구된다(참조, 벰전 4:10).

9. **㉠ 아들이 없는 수벡 여인에게 엘리사는 어떻게 축복했는가? (14-16절)**

- ㉠** (1) 돌이 되면 아들을 낳아 안을 것이라고 하였다. 왜냐하면 자식이 없는 것은 모든 히브리 여인에게 있어서 모욕과 수치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삼상 1:6, 7).
- (2) 그러나 그 여인은 엘리사가 농담으로 자기를 속이는 줄 알았다. 그러므로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라고 했다.
- (3) 그러나 이것은 기쁨을 표현하는 의미도 내포한다. 왜냐하면 그녀가 엘리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받았었으며(8-10절) 엘리사가 농담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10. **㉠ 수벡 여인의 아들은 어떻게 죽었는가? (17-22절)**

- ㉠** (1) 수벡 여인이 노년에 얻은 귀한 아들은 청년이 되었을 때 갑자기 죽어버렸다.
- (2) 그 아들이 죽기 직전에 '내 머리야 내 머리야' 라고 아픔을 호소했던 점으로 미루어 보아 그의 사인은 일사병이었을 것이다.
- (3) 어쨌든 천금보다도 귀하게 여겼던 외아들이 그것도 유아 시절이 아닌 청년 시절에 죽었다는 사실은 수벡 여인에게 말할 수 없는 큰 신앙의 시련이었다.
- (4)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은 그 시련을 믿음으로 극복하였다. 이것은 성도들에게 신앙의 시련을 어떻게 이겨내야 할 것인가를 보여 준다(빌 3:10; 약 1:2-4).

11. **㉠ 수벡 여인은 죽은 아들을 어떻게 했는가? (21절)**

- ㉠** (1)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 곧 엘리사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았다.
- (2) 아마도 그녀는 전에 엘리사가 죽은 아이를 자신의 침상에 눕혀서 소생시켰던 사실을(왕상 17:19) 기억했을 것이다. 그래서 자신의 아들도 엘리사에 의해 소생되리라는 막연한 생각을 품었을 것이다.
- (3) 한편 '문을 닫은 것'은 아들의 죽음을 감추고자 원했기 때문에 나온 행동이었다.

12. **㉠ 수벡 여인이 자기 남편에게 말한 '평안이니이다'는 무슨 뜻인가? (23절)**

- ㉠** (1) 여인은 초하루도, 안식일도 아닌데 선지자를 찾아가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는 남편의 말에 '걱정없습니다', '잘 될 것입니다' 라는 뜻으로 한 말이다.
- (2) 또한 이 말은 죽은 아들이 다시 살아날 것을 믿는 수벡 여인의 신앙을 보여 주는 것이기도 하다.
- (3) 결국 이러한 수벡 여인의 신앙은 그대로 이루어져 그녀는 죽은 아들이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다(37절).
- (4) 이와 같이 부활의 주님을 믿고 나아가는 성도들에게는 그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축복이

임한다(참조, 마 8:13;15:28).

13. **㉠** 수벘 여인이 갈멜 산에서 엘리사의 발을 안은 이유는 무엇인가? (25, 27절)

- ㉠** (1) 발을 안음은 엘리사에게 도움을 청하는 간절한 표시였다. 여기서 '도움'이란 죽은 이들의 소생에 대한 부탁을 의미한다.
- (2) 이처럼 발을 껴안는 것은 간청의 힘을 더하기 위한 방법으로 동양에서 흔한 일이다.
- (3) 예수님 당시 가나안 여자도 이런 간절성을 가지고 기도해 응답을 받았다(마 15:21-28).
- (4) 이처럼 우리는 문제 해결을 위해 간절히 구하고 매달리는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참조, 마 7:7).

14. **㉠** 엘리사는 죽은 수벘 여인의 아들에게 게하시를 보내면서 가서 어떻게 하라고 명령했는가? (29절)

- ㉠** (1) 허리를 묶고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면서 사람을 만나도 인사하지 말고 지팡이를 아이의 얼굴에 놓으라고 하였다.
- (2) 여기 '사람을 만나도 인사하지 말라'는 것은 급한 길에 시간의 허비를 막기 위함이라기보다는 선지자로부터 받은 능력을 발산시킬 위험을 막기 위함이다.
- (3) 또한 긴급한 사명을 맡은 자로 하여금 정신적 긴장이 풀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도 한다.
- (4)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분부하신 말씀 중에도 이와 유사한 것이 보이는데(눅 10:4) 사명자는 그 심부름을 감당키 위해 자신의 정욕을 끊고 주의 일에만 힘을 쏟아야 한다(참조, 딤후 4:7).

15. **㉠** 게하시가 죽은 아이에게 지팡이를 올려 놓았을 때 아이가 살아났는가? (31절)

- ㉠** (1) 살아나지 못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도록 한 엘리사의 지시는 아이를 다시 살리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잠시 후에 행할 자신의 이적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 (2) 즉 엘리사는 곧 게하시기를 뒤따라와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죽은 아이를 다시 살리게 되었는데 이는 결국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살리셨음을 의미한다.
- (3) 이와 같이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하나님께만 나아가 그의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요 11:20-27).

16. **㉠** 엘리사가 어떻게 했을 때 죽은 수벘 여인의 아들이 살아났는가? (32-35절)

- ㉠** (1) 엘리사가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자기의 입, 눈, 손을 아이 몸 위에 포개어 얹드렸을 때 아이의 몸이 따뜻해졌다.
- (2) 그리고 내려서 집안을 한 번 걷고 다시 아이 위에 얹드렸을 때 아이는 일곱 번 재채기 하고 눈을 떴다.
- (3) 엘리사가 자기의 입, 눈, 손을 아이와 포개어 댄 것은 자신의 몸을 그 아이의 몸과 일치시키려는 뜨거운 사랑의 표현이다.
- (4)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는 자기의 몸 전체를 그 아이에게 내어 주어 그를 살리고 자가 죽겠다는 대속(代贖)의 상징적 의미도 내포되어 있다.
- (5) 우리 주님께서도 이러한 사랑으로 자신을 십자가에 내맡기시고 허물과 죄로 죽였던 우리를 살리셨던 것이다(참조, 엡 2:1, 4).

17. **㉠** 엘리사는 길갈에서 독이 든 국을 어떻게 했는가? (38-41절)

- ㉠** (1) 술에 생명을 앗아가는 죽음의 독이 있다는 외침을 듣고 엘리사는 그것을 제지하기 위해 가루를 넣어 죽음의 독을 제거하였다.
- (2) 이 이적은 흉년으로 인해 굶주린 선지자의 생도들을 돌본 엘리사의 사랑이었다.
- (3) 이와 같이 성도는 불우한 이웃과 상처당한 심령을 사랑의 마음을 갖고 도와야 한다(눅 10:30-37).

18. **Q** 엘리사를 통해 적은 식물(食物)이 풍성하게 붙어난 기적으로부터 윤리적인 교훈을 찾아 보라(42-44절).

- A** (1) 바알살리사에서부터 온 사람은 대단한 이타심(利他心)을 가진 사람이었다. 당시 7년간의 계속되는 흉년 가운데서(8:1) 보리떡 20개와 채소를 남에게 바친다는 것은 보통 정성이 아니다.
- (2) 이러한 이타주의적 마음을 기뻐하신 하나님께서는 엘리사의 능력을 통해 이 식물을 풍성하게 불려서 100명을 먹이고도 남게끔 하는 기적을 행하셨다.
- (3) 예수님 당시에 어린 소년이 바친 오병 이어(五餅二魚)를 통해서도 오천 명을 먹이고도 12광주를 남기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났다(마 14:17).
- (4)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바라기 전에 먼저 이기주의를 버리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태도를 지녀야만 한다는 교훈을 얻게 된다.

화보자료

기름을 담는 항아리. 아래의 사진은 중동 지방에서 기름을 담아 두는 항아리로서 병이라고 표현하기에는 너무 큰 듯하다.



본장에서 과부가 갖고 있던 기름 병은 둥근 원형의 항아리를 가리킨다(2절). 엘리사가 생도의 아내에게 이웃에게 가능한 한 많은 그릇을 빌려오라고 한 것은 그녀에게 엘리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큰 믿음을 갖도록 촉구하는 행위였다(3절).

제 5 장 아람 사람 나아만의 문둥병 치유와 게하시의 범죄

단락구분 1 문둥병자 나아만의 딱한 처지 / 2-3 포로로 잡혀온 하녀가 나아만에게 선지자를 소개하다 / 4-7 문둥병을 고침받기 위해 아람 왕의 진서를 전달하는 나아만 / 8 엘리사가 나아만을 초청하다 / 9-14 엘리사의 명을 순종함으로 나아만의 병이 완쾌되다 / 15-19 엘리사에게 사례를 표하는 나아만 / 20-24 거짓말로 재물을 얻은 게하시 / 25-27 게하시가 거짓말로 인해 문둥병에 걸리다

1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저는 큰 용사나 문둥병자더라

2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작은 계집아이 하나를 사로잡으며 저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3 그 주모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제신 선지자 앞에 제쳤으면 좋겠나이다 저가 그 문둥병을 고치리이다

4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 주인에게 고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계집아이의 말이 이리러 하더이다

5 아람 왕이 가로되 잘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십 달란트와 금 육천 개와 의복 열 벌을 가지고 가서

6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렸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 문둥병을 고쳐 주소서 하였더라

7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내가 어찌 하나님이란대 능히 사람을 죽이며 살릴 수 있으랴 저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 보내어 그 문둥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로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8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어 가로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저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9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10 엘리사가 사자를 저에게 보내어 가로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일곱번 씻으라 네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11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

에는 저가 내게로 나아와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와 이름을 부르고 당처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침가 하였도다

12 다메섹 강 아마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나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라 하고 몸을 들이켜 분한 모양으로 떠나니

13 그 종들이 나아와서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 일을 행하라 하였던 행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14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일곱 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의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15 나아만이 모든 종자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도로 와서 그 앞에 서서 가로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컨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16 가로되 나의 섬기는 여호와와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받지 아니하리라 나아만이 받으라 강권하되 저가 고사한지라

17 나아만이 가로되 그러면 청컨대 노새 두 마리에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든지 다른 제든지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18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사유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립몬의 당에 들어가 거기서 숭배하며 내 손을 의지하시매 내가 립몬의 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립몬의 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사유하시기를 원하나이다

19 엘리사가 가로되 너는 평안히 가라 저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진행하니라

20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

게 면하여 주고 그 가지고 온 것을 그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와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저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취하리라 하고

21 나아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아만이 자기 뒤에 달려움을 보고 수레에 내려서 맞아 가로되 평안이나

22 저가 가로되 평안이니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 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생도 중에 두 소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 왔으니 청컨대 당신은 저희에게 은 한 달란트와 옷 두 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23 나아만이 가로되 바라건대 두 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저를 억제하여 은 두 달란트를 두 전대에 넣어 매고 옷 두 벌을 아울러 두 사환에게 지우매 저희가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24 언덕에 이르러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두 사환의 손에서 취하여 집에 감추고 저희를 보내어 가게 한 후

25 들어가서 그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네가 어디서 오느냐 대답하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26 엘리사가 이르되 그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을 때에 내 심령이 감각되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갑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나

27 그러므로 나아만의 문둥병이 네게 들어 네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문둥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1. ㉠ 본장에 나타난 두 사건이 주는 교훈을 말하라.

- ㉠ (1) 본장에는 아람 사람인 나아만의 문둥병 치유와 엘리사의 종인 게하시가 문둥병에 걸리게 된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
- (2) 이 두 사건은 특별한 연관 관계를 맺고 있는데 게하시의 발병은 나아만의 문둥병 치유의 결과로서 이루어졌다.
- (3) 그러므로 본장은 탐심이 가져온 비극을 말해 주는데 오늘날의 성도들도 먼저 말씀 앞에 철저히 순종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아야 한다(고전 10:31).

2. ㉠ 여호와께서 전에 나아만을 들어서 아람을 구원한 적이 있는데 이것이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1절)

- ㉠ (1) 아람 군대 장관 나아만이 여호저의 은혜로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당시로서는 참으로 놀라운 폭과 깊이를 가진다.
- (2) 이것은 여호와가 이스라엘에 국한된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역사를 거주하시는 분이라는 신앙을 증거한 것이다(참조, 행 17:24, 25).
- (3) 이런 의미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국가와 민족을 초월한 온 세상의 대주재(大主宰)가 되시는 것이다(참조, 행 17:24, 25).
- (4) 따라서 성도는 온 인류가 한 형제 자매임을 깨닫고 그리스도와 한 지체로서 화해의 복음을 땅 끝까지 증거해야 한다(행 1:8; 10:36; 고전 6:15).

3. ㉠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서 나아만에게 선지자를 소개했는가? (2, 3절)

- ㉠ (1) 하나님은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땅에서 포로로 잡은 '계집아이'를 통해서 소개하였다.
- (2) 즉 아이는 나아만의 아내에게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 엘리사를 소개했으니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약한 소녀를 통해 자신의 이름을 이방 아람 땅까지 증거하셨던 것이다.
- (3)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종종 지극히 비천한 자를 들어서 사용하시며(고전 1:28)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도 하신다.

4. ㉠ 나아만은 아람 왕의 천서 외에 무엇을 더 갖고 이스라엘 왕에게 갔는가? (5절)

- ㉠ (1) 나아만은 은 십 달란트와 금 육천 개와 의복 열 벌을 가지고 이스라엘 왕에게 갔다.
- (2) 여기서 은 십 달란트는 30,000세겔 또는 약 342kg에 해당한다(1달란트는 3,000세겔, 무게로는 34,27kg). 또 금 육천 개는 약 68.4kg에 해당한다.
- (3) 이처럼 나아만이 가지고 간 선물은 상당한 것이었다. 그러나 진정한 도우심은 왕에게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시 3:8; 68:20).

5. **㉠** 나아만의 문둥병을 고쳐 달라는 아람 왕의 천서를 읽고 이스라엘 왕은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6, 7절)

- ㉠** (1) 아람 왕의 천서를 읽고 이스라엘 왕은 옷을 찢으면서 이는 싸움을 걸려고 트집을 잡는 것이라고 하였다.
 (2) 히브리인들은 슬픔과 비탄을 나타내거나 (창 37:29; 44:13; 삼하 3:31; 대하 34:27; 욥 2:13) 의분과 열심을 나타내 보일 때 옷을 찢는다.
 (3) 이것으로 보아 당시 이스라엘은 아람의 위압에 눌려 있었다는 사실을 느낄 수 있는데 이스라엘 왕은 아람 왕이 이스라엘 정복의 구실을 만들기 위해 나아만을 보냈다고 생각하여 몹시 걱정하였다.
 (4) 그러나 사람의 걱정은 문제가 더 악화될 뿐이다. 그러므로 성도는 오직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근심을 떨쳐 버려야 한다 (벧전 5:7).

6. **㉠** 나아만이 엘리사 집에 왔을 때 엘리사는 어떻게 말했는가? (9, 10절)

- ㉠** (1) 엘리사는 사자를 나아만에게 내보내어 살이 깨끗해지려면 요단 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고 하였다.
 (2) 이 '요단 강'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강이다. 또한 '목욕하는 것'은 문둥병자에 대한 정결 예법 (레 14:8, 9) 이었다. 7은 거룩한 수자로 하나님의 완전성을 나타낸다.
 (3) 따라서 나아만의 문둥병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침받을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7. **㉠**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노한 이유는 무엇인가? (11, 12절)

- ㉠** (1) 엘리사가 친히 나와서 자기를 맞이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당처' 즉 상처 난 곳을 손으로 만져 병을 치료해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2) 또한 요단 강에 가서 몸을 일곱 번 씻으라는 것은 자신을 무시하는 처사이기 때문에 노하였다.
 (3) 따라서 나아만은 자기의 병을 낮게 하려면 요단 강같이 적고 더러운 물보다는 맑고 큰 다메섹 강들이 더 효력을 나타낼 것이라고 생각했다.
 (4) 그는 치유의 효력이 다메섹의 신들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알지 못했다.
 (5) 따라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낮기를 기대한다면 하나님의 뜻에 순복해야 하며 그 이유를 묻지 말아야 한다 (신 30:8; 히 11:8).

8. **㉠** 나아만의 종들은 나아만을 어떻게 권면하여 치료시켰는가? (13, 14절)

- ㉠** (1) 나아만의 종들은 나아만이 엘리사의 말에 순종하도록 강권하였다.
 (2)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태도는 주인을 모독하지 않고 지극히 공손하였다. 이런 태도는 그들이 나아만을 '내 아버지여'라고 부른 데서 잘 나타난다.
 (3) 왜냐하면 '내 아버지여'라는 호칭은 경의를 표하며 순진한 충성심에서 우러나온 친분 두터운 표현이기 때문이다 (6:21; 삼상 24:12).
 (4) 이와 같이 오늘날 성도들도 남을 책망하거나 칭고할 때는 그 말이 참된 존경에서 우러나온 것이어야 하며 그 목적 또한 비난하기 보다는 말씀에 비추어 틀린 부분을 바로 잡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참조, 삼하 12:1-15).

9. **㉠** 병을 고침받은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감사의 예물을 드렸을 때 엘리사는 어떻게 했는가? (15, 16절)

- ㉠** (1) 엘리사는 나아만의 강권에도 불구하고 이 예물을 강하게 거절했다.
 (2) 그 이유는 나아만을 낮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며 그런 까닭에 오직 영광을 받으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기 위함이었다.
 (3) 오늘날의 성도 역시 선지자는 단지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한 것이며 감사와 예물이 드러져야 할 대상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이심을 알아야 한다 (참조, 대상 16:34; 고전 1:4; 살

후 1:3).

10. **㉠** 나아만은 하나님을 섬기겠다면서 노새 두 마리에 실을 흙을 달라고 하였다. 이것이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17절)

- ㉠** (1) 나아만은 이스라엘 땅 외에는 신이 없는 줄로 알았다(15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땅 밖에서는 여호와께 예배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2) 그래서 그는 여호와를 섬기는 데 사용될 흙을 이스라엘 땅에서 취하여 본국으로 가져가길 원했던 것이다.
 (3) 이것은 무소부재(無所不在)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한 데에서 기인한다. 하나님은 아람에도 이스라엘도 그리고 어디에나 다 계신다(시 139:7-10).

11. **㉠** 나아만이 립론 승배를 허용해 달라고 요청한 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18절)

- ㉠** (1) 이 사실은 비록 나아만이 여호와를 참 하나님으로 고백했을지라도 그의 회개가 철저하지 못했음을 보여 준다.
 (2) 우리는 하나님 신앙과 우상 승배를 결코 병행할 수 없음을 기억해야 한다.
 (3) 즉 한 사람이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길 수는 없으며(마 6:24; 눅 16:13), 한 화살로 두 과녁을 동시에 맞출 수는 없는 것이다.
 (4) 결국 나아만은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과감한 결단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었던 것이다.

12. **㉠**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의 범죄에 대해 말하라 (20-25절)

- ㉠** (1) 게하시는 하나님과 자기 주인의 이름을 도용(盜用)하여 나아만에게서 은 두 달란트와 옷 두 벌을 예물로 받아 자기 집에 감추어 두는 파렴치한 죄를 지었다.
 (2) 그는 위대한 선지자의 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인 나아만의 종들보다 더 좋지 않은 행동을 저지르고 말았던 것이다.
 (3) 나아만의 종들은 자기 주인의 잘못된 생각을 고쳐 주며 엘리사의 말을 듣도록 충고하였던 적이 있다(13절).
 (4) 그러나 게하시는 오히려 자기의 탐욕에 이끌리어 선생의 이름을 팔고 거짓말을 하여서 불의한 재물을 착복하였다.
 (5) 결국 계시하는 이 범죄로 말미암아 나아만의 문둥병을 옮겨 받는 징벌을 받게 되었다.
 (6)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제자 가운데도 가룟 유다와 같은 자가 있었음을 생각하면서 더욱 경성(警醒)하여 실족(失足)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다.

13. **㉠**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말한 '내 심령이 감각되지 아니하였느냐' 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26절)

- ㉠** (1) 이 말은 엘리사 자신의 육(肉)은 떨어져 있었지만 영(靈)만큼은 게하시와 함께 있어서 그의 잘못된 행동을 전부 파악하였다는 뜻이다.
 (2) 따라서 이 말씀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과 선지자를 속일 수 없고 특히 자기의 죄를 은폐할 수 없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속이는 혀는 잠시뿐이기 때문이다(잠 12:19).
 (3) 이와 같이 아무도 모르리라 생각하고 죄를 짓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이는 하나님께서 숨은 죄를 들추어 빛 가운데로 드러내시기 때문이다(참조, 마 5:14; 시 139:1-4).

14. **㉠** 엘리사는 게하시를 어떤 말로 책망하였는가? (26절)

- ㉠** (1)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우양이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라고 하였다.
 (2) 이것은 나아만으로부터 얻은 돈으로 감람원, 포도원, 우양 등을 사려했던 게하시의 생각을 엘리사가 간파한 것을 말해 준다.

- (3) 이러한 표현을 보면 게하시는 착복한 재물을 팔아 어떤 용도로 사용할 것인가에 이르기까지 주도 면밀하게 계획을 세웠던 것 같다.
- (4) 성도는 게하시처럼 물질에 대한 탐심을 갖지 않아야 한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고 만다(약 1:15).

15. **㉠** 엘리사는 범죄한 게하시에게 어떤 저주를 하였는가? (27절)

- ㉠** (1) 나아만의 문둥병이 너와 네 자손에게 옮겨 영원히 앓게 되리라고 하였다.
- (2) 이 형벌은 즉시 이루어져 게하시는 문둥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다.
- (3)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나아만에게서 떨어진 문둥병이 탐심과 이기심으로 하나님을 떠난 게하시에게 건넌 것은 결코 지나친 벌이 아니었다.
- (4) 오늘날도 자신의 탐욕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엄한 징계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화보자료

몸을 씻는 문둥병자. 아래의 사진은 15세기의 사본 「인간 구원의 거울」에 나오는 문둥병자의 정결 의식에 관한 삽화인데 상티이 콩테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다.



나아만의 문둥병은 요단 강에 일곱 번 몸을 담그자 깨끗하게 되었다(14절). 여기에서 일곱 번이라는 수자는 하나님의 완전성을 상징하므로 그의 치료는 하나님의 능력에 의한 것임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만은 고국 아람의 우상인 림몬에게 감사하겠다고 말한다(18절).

제 6 장 엘리사의 기적과 사마리아의 참상(慘狀)

단락구분 1-7 엘리사가 도끼를 물 위에 떠올리다 / 8-13 아람 왕의 비밀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다 / 14-17 엘리사가 자기 사환의 눈을 열다 / 18-23 장님이 된 아람 군대 / 24-29 포위된 사마리아에 기근이 들다 / 30-31 여호람이 기근의 책임을 엘리사에게 돌리다 / 32-33 엘리사가 자객들이 오는 것을 미리 말하다

1 선지자의 생도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한 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2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재목을 취하여 그곳에 우리의 거할 처소를 세우사 이다 엘리사가 가로되 가라

3 그 하나가 가로되 청컨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엘리사가 가로되 내가 가리라 하고

4 드디어 저회와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5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가로되 아아, 내 주여 이는 빌어온 것이니이다

6 하나님의 사람이 가로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느니라 엘리사가 나무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서 도끼로 떠오르게 하고

7 가로되 너는 취하라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취하니라

8 때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로 더불어 싸우며 그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9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10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자기에게 고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어 방비하기가 한 두 번이 아닌지라

11 이르러서 아람 왕의 마음이 번뇌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의 내용이 된 것을 내게 고하지 아니하느냐

12 그 신복 중에 하나가 가로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이라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나이다

13 왕이 가로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보내어 잡으리라 혹이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엘리사가 요단에 있나이다

14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저회가 밤에 가서 그 성을 에워쌌더라

15 하나님의 사람의 수종드는 자가 일찌기 일어나서 나가 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을 에워쌌는지라 그 사환이 엘리사에게 고하되 아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16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저와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17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시매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러쌌더라

18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원컨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19 엘리사가 저회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야니요 이는 그 성도 아니니 나를 따라 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의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저회를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20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에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저회의 눈을 여시매 저회가 보니 자기가 사마리아 가운데 있더라

21 이스라엘 왕이 저회를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내가 치리이까

22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 주인에게로 돌려 보내소서

23 왕이 위하여 식물을 많이 베풀고 저회가 먹고 마시매 놓아 보내니 저회가 그 주인에게로 돌아 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대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 오지 못하니라

24 이 후에 아람 왕 벤하닷이 그 온 군사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25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주려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팔십 세겔이요 합분태 사분 일 갑에 은 다섯 세겔이라

26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통과 할 때에 한 여인이 외쳐 가로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27 왕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를 돌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 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28 또 가로되 무슨 일이나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네 아들을 내라 우리가 오늘날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29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이르되 네 아들을 내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저가 그 아들을 숨겼나이다

30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저가 성 위로 지나갈 때에 백성이 본즉 그 속살에 붉은 베를 입었더라

31 왕이 가로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날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라도 하니라

32 그 때에 엘리사가 그 집에 앉았고 장로들이 저와 함께 앉았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내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자식이 내 머리를 취하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 주인의 발소리가 그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하고

33 무리와 말씀할 때에 그 사자가 이르니라 왕이 가로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1. **㉠ 본장의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하라.**

- ㉠** (1) 본장에는 엘리사에 의해 수행된 여러 기적들과 사마리아에 기근이 들어 벌어진 참상이 기록되어 있다.
- (2) 여기서 엘리사가 베푼 기적은 아람 군대의 침략을 저지시키고 그들을 포로로 잡아 이스라엘 왕국을 구해 준 것이었다.
- (3) 그러나 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은 후에 사마리아에 기근이 들었을 때 그 책임을 오히려 엘리사에게 돌렸다.
- (4) 이것은 얼마나 인간이 간사한 것인가를 보여 주는 것인데 성도는 마땅히 이런 죄악에서 떠나야 한다(참조, 행 2:37, 38).

2. **㉠ 선지자 생도가 엘리사에게 와서 무엇을 말했는가? (1, 2절)**

- ㉠** (1) 거할 곳이 비좁아 요단에 가서 각각 한 재목을 취해 처소를 세우자고 하였다.
- (2) 여기 '각각 한 재목을 취한다'고 함은 선지 생도들이 다같이 협력하여 선지 학교를 세우는 일에 동참할 것을 의미한다.
- (3) 오늘날의 성도 역시 서로 협력하여 물심 양면으로 선지 기관을 도와 이땅에서 말씀의 사역이 끊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참조, 갈 6:10).

3. **㉠ 한 생도가 처소를 마련키 위해 나무를 베다가 도끼를 물에 빠뜨렸는데 그때 그는 뭐라고 외쳤는가? (5절)**

- ㉠** (1) '아아, 내 주여 이는 빌어온 것이니이다' 라고 하였다.
- (2) 여기서 '빌어온'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샤울>은 '구걸하다'는 뜻을 지녔다.
- (3) 따라서 그의 외침은 도끼를 구걸하여 빌릴 정도로 가난한 모습과 감사를 드려야 할 도끼 임자에게 부당한 일을 저지르게 된 것을 걱정하는 탄식이 시사되어 있다.
- (4) 이와 같이 오늘날 성도는 책임감을 갖고 남의 물건을 내 것처럼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한다(참조, 출 20:17).

4. **㉠ 엘리사는 물에 빠진 도끼를 어떻게 하였는가? (6, 7절)**

- ㉠** (1) 엘리사는 나무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도끼를 떠오르게 하였다. 그래서 빠뜨린 생도가 도끼를 건졌다.
- (2) 이때 빌려온 도끼를 잃는다고 하는 것은 빌려준 주인의 기대를 저버리고 주인에게 격정과 손해를 끼침과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 (3) 따라서 엘리사가 기적을 베푼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으려는 생각과 안타까워하는 한 영혼의 심령을 사랑하는 가운데 되어진 것이다.

(4) 이와 같이 성도는 무엇을 하든지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한다(고전 10:31).

5. **Q** 아람 왕의 비밀을 이스라엘 왕 여호람에게 고해 준 사람은 누구인가? (8-12절)

- A** (1)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아람 조정(朝廷)의 전략을 간파하고 이스라엘 왕 여호람에게 보고해 주었다.
 (2) 이에 대해 어떤 학자는 엘리사가 첩보원을 아람 궁중 깊숙히 투입하여 그가 전해 오는 정보를 사용했다고 추정하나(J. Gray) 이는 근거 없는 이론이다.
 (3) 그 이유는 오늘날에도 엘리사처럼 신비적인 계시, 즉 투시(透視)의 은사를 받는 자들도 있기 때문이다.
 (4) 따라서 계시가 직접적으로 선지자들을 통해 나타나던 그 당시의 상황으로 미루어 볼 때 엘리사가 받은 계시는 오늘날의 성경과 같은 권위를 지니고 있었다.

6. **Q** 아람 왕은 엘리사를 잡으러 어디로 누구를 보내었는가? (13, 14절)

- A** (1) 엘리사를 체포하려고 도단으로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었다.
 (2) 아람 왕은 이처럼 많은 군대를 동원했으므로 넉넉히 엘리사를 체포할 줄로 생각했지만 엘리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을 생각하지 못했으니 결국 어리석게 행동을 한 것에 불과했다(참조, 사 40:17).
 (3)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느 누구에게도 매임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오직 겸손히 주앞에 나아가 그의 능력을 구해야 한다(막 6:22; 딤후 2:9).

7. **Q** 사환의 눈을 열어 보게 해달라는 엘리사의 기도로 인하여 사환은 무엇을 보게 되었는가? (15-17절)

- A** (1) 사환은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
 (2) 이것은 아람 군대의 포위로 두려워 떠는 사환을 안심시키고 하나님께서 저들(사환과 엘리사)과 함께 하심을 보여 주기 위해 엘리사의 기도로 이루어진 것이다.
 (3) 이 불말과 불병거는 엘리야, 엘리사의 사적에만 나오는데 이는 육안(肉眼)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한 것이다.
 (4) 또한 이것은 아람 왕이 동원한 지상(地上) 군대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천상(天上) 군대를 동원하여 실력(實力)으로 압도하셨음을 의미한다(참조, 창 32:2).
 (5) 그러므로 성도는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보호해 주실 것을 믿고 두려워하거나 낙심치 말아야 한다(요 14:27).

8. **Q** 엘리사는 쳐내려오는 아람 군대를 사마리아까지 어떻게 유인해 갔는가? (18-20절)

- A** (1) 먼저 엘리사는 기도하였고 하나님께서는 아람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만들었다. 그러므로 엘리사는 그들을 사마리아로 유인해 갔다.
 (2) 그리고 엘리사는 사마리아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여 다시 그들의 시력을 회복시켜 주었다. 이것은 아람 군대로 하여금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였다.
 (3) 오늘날의 성도 역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깨닫고 믿음 안에서 더욱 기도와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한다(살전 5:17; 벰전 1:14).

9. **Q**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에게 아람 군대를 죽일 것인가를 물을 때 엘리사의 태도는 어떠했는가? (21, 22절)

- A** (1) 죽여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즉 그는 어찌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치겠냐고 하였다.
 (2) 이것은 포로된 자를 살육하지 않는다는 무사의 도가 선지자 엘리사의 정신에 나타나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포로들에 대한 오늘날의 국제 협정의 일면을 보게 된다.
 (3) 그러나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전쟁에서 잡은 포로를 몰살시키는 것이 상례로 되어 있었다(신 20:13; 삼상 15:33; 왕상 20:42).

- (4)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는 이스라엘 왕으로 하여금 포로된 사람들을 죽이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좋은 음식으로 먹이고 후히 대접하여 돌려 보내도록 하였다.
- (5) 이와 같이 오늘의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 원수도 사랑해야 한다. 왜냐하면 원수 사랑은 사랑의 모든 시작이기 때문이다(마 5:44).

10. **㉠** 아람 왕 벤하닷의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포위했을 때 사마리아의 경제 상태는 어떠했나? (24, 25절)

- ㉠** (1) 나귀머리 하나가 은 팔십 세겔로 거래되고 합분태 사분의 일 갑이 은 다섯 세겔로 거래되었다.
- (2) 즉 아람 군대의 포위로 사마리아 성은 기근이 심하여 부정한 나귀머리도 은 약 944 g (1세겔은 11.4g) 에 팔렸다.
- (3) 그리고 ‘합분태’ (鴿糞太)는 히브리어로 <다비요님>인데 이는 ‘비둘기 똥’ (dove’s ung)이나 ‘여물지 않은 콩’과 같이 영양가가 거의 없는 음식물 찌꺼기를 가리키는 말이다.
- (4) 한 갑의 사분의 일은 불확실한 양인데 약 0.5ℓ 내지 1ℓ 의 양에 해당할 것으로 본다.
- (5) 이러한 합분태 0.5-1ℓ 에 은 57g이나 되었다는 것은 그 당시의 난국을 실감나게 해 준다. 이는 물가의 통제가 없는 전시 경제에서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물가고이다.

11. **㉠** 이스라엘 왕이 한 여인에게 말한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가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27절)

- ㉠** (1) 이스라엘 왕의 이러한 대답은 여인으로 하여금 여호와를 찾으라는 신앙적인 충고를 하는듯이 보인다.
- (2) 그러나 사실상 그의 대답은 마음 중심에서 우러나온 말이 아니라 단지 종교적 관습에 따라 형식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 (3) 오늘의 성도는 주를 사모하되 간절한 심정으로 자기 중심에서부터 주를 믿고 찾아야 한다(눅 10:27).

12. **㉠** 포위당한 사마리아 성에 기근이 어느 정도 들었는가? (28-31절)

- ㉠** (1) 어머니 자기 자식을 잡아 먹을 정도로 혹독한 기근이 들었다.
이러한 참극(慘劇)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을 때에 임할 형벌로 예언되어졌던 것이다(참조, 레 26:29; 신 28:53, 57; 겔 5:10; 애 2:20; 4:10).
- (2) 당시 이스라엘 사회는 이세벨의 영향으로 우상 숭배에 깊이 몰들어 있었고, 오므리 왕조의 역대 왕들은 이러한 우상 숭배에 깊이 간여하면서 예언자들의 말을 무시하곤 하였다(참조, 31절).
- (3) 이러한 죄악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기근을 통해 징벌하신 것이니 결국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 말씀의 성취라고 할 수 있다.

13. **㉠**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말한 ‘살인한 자의 자식’은 누구를 가리키는가? (32절)

- ㉠** (1) 엘리사는 이스라엘 왕을 가리켜서 ‘살인한 자의 자식’이라고 하였다. 이것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7대 왕 아함의 아들 여호람 왕을 가리킨다(Josephus).
- (2) 그러나 이것은 족보를 따지며 한 말이 아니라 격분했을 때 사용하는 ‘망할 자식’이라는 식의 표현으로 보는 것이 좋다.
- (3) 즉 삼상 20:30에 사울이 요나단을 야단칠 때에 쓴 말과 같은 종류의 것이다.

14. **㉠** 여호람 왕은 사마리아에 든 제앙을 누구 탓으로 돌렸는가? (33절)

- ㉠** (1) 하나님의 탓으로 돌렸다. 그러므로 그는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겠냐고 하였다.
- (2) 이것은 그의 영혼 속에 아직도 여호와께 대한 소망의 희미한 한 빛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 (3) 그러면서도 그는 여호와와의 공화를 기다려보지 않겠다고 한 것은 그의 모순된 태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 (4) 그가 정말로 사마리아 성의 기근이 그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리신 것이라고 믿었다면 겸손히 자신을 낮추며 하나님께 자복하는 마음을 가졌어야 했다.
- (5) 이처럼 오늘의 성도는 하나님을 기다리다가 지치는 일은 어리석은 것임을 알아야 한다. 도리어 그 재앙의 원인을 살펴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한다(잠 28:13; 행 2:37,38).

연구자료

아람(Aram). 히브리어는 <아람>, 헬라어로는 <수리아>라고 하였으며 영어 성경에서는 대부분 시리아(Syria)로 번역되었다. (1) 가장 보편적으로 쓰였던 명칭인 '아람'은 페니키아 해안을 제외한 시리아의 전지역을 포함하는 국가를 세운 다메섹을 가리키는 말이었다. 구약에서는 다메섹이 단지 아람으로만 불리었다(참조, 삼하 8:5, 6; 대상 2:23; 암 1:5; 사 7:2, 4, 5; 렘 35:11). (2) 이 명칭은 썸계의 주요 민족인 아람 족속들이 살았던 땅을 가리키기도 한다. 그 위치는 지리적으로 정확하지는 않지만 아람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는 구약의 기사(記事)로 추정해 볼 때 이스라엘 동북부에서 시작하여 다메섹과 오늘날 시리아의 영토 대부분을 포함하며 티그리스와 유프라테 골짜기의 상부에까지 이른다. 이스라엘 족장 시대에 아람이라는 말은 특히 메소포타미아 지방을 지칭했다. 그리고 왕국 시대에는 다메섹과 그 주변의 지역을 나타내는 말로 사용되었다. 이러한 부정확한 위치를 보다 정확하게 표현키 위하여 종종 합성어가 사용되기도 하였다. 그 예로 아람 마아가(Aram Maacah), 밧단 아람(Paddan-aram), 아람 나하라임(Aramnaharaim), 베히르훅 아람(Bethrehob-aram) 등의 명칭이 생겨났다. (3) 또한 이 명칭은 아람의 왕이나 신을 가리키는 경우에 민족과 그 영토를 함께 나타내는 말로도 사용되었다(참조, 삿 10:4; 사 7:1). (4) 아람은 노아의 후손으로서 썸의 다섯 아들 가운데 하나이며 우스와 훌, 게델 그리고 마스의 아버지이다(참조, 창 10:22, 23; 대상 1:17). 따라서 이 경우에는 썸족 지파 가운데 한 민족의 조상을 가리킨다. (5)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들인 그므엘에게서 난 아들의 이름도 아람이다(창 22:21).

아람은 아람 민족은 예술적 독창성이 부족했으며 주로 이웃 나라들의 문화를 받아들여 소화했다. 그러나 그들의 언어는 근동의 문명에 큰 영향을 끼쳤으며 또한 히브리어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성경을 연구하는 데 무척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제 7 장 양식이 풍성해지리라는 엘리사의 예언과 그 성취

단락구분 1-2 엘리사가 여호와와의 말씀을 전하다 / 3-5 네 문둥이가 아람 진영이 비어 있는 것을 발견하다 / 6-8 아람 사람의 혼돈과 도주(逃走) / 9-11 네 문둥이가 아람 군대의 도주 사실을 왕궁에 보고하다 / 12-15 보고의 사실 여부를 알기 위해 왕이 정탐꾼을 보낸다 / 16-20 믿지 않는 장관의 변사

1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을 하고 보리 두 스아에 한 세겔을 하리라 하셨느니라

2 그 때에 한 장관 곧 왕이 그 손에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담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엘리사가 가로되 네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3 성문 어귀에 문둥이 네 사람이 있더니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4 우리가 성에 들어가자고 할지라도 성중은 주리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여기 앉아 있어도 죽을지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저희가 우리를 살려두면 살려니와 우리를 죽이면 죽을 따름이라 하고

5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황혼에 일어나서 아람 진 가에 이르러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6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 하여 헛 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저희로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7 황혼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음이라

8 그 문둥이들이 진 가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서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9 문둥이가 서로 말하되 우리의 소위가 선치 못하다 오 오늘날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 어늘 우리가 잠잠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고하자 하고

10 드디어 가서 성 문지기란 불러 고하여 가로되 우리가 아람 진에 이르러 보니 거기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

만 매여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라

11 저가 문지기들을 부르매 저희가 왕궁에 있는 자에게 고하니

12 왕이 밤에 일어나 그 신복들에게 이르되 아람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저희가 우리의 주린 것을 아는 고로 그 진을 떠나서 들에 매복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저희들이 성에서 나오거든 우리가 사로잡고 성에 들어가겠다 한 것이니라

13 그 신복 중 하나가 대담하여 가로되 청컨대 아직 성중에 남아 있는 말 다섯 필을 취하고 사람을 보내어 정탐하게 하소서 이 말들이 성중에 남아 있는 이스라엘 온 무리 곧 멸망한 이스라엘 온 무리와 같으니이다 하고

14 저희가 병거 둘과 그 말을 취한지라 왕이 아람 군대 뒤로 보내며 가서 정탐하라 하였더니

15 저희가 그 뒤를 따라 요단에 이르러 아람 사람이 급히 도망하느라고 버린 의복과 군물이 길에 가득하였더라 사자가 돌아와서 왕에게 고하매

16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을 노략한지라 이에 고운 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두 스아에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17 왕이 그 손에 의지하였던 그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저를 밟으매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에 그의 말대로라

18 일찌기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내일 이맘 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보리 두 스아에 한 세겔을 하고 고운 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을 하리라 한즉

19 그 때에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담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있으랴 하매 대답하기를 네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20 그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었도되 곧 백성이 성문에서 저를 밟으매 죽었더라

1. **㉠** 본장의 중심적인 교훈을 말하라.

- ㉠** (1) 본장은 사마리아의 승리에 대한 엘리사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됨을 보여 주며 또한 이를 믿지 않던 관리가 죽음을 당하고 만 사건을 묘사하고 있다.
- (2)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김없이 성취된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 주는 좋은 예이다.
- (3) 따라서 본장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더욱 믿음 안에서 담대히 살아갈 것을 교훈해 주고 있다(참조, 창 12:1-4).

2. **㉠** 엘리사가 여호람 왕에게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1절)

- ㉠** (1) 엘리사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에,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살 수 있다'는 말씀이었다.
- (2) 여기에서 한 '스아'는 한 '에바'의 약 1/3에 해당되며 부피로 약 7ℓ이다. 이 예언은 아직도 평상시 보다는 고가이지만 그 당시 형편으로서는 상상 못할 기적이었다.
- (3) 따라서 이 예언은 기근으로 고통당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의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다.
- (4) 그런데 이스라엘 왕은 조금 전까지만해도 기근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라고 하여 엘리사를 죽이려 하였다(6:32, 33).
- (5)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식량이 생길 것을 선포하시으로써 이처럼 불신에 빠져 있는 자에게도 당신의 긍휼을 베푸셨는데 하물며 하나님께 밤낮으로 부르는 자에게는 어떠 하시겠는가? (렘 33:3).

3. **㉠** 엘리사의 예언에 여호람 왕을 받드는 장관은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2절)

- ㉠** (1)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다 해도 그런 일(1절)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였다.
- (2) 이 말은 엘리사의 선지자적 진실성을 불신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능력을 믿지 않는 불손한 태도이다.
- (3) 따라서 그는 정죄를 받아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20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자비를 멸시하고 불신하는 자의 결국은 멸망이다(참조, 히 2:3).

4. **㉠** 아람 진영에 들어가서 아무도 없음을 발견한 사람은 누구였는가? (3-5절)

- ㉠** (1) 문둥이 네 사람이었다. 이때 문둥이들은 성 밖에서 살아야만 했다(참조, 레 13:45, 46). 이들은 굶어 죽기 보다는 적진에 부딪쳐 생사를 판결내리는 것이 낫다는 결론에서 죽음을 각오하고 적진에 들어갔다.
- (2) 이러한 그들의 결심은 그들 자신 뿐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에게까지 죽음과 멸망의 위기에서 살 길을 찾아 주게 되었다.
- (3) 이와 같이 성도는 굳은 결심으로 뜻을 정한 뒤 그 의지의 방향을 언제나 선(善)으로 옮기고 그 선을 굳게 지켜야 된다(눅 9:51).

5. **㉠** 아람 군대가 도주한 이유는 무엇인가? (6, 7절)

- ㉠** (1) 하나님께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내게 하셨으므로 아람인은 이스라엘이 헛 족속과 애굽 왕들을 포섭하여 함께 쳐들어 오는 줄 알고 놀라 도망하였다.
- (2) 이러한 현상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벌어졌는지, 즉 그 소리가 객관적 실재성(實在性)을 지닌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그들의 청각 이상(異狀)에 의해 생긴 것인지는 알 수 없다.
- (3) 다만 하나님께서 초자연적 역사로 아람 군대를 징벌하시고 쫓아내신 것만은 확실하다.

6. **㉠** 네 문둥이들은 아람의 도주 사실을 이스라엘 왕에게 전하였는가? (8-11절)

- ㉠** (1) 그들은 아람군의 진영에 들어가 아람군이 남기고 간 음식을 마음껏 먹고 마신 후 귀금속과 재물 등을 취하다가 문득 성 안 백성들을 생각하고 아람 군대가 도주한 사실을 이스라엘 왕에게 전하였다.

- (2) 그들은 잠시나마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였음을 후회하고 아람 군대가 도주한 사실을 전하지 않으면 자기들에게 벌이 임하리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 (3) 이처럼 문둥이들이 내린 결론을 우리는 복음에 적용해 볼 수 있다. 즉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전할 책임을 갖고 있으며 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화가 있을 것이라는 경각심을 가지고 항상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사실이다(참조, 고전 9:16).

7. **㉠** 이스라엘 왕 여호람은 네 문둥이들의 보고를 어떻게 생각했는가? (12절)

- ㉠** (1) 여호람 왕은 아람 군대가 자기들의 진에서 조금 떨어져 매복하고 있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경솔하게 덤빌 틈을 노려 쳐들어 오리라고 생각했다.
- (2) 이것은 여호람 왕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의심과 불신이 깊이 뿌리박혀 있음을 보여 준다.
- (3) 그것은 엘리사가 그에게 말했던(1절)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의 태도였다.
- (4) 오늘날 우리도 이러한 불신의 죄를 범하고 있지는 않은지 반성해 보아야 하며, 만일 그렇다면 우리의 강박한 심령을 회개해야 한다.

8. **㉠** 불신하는 여호람 왕에게 한 신하는 어떤 제안을 하였는가? (13절)

- ㉠** (1) 성중에 남아 있는 말 다섯 필을 취하여 사람을 태워 정탐을 보내자고 제안했다.
- (2) 만일 마병들이 성중에 남아 있더라도 아사(餓死)를 당할 것이요, 설혹 적진에 들어가 붙잡혀 죽게 되더라도 동료들의 운명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니 어차피 결과는 마찬가지로 된다는 것이었다.
- (3) 그러나 반대로 그들의 정탐 결과가 좋게 나온다면 그들도 살고 사마리아 성민들도 살게 되니 이러한 상황에서는 어떠한 모험도 '밀저야 본전'인 셈이다.
- (4) 결국 이 신복의 제안은 4명의 문둥병자와 같이 죽음을 각오하고 결단을 내리자는 것으로 좋은 결과를 가져 왔다.
- (5) 형제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는 자기 희생은 가장 큰 사랑으로서(요 15:13) 이 사랑은 내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결단과 실행이 따라야 한다(요일 3:18).

9. **㉠** 정탐군은 아람 진영에서 무엇을 발견했는가? (14, 15절)

- ㉠** (1) 아람 사람이 급히 도망하느라고 버린 의복과 군물이 길에 가득한 것을 발견하였다.
- (2) 아람군은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들려 주신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6절)를 듣고서 황급히 그들의 진영에서 퇴각하였던 것이다.
- (3) 이처럼 하나님께엔 불가능한 일이 없으시다. 따라서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 그에게 도움을 구해야 한다(렘 29:12).

10. **㉠** 엘리사가 여호람 왕에게 전한 예언은 성취되었는가? (16-20절)

- ㉠** (1) 엘리사의 두 가지 예언 즉 식량이 풍부하여 곡식 값이 하락하리라는 것(1절)과 이 예언을 비웃는 장관이 곡식을 먹지 못하리라는 예언(2절)이 그대로 성취되었다.
- (2) 이것은 우연처럼 보이는 일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보여 주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조롱의 어리석음과 그 위험을 사람들에게 가르쳐 준다.
- (3) 또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실패하는 법이 없음을 가르친다. 즉 약속이든 경고이든 하나님의 말씀은 끝까지 다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 (4) 따라서 성도는 하나님의 진실성을 믿고 그의 약속을 소망과 인내로써 기다려야 한다(참조, 말 3:10).

제 8 장 하사엘의 벤하닷 살해와 유다 왕 여호람과 아하시야의 악정(惡政)

단락구분 1-27년 동안 닫힌 하늘 / 3-6 여호람이 수넵 여인의 기업을 회복시키다 / 7-13 엘리사가 하사엘이 아람 왕이 될 것을 예언하다 / 14-15 하사엘이 벤하닷을 죽이고 왕 위에 오르다 / 16-19 여호람의 유다 통치 / 20-22 에돔이 유다에 반기를 들다 / 23-24 유다 왕 여호람의 죽음 / 25-27 아하시야의 유다 통치 / 28-29 아하시야가 이스라엘의 요람(여호람)을 도우다

1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네 권속과 함께 거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명하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칠 년 동안 임하라

2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 권속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의 땅에 칠 년을 우거하다가

3 칠 년이 다 하매 여인이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돌아와서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니

4 때에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제하시와 서로 말씀하며 가로되 너는 엘리사의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고하라 하니

5 제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제하시가 가로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6 왕이 그 여인에게 물으매 여인이 고한지라 왕이 저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가로되 무릇 이 여인에게 속한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7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에 아람 왕 벤하닷이 병들었더니 흑이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렀나이다

8 왕이 하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손에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맞고 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나의 이 병이 낫겠나 물으라

9 하사엘이 드디어 맞으러 갈새 다메섹 모든 아름다운 물품으로 예물을 삼아가지고 약대 사십에 싣고 나아가서 저의 앞에 서서 가로되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벤하닷이 나를 당신에게 보내어 가로되 나의 이 병이 낫겠나이가 하더이다

10 엘리사가 가로되 너는 가서 저에게 고하기를 왕이 정녕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저가 정녕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

라 하고

11 하나님의 사람이 저가 부끄러워 하기까지 쏘아보다가 우니

12 하사엘이 가로되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압이라 내가 저희 성에 불을 놓으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메어치며 아이 뱀 부너를 가르리라

13 하사엘이 가로되 당신의 개 같은 종이 무엇이관대 이런 큰 일을 행하오리인가 엘리사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내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14 저가 엘리사를 떠나가서 그 주인에게 나아가니 왕이 묻되 엘리사가 내게 무슨 말을 하더냐 대답하되 저가 내게 이르기를 왕이 정녕 나으시리라 하더이다

15 그 이튿날에 하사엘이 이불을 물에 적시어 왕의 얼굴에 덮으매 왕이 죽은지라 저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16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 오 년에 유다 왕 여호사밧이 오히려 위에 있을 때에 그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니라

17 여호람이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삼십 이 세라 예루살렘에서 팔 년을 치리하니라

18 저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 아내가 되었음이라 저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19 여호와께서 그 중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저와 그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허하였음이라

20 여호람 때에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수하에서 벗어나 자기 위에 왕을 세운 고로

21 여호람이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사일로 갔더니 밤에 일어나 자기를 에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장관들을 치니 이에 백성이 도망하여 각각 그 장막으로 돌아갔더라

22 이와 같이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수하에

서 벗어났더니 오늘날까지 그러하였으며 그 때에 립나도 배반하였더라
 23 여호람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24 여호람이 그 열조와 함께 자매 그 열조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하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25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 십이년에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니
 26 아하시아가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이십이세라 예루살렘에서 일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아달라라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

녀더라
 27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저는 아합의 집의 사위가 되었음이라
 28 저가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로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을 상하게 한지라
 29 요람 왕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에, 라마에서 아람 사람에게 맞아 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아합의 아들 요람이 병이 있으므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이스라엘에 내려가서 방문하였더라

1. ㉠ 본장에 나타난 사건들을 설명하라.

- ㉠ (1) 본장에는 수벰 여인이 자기 땅을 되찾은 것과 하사엘이 아람 왕 벤하닷을 죽인 일, 그리고 유다 왕 여호람과 아하시아의 악정이 기록되어 있다.
- (2) 그런데 이 사건들의 공통점은 그것이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하나님의 예언대로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데에 있다.
- (3) 따라서 오늘의 성도는 말씀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약속의 불변성을 믿고 생활해야 한다 (참조, 막 9:21-29).

2. ㉠ '7년 동안 기근이 들리라'는 말을 듣고 수벰 여인은 어디에 가서 살았는가? (1, 2 절)

- ㉠ (1) 자기 권속과 함께 기근을 피하여 블레셋 땅에 가서 7년 동안 살았다.
 이 블레셋 평원은 곡창 지대여서 기근이 심할 때에는 자연스럽게 그 지방으로 이동하는 예가 많았다.
- (2) 수벰 여인이 이토록 엘리사의 은혜를 입은 것은 선지자인 엘리사를 잘 대접했기 때문이다 (4:8-10).
- (3) 또한 그녀는 엘리사의 떠나라는 말을 듣고 주저없이 순종하였다. 이와 같이 성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을 주저없이 따라야 한다 (참조, 창 22:1-11).

3. ㉠ 수벰 여인이 7년 후에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라 (3 절).

- ㉠ (1) 그녀의 집과 전토는 그녀가 없는 사이 이웃 사람이나 다른 사람의 소유가 되어 있었다.
- (2) 그러나 수벰 여인은 블레셋으로 이주할 때 그 땅의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지 않았으므로 다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다.
- (3) 히브리인들은 땅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생각하고 그 소유권을 다른 사람들에게 넘겨 주지 않았다.
- (4) 그렇지만 생활이 너무 어려워져 도저히 생활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땅의 경작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 주고 50년째인 회년에 그 땅을 다시 찾을 수 있었다 (레 25:13-17).
- (5) 본절에 수벰 여인이 7년이라는 시한(時限)을 가지고 그 땅을 떠났다는 사실은 그 땅을 남에게 넘기지 않았음을 의미하며 따라서 그녀는 자기 땅을 위해 왕에게 호소할 수 있었던 것이다.

4. ㉠ 하사엘은 아람 왕 벤하닷의 병의 치료 여부를 알기 위해 무엇을 가지고 엘리사에게 갔는가? (8, 9 절)

- ㉠ (1) 다메섹에 있는 아름다운 물건을 약대(낙타) 사십 마리에 싣고 엘리사에게 갔다.
- (2) 그 당시 하나님의 사람에게 무엇을 물으려 할 때는 빈손으로 나가지 못하고 (출 23:15) 예물을 가지고 가야만 했다 (참조, 삼상 9:7; 왕상 14:3).

- (3) 아마도 이러한 관례의 기원은 하나님 앞에 빈 손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는 말씀(출 23:15)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적용됨으로써 비롯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 (4) 그의 이러한 태도가 개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질병으로 인해 그가 겸손하게 된 것을 말해 준다.
- (5) 그러므로 하사엘은 자기 왕 벤하닷을 가리켜서 엘리사의 아들이라고 하며 겸손히 도움을 청하였다.

5. **㉠** 벤하닷의 병이 낫겠냐를 묻는 하사엘의 질문에 엘리사는 어떻게 대답했는가? (10절)

- ㉠** (1) 벤하닷의 병은 낫겠으나 그는 정녕 죽으리라고 하였다.
- (2) 이 대답은 모순처럼 보이는 것 같으나 사실은 왕이 병으로는 죽지 않지만 어떠한 다른 사고로 죽을 운명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의미 깊은 말이다.
- (3) 이처럼 죽음의 그늘이 몰려오고 있는데도 벤하닷은 병석에서 자기 죄를 회개할 생각은 않고 자기 병이 낫겠는지 선지자에게 알아보려고 하였다.
- (4) 결국 엘리사의 말대로 벤하닷은 그의 부하 하사엘에 의해 암살당하게 되었고 그를 대신해서 하사엘은 아람 왕이 되었다(15절).
- (5) 이와 같이 세상에는 다른 길이 많아서 인간들은 종종 이 중의 한 길을 피했다고 생각하는 동안에 다른 길로 접어들게 되고 만다.

6. **㉠**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하사엘을 쏘아 보다가 왜 울었는가? (11, 12절)

- ㉠** (1) 엘리사는 장차 하사엘에 의하여 벌어질 비극(悲劇)을 예견하고 눈물을 흘리며 울었다.
- (2) 엘리사가 쏘아 본 것은 갑자기 예언자적 환상을 보게 된 때의 표정이었을 것이다. 엘리사는 하사엘이 이스라엘에게 행하는 소름끼치는 죄악상을 뚜렷이 보았을 것이다.
- (3) 그러므로 그는 울었는데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 배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멸하고 은혜를 거절하는 것보다 더 큰 악이 없다는 것을 아는 선지자만이 갖는 고통의 눈물이었다.
- (4)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을 보시고 우셨고(눅 19:41), 바울도 이스라엘을 보고 운 적이 있었다(롬 9:1-3).

7. **㉠** 엘리사의 예언에 하사엘은 어떻게 반응했는가? (13절)

- ㉠** (1) 당신의 개 같은 종이 어찌 이런 큰 일을 하겠느냐고 하였다.
- (2) 여기서 ‘개’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케레브>로서 이 말은 사람을 경멸하여 부를 때에 자주 사용되었다(참조, 삼상 17:43).
- (3) 하사엘은 이 말을 자기 겸양의 표현으로 사용하면서 엘리야의 예언에 대하여 놀라움을 표했다.
- (4) 이때까지 하사엘은 왕위 찬탈에 대하여 전혀 생각조차 못하던 상황이었으나 이 사건을 계기로 그의 심경에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
- (5) 이와 같이 사람 앞에서의 아침은 항상 거짓과 위선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므로 필요 이상으로 겸손하고 겸양해 하는 사람을 믿지 말아야 한다(참조, 롬 16:18).

8. **㉠** 하사엘은 어떻게 아람 왕이 되었는가? (15절)

- ㉠** (1) 이불을 물에 적서 벤하닷 왕의 얼굴에 덮어 씌워 살해한 후 왕이 되었다.
- (2) 이것은 그가 얼마나 사악한가를 보여 주는 것인데 죄의 흔적을 전혀 남기지 않고 우연한 사고처럼 보이게 할 목적으로 하사엘은 이런 죽음의 방법을 고안했던 것이다.
- (3) 그런데 하사엘을 아람 왕으로 기름 부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먼저 엘리야에게 임하였다(왕상 19:15). 그리고 후에 엘리사에게로 옮겨졌다.
- (4) 그러나 엘리사는 예식을 갖추어 하사엘에게 기름 부은 것이 아니고 단순히 그와 같은 사실을 그에게 알렸을 뿐이다. 이것은 아마도 하사엘의 간악한 성격에 기인한 것 같다.

(5) 따라서 하사엘처럼 모반과 살인에 의해 왕 위에 오른 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된 왕이 아니요 그 사용의 목적이 다하면 버려질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진노의 막대기일 뿐이다.

9. **㉠** 유다 제 5대 왕 여호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악을 행하였는가? (16-18절)

- ㉠** (1) 여호람은 아합의 딸 아달라와 결혼하여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한 죄를 지었다(왕상 12:25-33).
 (2) 즉 그 길이란 전에도 왕권 강화를 위해 형제들과 장군들을 죽이는 불의를 행한 적이 있던 여호람이 베니게로부터 아합이 이스라엘에 도입해 왔던 바알과 아스다롯 예배를 유다에 도입한 일을 가리킨다(대하 22:11).
 (3) 이와 같은 불의한 일의 배후에는 제 2의 이세벨이라고도 부를 만한 그의 아내 아달라의 막강한 영향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4) 따라서 성도는 믿지 않는 자와 명예를 짐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이 없도록 해야 한다(참조, 고후 6:14).

10. **㉠** 하나님께서는 유다가 멸망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셨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19절)

- ㉠** (1) 일찌기 하나님이 다윗과 그 자손들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허락하셨기 때문이다(왕상 11:36).
 (2) 여기 '등불' 은 다윗과 맺은 언약에 근거한 왕과 왕국을 나타낸다(삼하 7:2, 12-17).
 (3) 또한 '허락하셨다' 라는 말은 '그가 말씀하셨다' 라는 뜻이다.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상대방의 요청에 의하여 허락 정도가 아니라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로 약속하는 언약의 말씀이라는 것이다.
 (4) 결국 이 언약은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었는데 하나님은 선조들과 맺은 약속으로 인해 그리스도 안에서 그 후손들을 사랑하셨다(참조, 롬 11:28).

11. **㉠** 유다 왕 여호람의 뒤를 이어 누가 왕이 되었는가? (24, 25절)

- ㉠** (1) 아하시야가 그의 아버지 여호람을 계승하여 유다의 제 6대 왕이 되었다(B. C. 841). 그는 일년이 채 못된 가운데 남왕국을 통치하였다.
 (2) 그는 여호람의 아들 가운데서 가장 나이 어린 아들이었고, 블레셋과 아랍인들이 유다를 쳐들어 왔을 때 오직 그만이 생존한 아들이었다.
 (3) 당시 블레셋과 아랍인들은 아하시야만 제외하고 여호람의 모든 아들들을 포로로 데려갔었다(대하 21:16, 17).

12. **㉠** 유다 왕 아하시야는 이스라엘의 9대 왕 요람(B. C. 852-841)을 문병하다 어떻게 되었는가? (28, 29절)

- ㉠** (1) 혁명이 예후에 의해서 아하시야, 요람이 모두 죽임을 당했다(9:14-20; 대하 22:7-9).
 (2) 이것은 아하시야가 길르앗 라못에서 아람과 싸우다 다친 요람을 이스라엘에 가서 문병하는 동안 일어났다.
 (3) 결국 아하시야는 악한 왕인 요람과 거처를 같이 했다가 악인에게 임하는 심판을 함께 받고야 말았다.
 (4) 따라서 성도는 악한 자의 무리에서 떠나 의인의 회중에 있어야 한다(시 1:5, 6).

제 9 장 예후가 이스라엘 왕국에서 혁명을 일으키다

단락구분 1-3 엘리사가 선지자 생도에게 예후의 머리에 기름 부을 것을 명하다 / **4-10** 예후가 기름 부음을 받다 / **11-13** 이스라엘 군대에 의해 왕으로 선출된 예후 / **14-16** 예후가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에 가다 / **17-20** 요람이 예후에게 파수군을 보낸다 / **21-26** 예후가 나뭇의 밭에서 요람을 죽이다 / **27-29** 아하시아의 최후 / **30-37** 이세벨의 시체를 개들이 먹다

1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생도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르앗 라못으로 가라

2 거기 이르거든 남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 가서 그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서

3 기름병을 가지고 그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치 말지니라

4 그 소년 곧 소년 선지자가 드디어 길르앗 라못으로 가니라

5 저가 이르러 보니 군대 장관들이 앉았는지라 소년이 가로되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씀이 있나이다 예후가 가로되 우리 모든 사람 중에 뉘게 하려느냐 가로되 장관이여 당신에게나이다

6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소년이 그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을 삼노니

7 너는 네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 주리라

8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 자나 놓인 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9 아합의 집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히야의 아들 바아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10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저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11 예후가 나와서 그 주의 신복들에게 이르니 한 사람이 묻되 평안이뇨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대에게 왔더뇨 대답하되 그대들이 그 사람과 그 말한 것을 알리라

12 무리가 가로되 당치 않은 말이라 그대는 우리에게 이르라 대답하되 저가 이리이리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는다 하셨다 하더라

13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취하여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가로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14 이에 남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가 요람을 배반하였으니 곧 요람이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아람 왕 하사엘을 인하여 길르앗 라못을 지키다가

15 아람 왕 하사엘로 더불어 싸울때에 아람 사람에게 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때라 예후가 이르되 너희 뜻에 합당하거든 한 사람이라도 이 성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에 전하러 가지 못하게 하라 하니라

16 예후가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요람이 거기 누웠음이라 유다 왕 아하시아는 요람을 보러 내려왔더라

17 이스라엘 땅대에 파수군 하나가 섰더니 예후의 무리의 오는 것을 보고 가로되 내가 한 무리를 보나이다 요람이 가로되 한 사람을 말을 태워 보내어 맞아 평안이나 묻게 하라

18 한 사람이 말을 타고 가서 만나 가로되 왕의 말씀이 평안이나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가로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돌이키라 하니라 파수군이 고하여 가로되 사자가 저희에게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니이다 하는지라

19 다시 한 사람을 말을 태워 보내었더니 저희에게 가서 가로되 왕의 말씀이 평안이나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가로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돌이키라 하니라

20 파수군이 또 고하여 가로되 저도 저희에게까지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병거 모는 것이 남시의 손자 예후의 모는 것같이 미치게 모나이다

21 요람이 가로되 매우라 하매 그 병거를 메운

지라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야가 각각 그 병거를 타고 가서 예후를 맞을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나매

22 요람이 예후를 보고 가로되 예후야 평안이나 대답하되 네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23 요람이 곧 손을 들이켜 도망하며 아하시야에게 이르되 아하시야여 반역이로다

24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기어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살이 그 엉통을 꿰뚫고 나오매 저가 병거 가운데 엎드러진지라

25 예후가 그 장관 빗갈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취하여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네가 기억하러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 아비 아합을 쫓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이 아래같이 저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26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젯날에 나봇의 피와 그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네게 갚으리라 하였으니 그런즉 여호와와 말씀대로 그 시체를 취하여 이 밭에 던질지니라

27 유다 왕 아하시야가 이를 보고 동산 정자길로 도망하니 예후가 쫓아가며 이르되 저도 병거 가운데서 죽이라 하매 이블르암 가까운 구르 비탈에서 치니 저가 머릿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28 그 신복들이 저를 병거에 싣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다윗성에서 그 열조와 함께 그 묘실에 장사하니라

29 아합의 아들 요람의 십 일년에 아하시야가 유다 왕이 되었었더라

30 예후가 이스라엘에 이르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31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가로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나

32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가로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누구냐 하니 두어 내시가 예후를 내다보는지라

33 가로되 저를 내려 던지라 하니 내려 던지매 그 피가 담과 말에게 튀더라 예후가 그 시체를 밟으니라

34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가로되 가서 이 저주받은 제집을 찾아 장사하라 저는 왕의 딸이니라 하매

35 가서 장사하려 한즉 그 두골과 발과 손바닥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36 돌아와서 고한대 예후가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셋 사람 엘리야로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고기를 먹으리라

37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밭면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1. ㉠ 본장의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하라.

- ㉠ (1) 본장에는 예후가 기름 부음을 받아 북왕국 이스라엘의 10대 왕이 된 것(B.C. 841-814)과 그가 이스라엘 왕국에서 일으킨 혁명 운동이 기록되어 있다.
- (2) 그런데 비록 이 혁명이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진 것이기는 했지만 예후는 이 혁명을 실행함에 있어서 많은 악을 행하였다.
- (3) 따라서 혁명에 개재(介在)되어 있는 죄악은 예후 자신이 책임져야만 했다.
- (4) 그러므로 본장은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 안에서 일이 행해질지라도 그 역사 안에서 일어나는 인간의 범치는 인간 자신이 책임져야함을 교훈해 주고 있다(참조, 마 27:3-10).

2. ㉠ 엘리사는 선지자 생도에게 어디로 가서 무엇을 하라고 명했는가? (1, 3절)

- ㉠ (1) 허리를 둥이고 기름병을 손에 들고 길르앗 라못에 가서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그를 왕으로 세우라고 하였다.
- (2) 이것은 예후를 통해 아합의 집을 멸망시키려는 하나님의 뜻이기도 한데 엘리사는 이 일을 실행함에 있어 늙은 자기보다는 젊고 민첩한 선지자 생도를 책임자로 생각하였다.
- (3) 이처럼 오늘의 성도도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사리를 분별하는 지혜의 자세가 요청된다(참조, 골 1:28).

3. ㉠ 엘리사가 선지자 생도에게 골방에서 기름을 부으라고 한 이유는 무엇이며 그 후 왜 급히 도망하라고 하였는가? (2, 3절)

- ㉠ (1) 골방에서 기름을 부으라고 한 이유는 예후에게 기름을 붓는 선지자 생도는 엘리사와 같이 공인된 선지자가 아니므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의혹을 사게 될 염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 (2) 또한 그가(선지자 생도) 말은 사명 이외의 다른 일에 일체 간섭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급히 도망하라고 하였다.
- (3) 다시 말해 군대의 총사령관인 예후에게 기름을 부으라는 명령을 받은 그 선지자 생도는 엘리사가 시키는 것 외에는 다른 일을 행할 수 없도록 명령 받았다.
- (4) 그러므로 그는 예후 이외의 다른 어떤 사람들과도 만나지 않고 예후에게 기름 붓는 일만을 하고 급히 도망하였다.
- (5) 이와 같이 주의 종들도 다른 것에 눈을 돌리지 않고 오직 주의 일에만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참조, 행 20:23, 24).

4. **㉠** 소년 선지자(선지자 생도)는 엘리사의 지시를 어김없이 실행하였는가? (4-10절)

- ㉠** (1) 그는 스승 엘리사가 지시한 대로(1-3절) 모든 일들을 충실하게 이행하였다.
- (2) 이처럼 소년 선지자의 순종은 철저하고도 완전하였다. 오늘의 성도 역시 말씀 앞에 주저없이 순종해야 하며 자신에게 맡겨진 책임을 기쁜 마음으로 감당해야 한다(참조, 신 30:8; 뱀전 5:2).

5. **㉠** 예후가 동료 장교들에게 오자 그 중의 한 사람이 예후에게 뭐라고 말했는가? (11절)

- ㉠** (1) '평안이뇨 그 미친 자가 무엇하러 그대에게 왔느냐'고 물었다.
- (2) 여기서 '평안'이란 말은 히브리인들의 만나고 헤어질 때의 인사인데 본질에서의 이 말은 그 전달하려는 소식이 화평에 속한 것이냐 아니면 싸우려는 것이냐를 우선 알고 싶다는 뜻이다.
- (3) '그 미친 자'는 신복들이 선지자 생도에 대해서 가진 인상을 가리키는데 일반인들은 종종 생도들을 비정상적인 인간으로 취급하는 일이 많았다.
- (4) 왜냐하면 이들 선지자의 무리는 환상을 보고 황홀 상태에 빠지기도 하고 그 행동이 파격적이고 격동적인 예가 많았기 때문이다.
- (5) 그러므로 하나님께 대한 바른 지식이 없었던 예후의 동료 장교들은 선지 생도의 모습을 비꼬아서 '미친 자'라고 불렀던 것이다.
- (6) 이처럼 하나님을 향한 열렬한 사랑과 봉사의 정신은 흔히 불신자들에게 오해를 사기도 하고 애매한 비난을 받기도 한다(참조, 렘 29:26).
- (7) 그러나 사도 바울(행 26:24)이나 심지어 예수님(요 10:20) 까지도 미쳤다고 비난을 받으셨음을 생각할 때 우리 성도들은 세상의 비난에 굴함 없이 곳곳이 믿음의 길을 가야 한다.

6. **㉠** 예후의 말을 듣고 동료 장교들은 어떤 행동을 취하였는가? (13절)

- ㉠** (1) 재빨리 겹옷을 벗어 섬돌(계단) 위에 깔고 예후를 그 위에 모시고 나팔을 불며 예후가 왕이 되었다고 외쳤다.
- (2) 이러한 행동은 예후를 왕으로 인정하는 표시이며 그에게 충성을 바치겠다는 서약이라고 할 수 있다.
- (3) 그들은 본래 요람 왕에 대하여 매우 불만스러워했으나 예후에 대해서는 깊은 존경심과 충성심을 지니고 있었던 것 같다.
- (4) 따라서 저들은 예후를 왕으로 삼은 후 요람을 증오하고 대항하는 일에 일치 단결하였다. 이것은 불의가 성도들이 힘을 합쳐 물리쳐야 할 대상임을 교훈한다.

7. **㉠** 예후는 언제 요람을 전복할 계획을 세웠는가? (14, 15절)

- ㉠** (1) 예후는 요람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우다 상처를 입고 이스라엘에 돌아와 치료를 받고 있을 때 계획을 세웠다.
- (2) 바로 그때에 유다 왕 아하시야는 요람의 병 문안을 위해 이스라엘에 와 있었으며, 엘리사는 예후를 왕으로 옹립하기 위해 자기 제자를 길르앗 라못으로 보냈던 것이다.

- (3) 이처럼 예후가 요람 왕과 떨어져 있던 상황은 그의 혁명에 적절한 호기(好機)를 제공해 주었다.
- (4)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들을 들어서 당신의 뜻을 펼치실 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적당한 능력과 기회도 함께 주신다.
- (5) 이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보여 주는 것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관용하시는 태도로 무지한 자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신다(참조, 마 5:45).

8. **㉠ 예후의 혁명 사건이 주는 교훈을 말해 보라(17-29절).**

- ㉠** (1) 예후의 혁명에 의해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야는 함께 죽임을 당하고 말았다.
- (2) 이들의 비참한 죽음은 그들과 그들 선조들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피의 심판이었다.
- (3) 흔히 정치 세계 속에서는 권모 술수와 폭력적인 방법들이 정당화될 수 있는 것처럼 여겨진다.
- (4) 즉 역사상의 수많은 집권자들이 그들의 기득권 수호를 위해 민중을 착취하고 탄압하며 비윤리적인 행동을 서슴치 않고 자행에 왔는데 그러한 정치 속에서는 어떤 윤리적 규범도 찾아 보기 힘들다.
- (5) 그러나 이러한 정치 세계 뿐 아니라 모든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
- (6)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공의의 원칙에 따라 왕을 폐하기도 하시고 즉위시키기도 하시며 또한 심판하기도 하시고 구원하기도 하신다.
- (7) 요람의 죽음으로 인한 오므리 왕가의 파멸도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로 이해되어야 한다.

9. **㉠ 예후가 한 기마병에게 '내 뒤로 돌이키라'고 한 말은 무슨 뜻인가?(18절)**

- ㉠** (1) 이것은 '네 자신의 안전을 생각한다면 발걸음을 돌려서 내 병력의 뒤를 따르라'는 말이다. 이 말에 그 병사는 순종하지 않을 수 없었다.
- (2) 이렇게 함으로써 예후는 자기가 오는 목적이 요람에게 알려지게 될 기회를 주지 않았다.
- (2) 이리하여 그는 자기 일에 뜨겁고 열정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임을 보여 주고 있고, 전력을 다하여 전진하는 자임을 드러내었다.
- (4) 이와 같이 성도는 자기의 말은 일에 전력을 다하되 격렬치 않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릴 줄 알아야 한다(참조, 살전 5:23).

10. **㉠ 요람이 예후를 보고 평안이요라고 물었을 때 예후의 대답은 어떠한가?(22절)**

- ㉠** (1) '네 어미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은데 어찌 평안이 있으랴'고 하였다.
- (2) 여기 '음행'이라는 표현은 여호와를 믿는 백성으로서 가나안 바알 종교를 따른 사람들의 우상 숭배를 가리킨다(16:31-33; 18:19; 19:2; 계 2:20).
- (3) 또한 '술수'는 우상 숭배와 동일하게 사용된 일은 없으나, 이세벨이 이스라엘 백성을 거짓말로 속여 바알을 따르게 한 마술적인 유혹을 암시한 것이다.
- (4) 그러나 이런 술수는 일종의 미신으로서 율법에 의하여 금지되었다(출 22:18; 레 19:26; 20:6; 신 18:10-12; 대상 10:13; 사 8:19).
- (5) 따라서 성도는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떠난 곳에서는 항구적인 평안이 있을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참조, 요 14:27).

11. **㉠ 예후는 요람을 어디서 어떻게 죽였는가?(24-26절)**

- ㉠** (1) 이스라엘 사람 에봇의 땅에서 팔을 쏘아 가슴을 꿰뚫어 죽였다.
- (2) 따라서 요람의 시체는 수년 전 아합이 취한 나뭇의 땅에 던져졌는데 이것은 엘리야의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뜻한다(왕상 21:19; 22:38).
- (3) 이와 같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과정을 기록하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거하고 있다(참조, 고후 6 7).

12. ㉠ 유다왕 아하시야는 어떻게 죽게 되었는가? (27, 28절)

- ㉠ (1) 아하시야는 요람이 죽는 것을 보고 동산 정자 길로 도망하다가 이블르암 가까운 구르비탈에서 예후의 군사들의 칼에 맞아 부상당한 후 뜨기도까지 피신하였지만 결국 거기서 죽고 말았다.
- (2) 한편 뜨기도는 에스드렐론 평야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팔레스틴 중앙부에 위치한 중요한 요새이다.
- (3) 결국 아하시야는 악인을 문병(問病)하다 악인과 함께 문상(問喪)을 받는 처지가 되고 말았다.
- (4) 그러므로 성경은 여러 부분에서 악한 자들과 함께 동행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다(시 1:1, 2; 요이 1:10).

13. ㉠ 문으로 들어오는 예후를 보고 이세벨은 뭐라고 소리쳤는가? (30, 31절)

- ㉠ (1)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나' 라고 하였다.
- (2) 이 말은 예후를 반역자로, 또는 반역자에게 아부하는 것도 아닌 냉담한 인사이다.
- (3) 여기에 언급된 시므리는 바아사 왕가를 몰락시킨 후 일주일 동안 왕위에 올랐던 자이다.
- (4) 이처럼 이세벨이 예후를 시므리에 빗댄 것은 신랄한 경멸을 암시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시므리는 이스라엘의 왕위 찬탈자 중에서 가장 비열하고 가장 단명한 자였기 때문이다.
- (5) 즉 시므리는 바아사의 집을 멸망시켰지만 자신도 한 주일 후에 죽임을 당하였었다.
- (6) 이와 같이 어둡고 완고한 인간의 심령은 자신은 더 많은 죄를 지으면서도 그 죄를 항상 다른 사람 속에서 찾으려고 한다(참조, 마 7:4, 5).

14. ㉠ 예후가 창을 향해 말한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란 말은 무슨 의미인가? (32절)

- ㉠ (1) 예후는 이미 아합 가문이 백성의 지지를 잃고 있었으며 이세벨의 측근 인물 중에서도 그녀를 추종할 자가 아무도 없었음을 확신했다.
- (2) 그래서 그는 이세벨이 그 측근에 의해 처형을 당하게 함으로써 이세벨의 제거와 함께 자기에 대한 백성의 지지를 확인하려고 창을 향해 외쳤던 것이다.
- (3) 이와 같이 성도는 모든 일에 있어서 지혜로와야 한다. 성경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하였다(잠 1:7).

15. ㉠ 이세벨은 어떻게 죽었는가? (33-37절)

- ㉠ (1) 이세벨은 두 내시로 인해 창에서 떨어져 죽었는데 그의 시체는 두골과 손바닥 외에는 찾지 못하였다.
- (2) 그 이유는 개들이 그녀의 시체를 두골과 손바닥만 남긴 채 뜯어 먹었기 때문이다.
- (3) 이러한 사실을 보고받은 예후는 엘리야가 선포했던 예언(왕상 21:23)이 그대로 성취되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36, 37절).
- (4) 그러나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성취된 일이지 결코 예후의 계획에 의해 이루어진 결과는 아니다.
- (5) 하나님의 예언 및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이처럼 반드시 이루어진다(민 23:19).

제 10 장 아합의 집에 임한 하나님의 심판

단락구분 1-5 예후가 사마리아에 있는 방백들에게 편지를 보낸다 / 6-11 아합 가문의 남은 자들이 학살당하다 / 12-14 유다의 왕자들이 학살당하다 / 15-17 예후가 아합의 남은 자를 살해하다 / 18-24 바알 숭배자들이 학살당하다 / 25-29 바알 신상을 불태우다 / 30-36 예후의 악행

1 아합의 아들 칠십 인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예후가 편지들을 써서 사마리아에 보내어 이스라엘 방백 곧 장로들과 아합의 여러 아들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전하니 일렀으되

2 너희 주의 아들들이 너희와 함께 있고 또 병거와 말과 견고한 성과 병기가 너희에게 있으니 이 편지가 너희에게 이르거든

3 너희 주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그 아비의 위에 두고 너희 주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더라

4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 왕이 저를 당치 못하였거든 우리가 어찌 당하리요 하고

5 궁내 대신과 부윤과 장로들과 왕자를 교육하는 자들이 예후에게 말을 전하여 가로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 무릇 명하는 것을 우리가 행하고 아무 사람이든지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니 당신의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라 한지라

6 예후가 다시 저희에게 편지를 부치니 일렀으되 만일 너희가 내 편이 되어 내 말을 들으려거든 너희 주의 아들된 사람들의 머리를 취하고 내일 이맘 때에 이스라엘에 이르러 내게 나아오라 하였더라 왕자 칠십 인이 성중에서 그 교육하는 존귀한 자들과 함께 있는 중에

7 편지가 이르매 저희가 왕자 칠십인을 잡아 몰수히 죽이고 그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이스라엘 예후에게로 보내니라

8 사자가 와서 예후에게 고하여 가로되 우리가 왕자들의 머리를 가지고 왔나이다 가로되 두 무더기로 쌓아 내일 아침까지 문 어귀에 두라 하고

9 이튿날 아침에 저가 나가 서서 못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의롭도다 나는 내 주를 배반하여 죽였거니와 이 여러 사람을 죽인자는 누구나

10 그런즉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 종 엘리야로 하신 말씀은 이제 이루셨도다 하니라

11 예후가 무릇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 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 존귀한 자와 가까운 친구와 제사장들을 죽이되 저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12 예후가 일어나서 사마리아로 가더니 노중에 목자가 양털 깎는 집에 이르러

13 유다 왕 아하시야의 형제들을 만나 묻되 너희는 누구냐 대답하되 우리는 아하시야의 형제라 이제 왕자들과 태후의 아들들에게 문안하러 내려가노라

14 가로되 사로잡으라 하매 곧 사로잡아 목자가 양털 깎는 집 웅덩이 곁에서 죽이니 사십 인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15 예후가 거기서 떠나 가다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이 맞으러 오는것을 만난지라 그 안부를 묻고 가로되 내 마음이 네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네 마음도 진실하나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가로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아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16 가로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17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 남아 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를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18 예후가 못 백성을 모으고 이르되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예후는 많이 섬기리라

19 그러므로 내가 이제 큰 제사를 바알에게 드리고자 하노니 바알의 모든 선지자와 모든 섬기는 자와 모든 제사장들을 한 사람도 빠치지 말고 불러 내게로 나오게 하라 무릇 오지 아니하는 자는 살리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는 예후가 바알 섬기는 자를 멸하려 하여 제제를 씀이라

20 예후가 바알을 위하는 대회를 거룩히 열라 하매 드디어 공포하였더라

21 예후가 온 이스라엘에 두루 보내었더니 무릇 바알을 섬기는 사람이 하나도 빠진 자가 없이 다 이르렀고 무리가 바알의 당에 들어가매 이 편부터 저 편까지 가득 하였더라

22 예후가 예복 맡은 자에게 이르되 예복을 내어다가 무릇 바알 섬기는 자에게 주라 하매 저희에게로 예복을 가져온지라

23 예후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으로 더불어 바알의 당에 들어가서 바알을 섬기는 자에게 이

르되 너희는 살펴보아 바알을 섬기는 자만 여기 있게 하고 여호와와 종은 하나도 너희 중에 있지 못하게 하라 하고

24 무리가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려고 들어간 때에 예후가 팔십 인을 밖에 두며 이르되 내가 너희 손에 붙이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도망하게 하는 자는 자기의 생명으로 그 사람의 생명을 대신하리라 하니라

25 번제 드리기를 다하며 예후가 호위병과 장관들에게 이르되 들어가서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죽이라 하며 호위병과 장관들이 칼로 저희를 죽여 밖에 던지고 바알의 당 있는 성으로 가서

26 바알의 당에서 목상들을 가져다가 불사르고

27 바알의 목상을 찢으며 바알의 당을 훼파하여 변소를 만들었더니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28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29 이스라엘로 범죄계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벨엘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30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보

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네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사대를 지나리라 하시니라

31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로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32 이 때에 여호와께서 비로소 이스라엘을 찢으시매 하사엘이 그 사방을 치되

33 요단 동편 길르앗 온 땅 곧 갓 사람과 르우벤 사람과 므낫세 사람의 땅 아르논 골짜기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과 바산까지 하였더라

34 예후의 남은 사적과 무릇 행한 일과 모든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니라

35 예후가 그 열조와 함께 자매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 아들 여호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36 예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린 햇수는 이십 팔 년이더라

1. ㉠ 본장의 내용과 교훈을 말하라.

- ㉠ (1) 본장에는 예후를 통해 이루어진 아합의 가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내용과 바알 숭배자들을 몰살시키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
- (2) 이 행위는 하나님의 섭리를 수행하는 것이었지만 그 방법에 있어서 너무 잔인하였다.
- (3)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예후의 행동을 기뻐하시지 않고 오히려 진노하셨는데 오늘날의 성도도 주의 일을 행함에 있어서 먼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야 한다(참조, 행 13:22; 빌 2:5).

2. ㉠ 예후는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 방백들에게 어떤 편지를 보냈는가? (1-3절)

- ㉠ (1) 이스라엘에는 요람 왕의 아들들과 많은 병기가 있었으므로 예후는 이스라엘의 방백들이 원한다면 무력 대결을 하겠다고 편지를 보냈다.
- (2) 이는 경멸의 뜻이 담겨 있는 도전장이면서 한편으로는 '사마리아의 주요 인물'들의 생각을 떠보고자 하는 계략도 포함되어 있었다.
- (3) 왜냐하면 그들의 내심을 잘 알지 못하고서는 사마리아에 남아 있는 아합 왕가의 사람들을 멸절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 (4) 한편 예후가 도전장을 보낸 이스라엘 방백'은 아합 왕가의 국내 대신이나 사마리아 행정관을 가리키며, '아합의 여러 아들을 교육하는 자들'은 아합의 아들들과 손자들을 위해 세운 양부들과 후견인(보호자)을 가리킨다(5절).

3. ㉠ 예후의 편지를 받고 사마리아의 권세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4, 5절)

- ㉠ (1) 심히 두려워 떨며 우리는 당신(예후)의 종이니 무엇이든지 명하는 대로 행하겠다고 회신을 보냈다.
- (2) 이것은 왕에게는 어떤 신적 권능이 부여되어 있다고 믿는 당시의 상황에서(사 8:20, 21) 이러한 왕을 들이나 죽인 예후에게 함부로 도전하는 것은 무덤을 파는 어리석은 행동일 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 (3) 이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보다는 사람을 두려워한다.

(4) 성도는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그분만을 섬기고 믿어야 한다(마 10:28).

4. **㉠ 왕의 아들들의 머리를 취해 보내라는 예후의 편지를 다시 받고 사마리아 권세자들은 어떻게 했는가? (6, 7절)**

- ㉠ (1) 그들은 왕자 70명을 모두 죽여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이스라엘에 있는 예후에게 보냈다.
- (2) 이것은 예후가 방법에 능한 자로서 싸우지 않고도 승리를 거둔 것을 보여 준다.
- (3) 이처럼 예후로 말미암아 아합 가문 전체가 죽임을 당한 것은 사실은 그들의 죄악 때문이었다. 따라서 이것은 예후를 통한 하나님의 심판 행위이다.
- (4) 그러므로 오늘의 성도는 심판의 사건 앞에서 그 심판과 관련된 자들의 죄악의 참상을 기억하고 함께 회개 운동을 벌여야 한다(은 3:4-9).

5. **㉠ 예후는 '우리가 왕자들의 머리를 가지고 왔다'고 전한 사자에게 어떤 명령을 내렸는가? (8절)**

- ㉠ (1) 그 머리들을 성문 어귀에 두 무더기로 쌓아서 내일 아침까지 두라고 명하였다.
- (2) 이처럼 왕자들의 머리를 성문에 쌓아 두는 것은 단순한 시위만을 위함이 아니었다.
- (3) 그것은 이 성이 그 살륙당한 피에 책임이 있다는 것과 그것을 위해 속량할 의무를 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4) 따라서 오늘의 성도는 마땅히 자기가 한 일에 대해 책임을 질 줄 아는 자유인이 되어야 한다(참조, 갈 5:13).

6. **㉠ 예후가 백성에게 말한 '너희는 의롭도다 이 여러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냐'가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9, 10절)**

- ㉠ (1) '너희는 의롭도다'란 말은 성문 어귀에 모인 백성이 아합 왕가의 사람들을 죽이는 일에 협력한 적이 없으므로 무죄하다는 의미이다.
- (2) '이 여러 사람을 죽인 자가 누구냐'란 예후 자신의 잔인한 성격을 백성들 앞에서 감추기 위해 했던 말이다.
- (3) 사실상 아합의 아들 70명을 죽이도록 명령한 것은 예후 자신인데 그는 이제 와서 그 책임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가시키고 자신은 심판자로 군림하고 있다.
- (4) 그러면서 그는 왕자들의 살인 사건을 자신의 반정(反正) 사건과 함께 엘리야를 통하여 예언하신 하나님의 말씀(참조, 왕상 21:19, 21, 29)이 성취된 것으로 보면서 정당화시키고 있다.
- (5)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핑계하면서 자기의 실수와 과오를 합리화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들어 심판에 쓰신다고 해서 그 인간이 가진 죄가 정당화 될 수는 없다(참조, 마 27:3-10).

7. **㉠ 예후가 유다 아하시야 왕의 형제들도 살해한 이유는 무엇인가? (13, 14절)**

- ㉠ (1) 예후는 아하시야의 형제 42인을 양털 깎는 집 웅덩이 곁에서 살해했다. 여기서 아하시야의 형제들이란 정확히 말하면 '아하시야의 형제의 아들들'이다(대하 22:8). 아하시야는 막내 아들이었으며 그의 형들은 모두 아라비아인에게 살해되었었다(대하 22:1).
- (2) 예후는 그들을 이세벨의 우상주의에 깊이 물든 아합의 손자들로 여기고 아합의 자손에게 선포된 저주에 해당하는 자들로 여겼다.
- (3) 여기서 이러한 행동의 정당성은 의문시 될 여지가 있다. 왜냐하면 42명의 사람들이 아합의 집과 관련은 있었지만 그들은 오히려 다윗의 집에 속한 자들이었기 때문이다.
- (4) 그러나 그들은 아합의 왕실과 가깝게 지내면서 다윗의 의로운 길보다는 아합의 불의한 길을 따르다가 아합의 집에 내린 심판에 참여하고 말았던 것이다.
- (5) 그러므로 성도들은 항상 깨어 근신하고 악인과 함께하지 말아야 한다(참조, 시 1:1; 요이 1:10, 11).

8. **㉠** 예후와 여호나답은 바알 숭배자들을 제거하는 일에 함께 참여했는데 여호나답은 누구의 아들인가? (15절)

- ㉠** (1) 여호나답은 레갑의 아들이다. 여기서 아들이라는 말은 후손을 뜻한다.
 (2) 레갑 자손은 밭이나 과수원을 만들지 않고, 포도주를 마시지 않으며, 집을 짓지 않고 천막에서 사는 부족으로(렘 35:8-10) 겐 족속에 속하였다.
 (3) 그들은 원시적인 여호와 종교에 열심이며 사막의 단순한 생활을 즐기는 사람들이었다.
 (4) 이렇게 유목 생활을 하게 된 이유는 농경 생활이나 정착된 상업 활동을 함으로써 생기는 향락과 무절제를 피하고 하나님을 보다 경건하게 섬기려는 데에 있었다.
 (5) 그런 까닭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율법을 부끄러움 없이 범하는 당시 백성들 앞에 이들을 모범으로 소개하였고 레갑인들만이 그들의 선조의 교훈을 신실하게 지킴으로 인해 바벨론의 심판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말하였다(렘 35:12-19).

9. **㉠** 예후가 이스라엘에 있는 바알 숭배자들을 제거하는 방법은 어떠했는가? (18-28절)

- ㉠** (1) 예후는 바알 숭배자들을 처단하기 위해서 계락을 꾸렸다.
 (2) 그 계락이란 백성들에게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예후는 많이 섬기리라’ 고 말하면서 한 날을 정해 바알을 위하는 큰 대회를 개최한다는 것이었다.
 (3) 그러므로 전국에 흩어져 있는 바알의 모든 선지자와 모든 섬기는 자와 모든 제사장들은 한 사람도 그 제사에 빠져서는 안되며 만일 빠질 시에는 그 자에게 죽임을 내리겠다는 것이었다.
 (4) 백성들은 이러한 예후의 선언을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였다. 이는 바아사, 시므리, 오므리의 혁명 때에도 우상 숭배가 더욱 번성했던 전례가 있었기 때문이다.
 (5) 결국 이 계락대로 예후는 바알의 당에 모인 바알의 모든 추종자들을 살해하였고 바알의 당을 완전히 파괴하였다.
 (6) 이일로 인해 북이스라엘의 바알 숭배는 종식되었다. 그러나 결과야 어떻든 간에 예후가 사용한 방법은 정당치 못했고 거짓이었다. 그래서 혹자는 그의 지혜를 위로부터 난 것이 아니라 세상적이고 정욕적이며 이기심에서 발단된 것으로 본다.
 (7) 그러므로 성도는 선한 목적 못지 않게 선한 방법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10. **㉠** 예후는 금송아지 우상까지 파괴시켰는가? (29절)

- ㉠** (1) 비록 예후가 이스라엘에 있는 바알 숭배를 완전히 전멸시켰다고 할지라도 벨엘과 단에 세운 금송아지 우상은 파괴시키지 않았다.
 (2) 이 사실은 결국 예후의 혁명과 우상 파괴 운동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자기의 왕권을 확립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에서 이루어졌음을 보여 준다.
 (3) 이처럼 많은 사람이 외적인 죄는 끊어 버리면서도 자신을 부인할 생각은 갖지 않는다. 성도는 마땅히 자신의 이익을 희생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마음을 돌려야 한다(참조, 마 16:24).

11. **㉠** 하나님은 예후에게 자손 몇 대까지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것을 말씀하셨는가? (30절)

- ㉠** (1) 하나님께서는 예후에게 4대까지 오른다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예후가 이스라엘에 있었던 바알 숭배를 강력히 제거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는 그의 왕조를 연장시켜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이다.
 (2) 그러나 예후는 이스라엘에서 이방 신들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았다.
 (3) 따라서 이 약속에는 하나님의 그에 대한 불신임의 징표로 특별한 제한이 가해졌는데 예후의 왕조는 4대(100년) 만 계속될 것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셨다.
 (4) 이 예언은 여호아하스(13:1), 요아스(13:9), 여로보암 2세(14:23), 스가랴(15:8)가 예후의 후예로서 이스라엘의 왕이 됨으로써 성취되었다.

(5) 이와 같이 하나님을 위한 봉사는 보상으로 이어지며 하나님에 대한 배반은 심판을 자초하게 된다(참조, 전 3:17).

12. ㉠ 예후의 잔인하고 포악한 죄값으로 거둔 열매는 무엇인가? (32, 33절)

- ㉠ (1) 예후는 그의 잔인하고 포악했던 행위의 죄값으로 이방 아람 왕 하사엘의 침입을 받게 되었다.
- (2) 즉 하사엘은 요단 동편의 '길르앗' 일대를 침범하여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과 바산까지를 유린하고 이스라엘의 영토를 빼앗았다.
- (3) 본질은 이 사건을 '여호와께서...이스라엘을 찢으셨다'고 표현했는데 이것은 예후의 죄악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음을 의미하는 말이다.
- (4) 여기서 '찢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카차>는 '나뭇가지를 잘라내는 것'과 같은 동작을 뜻한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영토를 떼어내어 아람에게 주셨다는 말이다.
- (5) 이처럼 목적이 올바른 지라도 그것을 추구하는 방법이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하면 결국 그에 상당한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야만 한다.

13. ㉠ 예후는 사마리아에서 몇 년간 왕위에 있었고 그의 후계자는 누구이며 어떤 방법으로 예언을 실행하였는가? (34-36절)

- ㉠ (1) 그는 사마리아에서 28년 동안 통치하였고 그의 후계자는 자기 아들 여호아하스였다.
- (2) 이러한 예후의 28년 통치는 하나님의 예언을 실행하면서도 하나님의 방법을 생각지 아니하고 자기의 방법대로 행하였던 인본주의적 통치의 전형적인 표본이었다.
- (3) 이러한 인본주의적 사고에 의하여 혁명을 수행하였기 때문에 예후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면서도 매우 잔인하게 행하는 범죄를 저질렀던 것이다.
- (4) 이처럼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기 보다는 자기의 유익을 위해 행동하였는데, 오직 성도는 자기를 쳐서 주께 복종시키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해야 한다(고전 9:27; 10:31).

본장의 요절



'바알의 모든 선지자와 모든 제사장들을 섬기는 자와 모든 한 사람도 빠치지 말고 불러 내게로 나오게 하라 무릇 오지 아니하는 자는 살리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는 예후가 바알 섬기는 자를 멸하려 하여 궤계(詭計)를 쓰이라' (19절).

제 11 장 요아스가 유다 왕으로 즉위하다

단락구분 1-3 아달라의 학살을 피한 요아스 / 4-8 여호야다의 거사 계획 / 9-12 거사 시행으로 요아스가 즉위하다 / 13-16 아달라가 처형되다 / 17-21 요아스가 보좌에 있다

1 아하시야의 모친 아달라가 그 아들의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씨를 진멸하였으나

2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야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야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의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도적하여 내고 저와 그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라를 피하여 죽임을 당치 않게 한지라

3 요아스가 저와 함께 여호와의 전에 육 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라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4 제 칠 년에 여호야다가 보내어 가리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서 저희와 언약을 세우고 저희로 여호와의 전에서 맹세케 한 후에 왕자를 보이고

5 명하여 가로되 너희의 행할 것이 이러하니 안식일에 입헌한 너희 중 삼분 일은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6 삼분 일은 수르 문에 있고 삼분일은 호위대 뒤에 있는 문에 있어서 이와 같이 왕궁을 주의하여 지켜 방어하고

7 안식일에 출번하는 너희 중 두 대는 여호와의 전을 주의하여 지켜 왕을 호위하되

8 너희는 각각 손에 병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무릇 너희 반열을 침범하는 자는 죽이고 왕의 출입할 때에 시위할지니라

9 백부장들이 이에 제사장 여호야다의 모든 명대로 행하여 각기 관할하는 바 안식일에 입번할 자와 출번할 자를 거느리고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나아오매

10 제사장이 여호와의 전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니

11 호위병이 각각 손에 병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전 우편에서부터 전 좌편까지 단과 전결

에 서고

12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면류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을 삼으매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13 아달라가 호위병과 백성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백성에게 이르러

14 보매 왕이 규례대로 대위에坐了 장관들과 나팔수가 왕의 곁에 모였으며 온 국민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부는지라 아달라가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매

15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반열 밖으로 몰아내라 무릇 저를 따르는 자는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전에서는 저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16 이에 저의 길을 열어 주매 저가 왕궁 말다니는 길로 통과하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였더라

17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으로 여호와와 언약을 세워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매

18 온 국민이 바알의 당으로 가서 그 당을 훼파하고 그 단들과 우상들을 깨뜨리고 그 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맛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전을 수직하게 하고

19 또 백부장들과 가리 사람과 호위병과 온 국민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내려와서 호위병의 문 길로 말미암아 왕궁에 이르매 저가 왕의 보좌에 앉으니

20 온 국민이 즐거워하고 성중이 평온하더라 아달라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었더라

21 요아스가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칠 세였더라

I. ㉠ 본장의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하라.

- ㉠ (1) 본장은 9:27에 연속되는 내용이다. 즉 본장에는 9장에서 죽은 유다 왕 아하시야의 모친인 아달라가 정권을 장악했다가 결국 제사장 여호야다의 혁명으로 처형되고 아하시야의 왕 요아스가 왕위에 오른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 (2) 그런데 아달라가 정권을 가지고 통치하던 6년간은 유다 왕국으로서는 암흑기와 같았다. 왜냐하면 아달라는 다윗 혈통이 아닐 뿐 아니라 요녀(妖女) 이세벨의 딸이었고 우상 숭

배자였기 때문이다.

- (3) 이러한 아달라의 정권을 깨뜨리고 다윗 왕통을 회복한 여호야다의 거사 기록은 오늘날 사단의 도전에 의해 심각한 영적 위기에 처한 개인이나 교회나 혹은 국가를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가에 대한 영적 원리를 제공해 준다.

2. **㉠ 아하시야는 어떻게 죽었는가? (1절)**

- ㉠** (1) 유다 왕 아하시야는 아람과의 전쟁에서 부상당한 이스라엘 왕 요람을 문병하러 갔다가 (8:29) 예후의 군사들의 칼에 맞아 죽었다(9:27).
- (2) 아하시야는 이스라엘 왕 아합의 의존자로서 그는 우상을 섬기는 아합 왕가와 매우 가깝게 지냄으로 이스라엘 왕과 함께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것이다.
- (3) 이런 잘못된 결혼 정책은 아하시야의 조부인 여호사밧이 빚어낸 결과였다(대하 18:1).
- (4) 사도 바울은 ‘믿지 않는 자와 명예를 같이하지 말라’고 경고했다(고후 6:14).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은 결코 일치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 (5) 만일 불신자와 결혼하고 또 그 불신앙과 타협한다면 그것은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멸하신다고 하셨다(고전 3:17).
- (6) 우리는 여호사밧의 실수가 아하시야 때에 와서 엄청난 비극으로 나타난 사실에 교훈을 받아 ‘불신앙’과 타협하지 말아야 하겠다.

3. **㉠ 아달라가 ‘왕의 씨를 진멸하려 한’ 이유는 무엇인가? (1절)**

- ㉠** (1) 아달라는 아하시야 왕의 모친이었는데 아하시야가 므깃도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다(9:27). 그때 그녀는 애도하기는 커녕 돌연 자기의 손자와 조카 빨되는 왕자들을 잔인하게 죽이는 살인극을 연출했다.
- (2) 왕의 어머니 아달라는 사실 우상 숭배자인 이스라엘 7대 왕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며 패역한 유다 4대 왕 여호람의 아내였다.
- (3) 그녀는 여호사밧 때에 유다 왕가로 시집을 온 후(대하 18:1) 남편 여호람과 아들 아하시야를 꺾어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하다가 아하시야의 전사(戰死)를 틈타 왕권을 장악하고 우상 숭배를 합법화시키기 위해 다윗 혈통을 멸절시키려고 시도했던 것이다.
- (4) 아달라는 권세욕과 가증한 우상 숭배를 위해서 자신의 피붙이인 손자들을 죽이는 일도 서슴치 않았다.
- (5) 이런 사실은 하나님을 떠난 우상 숭배가 얼마나 사악한 것인가를 보여 주고 있다. 아달라는 나쁜 열매를 맺음으로써 자기의 바알 우상 종교가 나쁜 나무임을 스스로 나타내고 있다(마 7:17, 18).

4. **㉠ 여호세바는 어떤 사람인가? (2절)**

- ㉠** (1) 여호세바는 ‘여호사브앗’이라고도 불리우는데 여호람 왕의 딸이요 아하시야 왕의 이복 누이였고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였다(대하 22:11).
- (2) 그녀는 아달라의 끔찍한 살인극이 벌어지는 가운데에서 아하시야의 한살 난 아들 요아스를 훔쳐내어 유모와 함께 침실에 숨겨 죽임을 당치 않게 하였다.
- (3) 이와 같은 그녀의 행위는 다윗의 씨를 남겨 두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이었다(왕상 11:26).

5. **㉠ 아달라에 의해 왕자들이 죽임을 당한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 ㉠** (1) 여호사밧이 죽은 후 다윗 왕가는 왕위를 둘러싼 피비린내 나는 유흥극이 연속되었다.
- (2) 아달라의 남편 여호람은 여호사밧의 아들인 자기 형제들을 모두 죽였다(대하 21:4).
- (3) 또한 얼마 후 아라비아 사람의 침입을 받아 여호야하스 한 사람만 제외한 여호람의 모든 아들들이 죽임을 당했다(대하 22:1).
- (4) 그 후 예후는 아합의 집을 징벌할 때 아하시야(여호야하스)의 아들들을 죽였고 거기서

남은 자를 아달라가 마저 진멸하였던 것이다.

- (5) 확실히 왕족의 피가 그렇게 많이 흘려진 일은 그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없었다. 여호사밧 왕의 후손 중에 남은 자는 요아스 한 사람뿐이었다.
- (6) 이러한 비극은 아달라가 다윗 왕가에 들어온 이후부터 발생했다. 여호사밧은 선한 왕이었으나 그릇된 결혼 정책으로 다윗 왕가를 파괴시킨 주인공이라 할 수 있다.
- (7) 우리는 여호사밧처럼 선한 일을 힘쓰는 가운데에서도 그의 잘못된 결혼 정책의 전철만은 밟지 말아야겠다.

6. ㉠ 여호야다는 어떤 사람인가? (4절)

- ㉠ (1) 여호야다는 본장 전체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다윗 왕위를 회복하는 일을 주도한 본장의 중심 인물이다.
- (2) 그는 아달라 시대 때의 제사장으로서(9절), 여호람 왕의 딸 여호세바(여호사브앗)와 결혼한 왕의 사위이기도 했다.
- (3) 만일 모든 왕의 씨가 진멸되었다면 여호람의 딸인 그의 아내는 아달라보다 더 좋은 직책을 가지게 되었을 것이다.
- (4) 그러나 여호야다는 결코 그러한 권세나 부귀를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로운 뜻을 이루어 드리는 데 관심이 있었다.
- (5) 그에게 있어서 아합 집의 요녀 아달라를 몰아내고 다윗 왕위를 회복하는 것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한 일은 없었다. 그러므로 그는 먼저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했고, 예언자들이나 우림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전에 이런 큰 일을 시도하지 않았을 것이다.
- (6) 신자들도 여호야다와 같은 자세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해야 한다.

7. ㉠ 여호야다는 어떻게 다윗 왕위를 회복하는 일을 시작하였는가? (4절)

- ㉠ (1) 여호야다는 아달라 통치 후 제 7년(B. C. 835)에 백부장들을 모아 성전에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고 맹세케 하였다. 본문에 '가리 사람'이란 친위대 중의 외국인 용병인데 '가리'는 '그레테' (Crete) 섬과 같다(삼하 20:23).
- (2) 이렇게 여호야다는 어떤 유흥적인 방법으로 어린 왕자를 즉위시키려 하지 않고 먼저 경건한 백부장들을 모아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음으로 의로운 거사를 준비했다.
- (3) 그의 혁명의 목적은 하나님의 언약을(왕상 11:36) 회복하는 것이었다.
- (4) 한편 역대기 기자는 대하 23:1-3에서 이 혁명에 참가한 백부장들의 이름을 밝혔 뿐 아니라 그들이 축제를 한다는 구실하에서 사방으로 나아가 레위인들과 이스라엘 족장들을 모아 예루살렘에 이르렀던 사실까지 밝히고 있다.
- (5) 성도들이 이와 같이 개혁 운동을 할 때 인간적이기 보다는 하나님 중심적으로, 인간의 방법보다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추진해야 한다.

8. ㉠ 여호야다가 백부장들에게 내린 명령은 어떤 내용인가? (5-8절)

- ㉠ (1) 안식일에 입번한 자와 출번하는 자에게 각각 위치와 임무를 부여했다.
- (2) 안식일에 입번하는 제사장들은 3부분으로 나누어 왕궁, 수르문, 호위대 뒷문을 지켜 방어하도록 했다(5, 6절).
- (3) 안식일에 출번하는 제사장들은 2부분으로 나누어 성전을 지켜 왕을 호위하고 성전을 침범하는 자는 죽이도록 했다(7, 8절).
- (4) 이처럼 하나님의 일꾼들은 자기 위치를 바로 알고 그 위치를 지켜야 된다. 자기가 맡은 직분에 바로 머물러 있을 뿐 아니라 최선을 다해 임무를 수행할 때 개혁 운동은 성공될 수 있다.

9. ㉠ 안식일에 '입번한 자와 출번하는 자'란 각각 누구를 가리키는가? (5, 7절)

- ㉠ (1) '안식일에 입번한 자'란 안식일 아침부터 그 다음 주 안식일 저녁까지 성전 일을 돌보

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오는 제사장을 가리키는 말이다(참조, 대상24:1-9).

- (2) 한편 ‘출번하는 자’는 한 주간의 성전 일을 마치고 안식일 저녁의 제사드리기 직전 집으로 돌아가는 제사장을 가리킨다.
- (3) 그러므로 안식일에는 ‘입번한 자’와 ‘출번한 자’가 합류하여 성전 일을 돌보게 되는데 여호야다는 이들과 함께 거사를 도모했다.
- (4)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성실히 행하는 제사장들은 여와야다의 거룩한 혁명을 수행하는데 적합한 동역자였던 것이다.
- (5) 평소에 하나님 일을 충실히 하는 자가 또한 비상시에도 하나님의 의로운 거사에 동참할 수 있다.

10. **㉠** 여호야다는 백부장들에게 어떤 무기를 공급했는가? (10절)

- ㉠** (1) 백부장들이 여호야다의 명령대로 행하여 제사장들을 이끌고 여호야다에게 나오자 여호야다는 성전에 있던 다윗 왕의 창과 방패를 무기로 주었다.
- (2) 백부장들과 호위병들은 거사를 은밀히 준비하기 위해 성전에 나올 때 무기를 소지하지 않고 나왔을 것이다.
- (3) 여기서 무기로 공급된 다윗 왕의 창과 방패는 다윗 왕 자신의 것과 적으로부터 탈취한 것으로서 여호와와 영광을 위하여 바친 것들이었다.
- (4) 비록 그 무기들이 낡고 구식이었다고 해도, 다윗 왕의 것이었기에 다윗 왕과 하나님과의 계약을 상기하게 했다.
- (5) 이것은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이 무기 자체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앙을 더욱 중요시했음을 보여 준다.
- (6) 성도들이 선한 싸움을 위해 갖추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무기는 ‘믿음’이다. 사도 요한은 ‘세상을 이긴 이기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요일 5:4) 라고 고백했다.

11. **㉠** 왕의 즉위식은 어떻게 거행되었는가? (12절)

- ㉠** (1) 모든 호위병들이 자기 위치를 지키고 임무를 수행할 때 여호야다는 왕자를 성전으로 인도하여 내었다.
- (2) 그리고 왕위를 상징하는 것으로 성전에 보관되어 있던 면류관을 그 머리에 씌웠다. 이로써 여호야다는 자기의 거사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윗 왕가의 영광을 위해,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나타내었다.
- (3) 이어서 왕에게 율법책을 주었는데 이것은 율법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는 신정(神政) 국가의 왕됨을 보여 주는 것이다(참조, 신 17:18, 19).
- (4) 마지막 절차로 여호야다는 요아스에게 기름을 부음으로 즉위식을 완료하였다. 이것은 여호와와 영이 왕에게 임재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게 함을 상징한다.
- (5) 이러한 예식은 유다의 왕권이 그리스도의 왕권에 대한 상징인 것을 보여 준다.
- (6)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즉위식이 거행되어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통치하시도록 해야 한다

12. **㉠** 아달라는 어떻게 최후를 맞이했는가? (13-16절)

- ㉠** (1) 여호야다의 군대는 아마도 왕의 장엄한 취임식이 끝난 후, 아달라를 방문해서 그녀의 살인, 왕위 찬탈, 폭정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기도 했을 것이다.
- (2) 그러나 아달라는 그들이 오기 전에 그들을 만나러 성전으로 나왔는데 그것이 자기의 파멸을 재촉케 했다(13, 14절).
- (3) 그때 여호야다는 그녀를 처형하도록 명령했고 도망하던 아달라는 왕궁 말 다니는 길로 통과하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했다(15, 16절).
- (4) 이렇게 아달라는 공포스런 종말을 맞이했다. 그렇게 잔인하게 다윗의 왕손들을 죽이고 다윗 왕가를 증오하던 그 여인은 많은 사람들의 증오 속에서 자기가 행한 대로 보응을

받고 죽었다.

(5) 이것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갈 6:7)는 교훈을 가르쳐 준다.

13. **㉠ 여호야다가 성전에서는 아달라를 죽이지 말라고 한 이유는 무엇인가? (15절)**

- ㉠** (1) 여호야다는 아달라가 당장 죽어 마땅한 악인이었으나 조금하게 행동하지 않고 신중히 하여 성전에서는 죽이지 말라고 하였다.
 (2) 그 이유는 성전이 우상 숭배자요 한편 잔혹한 살인자인 아달라의 피로써 더럽혀져서 안 되었기 때문이다.
 (3) 이때 여호야다는 혁명 과업이 아무리 중요하고 다급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 방법에 있어서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계획을 추진하려고 하지는 않았던 것이다.

14. **㉠ 여호야다는 어떻게 언약을 세웠는가? (17절)**

- ㉠** (1) 여호야다는 두 번 언약 예식을 거행했다. 첫째는 수직적 언약 예식이고 둘째는 수평적 언약 예식이다.
 (2) 수직적 언약 예식이란 왕을 비롯한 모든 백성이 위에 계신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게 한 것이다. 이것은 십계명 중 처음 4 계명을 새롭게 한 것이다.
 (3) 수평적 언약 예식이란 인간 상호간인 왕(지도자)과 백성(피지도자) 사이에 언약을 세운 것이다. 이것은 십계명 중 나머지 6계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4) 이렇게 성도는 먼저 위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고 아래로 이웃간에 바른 관계를 가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이다.

15. **㉠ 여호야다가 세운 언약의 내용은 무엇이었는가? (17절)**

- ㉠** (1) 본절에서 세운 언약의 내용은 대하 23:16에 밝혀지고 있다. 그 내용은 '여호와와 백성이 되리라'는 것이다.
 (2) 여호와와 백성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든 생활에 있어서 주(主)와 왕으로 모시는 것을 의미한다.
 (3) 이것은 바꾸어 말해 성도가 하나님께 자신의 재물과 건강과 지식과 명예와 권세와 시간을 맡아 관리하는 청지기 의식(stewardship)을 회복하는 것이다.
 (4)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관리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 '여호와와 백성이 되리라'란 의미이다.
 (5)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도는 말씀을 듣는 조용한 시간(quiet time)을 구별하여 실천함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이루어 나가도록 해야 한다.

16. **㉠ 언약을 세운 후 온 국민은 무슨 일을 시행했는가? (18절)**

- ㉠** (1) 바알의 당으로 가서 모든 우상을 깨뜨려 파괴하고 또 바알의 제사장인 맛단을 죽였다.
 (2) 한편 여호와와 전에는 관리들을 새로 임명하여 지켜 섬기게 하였다.
 (3) 이것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실천한 것이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 위해서는 우상을 몰아내어 제거하고 성전을 바로 보존하고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
 (4) 성도들이 모범적인 청지기직을 실천함에는 많은 장애물이 있다. 그것은 영적인 의미에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을 제거함으로 극복될 수 있다.
 (5) 성도들은 과감하게 마음의 우상을 제거하고 '맛단'이 상징하는 사단을 물리침으로 생활 중에 하나님을 참된 왕으로 모셔야겠다.

17. **㉠ 여호야다는 왕을 성전에서 어디로 인도하였는가? (19절)**

- ㉠** (1) 여호야다는 온 국민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성전에서 내려와서 왕궁에 이르러 요아스 왕으로 보좌에 앉게 하였다.
 (2) 성전에서 즉위한 왕이 왕궁에 와서 보좌에 앉으므로 명실 상부한 다윗의 왕통이 회복

된 것이다.

- (3) 이것은 그리스도의 왕권이 성도의 종교 생활 뿐만 아니라 직장과 가정과 학교 등 모든 생활 영역에 미쳐져야 할 것을 의미한다.
- (4) 성도의 경건(godliness)은 처음에는 교회의 예배 시간에서부터 시작되지만 거기서 그쳐서는 안되고 모든 생활에서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는 가운데 경건이 이뤄져야 한다.

확보자료

요아스의 즉위. 아래의 사진은 6년 동안 성전에서 숨어 살던 요아스가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도움으로 왕위에 오르는 모습이다.



아달라의 칼을 피해 성전에서 숨어 살다가 왕위에 오른 요아스는 (12절) 온 백성의 환호를 받았다. 또한 그는 우상 숭배자들로 말미암아 퇴락한 성전을 재건하는 일도 하였다(12절). 그러나 그는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였으며 그러한 사실을 책망하는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죽이는 죄까지 범하였다. 그 결과로 유다는 아람의 침략을 받았으며 요아스는 부하들에 의해 살해당하였다(대하 24: 17- 26).

제 12 장 유다 왕 요아스의 성전 수리

단락구분 1-3 요아스의 통치 개요/4-8 요아스가 성전 수리에 대하여 명령을 내리다/9-16 성전을 수리하다/17-18 아람 왕 하사엘의 침입/19-21 요아스가 신복들에게 피살되다.

1 예후의 칠 년에 요아스가 위에 올라 예루살렘에서 사십 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시비아라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2 요아스가 제사장 여호야다의 교훈을 받을 동안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니

3 오직 산당을 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4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무릇 여호와의 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은 곧 사람의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와 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5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 들여서 전의 어느 곳이든지 퇴락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하였더니

6 요아스 왕 이십 삼 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오히려 전의 퇴락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7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전의 퇴락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저희로 전 퇴락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8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에게 은을 받지도 아니하고 전 퇴락한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용락하니라

9 제사장 여호야다가 한 궤를 취하여 그 두껍에 구멍을 뚫어 여호와와 전문 어귀 우편 곧 단 옆에 두매 무릇 여호와와 전에 가져오는 은을 다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그 궤에 넣더라

10 이에 그 궤 가운데 은이 많은 것을 보면 왕의 서기와 대제사장이 올라와서 여호와와 전에 있는 대로 그 은을 제수하여 봉하고

11 그 달아본 은을 일하는 자 곧 여호와와 전

을 맡은 자의 손에 붙이면 저희는 또 여호와와 전을 수리하는 목수와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고

12 또 미장이와 석수에게 주고 또 여호와와 전 퇴락한 데를 수리할 재목과 다듬은 돌을 사게 하며 그 전을 수리할 모든 물건을 위하여 쓰게 하였으니

13 여호와와 전에 드린 그 은으로 그 전의 은 대점이나 불집거나 주발이나 나팔이나 아무 금그릇이나 은그릇을 만들지 아니하고

14 오직 그 은을 일하는 자에게 주어 그것으로 여호와와 전을 수리하게 하였으며

15 또 그 은을 받아 일군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계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성실히 일을 하였음이라

16 속전제의 은과 속죄제의 은은 여호와와 전에 드리지 아니하고 제사장에게 들렸더라

17 때에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취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자 한 고로

18 유다 왕 요아스가 그 열조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야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와 전 공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취하여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내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 갔더라

19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 모든 행한 것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20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서 모반하여 실라로 내려가는 길가의 밀로궁에서 저를 죽였고

21 저를 쳐서 죽인 신복은 시므앗의 아들 요사갈과 소멜의 아들 여호사바드이었던라 저는 다윗성에 그 열조와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아마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1. ㉠ 본장에 기록된 요아스의 통치를 설명하라.

㉠ (1) 본장에서 우리는 유다 8대 왕 요아스의 통치 역사를 읽을 수 있다. 그러나 그의 통치는 전장(前章)에서 보았던 영광스러운 출발에 부응하지 못했다.

(2) 즉 요아스는 초기에 성전을 수리하는 등 선한 사업을 하였으나 그의 통치 후기에는 아람 왕 하사엘의 침입을 받고 아이러니컬하게도 자기가 보수하던 성전의 보물들을 거두어 조공을 바치는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여 주었던 것이다.

(3) 이처럼 불신앙적인 요아스 왕은 신하들의 칼에 맞아 죽는 비참한 종말을 맞게 되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자는 시작보다 나중에 더 창대해질 것이다(욥8:7).

2. **㉠** 요아스의 통치 연대는 어떠한가? (1절)

- ㉠** (1) 유다의 8번째 왕 요아스는 이스라엘 10대 왕 예후 7년에 즉위하였는데 그때 나이 7세였다(B. C. 835).
- (2) 그는 예루살렘에서 40년을 치리하였다(B. C. 835-796). 그의 통치 기간에 이스라엘에는 3명의 왕, 즉 예후(B. C. 841-814), 여호아하스(B. C. 814-798), 요아스(B. C. 798-782) 등이 통치했다.
- (3) 요아스의 통치기에는 여호사밧 이후 계속된 북왕국과의 그릇된 우호 관계는 단절되었으나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확립되지 못했다. 그것이 요아스의 말기의 실패 원인이다.
- (4) 신자들은 죄인의 길에서 떠나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찾아 그와 바른 관계를 가지므로 성공적인 삶을 살도록 해야 한다.

3. **㉠** 요아스의 모친은 누구인가? (1절)

- ㉠** (1) 그 모친의 이름은 '시비아'로 브엘세바 사람이었다.
- (2) 브엘세바는 이스라엘 영토의 최남단, 즉 헤브론 남동쪽 약 45km 지점에 있는 성읍으로 일찍부터 이스라엘 백성의 종교적인 성소로 여겨져 오던 곳이다(참조, 창 21:32, 33:26; 32, 33:28; 10).
- (3) 그러므로 이곳에서 성장했던 요아스의 모친은 아달라의 우상 숭배 정책에 영향을 받지 않은 경건한 여인이었을 것이다.
- (4) 요아스의 모친은 이곳 출신의 사람으로서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출신인 아합의 딸 아달라의 우상 숭배에 동조하지 않은 것 같다.
- (5) 이와 같이 요아스는 아하시야와는 다른 경건한 성장 배경을 가지고 있었다. 그것이 그의 초기 선정(善政)에 많은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성도들은 자녀들의 기독교 신앙을 위해서 좀더 경건한 성장 배경을 이루도록 노력함이 필요하다.

4. **㉠** 요아스의 통치 내용은 어떠한가? (2절)

- ㉠** (1) 요아스는 과거 자기를 보호하고 왕위에 오르도록 도와 준 제사장 여호아다의 교훈을 받을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 (2) 사실 요아스는 너무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다. 그러나 여호아다같이 현명하고 경험 많고 경건한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의 지위와 권력과 재산과 자유가 옹계 사용될 수가 있었다.
- (3) 이렇게 젊은 사람들, 특별히 어린 왕들, 그리고 중요한 직위에 있는 모든 젊은이들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 교훈하는 사람을 주위에 가지고 있다면 큰 행복이다.
- (4) 그들은 그런 교훈자들의 조언과 가르침을 기꺼이 받아들일 때 모든 일을 현명하고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이다.

5. **㉠** 요아스가 산당을 없애 버리지 아니한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3절)

- ㉠** (1) 당시 나라의 곳곳에 산당이 있었고 그 안에는 제사와 분향을 위한 단이 있었다.
- (2) 이것은 여호와와의 영광을 위하여 만든 것이기는 했으나,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에 대항하고 경쟁하기 위한 것이었다.
- (3) 이러한 '산당'은 제거되어 백성들의 마음이 예루살렘을 향하고 성전에서 제사를 드려야 함이 마땅했다.
- (4) 그러나 요아스가 이것을 없애지 아니한 것은 그의 신앙이 온전치 못했음을 보여 준다. 그가 비록 성전을 수리했다라도 하나님께 대한 순수한 사랑이기 보다는 자기 유아 시

절을 성전에서 보낸 데 대한 애착 때문이었다.

(5) 신자들의 신앙은 철저히 해야 한다. 만일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차지도 아니하면 주님께서 토하여 내치시리라고 하셨다(제 3:16).

6. **㉠ 요아스의 성전 수리 명령은 어떠한가? (4-8절)**

- ㉠** (1) 요아스는 먼저 제사장들에게 성전을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은'을 받아들여서 성전을 수리하도록 명령을 내렸다(4, 5절).
- (2)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은'이란 성별하여 성전에 드리는 일종의 고정된 종교세로서 십 일조, 인두세(人頭稅)와 같은 것이다(참조, 레 27:2-7).
- (3)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요아스 왕 23년에 이르도록 성전은 수리되지 못했다(6절).
- (4) 그래서 요아스는 다시 명령을 내려 다른 방법을 지시했다. 즉 제사장이 직접 돈을 받지 않고 공적인 연보 궤에 넣도록 하는 것이었다(7, 9절).
- (5)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 적합한 방법이었다. 오늘날 교회에서도 헌금을 드리는 가장 합당한 방법이 무엇인가 찾아서 실천해야 한다.

7. **㉠ 성전 수리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었는가? (9-15절)**

- ㉠** (1) 여호야다가 만든 연보 궤에 드리진 은을 왕의 서기와 대제사장이 계수(計數)하고 그 돈을 관리자를 통해 실제 일을 하는 자들(목수, 건축자, 미장이, 석수 등)에게 주었다.
- (2) 실무자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돈으로 성전 장식이나 금이나 은그릇을 사는 데 쓰지 않고, 먼저 필요한 수리를 하는 데에 사용했다.
- (3) 이 수리가 마쳐졌을 때 비로소 그 남은 돈으로 성전 예배를 도울 기물을 구입하는 데에 썼다(대하 24:14).
- (4) 이것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교훈을 준다. 즉 교회의 모든 재정 지출은 가장 요긴한 것에 우선적으로 되어야 하고 공공의 일도 내 집안의 일처럼 성심껏 관리해야 된다는 교훈이다.

8. **㉠ 어떤 헌금을 여호와와 전에 드리지 않고 제사장에게 돌렸는가? (16절)**

- ㉠** (1) 다른 모든 연보는 성전 수리에 사용하였으나 오직 '속건제의 은'과 '속죄제의 은'은 제사장에게 돌려졌다.
- (2) '속죄제의 은'은 부지중에 거룩을 범한 죄과(罪過) 등을 용서받기 위한 헌물이다(참조, 레 4:24, 29).
- (3) '속건제의 은'은 부지중에 범한 여러 죄과들을 용서받기 위한 헌물이다(레 5:15, 18).
- (4) 이렇게 백성들은 성전 수리를 위하여 할 수 있는 대로 헌납하는 가운데서도, 규정대로 제사장들의 일정한 생계를 유지해 주는 일도 중단하지 않았다.
- (5) 교회가 하나님의 일(교회 행사, 교회 건축 등)을 위해 힘쓰면서 그것을 이유로 하나님의 일꾼들(교역자, 교회 직원)을 굶게 해서는 안 된다.

9. **㉠ 아람 왕 하사엘이 유다를 침입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 (17절)**

- ㉠** (1) 요아스는 초기의 선정과는 달리 그의 스승 여호야다가 130세로 죽자(대하 24:15)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을 섬겼다(대하 24:17, 18).
- (2) 게다가 요아스는 여호와와 말씀 전하는 여호야다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를 돌로 쳐 죽이는 끔찍한 죄를 범하였다(대하 24:20-22).
- (3)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요아스와 유다를 아람 왕의 손에 붙혀서 징벌하도록 하셨던 것이다. 이때 아람 군대는 적은 무리로 왔으나 유다의 심히 큰 군대가 당해 내지 못했던 것은 유다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다(대하 24:23, 24).
- (4) 이처럼 신자들이 하나님을 버릴 때 가장 약해지며 실패할 수밖에 없다. 바울처럼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라도 그리스도를 얻도록 힘써야 한다(빌 3:8).

10. ㉠ 요아스는 하사엘의 침입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였는가? (17, 18절)

- ㉠ (1) 하사엘은 견고한 성 가드를 함락시켰다. 이 ‘가드’는 본래 블레셋에 속한 지역이었으나 르호보암이 그곳을 자신의 요새화시킨 유다 성읍의 목록에 포함시킴으로 유다 소속의 성읍이 되었다(대하 11:8).
- (2) 하사엘은 계속하여 왕의 성, 거룩한 성인 예루살렘으로 진군하였다. 그 성의 방어는 그 성읍의 죄악 때문에 불가능하였다.
- (3) 그러므로 요아스는 하사엘을 대항할 힘도 정신도 없었다. 오히려 그는 하사엘에게 모든 성물과 왕궁과 성전 공간에 있는 모든 금을 내어주었다. 이것은 뇌물을 줌으로써 그로 하여금 다른 곳으로 진군토록 하려 함이었다(8절).
- (4) 여호야다의 생존시에는 성전을 수리하던 요아스가 성전을 버린 후에는 성전의 기물들을 이방 왕에게 뇌물로 바쳤다.
- (5) 이렇게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한 자는 변질되게 마련이다. 그러므로 주님께서서는 미지근한 신앙보다는 차든지 더웁든지 한 결단적인 신앙을 원하신다(계 3:15).

11. ㉠ 요아스의 최후는 어떠했는가? (20, 21절)

- ㉠ (1) 요아스는 아람 군대의 공격을 받고 크게 부상당하여 버려졌다(대하 24:25).
- (2) 그때 요아스는 치료를 받기는 커녕 자기 신하들의 모반에 의해 칼에 죽임을 당했다.
- (3) 요아스는 실라로 내려가는 길가의 밀로궁의 침상에서 살해당하였으며 열조의 묘실에 장사되지 못했다(대하 24:25).
- (4) 이것은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인하여 심판받은 것이다.
- (5) 예수님께서도 스가라의 사건에 대하여 말씀하셨다(마 23:35). 즉 오늘날도 외식으로 신앙 생활을 하는 자들에게 요아스처럼 심판이 떨어질 것을 경고하시는 말씀이다.

12. ㉠ 본장 전체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 ㉠ (1) 본장에서 요아스는 초기에는 성전 수리를 위하여 열성을 바치다가 여호야다의 죽음을 계기로 ‘여호와와의 전’을 버렸다.
- (2) 이와 같은 급변의 원인은 요아스나 그의 방백들이 거둬나지 못한 자들로서 외부적으로만 종교를 취급하여 온 사실에 있다.
- (3) 그들이 거둬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어디까지 육에 속한 자들이었다.
- (4)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본질적으로 변화되어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않으면 이와 같이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도 육체로 마친다(참조, 고후 5:17; 갈 3:3).

본장의 요점

‘요아스가
제사장 여호야다의
교훈을 받을 동안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도되’ (2절).

제 13 장 이스라엘 왕 여호아하스, 요아스의 치세

단락구분 1-5 여호아하스의 쾰난과 구원 / 6-9 여호아하스의 계속된 범죄와 죽음 / 10-13 요아스의 죄악과 죽음 / 14-19 엘리사와 요아스 / 20-21 엘리사의 죽음과 기적 / 22-23 여호아하스와 아람 왕 하사엘 / 24-25 요아스와 아람 왕 벤하닷

1 유다 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의 이십 삼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십 칠 년을 치리하며

2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좃고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3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노를 발하시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 아들 벤하닷의 손에 붙이셨더니

4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하므로 여호아하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저희의 학대 받음을 보셨음이라

5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6 저희가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여로보암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좃아 행하며 또 사마리아에 아세라 목상을 그저 두었더라

7 아람 왕이 여호아하스의 백성을 진멸하여 타작 마당의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오십과 병거 십송과 보병 일만 외에는 여호아하스에게 남겨 두지 아니하였더라

8 여호아하스의 남은 사적과 모든 행한 것과 그 권력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9 여호아하스가 그 열조와 함께 자매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 아들 요아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10 유다 왕 요아스의 삼십 칠 년에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십 륭 년을 치리하며

11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좃아 행하였더라

12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무릇 행한 일과 유다 왕 아하시아와 싸운 권력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13 요아스가 그 열조와 함께 자매 이스라엘 왕

들과 함께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여로보암이 그 위에 앉으니라

14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때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저에게로 내려가서 그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가로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대

15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활과 살들을 취하소서 활과 살들을 취하대

16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곧 손으로 잡으매 엘리사가 자기 손으로 왕의 손을 안찰하고

17 가로되 동편 창을 여소서 곧 열매 엘리사가 가로되 쏘소서 곧 쏘매 엘리사가 가로되 이는 여호와와 구원의 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진멸하도록 아백에서 치리이다

18 또 가로되 살들을 취하소서 곧 취하대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이에 세 번 치고 그친지라

19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가로되 왕이 오류 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도록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세 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20 엘리사가 죽으매 장사하였더니 해가 바뀌매 모암 적당이 지경을 범한지라

21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적당을 보고 그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 던지매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22 여호아하스 왕의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나

23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인하여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어 긍휼히 여기시며 권고하사 멸하기를 즐겨 아니 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좃아 내지 아니하셨더라

24 아람 왕 하사엘이 죽고 그 아들 벤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매

25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벤하닷의 손에서 두어 성읍을 회복하였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부친 여호아하스가 전쟁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가 벤하닷을 세 번 쳐서 파하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1. **㉠** 본장에 기록된 내용을 설명하라.

- ㉠** (1) 본장에는 앞선 장들(11, 12장)에 기술된 유다 왕 요아스와 동시대의 인물인 이스라엘 왕 여호아하스(11대)와 요아스(12대)의 통치 기사가 기록되어 있다.
- (2) 이 두 왕은 예후의 아들이며 손자로서 예로보암의 죄를 따라 악을 행했는데 결국 하나님의 징벌을 받고 아람 군대의 침입에 의해 곤경에 처하였다(3, 4절).
- (3)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엘리사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아람의 압제에서 회복시키시겠다는 구원의 섭리를 요아스에게 알리게 하셨다.
- (5) 본장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하여 아람을 통해 징벌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엘리사를 통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된다.

2. **㉠** 이스라엘 왕 여호아하스의 통치 연대는 어떠한가? (1절)

- ㉠** (1) 여호아하스는 이스라엘의 다섯번째 왕조인 예후가(家)의 두번째 왕이요 이스라엘의 11대 왕으로 즉위했다.
- (2) 이스라엘 왕조는 예로보암가(B.C. 930-909) - 바아사가(B.C. 909-885) - 시므리가(B.C. 885) - 오므리가(B.C. 885-841) - 예후가(B.C. 841-752)로 이어져 왔다.
- (3) 여호아하스는 유다 왕 요아스 23년에 즉위하여 사마리아에서 17년을 치리하였다(B.C. 814-798).
- (4) 여호아하스의 통치 시대에 유다에는 요아스가 통치하고 있었고 아람에는 하사엘 왕이 통치하고 있어 특히 하사엘에게 많은 침입과 학대를 받았다.

3. **㉠**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늘 아람 왕들의 손에 붙이셨다'란 무슨 의미인가? (2, 3절)

- ㉠** (1) '늘'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콜하밈>은 문자적으로 '모든 날' (all days)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 (2) 이는 아람 왕 '하사엘과 벤하닷 통치 기간의 모든 날'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왕 '여호아하스 통치 기간(B.C. 814-798)의 모든 날'을 가리킨다(참조, 22절).
- (3) 왜냐하면 벤하닷은 여호아하스에 이어서 왕이 된 요아스와의 전쟁에서 세 번씩이나 패했기 때문이다(24, 25절).
- (4) 이처럼 이스라엘의 국가적 범죄는 종종 외국의 침입에 의해 징벌되곤 하였다.
- (5) 바로 전왕(前王) 예후도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하사엘의 침공을 받았었는데(10:32, 33) 이제 여호아하스 역시 예후의 전철을 밟아 통치 기간 내내 아람의 침입에 시달렸던 것이다.

4. **㉠**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주신 구원자는 누구를 말하는가? (4, 5절)

- ㉠** (1) 여호아하스는 시리아(아람)에게 학대를 받을 때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했다.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한 구원자를 주셨다.
- (2) 이 구원자는 아마도 앗수르 황제인 아다드니라리 3세(B.C. 810-783)였을 가능성이 많다(H. Schmokel, W. Hall, M. Haran).
- (3) 아다드니라리 3세는 여호아하스의 치세 중 왕위에 올랐고 B.C. 803년에 다메섹을 침공하여 이스라엘을 아람으로부터 구원시켜 준 것 같다. 그리고 그때 아람은 앗수르에게 완전히 패하였다.
- (4) 이렇게 여호와께서는 학대받는 자의 부르짖음을 외면치 않고 들으시며 구원하신다(참조, 시 50:15).

5. **㉠ 여호아하스의 백성들이 다시 범죄하여 우상을 숭배한 결과는 무엇인가? (6,7절)**

- ㉠** (1)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이스라엘에 주시어 아람 왕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우상주의를 버리지 않고 범죄했다.
- (2)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다시 아람 왕을 보내어 여호아하스의 백성을 징계하셨다.
- (3) 그 결과 이스라엘의 국력은 심히 약해져 남은 병력이라고는 마병 50과 병거 10승과 보병 1만밖에 없었다.
- (4) 이방 나라들은 우상을 섬길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죄악을 행할지라도 오래 동안 계속하여 막강한 힘을 유지하기도 한다.
- (5)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때마다 징계를 받았다.
- (6) 우리는 징계를 받을 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보고 하나님께 더욱 복종하여 생명을 얻어야 하겠다(참조, 히 12:5-9).

6. **㉠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통치 연대는 어떠한가? (10절)**

- ㉠** (1) 여호아하스의 아들로 그를 이어 왕이 된 요아스는 이스라엘 12대 왕이며 예후가(家)의 세번째 왕이었다.
- (2) 즉 요아스는 유다 왕 요아스 37년에 사마리아에서 즉위하여 16년을 치리하였다(B.C. 798-782).
- (3) 요아스의 통치 기간에 남왕국 유다에는 8대 요아스(B.C. 835-796)와 9대 아마샤(B.C. 796-767)가 통치하고 있었으며 아람에는 벤하닷(하사엘의 아들)이 통치하고 있었다.
- (4) 왕위를 계승할 여호아하스의 아들에게 당시 유다의 왕 요아스와 똑같은 이름이 주어진 것이 주목된다. 아마도 그것은 예후의 가문이 다윗의 가문을 다소 존경하려 했던 때문일 것이다.
- (5) 요아스와 선지자 엘리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요아스 통치 기간 중 이스라엘의 경건이 얼마간 회복된 것을 보게 된다.

7. **㉠ 요아스의 이스라엘 통치는 여호와 보시기에 어떠한가? (11-13절)**

- ㉠** (1) 요아스는 선지자 엘리사와의 관계에서 보여 주듯이 경건한 요소도 있었으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다른 왕들과 같이 여전히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고 기록되었다.
- (2) 요아스가 최악의 사람은 아니었으나, 그는 여로보암 가문에서 계승되어 온 정책적인 우상 숭배를 그대로 지켜 왔다(11절).
- (3) 이 우상 숭배는 여호와 보시기에 매우 사악한 것이었다.
- (4) 사람이 아무리 선지자와의 관계를 갖고 있으며 권세를 행사했다라도 자기 마음에 우상을 제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악한 자로 판결을 받고 말 것이다(참조, 마 7:21-23).

8. **㉠ 본서의 저자가 요아스에 대하여 다른 통치 기사보다 엘리사와의 관계를 길게 언급하는 의도는 무엇인가? (14-19절)**

- ㉠** (1) 요아스의 다른 통치 기사는 단 한 절(12절)로 요약되고 있는 반면 요아스가 엘리사에게 보였던 관심에 대한 이야기는 6절에 걸쳐 언급되고 있다.
- (2) 이처럼 저자는 왕과 그 군대를 정복한 자에게보다(12절) 한 선지자를 존경한 자에게 더 큰 명예를 돌리고 있다.
- (3) 이렇게 하나님의 책에서는 하나의 선한 행위가 스무 가지의 거창한 행위보다 더 선명하게 나타난다.
- (4) 우리의 관심도 사람 중심의 외형적인 실적(實蹟)보다는 하나님 중심의 영적인 관계에 더욱 관심을 갖도록 해야 한다.

9. **㉠ 엘리사는 어떤 생애를 보낸 후 임종을 맞이하게 되었는가? (14절)**

- ㉠** (1) 엘리사는 왕상 19장에서 엘리야의 후계자로 지명되었고(왕상 19:16) 왕하 2장에서 엘리

야의 영감을 감절이나 받음으로 엘리야의 후계자가 되었다(2:9).

- (2) 엘리사는 이스라엘 왕 여호람-예후-여호아하스-여호람 4대를 걸치면서 약 60년간 예언 활동을 해왔다.
- (3) 그는 특히 예후 왕가에게 이스라엘의 정실적 수호자로서 여겨졌고 요아스 왕과의 사이에는 각별한 애정이 있었음을 볼 수 있다.
- (4) 그러한 가운데 엘리사는 죽을 병이 들어 임종을 앞에 두게 되었다.
- (5) 이처럼 죽음이란 평범한 사람에게나 엘리사와 같이 신령한 사람에게나 동일하게 찾아온다.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죽음 이전에 우리의 삶이 얼마나 신령했는가를 생각해야 한다.

10. **㉠** 요아스 왕이 눈물을 흘리며 엘리사에게 한 말은 무엇인가? (14절)

- ㉠** (1) 그는 엘리사에게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라고 하였다.
- (2) 이것은 엘리야가 승천하던 순간에 엘리사가 부르짖은 말(2:12)과 같았다.
- (3) 또한 당시 이스라엘의 국력은 쇠약하여 병거는 10승, 마병은 50밖에 남아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말은 엘리사를 자기 나라의 수호자로 생각했음을 고백한 것이기도 했다.
- (4) 과연 엘리사는 이스라엘의 국방에 대하여 놀라운 공헌을 하여 나라를 보호한 바가 있다(참조, 6:8-13).
- (5) 이렇게 경건한 사람들이 나라를 보호하는 데 얼마나 크게 공헌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유보시키려는가를 아는 지도자들은 그 경건한 자들이 세상을 떠나는 것을 슬퍼한다.
- (6) 성도가 참으로 애국하는 것은 나라의 진정한 수호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자기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데에서부터 이루어 진다.

11. **㉠** 요아스의 방문을 받고 엘리사는 그에게 어떤 약속을 주었는가? (19절)

- ㉠** (1) 요아스의 마음을 헤아린 엘리사는 요아스로 하여금 활을 쏘고 또 화살로 땅을 치라는 명령을 내리고 그 묵시적 행동을 통하여 약속을 주었다.
- (2) 먼저 요아스가 동편 창을 열고 활을 쏘 후 엘리사는 '왕이 아람 사람을 진멸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17절)라고 예언했다.
- (3) 그러나 요아스가 화살로 땅을 세 번만 치자 엘리사는 '왕이 아람을 세 번만 치리이다'라고 정정하여 예언했다.
- (4) 결국 엘리사는 요아스에게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아람을 물리치게 되리라는 확신과 격려를 주었다.
- (5) 하나님의 은총은 엘리사 한 사람에게만 매여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역자를 데려가셔도 그의 말씀은 여전히 효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과업을 성취시키신다.
- (6) 우리가 비록 육적으로는 그리스도를 볼 수 없지만 그의 말씀을 마음에 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다.

12. **㉠** 요아스가 화살로 땅을 세 번만 쳤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18, 19절)

- ㉠** (1) 요아스는 승리를 확신시켜 주려는 엘리사의 명령에 대해 당연히 보여야 할 열심과 열정을 보이지 않았고 화살로 땅을 겨우 세 번만 치고 말았다.
- (2) 요아스는 아람인들에 대한 어리석은 동정심에서 마치 그들을 해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양 땅을 세 번만 쳤던 것이다.
- (3) 요아스는 아마도 화살로 땅을 치는 것이 유치하게 보인다고 생각하고 냉담하게도 세 번만 쳤던 것 같다. 치는 것이 단순히 그 선지자를 만족시키는 것이라면 3번으로도 충분했을 것이다.
- (4) 그러나 요아스는 그 표징을 알몸으로써, 그 표징이 의미하는 내용까지 놓치고 말았다. 이 불신이 엘리사를 노하게 만들었던 것이다.

(5)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명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 이해되지 않는다고 형식적으로 미지근하게 행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이성(理性)보다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야 한다.

13. **㉠** 모압 적당(賊黨)이 침입한 때는 언제인가? (20절)

- ㉠**(1) 모압 적당이란 사막에 거주하는 무리로서 약탈을 일삼고 있었으며 주로 수확기에 요단 동부 고원 지대를 습격하였다.
- (2) 본문에 그들이 침입한 때는 엘리사가 죽어 장사된 후 '해가 바뀔 때' 라고 하였다.
- (3) 팔레스틴에서는 비가 오는 10월부터 다음해 4월까지가 농사 기간이다. 그런데 3월말 춘분 때면 수확을 거의 마치게 됨으로 춘분을 '해가 돌아온 때' 라고 부른다(참조, 왕상 20:22).
- (4) 수확이 거의 끝날 무렵이면 사막 지방에 사는 유목민의 약탈 행위가 심해지고 전쟁도 흔히 일어난다.
- (5) 그러므로 모압 적당이 침입한 '해가 바뀔 때'란 3월말 춘분 때를 가리킨다.

14. **㉠** 모압 적당의 침입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20절)

- ㉠**(1) 모압 적당의 침입은 엘리사의 죽음에 뒤이어 발생한 사건이다.
- (2) 이스라엘은 아람인들로부터의 위협만 알고 있었다. 그런데 모압인들이 침입했다. 끈경은 가끔 우리가 거의 두려워하지 않던 곳으로부터 온다.
- (3) 엘리사의 죽음에 이어 즉각 이런 사건이 발생한 것은, 하나님께서 신실한 예언자를 데려가셨던 사건이 이스라엘에게 심판이 임박했다는 전조임을 의미한다.

15. **㉠** 엘리사의 시체에서 무슨 이적이 발생했는가? (21절)

- ㉠**(1) 장사하는 사람들이 침입하는 모압 적당을 보고 장사하려는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던졌을 때 그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살아났다.
- (2) 이것은 매우 간단히 언급되고 있지만 엘리사의 사명을 말해 주는 결정적인 증거이며, 그의 모든 예언을 확증해 주는 것이다.
- (3) 그것은 또한 현생 이후의 또 다른 삶에 대한 명백한 암시였다. 엘리사는 죽었지만, 그의 끝은 아니었다. 그것이 끝이었다면 그의 시체에서 이런 이적이 발생할 수 없었다.
- (4) 마지막으로 이것은 여호와께서 엘리사의 하나님인 것을 보여 준다.
- (5) 신자들은 이 이적이 보여 주는 의미에서 영생의 소망을 갖게 된다.

16. **㉠** 여호아하스 때에 아람과의 관계는 어떠했는가? (22, 23절)

- ㉠**(1) 여호아하스 시대에는 이스라엘이 아람 왕 하사엘에 의해 항상 학대를 받았다.
- (2) 그러나 이스라엘이 진멸되지 않았던 것은 언약에 따른 여호와의 은혜와 긍휼 때문이다. 곧 여호와께서 아직까지는 그들을 밭하시려 하지 않으셨다.
- (3)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결국에는 파멸될 것이나, 아직까지는 그들에게 유예 기간을 두시어 회개의 여지를 남겨 두셨다.
- (4) 이처럼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지연되는 것은 그의 자비하심의 영광에 기인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정의가 모호하기 때문이 아니다(참조, 롬 2:4, 5; 딤후전 2:4).
- (5)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긍휼의 때에 신속히 회개하도록 해야 한다.

17. **㉠** 요아스가 아람 왕 벤하닷에게 세 번 승리한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24, 25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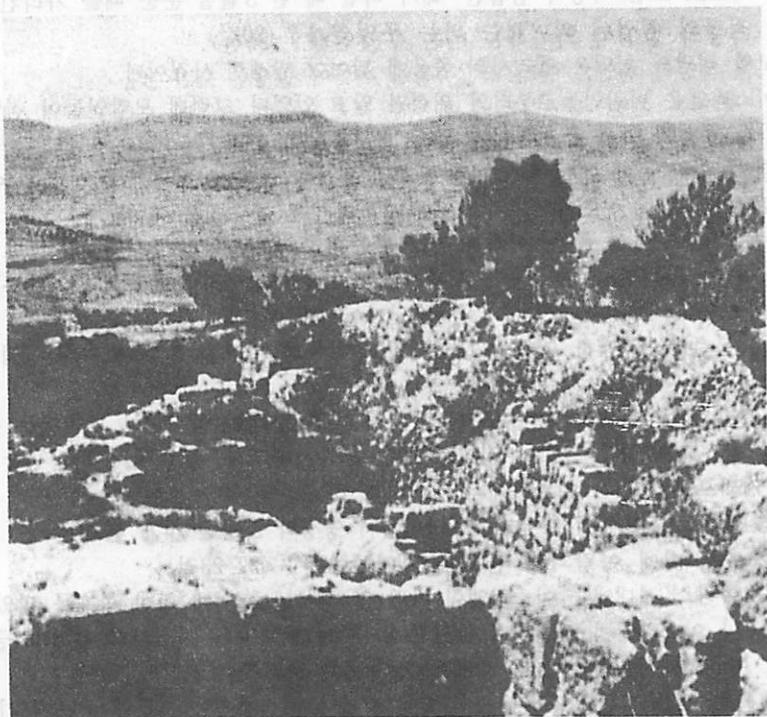
- ㉠**(1) 요아스는 아람이 차지하고 있던, 이스라엘의 잃어 버렸던 성읍을 벤하닷의 손에서 다시 회복시켰다.
- (2) 요아스는 그 성읍들을 회복할 때 벤하닷을 세 번 쳐서 파(破)하였는데 이것은 엘리사에게서 받은 예언 그대로였다(19절).
- (3) 화살을 가지고 세 번 찼던 것과 마찬가지로 요아스는 아람을 꼭 세 번만 치고 그의 승

리는 더 이상 진전되지 않았다.

- (4) 많은 사람들이 때늦은 후에 자기들의 불신과 옹졸함을 후회한다.

화보자료

사마리아의 폐허. 옛 사마리아는 지금의 사마리아보다 산지쪽으로 조금 더 이동된 곳이었다. 아래의 사진은 옛 사마리아의 왕궁터가 있었던 유적이다.



사마리아는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리된 후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되었다(1, 10절). 사마리아는 요마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왕위(王位)에 올랐을 때 가장 번성했다(참조, 14:25-28). 그 후 B. C. 722년에 잇수르의 침입으로 북이스라엘 왕국이 멸망할 때까지 사마리아는 계속 몰락의 길을 걸었다(참조, 15:8-31). 이러한 사마리아의 운명은 선지자들에게 의해 예루살렘에 대한 경고의 예로 여러 번 인용되었다(참조, 사 8:4; 10:9-11; 미 1:1-7).

제 14 장 유다 왕 아마샤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의 치세

단락구분 1-4 유다 왕 아마샤의 통치 서론 / 5-6 아마샤가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처형하다 / 7 아마샤가 에돔을 이기다 / 8-14 아마샤가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패하다 / 15-16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죽음 / 17-22 아마샤가 모반자들에게 죽임을 당하다 / 23-27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이 영토를 회복하다 / 28-29 여로보암의 죽음

1 이스라엘 왕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 이년에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니 2 위에 나아가갈 때에 나이 이십 오 세라 예루살렘에서 이십 구 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여호앗단이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3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 부친 요아스의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4 산당을 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5 나라가 그 손에 굳게 서매 그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6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인하여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인하여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인하여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7 아마샤가 염곡에서 에돔 사람 일만을 죽이고 또 셀라를 쳐서 취하고 이름을 욱드엘이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8 아마샤가 예후의 손자 여호아하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9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 왕 아마샤에게 보내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보내어 이끼기를 네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10 네가 에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운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궁에나 거하라 어찌하여 화를 자취하여 나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11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유다 왕 아마샤로 더불어 유다의 벨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12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13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벨세메스에서 아하시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사백 규빗을 헐고

14 또 여호와와 전과 왕궁 공간에 있는 금은과 모든 기명을 취하고 또 사람을 불모로 잡아가지고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15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 권력과 또 유다 왕 아마샤와 서로 싸운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16 요아스가 그 열조와 함께 자매 이스라엘 왕들과 사마리아에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여로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17 이스라엘 왕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십 오 년을 생존하였더라

18 아마샤의 남은 행적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19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저를 모반한 고로 저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모반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어 저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20 그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예루살렘에서 그 열조와 함께 다윗 성에 장사하니라

21 유다 온 백성이 아사랴로 그 부친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을 삼으니 때에 나이 십 육 세라

22 아마샤가 그 열조와 함께 잔 후에 아사랴가 엘랴를 건축하여 유다에 들렸더라

23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십 오년에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사십 일 년을 위에 있으며

24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25 이스라엘 왕이던 여호와께서 그 종 가드헤벨 아밧대의 아들 선지자 요나로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지경을 회복하되 하

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26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여 매인 자도 없고 놓인 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27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도말하
 여 천하에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
 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28 여로보암의 남은 사적과 모든 행한 일과
 그 권력으로 싸운 일과 다메섹을 회복한 일과
 이전에 유다에 속하였던 하맛을 이스라엘에 돌
 린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
 니하였느니라
 29 여로보암이 그 열조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자고 그 아들 스가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1. **㉠ 본장에 나타난 유다와 이스라엘의 대조적인 면을 설명하라.**

- ㉠** (1) 본장에는 유다 왕 아마샤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의 통치 기사가 함께 수록되어 대조적인 면을 보여 준다.
- (2) 즉 전반부(1-22절)에 소개된 유다 왕 아마샤는 정직히 행하기는 하였으나 오히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패하고 자기 신하들에게 피살되는 불우한 최후를 맞이했다.
- (3) 그러나 후반부(23-29절)에 소개된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는 매우 강성한 국력을 소유하여 영토를 크게 확장하였다.
- (4) 이와 같이 본장에서 우리는 유다보다 우월(優越)한 이스라엘의 전성 시대를 보게 된다. 즉 이스라엘은 아마샤를 격파한 요아스와 그 아들 여로보암 2세 때 전성기를 맞이했다.
- (5) 이는 이스라엘도 유다와 같이 하나님께 택함받은 나라임을 가르쳐 준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택한 백성이 아무리 범죄하여도 그들을 징계하시지만 정결로 버리지는 않으신다.

2. **㉠ 유다 왕 아마샤의 통치 연대는 어떠한가? (1, 2절)**

- ㉠** (1) 유다의 9대 왕 아마샤는 이스라엘 왕 요아스 2년(B.C.796)에 즉위하였다. 그때 그의 나이 25세였다.
- (2) 아마샤는 즉위 후 예루살렘에서 29년을 치리하였다(B.C.796-767).
- (3) 그는 6년간만 단독 통치를 했고 나머지 23년은 그 아들 아사랴(웃시아)가 섭정을 했다(B.C.790-767).
- (4) 이때의 이스라엘 왕은 요아스(B.C.798-782)와 여로보암 2세(B.C.793-753)이다.

3. **㉠ 아마샤의 통치 성격은 어떠한 것인가? (3절)**

- ㉠** (1) 아마샤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그러나 다윗과 같이 일관되지는 못하였다.
- (2) 아마샤의 통치는 일반적으로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통치와 같은 방식이었다.
- (3) 처음에는 선으로 시작했지만 악이 점점 나타나서 수치스런 죄악의 종말을 맞은 것은 요아스나 아마샤나 비슷하다.
- (4) 이 사실을 본문은 ‘그 부친 요아스의 행한 대로 다 행하였다’라고 했다.
- (5) 통치 초기에 아마샤가 여호와께 합당하게 예배한 것은 내적인 확신에서 우러난 것이 아니라 외적이고 전통적인 답습에서 비롯된 것이다.
- (6) 성도들에게는 경건의 모양 뿐 아니라 경건의 능력도 있어야 한다(딤후 3:5).

4. **㉠ 아마샤는 부왕(父王)을 죽인 신복들을 심판할 때 어떤 현명함을 보였는가? (5절)**

- ㉠** (1) 아마샤는 왕위에 오르자마자 그 반역자들을 처단하지는 않았다. 다소의 소란이라도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그는 ‘나라가 자기 손에 굳게 설’ 때까지 그 일을 미루어 두는 현명함을 발휘했다.
- (2) 설불리 건드릴 수 없는 대적은 점차적으로 약화시켜 나가는 것이 때로는 가장 효과적인 파멸책이 될 수 있다.
- (3) 정의란 서서히 발휘되나 필경은 완전히 시행된다.
- (4) 본문에서 우리는 즉각적으로 시행되지 않는 것이 오히려 가장 슬기로운 정의의 실현이 되기도 한다는 사실을 배우게 된다.

5. **㉠** 아마샤가 반역자들을 옳게 처단한 점은 무엇인가? (6절)

- ㉠** (1) 아마샤는 반역자들을 처단할 때 말씀을 기준으로 하였고(출 21:12; 레 24:17) 또한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않았다(신 24:16).
- (2) 하나님께서는 아버지들의 죄악을 자식들에게 갚으신다(출 20:5).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죽어야 할 죄책을 지고 있기 때문이다.
- (3)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제왕들에게 그러한 권리를 부여하지 않으셨다.
- (4) 이런 점에서 아마샤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정의를 구현 한 것은 옳은 일이다.
- (5) 오늘날 신자들도 정의를 구현할 때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행해야 한다.

6. **㉠** 아마샤가 에돔에 대하여 거둔 승리는 어떤 것이었는가? (7절)

- ㉠** (1) 에돔인들은 일찌기 요람의 시대에 '유다의 수하'에서 벗어난 반역자들이었다(8:22).
- (2) 이제 국력을 회복한 아마샤는 에돔을 정벌하여 염곡(소금 골짜기란 뜻)에서 에돔인 1 만을 진멸했다.
- (3) 더 나아가서 그는 반석같이 튼튼한 아라비아의 수도 셀라(반석이란 뜻)를 탈취하여 '욕드엘'이란 새로운 이름을 붙였다. 바위로 둘러싸인 '페트라' 시가 바로 셀라이다.
- (4) 이러한 승리는 사실상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었다(잠 21:31). 아마샤는 이것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겸손해야 했다.
- (5) 그러나 아마샤는 승리를 자신과 자신의 힘에 돌리므로 교만해졌다(렘 17:5,7). 그 교만은 8-22절에 나타나듯이 아마샤의 패망을 자초했다.
- (6) 만일 어떤 승리가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욱 겸손히 낮아져야 한다(벧전 5:6).

7. **㉠** 아마샤와 요아스의 싸움 이전에 유다와 이스라엘의 관계는 어떠하였는가? (8절)

- ㉠** (1) 아마샤는 에돔에 승리를 거둔 후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선전 포고를 하였다. 이것은 두 나라의 관계가 적대시 되어 있음을 나타낸다.
- (2) 왕국이 분열된 후 아사 왕 때까지 약 60년간(B.C.931-869) 유다는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에서 대립되어 있었다.
- (3) 그러다가 여호사밧 왕 후로는 여러 왕대 동안(약 40년간) 유다와 이스라엘은 우의를 맺어 왔다. 그들은 서로 혈족으로나 정치적으로 동맹 관계에 있었기 때문이다.
- (4) 그러나 이제 유다 왕 요아스 때에 이스라엘과의 동맹 관계가 파기되고 이어 아마샤 때에 이르러 이전 여러 시대 동안 결코 본 적이 없는 그런 큰 적대감이 생겼다.
- (5) 형제의 죄악에 동참하는 것도 잘못이지만 형제와 명분 없는 적대 관계를 가지는 것도 잘못이다.

8. **㉠** 아마샤는 어떤 이유로 요아스에게 도전장을 내었는가? (8절)

- ㉠** (1) 유다 왕 아마샤는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어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우리의 힘을 전장에서 겨루어 보자"고 일종의 선전 포고를 했다.
- (2) 사실 아합 이후 유다는 출몰 이스라엘의 종속국 노릇을 했는데 힘을 갖추었다고 생각한 아마샤는 요아스에게 전쟁을 하자고 도전한 것이다.
- (3) 그러나 이 전쟁은 아마샤의 교만과 충동적인 마음에서 비롯된 허세일 뿐이다.
- (4) 힘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형제국인 이스라엘에게 먼저 유혈 전쟁을 일으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대하 11:4).
- (5) 이것을 가리켜 솔로몬은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 입은 매를 자칭하느니라"(잠 8:6)고 했다.
- (6) 싸우기를 즐기는 자는 싸움으로 망하고 법정에 나가기를 즐기는 자는 자기가 먼저 후회하게 될 것이다.

9. **㉠** 아마샤의 도전에 대하여 요아스는 어떻게 회신하였는가? (9, 10절)

- ㉠** (1) 요아스는 아마샤의 도전에 대하여 돌아가라고 충고를 함과 동시에 크게 책망을 했다.
 (2) 즉 가시나무가 자신을 백향목과 동등시하려 하였으나 들짐승들이 지나가다가 그를 짓밟은 것처럼 아마샤도 큰 봉변을 당할 것이니 집이나 머물러 있으라고 풍자적 야유를 보내었다.
 (3) 이러한 요아스의 말은 타당성이 있는 말이다. 아마샤는 에돔을 쳐서 파한 것으로 자족(自足)하는 것이 마땅했으나 그는 교만으로 화를 자초하고 있는 것이다.
 (4)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은 이미 충분한 명예를 차지하고 있는 데도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고 생각하여 더 많은 부귀 영화를 차지하려 하다가 자멸하는 경우가 많다.

10. **㉠** 요아스의 회신에 대해 아마샤는 어떻게 반응하였는가? (11절)

- ㉠** (1) 아마샤는 요아스의 회신에 모욕감을 느끼고 자기의 고집대로 전쟁을 강행키로 하여 유다의 벰세메스에서 요아스와 대면(對面)하게 되었다.
 (2) 이러한 아마샤의 고집은 하나님의 의지로 말미암은 것이다(대하 25:20). 즉 에돔 신들을 구하는 아마샤의 죄악을 징벌하시기 위해 요아스의 손에 아마샤를 붙이신 것이다.
 (3) 하나님께서는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퍹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케 하신다(롬 9:18).

11. **㉠** 전쟁의 결과는 어떠하였는가? (12-14절)

- ㉠** (1) 전쟁이 시작되자 유다는 이스라엘에게 패하여 도망하였고 유다 왕 아마샤는 요아스에게 사로잡히고 말았다.
 (2) 그리고 승리자 요아스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루살렘 성벽을 400규빗(약 180m)이나 헐어 버리고 많은 보물을 약탈하고 사람을 볼모로 잡아 사마리아로 돌아갔다.
 (3) 역대기 저자는 이 모든 것이 아마샤가 '에돔의 신들을 구한' 데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고 기록했다(대하 25:20).
 (4) 환난을 만난 신자들은 언뜻 관련이 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 대신 인간적 방법을 구했기 때문에 환난을 당하는 것이 아닌지 돌아보고 회개하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12. **㉠** 아마샤가 요아스에게 패배한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13-16절)

- ㉠** (1) 아마샤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했다고 했고(14:3), 요아스는 '악한 일'을 행했다고 기록되어 있다(13:11). 그러나 요아스가 승리했다.
 (2) 그 이유는 첫째, 하나님께서 아마샤의 운명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는 사실을 보여 주려 하심이다(참조, 벰전 5:5).
 (3) 또한 여기서 우리는 요아스가 근래에 하나님의 예언자 한 사람을 존중한 일이 있으나(13:14) 아마샤는 예언자 한 사람을 학대한 일이 있음(대하 25:16) 기억하게 된다.
 (4)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예언자를 존경한 자에게는 영예를 주기를 기뻐하시나 그들을 멸시한 자들은 역시 그들의 행위대로 멸시받게 하신다.

13. **㉠** 아마샤가 요아스보다 오래 산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17절)

- ㉠** (1) 유다 왕 아마샤는 자기를 정복한 왕보다 15년이나 더 살았다.
 (2) 어떤 사람들은 치욕을 겪으면서도 완전히 죽지 않고 오래 살게 되는데, 그것은 그들로 굴욕을 당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이다. 아마샤도 그런 부류 중에 포함될 것이다.
 (3) 아마샤는 결국 자기 신복에게 살해되는 수치스러운 최후를 맞았다.
 (4) 신자들은 오래 살 것을 추구하기에 앞서 옳게 살 것을 추구해야 한다.

14. **㉠**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의 통치 연대는 어떠한가? (23절)

- ㉠** (1)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2세는 예후 왕가의 네번째 왕이면서 이스라엘 13대 왕으로 즉위했다.

(2) 그는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로 아마샤 15년(B. C. 793)에 즉위하여 41년을 치리하였다(B. C. 793-753). 그는 이스라엘 19명의 왕 중에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재위했다.

15. **㉠** 여로보암 2세와 동시대의 유다 왕은 누구인가?

- ㉠** (1) 아마샤와 아사랴(웃시아) 두 명인데 그중 아사랴가 더 오랜 기간 여로보암 2세와 동시대에 통치했다.
 (2) 여로보암 2세가 이스라엘에서 가장 오랜 기간을 통치했다면 아사랴는 유다에서 가장 오랜 기간, 즉 52년을 통치했다.
 (3) 이 기간에는 유다보다 이스라엘이 더 강하여 전성기를 맞이했는데 이것은 이스라엘도 하나님께서 택한 나라로 구원 역사에 관계됨을 암시한다(27절).
 (4) 이렇게 신자 혹은 교회 중에 좀 타락된 부류가 있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 사역에 의해 구원이 이루어진다.

16. **㉠** 여로보암 2세와 재위 기간이 같은 유다 왕은 누구인가? (23절)

- ㉠** (1) 여로보암 2세와 재위 기간이 같은 유다 왕은 아사이다(왕상 15:10).
 (2) 그 두 왕중 한 왕은 선정을 했는데 다른 한 왕은 악정을 했다.
 (3) 그런데 인간의 수명이나 외형적 번영으로 그 사람의 성품을 판단할 수는 없다.
 (4) 전도자는 이점에 대하여 '의인과 악인의 당하는 일이 일반이니라' (전 9:2)고 했다.

17. **㉠** 여로보암 2세의 통치 성격은 어떠한가? (24절)

- ㉠** (1) 여로보암 2세는 다른 이스라엘 왕들과 마찬가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것은 그가 여로보암의 악에서 떠나지 않고 송아지 숭배를 계속했기 때문이다.
 (2) 여로보암 2세는 우상 숭배가 자신이나 나라에 아무런 피해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그것을 버리지 않았다. 송아지 숭배는 모든 자기 선조들과 선왕들이 지켜오던 길이었다.
 (3) 그러나 그것은 인간의 모든 죄악 중에서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큰 죄악이었다.
 (4) 악이 관습이 되고 말았다는 변명으로는 하나님께 조금도 용서받을 수 없다.
 (5) 오늘날도 상황 윤리라는 미명 아래 관습화된 죄가 많이 있다(예, 거짓말, 낙태, 간음 등). 사실 이런 것은 드러난 강력 범죄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더 악한 것이다.

18. **㉠** 여로보암 2세의 영토 확장을 예언한 선지자는 누구인가? (25절)

- ㉠** (1) 하나님께서는 가드헤벨(갈릴리 스볼론 땅의 한 성읍, 수 19:13) 사람 아밋대의 아들 요나를 일으키사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당신의 은총을 베푸시겠다는 뜻을 알리셨다.
 (2) 이스라엘은 비록 하나님을 분노케 하였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여로보암과 그의 나라가 영토를 확장하고 승리케 될 것을 알려 주셨다. 이것은 전적으로 은혜이다.
 (3) 전에 엘리사가 요아스의 손을 강화시켜 주었는데 그가 사라지자 이번에는 요나가 하나님께 보냄을 받아 그의 아들을 강화시켜 주었으니 이것은 은총의 증거이다.
 (4) 이처럼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신실한 사역자들을 끊임없이 세우셨던 것은 아직 그 백성을 저버리지 않으셨음을 의미한다.
 (5) 우리의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독생자를 보내사 우리의 영원한 선지자로 삼으시고 구원을 약속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겠다.

19. **㉠** 여로보암 2세의 종말에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가? (28, 29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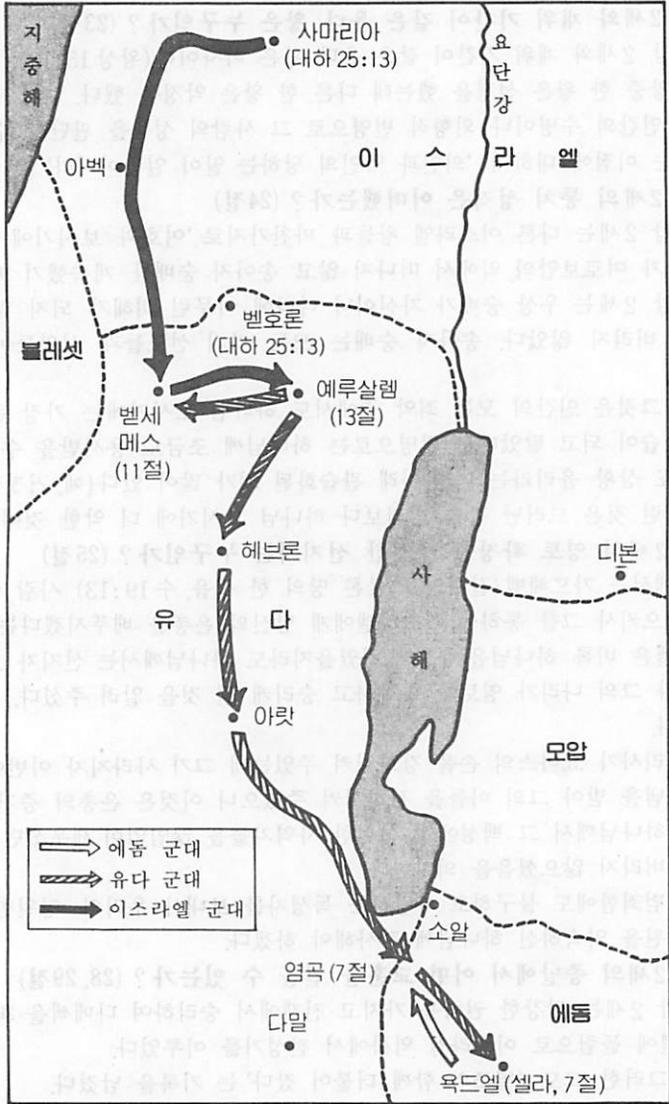
- ㉠** (1) 여로보암 2세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전쟁에서 승리하여 다메섹을 회복하였고 하맛을 이스라엘에 돌림으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전성기를 이루었다.
 (2) 그러나 그러한 그도 '열조와 함께 더불어 잤다'는 기록을 남겼다.
 (3) 아무리 권력을 지닌 자들이라도 죽음 앞에서는 무릎을 꿇어야 하며, 그 싸움에는 면제받

을 자가 없다.

- (4)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생업이 매우 험통하고 번창하여도 죽음 이후를 생각지 않으면 안 된다.
- (5) 우리의 모든 성공과 험통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될 때 우리는 천국의 소망으로 죽음의 절망을 이기게 될 것이다.

지도자료

아마샤와 요마스의 전쟁 (참조, 대하 25:11-24)



제 15 장 유다의 두 왕과 이스라엘의 다섯 왕

단락구분 1-4 유다 왕 아사라의 문둥병 / 5-7 요담의 섭정 / 8-12 이스라엘 왕 스가라의 피살 / 13-16 이스라엘 왕 살롬의 피살 / 17-22 므나헴의 치세 / 23-26 브가히야의 피살 / 27-31 베가의 피살 / 32-38 유다 왕 요담의 치세

1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이십 칠 년에 유다 왕 아마샤의 아들 아사라가 왕이 되니

2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십 륙 세라 예루살렘에서 오십 이 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여골리야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3 아사라가 그 부친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4 오직 산당은 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오히려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5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 죽는 날까지 문둥이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궁중 일을 다스리며 국민을 치리하였더라

6 아사라의 남은 사적과 모든 행한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7 아사라가 그 열조와 함께 자매 다섯칭에 그 열조와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8 유다 왕 아사라의 삼십 팔 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여섯 달을 치리하며

9 그 열조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10 야베스의 아들 살롬이 저를 모반하여 백성 앞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11 스가라의 남은 사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12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네 자손이 이스라엘 위를 이어 사대까지 이르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니라

13 유다 왕 웃시야 삼십 구 년에 야베스의 아들 살롬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한 달을 치리하니라

14 가디의 아들 므나헴이 디르사에서부터 사마리아로 올라가서 야베스의 아들 살롬을 거기서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15 살롬의 남은 사적과 그 모반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16 그 때에 므나헴이 디르사에서 와서 답사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과 그 사방을 쳤으니 이는 저희가 성문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치고 그 가운데 아이 뱀 부녀를 갈랐더라

17 유다 왕 아사라 삼십 구 년에 가디의 아들 므나헴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십 년을 치리하며

18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19 앓수르 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려 하매 므나헴이 은 일천 달란트를 불에게 주어서 저로 자기를 도와 주게 함으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여

20 그 은을 이스라엘 모든 큰 부자에게서 토색하여 각 사람에게 은 오십 세겔씩 내게 하여 앓수르 왕에게 주었더니 이에 앓수르 왕이 돌이키고 그 땅에 머물지 아니하였더라

21 므나헴의 남은 사적과 그 모든 행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22 므나헴이 그 열조와 함께 자고 그 아들 브가히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23 유다 왕 아사라 오십 년에 므나헴의 아들 브가히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이 년을 치리하며

24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25 그 장관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반역하여 사마리아 왕궁 호위소에서 왕과 아르곰과 아리에를 죽이되 길르앗 사람 오십 명으로 더불어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더라

26 브가히야의 남은 사적과 그 모든 행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27 유다 왕 아사라 오십 이 년에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이 십 년을 치리하며

28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29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앗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와서 이흔과 아벨벳마아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취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앗수르로 옮겼더라

30 웃시야의 아들 요담 이십 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반역하여 르말라의 아들 베가를 쳐서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31 베가의 남은 사적과 그 모든 행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32 이스라엘 왕 르말라의 아들 베가 이 년에 유다 왕 웃시야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되니

33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이십 오 세라 예루살렘에서 십 육 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여루사라 사독의 딸이더라

름은 여루사라 사독의 딸이더라

34 요담이 그 부친 웃시야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35 오직 산당을 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오히려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요담이 여호와와 전의 윗문을 건축하니라

36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 모든 행한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37 그 때에 여호와께서 비로소 아람 왕 르신과 르말라의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게 하였더라

38 요담이 그 열조와 함께 자매 그 조상 다윗 성에 열조와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1. **㉠ 본장의 내용과 교훈을 말하라.**

- ㉠** (1) 본장에는 유다의 두 왕(아사랴, 요담)과 이스라엘의 다섯 왕(스가랴, 살룸, 므나헴, 브가히야, 베가)의 통치 기사가 함께 기록되어 있다.
- (2) 이 두 나라의 왕들은 매우 대조적인 통치 성격을 보인다. 즉 유다의 왕들은 정직히 행하였는데 비해 이스라엘의 왕들은 한결같이 악을 행하였다.
- (3) 더우기 비참한 것은 이스라엘 다섯 왕 중 한 사람(므나헴)만을 제외하고는 모두 반역자에 의해 피살되었던 사실이다. 사실 당시 이스라엘 왕국은 10년 후의 파멸을 향하여 줄달음치고 있었던 것이다.
- (4) 죄가 있는 곳에는 왕과 같은 부귀와 권력도 비극으로 나타날 뿐이다. 우리는 본장에서 죄에 대하여 준엄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다.

2. **㉠ 유다 왕 아사랴의 통치 연대는 어떠한가? (1, 2절)**

- ㉠** (1) 아사랴는 웃시야로 불리우기도 하는데(13절) 아마샤의 뒤를 이어 유다의 10대 왕으로 즉위했다.
- (2) 그가 즉위한 해는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7년 되는 해로(B.C. 767) 아사랴의 나이 16세였으며 예루살렘에서 52년을 치리했다.
- (3) 아사랴는 유다 20왕 중 두번째로 오랜 기간 통치한 왕이었다(첫째는 므낫세 55년).
- (4) 그의 시대에는 이스라엘 왕이 무려 6번이나 바뀌어 7왕(13대 여로보암Ⅱ~18대 베가)이 재위하고 있었다.
- (5) 이렇게 아사랴는 북왕국이 혼란 속에 멸망으로 치닫고 있을 때 매우 강력한 통치력으로 유다를 통치하여 전성기를 구가했던 왕이었다.

3. **㉠ 아사랴의 통치 성격은 어떠한가? (3, 4절)**

- ㉠** (1) 아사랴는 '그 부친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 (2) 그러나 그는 산당을 제거하여 종교적인 개혁 운동을 할 만큼의 열심과 용기는 없었다.
- (3) 이 점에서 본서의 저자는 '그 부친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라는 말을 통해 그런 사실을 암시하고 있다(참조, 14:4).
- (4) 우리는 선배들의 좋은 점을 본받아 하나님 앞에 옳게 행해야 하지만 그들의 미비한 것까지 답습해서는 안 된다.

4. **㉠ 아사랴가 문둥이가 된 것은 무엇 때문인가? (5절)**

- ㉠** (1) 본문에서 웃시야의 긴 통치 기간(52년)에서 언급된 유일한 사건은 하나님께서 그를 치셔서 웃시야는 죽을 때까지 문둥이었다는 것이다.

- (2) 이 사실은 본서의 저자가 모든 다른 것들에 우선하여 중요하게 생각하여 언급한 것임을 보여 준다.
- (3) 문둥병은 그에게 있어서 우연한 병이 아니고 죄의 대가로 내린 하나님의 벌이었다. 그러한 일은 전부터 종종 있어 왔다(민 12:10; 신 24:8, 9; 삼하 3:29; 왕하 5:27).
- (4) 그가 지은 죄는 대하 26:16 이하에서 언급되었듯이 교만한 마음으로 대제사장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다. 그 교만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문둥병으로 징계하신 것이다.
- (5) 위대한 자라도 교만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낮추실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보다 높으시다는 것과 하나님이 대적하신 것은 그들의 교만 때문임을 알게 될 것이다.

5. **㉠** 아사라가 별궁(別宮)에 홀로 거하였다는 것은 무엇을 느끼게 하는가? (5절)

- ㉠** (1) 아사라가 비록 왕이었더라도 의식상 부정한 자였으므로 율법(레 13:46)에 따라 격리되어 별궁에 거하게 되었다.
- (2) 아사라가 거한 별궁은 그를 위하여 따로 특별히 지은 것으로 쾌적하고 안락한 집이었으리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그는 거기에서 자기 욕구대로 할 자유를 가지고 있었다.
- (3) 그러나 아사라처럼 명예롭고 활동적인 사람이 사회와 단절되어 '별궁'에서 항상 거한다는 것은 하나의 큰 굴욕이 아닐 수 없다.
- (4) 죄악은 실제로 사람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나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킨다. 그때 찾아드는 '고독'은 육적인 풍요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의 생활 자체를 무거운 멍에로 이끈다.

6. **㉠** 아사라의 죽음은 어떠했는가? (7절)

- ㉠** (1) 아사라가 죽은 해는 선지자 이사야에게 소명이 주어진 해이기도 하다(사 6:1-4).
- (2) 한편 아사라는 죽은 후 열왕의 묘실에 장사되지 못하고 거기에 접해 있는 땅에 장사되었다(대하 26:23).
- (3) 아사라의 죽음은 한 선지자의 새로운 출발의 신호가 되기도 했으나 국세가 기울어지는 계기도 되었다.
- (4) 더구나 아사라가 열조의 묘실에 장사되지 못한 것은 그에게 큰 불명예였다.
- (5) 한 때의 죄악이 매우 오랫동안 영향을 미쳤던 이 사실은 우리에게 죄악에 대한 새로운 경각심을 불러 일으킨다.

7. **㉠** 본장에 나타난 이스라엘 다섯 왕의 시대 상황은 어떠했는가? (8-31절)

- ㉠** (1) 이스라엘 왕국이 가장 좋았던 시대는 예후 왕가가 통치하고 있던 기간이었다.
- (2) 예후 왕과 다음 3대(여호아하스-요아스-여로보암 II)에 걸쳐 이스라엘에 죄악과 비탄이 있었을지라도(13:2-4) 왕위는 계승되고 왕들은 편안히 죽었다.
- (3) 그러나 스가랴 때부터 호세아 때까지 약 30년간 이스라엘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극도의 혼란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 (4) 이때에 아이 벤 자들과 젓먹이는 자들에게 큰 화가 미쳤다(16절). 그 큰 환난은 그 땅의 임금들의 많은 범죄 때문이었다(참조, 계 17:2).
- (5) 이러한 지도자들의 범죄와 혼란과 재앙이 임할 때 세상의 종말이 멀지 않은 징조임을 기억하고 신자들은 근신하여 기도하여야 한다.

8. **㉠** 이스라엘 왕 스가라의 통치는 어떠하였는가? (8-12절)

- ㉠** (1) 스가라는 여로보암 2세의 아들로 유다 왕 아사라 38년(B.C. 753)에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14대 왕으로 즉위했다.
- (2) 그는 왕위에 올라 겨우 6개월 동안 통치하다가 야베스의 아들 살룸에 의해 '백성들 앞에서' 돌에 맞아 죽었다.

- (3) 아마 그것은 시저가 원로원에서 살해된 것과 비슷한 상황이었다. 살롬은 범죄인으로서 백성들의 동의를 얻어 스가라를 공공연히 처형하였다.
- (4) 이러한 스가라의 종말은 그의 행악과 범죄에 대하여(9절) 선지자 아모스에 의해 예언된 하나님의 심판이 성취된 것이다(암 7:9).
- (5) 그것은 또한 여호와께서 일찌기 예후에게 그의 왕조가 4대까지 이르리라고 하신 말씀의 성취이기도 했다(12절; 10:30).
- (6) 여기에서 4대째 이어지던 예후의 왕조도 종말을 고하게 되었다.
- (7) 이처럼 계속되는 죄악을 버리지 못하는 것은 이전에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감당하지 못하고 멸망으로 떨어지게 한다.

9. **㉠** 살롬의 통치는 어떠하였는가? (13-15절)

- ㉠** (1) 이스라엘 왕 스가라에게 반역하고 그를 죽인 야베스의 아들 살롬은 웃시야 39년(B.C. 752)에 이스라엘 15대 왕으로 즉위하였다.
- (2) 그러나 그는 1개월 만에 자기가 반역하였던 것같이 반역을 받아 므나헴에게 피살되고 말았다.
- (3) 결국 살롬은 이스라엘 19왕 중 두번째로 짧은 재위 기간을 갖고 살해당한 왕이 되었다(첫째는 5대 시므리로 7일간 왕위에 있었다, 왕상 16:15).
- (4) 살롬이 악을 행했다는 언급이 본문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그에 대해 단지 3절로 간단히 언급하는 가운데 생각되었을 뿐 오히려 그는 다른 왕보다 더 악하기에 신속히 심판되었을 것이다.
- (5) 반역으로 왕이 된 살롬처럼 피와 거짓으로 세워진 지배권은 오래 지속되기 힘들다.

10. **㉠** 므나헴의 통치는 어떠했는가? (16-18절)

- ㉠** (1) 살롬을 죽인 가디의 아들 므나헴은 아사랴 39년(B.C. 752)에 이스라엘 15대 왕으로 즉위하여 10년을 치리했다(B.C. 752-742).
- (2) 므나헴은 행악을 하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않았다.
- (3) 과연 그는 참으로 잔인한 폭군이였다. 그는 자기에게 항복하기를 주저했던 자기 나라 백성에게 너무나 잔혹했는데 이는 한 성읍(답사)을 파멸시킨 사건이 입증해 주고 있다.
- (4) 뿐만 아니라 그는 자기도 여인의 자식임을 망각하고 ‘아이 뱀 부녀’를 갈랐다(16절).
- (5) 그는 이런 잔인한 방법을 써서 자기를 스스로 강하게 하고 주위에 있는 자들을 두렵게 하려고 했다.
- (6) 그러한 그의 목적은 앗수르 왕에 굴복당함으로 달성되지 못하였다(참조, 19, 20절).
- (7) 므나헴의 통치 기간 10년은 오직 죄악의 연속이였다. 죄인의 긴 생애보다 의인의 짧은 생애가 오히려 더 귀하다.

11. **㉠** 므나헴은 앗수르의 침입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하였는가? (19, 20절)

- ㉠** (1) B.C. 734년 혹은 B.C. 738년에 ‘불’이 이스라엘을 침입하려 하자 므나헴은 은 1,000 달란트(약 34,000kg)의 공세를 바쳐 그의 신복 중 한 사람이 되었다.
- (2) 본문에 앗수르 왕 ‘불’이란 디그랴 빌레셀 3세(B.C. 744-727)에게 불려진 바벨론식 이름이다.
- (3) 선지자 호세이는 므나헴의 이러한 죄에 대하여 심한 비난의 예언으로 책망하였다(호 5:13; 7:11; 10:6).
- (4) 세계 역사에서는 이렇게 국방을 튼튼히 하지는 않고 강대국에 뇌물만을 바치는 수단을 쓰다가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경우가 흔히 있다.
- (5) 힘있는 나라의 보호를 받으면 또한 그들의 압제도 받기 마련이다. 이런 보호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이스라엘에게와 같은 형벌이 있을 것이다.

12. ㉠ 브가히야의 통치는 어떠하였는가? (23-26절)

- ㉠ (1) 브가히야는 그의 아버지 므나헴의 뒤를 이어 아사랴 50년(B.C. 742)에 이스라엘 17대 왕으로 즉위하여 2년을 치리하였다(23절).
- (2) 그에 관해 전과 같이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란 말씀이 반복되어 있다.
- (3) 이런 말씀이 계속 언급되어지는 것은 그들이 회개하기를 싫어하였기 때문에 머지 않아 멸망이 오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인 것을 보여 주려는 것이다.
- (4) 이러한 브가히야는 즉위 2년만에 베가에 의해 살해되고 말았다. 그것은 브가히야 자신과 그의 부친 므나헴의 악행의 대가였다.
- (5) 특별히 브가히야는 외국의 적에게 피살된 것이 아니고 그의 신변 보호의 책임을 맡은 아주 가까운 신하에게 피살되었다. 이런 범죄는 신의와 충성으로 구성된 단체의 질서를 무너뜨린 것이다.
- (6) 이것이 여호와를 버린 시대의 실상이다. 호세아는 그 시대에 대하여 이렇게 말했다. “여호와께서 이 땅 거민과 쟁변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인애도 없고 오직 저주와 허위와 살인과...”(호 4:1, 2).

13. ㉠ 베가의 통치는 어떠하였는가? (27-31절)

- ㉠ (1)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는 아사랴 52년(B.C. 752)에 이스라엘 18대 왕으로 즉위했다.
- (2) 그는 반역으로 왕위를 얻었으나 보기 드물게 20년간이나 통치했다(B.C. 752-732).
- (3) 그러나 그도 역시 여로보암의 우상 숭배 죄악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그는 앗수르 왕의 침입을 받아 6성과 여러 지역을 상실하였다.
- (4) 그리고 그의 폭력적 반역 행위가 자신의 머리로 되돌아 오기까지는 비록 매우 긴 기간이 있었지만 결국 때가 되자 호세아의 반역을 받고 살해당하고 말았다.
- (5) 이렇듯 이스라엘의 왕관은 존귀와 영광보다는 그것을 쓰는 자의 머리에 치명적인 운명을 가져 왔고, 마침내는 흙 속에 버려지게 되었다.
- (6) 당시에 진실로 현자가 있었다면 길 거리에 있는 왕관 따위를 취하는 어리석은 모험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14. ㉠ 유다 왕 요담의 통치는 어떠하였는가? (32-36절)

- ㉠ (1) 요담은 그의 부친 우시야에 이어 베가 2년(B.C. 751)에 유다의 11대 왕으로 즉위했다. 그때 나이 25세 이후 예루살렘에서 16년간 통치했다.
- (2)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요세푸스(Josephus)에 의하면 그는 하나님을 경외했으며, 또 사람에게도 그러했고 잘못된 것은 무엇이든 고치려고 애썼다고 한다.
- (3) 요담은 비록 산당을 제거시키지는 않았으나 백성들의 관심을 산당에서부터 성전으로 돌리기 위해 성전에 깊은 존경심을 표했고 성전으로 드나드는 문을 더 높게 세웠다.
- (4) 이처럼 치리자들은 덕성과 경건의 발전과 유지를 위해 힘씀으로 경건이 존중받는 사회가 되도록 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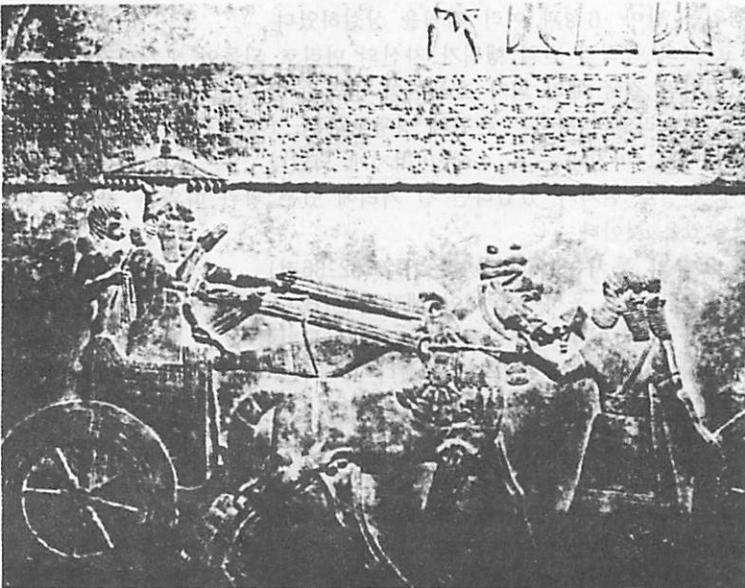
15. ㉠ 요담의 시대에 유다에 대항하기 위해 동맹한 왕들은 누구인가? (37절)

- ㉠ (1) 아람 왕 르신과 르말라의 아들 이스라엘 왕 베가이다.
- (2) 그들의 동맹은 요람의 아들 아하스 왕 통치 때에 엄청난 위협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이사야는 ‘왕의 마음과 그 백성의 마음이, 삼림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다’(사 7:2)고 묘사했다.
- (3) 본문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보내어 유다를 치게 하셨다’고 했다. 마치 여호와께서 시므이에게 다윗을 저주케 하고(삼하 16:10), 스바 사람을 시켜 욱의 재산을 약탈케 하셨던 것과 같다(욱 1:15).
- (4) 인간들은 하나님의 도구, 곧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칼이요 채찍이다(삼하 7:14).

- (5) 인간들의 의도가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원대로 당신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인간을 도구로 사용하신다.
- (6)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을 통하여 환난을 받을 때 그들을 쓰시는 하나님께 먼저 기도해야 할 것이다.

화보자료

디글랏 빌레셀 3세(Tiglath-Pileser III)의 원정. 아래의 사진은 갈라(Calah), 즉 니므롯(Nimrud)에서 발굴된 부조(浮彫)로서 디글랏 빌레셀 3세가 요새 공격을 진두 지휘(陣頭指揮)하고 있는 장면을 묘사한 것이다.



본장에 나오는 앗수르 왕 '불' (Pu)은 디글랏 빌레셀 3세(B. C. 744-727)와 동일 인물로서 바벨론식 이름이다. 그는 앗수르의 왕위를 찬탈한 후 제국을 새롭게 부흥시켰을 뿐만 아니라 B. C. 729년에는 바벨론 왕위에까지 올라 '불'이라는 이름을 획득하였다. 그는 전쟁을 일으켜 많은 나라를 속국으로 삼았는데 이때 이스라엘도 그의 침략을 당하여 공물을 바치게 되었다(19, 20절).

제 16 장 유다 왕 아하스의 악정(惡政)

단락구분 1-4 아하스의 통치 서론 / 5-6 아람과 이스라엘 동맹군의 유다 침입 / 7-9 아하스가 앓수르 왕에게 도움을 청하다 / 10-11 아하스가 다메섹 우상 제단을 도입하다 / 12-16 우상 제단에 제사를 드리다 / 17-18 성전 기구를 옮기다 / 19-20 아하스의 죽음

1 르말라의 아들 베가 십 칠 년에 유다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2 아하스가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이십 세라 예루살렘에서 십 육 년을 치리하였으나 그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치 아니하고

3 이스라엘 열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4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나무 아래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5 이 때에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이기지 못하니라

6 당시에 아람 왕 르신이 엘랏을 회복하여 아람에 돌리고 유다 사람을 엘랏에서 쫓아내었고 아람 사람이 엘랏에 이르러 거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렀더라

7 아하스가 앓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부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컨대 올라와서 나를 그 손에서 구원하소서 하고

8 여호와와의 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취하여 앓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내었더니

9 앓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취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길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10 아하스 왕이 앓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단을 보고 드

디어 그 구조와 제도의 식양을 그려 제사장 우리야에게 보내었더니

11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야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모든 것대로 단을 만든지라

12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와서 단을 보고 단 앞에 나아가 그 위에 제사를 드리되

13 자기의 번제와 소제를 불사르고 또 전제를 붓고 수은제 짐승의 피를 단에 뿌리고

14 또 여호와와 앞 곧 전 앞에 있던 놋단을 옮기되 새 단과 여호와와 전 사이에서 옮겨다가 그 단 북편에 두니라

15 아하스 왕이 제사장 우리야에게 명하여 가로되 아침 번제와 저녁 소제와 왕의 번제와 그 소제와 모든 국민의 번제와 그 소제와 전제를 다 이 큰 단 위에 불사르고 또 번제물의 피와 다른 제물의 피를 다 그 위에 뿌리고 오직 놋단은 나의 몸을 일에 쓰게 하라 하며

16 제사장 우리야가 아하스 왕의 모든 명대로 행하였더라

17 아하스 왕이 물두멍 받침의 옆판을 떼어내고 물두멍을 그 자리에서 옮기고 또 놋바다를 놋소 위에서 내려다가 돌판 위에 두며

18 또 안식일에 쓰기 위하여 성전에 건축한 낭실과 왕이 밖에서 들어가는 낭실을 앓수르 왕을 인하여 여호와와의 전에 옮겨 세웠더라

19 아하스의 그 남은 사적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20 아하스가 그 열조와 함께 자매 다윗성에 그 열조와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1. ㉠ 본장에 나타난 아하스의 악정에 관하여 설명하라.

- ㉠ (1) 본장은 유다 12대 왕 아하스의 통치 이야기이다. 그의 통치는 별로 훌륭한 것이 되지 못하였는데도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 (2) 본장에서 아하스는 훌륭한 부친(요담)과 보다더 훌륭한 아들(히스기야)을 가졌으나 정작 아하스 자신은 유다 열왕 중 가장 악한 왕의 한 사람으로 소개되고 있다.
- (3) 즉 아하스는 유명한 우상 숭배자였다(1-4절). 그의 우상 숭배는 하나님보다 앓수르 왕을 의지하고(5-9절) 여호와와의 제단보다는 다메섹의 제단(10-16절)을 더 좋아했다.

- (4) 이처럼 훌륭한 신앙의 가문에 속한 자라도 신앙을 장담할 수는 없다. 오늘날도 외형적으로 교회 생활을 잘하는 것 같아도 그 마음에 하나님보다 세상을 의지한다면 그것이 곧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다.
- (5) 이처럼 우상 숭배를 하는 자는 결국 아하스의 경우처럼 하나님께 '가장 악하다'란 평가를 받고 만다.

2. **㉠ 유다 왕 아하스의 통치 연대는 어떠한가? (1, 2절)**

- ㉠** (1) 아하스는 유다 왕 요담의 아들로 이스라엘 왕 베가 17년(B.C.742)에 유다 12대 왕으로 즉위했다.
- (2) 아하스는 즉위할 때 나이 20세로 예루살렘에서 16년을 치리했다(B.C.742-725).
- (3) 그와 동시대의 이스라엘 왕은 18대 베가(B.C.752-732)와 19대 호세아(B.C.732-723)로서 당시 이스라엘은 멸망 직전에 있었다.
- (4) 남쪽에는 아람 왕 르신이 유다를 침략해 왔고 동북방의 앗수르에는 디글랏 빌레셀 3세(B.C.744-727)가 세력을 확장하여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다(B.C.722).
- (5) 그러므로 아하스 왕이 통치하던 시기는 국제 정세가 매우 불안정하고 혼란했다.
- (6) 이러한 때야말로 세상 나라의 흥망 성쇠와 인생의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의 도움을 받아야 할 때다. 그러나 아하스는 그렇지 못했다.

3. **㉠ 아하스 통치의 성격은 어떠한가? (2-4절)**

- ㉠** (1) 아하스는 먼저 적극적으로 본받아야 할 그 조상 다윗의 신앙을 저버리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치 않았다(2절).
- (2) 반면에 유다의 왕으로서 경계해야 할 이스라엘 열왕의 우상 숭배의 길로 행하여 여호와께 범죄했다(3절).
- (3) 아하스는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급기야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이방인 가나안 족속의 가증한 귀신 숭배를 행하기까지 했다(4절).
- (4) 이렇게 아하스의 범죄는 점점 깊어져 갔는데 그 범죄의 출발점은 본받아야 할 그 조상 다윗을 잊어버리고 다윗이 행한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한 데 있다.
- (5)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면 할수록 죄에 가까이 가게 된다. 이렇게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정욕에 이끌리며(요일 2:15, 16) 이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약 1:15).

4. **㉠ 아하스가 그 조상 다윗과 같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2절)**

- ㉠** (1)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규례에 따라 드린 예배 때문에 칭송을 받았으나 아하스는 그런 일에 애착을 갖지 않았다.
- (2) 또한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였으나 아하스는 성전을 존중하지 않았다(참조, 8, 17, 18절).
- (3)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였으나 아하스는 인간의 방법을 따랐다(7, 10-18절). 이러한 점에서 아하스는 다윗과 같지 않았다.
- (4) 아하스에게 영예가 되어야 했던 다윗의 왕좌는 합당히 행하지 않은 아하스에 의해 수치를 당했다. 그리고 그것은 아하스에게 있어서도 치욕이 되었다.
- (5) 신자는 교회의 직책을 자랑치 말아야 한다. 만일 그에 합당하게 행치 못하면 그 영광된 직분이 오히려 자기를 정죄하게 될 것이다(참조, 약 3:1).

5. **㉠ 아하스가 이방인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어떤 죄악을 행하였는가? (3, 4절)**

- ㉠** (1) 여기 언급된 '가증한 일'은 가나안 민족이 어디에서나 행하고 있는 죄악을 가리킨다(17:8, 11; 민 33:51, 52).
- (2) 가나안 민족 중 특히 베니게 사람들은 아이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상례이었다. 즉 그들

은 자기의 아이들을 몰록 신에게 제사했다(레 18:21).

- (3) 가나안 민족은 바로 이러한 가증한 죄악으로 인하여 가나안 땅에서 쫓겨났던 것인데(신 12:31), 아하스는 바로 그들의 죄악을 본받아 행함으로 하나님을 격노케 하였다.
- (4) 몰록 제사나 자녀 제사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의 계시된 말씀을 알지 못할 때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할 때 떨어지는 가증한 죄악을 상징한다(참조, 롬 1:21, 22).
- (5) 그러므로 이러한 가증한 죄악은 불신자 뿐 아니라 ‘교인’(church man)이라고 불리는 자에 있어서도 행해질 수 있다.
- (6) 우리는 교회의 안과 밖으로 말씀의 빛을 비추어야 한다. 그 빛은 어둠과 사망의 그늘에 앉은 사람들을 도와서 구원의 지식을 알게 한다(눅 1:79; 2:32).

6. **Q** 이스라엘 종교에서 자녀 제사를 금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3절)

- A** (1) 자녀를 제사드리는 이방인들은 이 무서운 제사가 자기들의 모든 상실된 것에서 더 많은 것을 회복케 해주리라고 믿었다.
- (2) 그래서 모압 왕은 전쟁할 때, 그 아들을 그모스 신에게 제사드려 전쟁의 파괴에서 고통받지 않기를 구했다. 즉 그 제사가 이스라엘의 공격에서 구해줄 것을 믿었다(3:26, 27).
 - (3) 아마도 그때 모압 왕은 자기 자녀를 산 채로 불에 던졌던 것 같다.
 - (4) 이는 여호와를 아는 백성은 도저히 행치 못할 것으로(신 12:31) 이것은 땅을 피로 더럽게 하고(시 106:38)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레 18:21).
 - (5) 이스라엘의 여호와 종교는 하나님의 인격과 영성(靈性)과 거룩에서 이방 종교와 아주 다르다. 그러므로 자녀 제사와 같은 가증한 습성을 금하는 것이다.

7. **Q** 신앙을 상실한 아하스는 어떤 일을 당하였는가? (5, 6절)

- A** (1)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베가가 동맹을 맺고 아하스의 예루살렘을 침공하였다.
- (2) 그들은 자기들이 예루살렘의 주인이 되어 자기들의 궁정을 두려고 시도하였다(사 7:6).
 - (3) 결국 이 시도는 실패로 끝났으나 아람 왕은 엘랏을 회복하였다. 엘랏은 홍해에 위치한 중요한 항구이며 아마샤 왕이 아람에게서 빼앗은 도시였다(14:22).
 - (4) 이렇게 신앙을 상실한 아하스는 선조가 물려준 기업도 상실해 버렸다.
 - (5) 이처럼 신앙을 잃은 자의 길은 손해보는 데로 달려간다.

8. **Q** 아하스는 르신과 베가의 침입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하였는가? (7, 8절)

- A** (1) 아하스는 그들과의 대결을 회피하려 했다. 그는 신앙을 상실한 상태에서 적들을 대항할 용기도 힘도 없었다.
- (2)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던 아하스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시 121:4)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고 앗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굴욕적인 도움을 구했다.
 - (3) 아하스는 이스라엘 왕 아하시야와 같이 책망을 받아야 했다(1:3).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앗수르에 도움을 청하는가?’ 아하스는 영원한 반석을 버리고 부러진 갈대를 의지했다.
 - (4) 다윗은 수많은 대적에 둘러싸인 가운데서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이다’ 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다(시 3:6).
 - (5) 이렇게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가’ 복있는 자이다(시 146:5).

9. **Q** 아하스가 앗수르 왕을 의지한 결과는 어떠한가? (7-9절)

- A** (1) 앗수르 왕은 아하스의 말을 듣고, 그의 요구대로 다메섹으로 내려 와서 아람 왕에게 강력한 선제 공격을 가하여 아하스에 대한 공격을 포기하게 했다(9절).
- (2) 이것은 아하스의 목적이 성취된 것처럼 보여주지만 모든 것을 고려해 볼 때 아하스는 앗수르 왕과 손해보는 흥정을 한 것에 불과했다.

- (3) 즉 아하스는 도움을 요청키 위해 스스로를 '앗수르 왕의 신복이요 아들이라' 하여 하나님 아닌 이방 왕의 종으로 전락하고 말았다(7절).
- (4) 뿐만 아니라 성전과 왕궁 곳간의 은금을 앗수르 왕에게 바침으로 부끄러운 가난을 당해야 했다.
- (5) 만일 아하스가 하나님께 자기를 굴복시키고 하나님의 은총을 간구하였다라면 은금을 쓰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고 앗수르의 종이 될 필요도 없었을 것이다.

10. **㉠** 아하스는 다메섹에서 무엇을 수입하여 왔는가? (10절)

- ㉠** (1) 아하스는 자신이 요청한대로 앗수르 왕이 다메섹을 아람에게서 탈취하자 그의 성공을 축하하기 위해 다메섹에까지 갔다.
- (2) 그는 거기서 제단을 보았는데 그것이 그에게는 매우 좋아 보였다. 그래서 그는 그것의 모형을 본떠서 제사장 우리야에게 보내어 만들게 했다.
- (3) 이처럼 그는 다메섹에서 앗수르 왕의 무력을 수입할 뿐 아니라 앗수르의 종교까지도 수입한 것이다.
- (4) 이렇게 우상 숭배자들은 탐욕을 좇게 되는데 이 탐심이 곧 우상 숭배이다(골3:5).
- (5) 우리는 바로 이 탐심을 가지고 행함으로 우상 숭배를 자초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아야겠다.

11. **㉠** 아하스의 부탁을 따라 우상의 제단을 만든 우리야는 어떤 인물인가? (11, 16절)

- ㉠** (1) 여기 우상의 제단을 만든 우리야는 이사야가 말한 여호와의 신실한 증인과 동일 인물이 아니다(사8:2).
- (2) 우리야는 제사장으로 그의 마음에 있었던 것은 물질에 대한 탐욕뿐이었다.
- (3) 그렇기에 그는 웃시야 왕 때의 제사장 아사라처럼(대하26:17이하) 왕의 불경건을 저지하지 못했고 도리어 우상의 제단을 만들었다.
- (4) 그는 짓지 못하는 병어리 개와 같았다. 그는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던 당시 타락한 성직자 중의 하나였다(사56:9-12).
- (5) 아모스, 호세아, 이사야, 미가는 그 무리들을 향하여 책망했고 심판을 선언했다(사56:10; 미3:11; 암6:3; 미5:1). 이것은 타락한 현대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경고가 된다.

12. **㉠** 아하스의 후계자는 누구인가? (20절)

- ㉠** (1) 아하스가 36세 때 죽자 그의 왕국은 보다 훌륭한 사람, 곧 그의 아들 히스기야에게 넘기워졌다.
- (2) 아하스가 성전에 대하여 원수였다면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친구가 되었던 사람이다.
- (3) 아하스는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는 제물로 물룩에게 바쳤건만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을 불길 가운데서 타다 남은 그루터기와 같이 은총으로 구원하셨다(참조, 사6:13).
- (4) 아하스 시대에 최악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절망으로만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은총으로 거룩한 씨를 남겨 두셨다.
- (5) 이 거룩한 씨는 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그의 강림은 히스기야 시대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실 것이다.

제 17 장 호세아 왕 때에 이스라엘이 망하다

단락구분 1-2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통치 서론 / 3-6 이스라엘이 앗수르에 의해 멸망하다 / 7-12 멸망의 원인인 우상숭배 / 13-18 말씀을 버림으로 행악하게 되다 / 19-23 여로보암이 행한 죄의 길 / 24 이방인이 사마리아로 이주하다 / 25-26 사자(獅子) 사건 / 27-28 제사장이 백성을 가르치다 / 29-33 여호와 경외와 우상 숭배의 공존(共存) / 34-41 하나님의 언약과 배교자(背教者)들

1 유다 왕 아하스 십 이 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구년을 치리하며

2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 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3 앗수르 왕 살만에셀이 올라와서 호세아를 친고로 호세아가 신복하여 조공을 드리더니

4 저가 애굽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앗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매 앗수르 왕이 호세아의 배반함을 보고 저를 옥에 금고하여 두고

5 올라와서 그 온 땅에 두루 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삼 년을 에워쌌더라

6 호세아 구 년에 앗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취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 잡아 앗수르로 끌어들여 할라와 고산 하룻 하룻가에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7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8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의 세운 율례를 행하였음이라

9 이스라엘 자손이 가만히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에 당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10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11 또 여호와께서 저회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격노케 하였으며

12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치 말라 명하신 일이라

13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로 이스라엘과 유다를 경계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열조에게 명하고 또 나의 종 선지자들로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

하라 하셨으나

14 저회가 듣지 아니하고 그 목을 굳게 하니 그를 그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저회 열조의 목같이 하여

15 여호와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 열조로 더 붙여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좇아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하신 본받지 말라 하신 사면 이방 사람을 본받아

16 그 하나님 여호와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를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일월 성신을 숭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17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술을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 노를 격발케 하였으므로

18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심히 노하시니 그 앞에서 제하시니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니라

19 유다도 그 하나님 여호와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의 세운 율례를 행하였으므로

20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붙이시고 심지어 그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21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짓어 나누시매 저회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으로 왕을 삼았더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하며

22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의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떠나지 아니하므로

23 여호와께서 그 종 모든 선지자로 하신 말씀대로 심지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제하시니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앗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미쳤더라

24 앗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여러 성읍에 두매 저회가 사마리아를 차지하여 그 여러 성읍에 거하니라

25 저희가 처음으로 거기 거할 때에 여호와를 경외치 아니한 고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 가운데 보내시매 몇 사람을 죽인지라
 26 그러므로 흑이 앗수르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하게 하신 열방 사람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 신이 사자들을 저희 가운데 보내매 저희를 죽였사오니 이는 저희가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27 앗수르 왕이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그 곳에서 사로잡아 온 제사장 하나를 그 곳으로 데려가되 저로 그곳에 가서 거하며 그 땅 신의 법으로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28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 간 제사장 중 하나가 와서 벨엘에 거하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 것을 가르쳤더라
 29 그러나 각 민족이 자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의 지은 여러 산당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의 거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30 바벨론 사람들은 숙곳브נות을 만들었고 굿 사람들은 네르갈을 만들었고 하맛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31 아와 사람들은 님하스와 다르탁을 만들었고 스발와임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 신 아드람멜렉과 아남멜렉에게 드렸으며
 32 저희가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33 이와 같이 저희가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 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34 저희가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치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치 아니하는도다
 35 옛적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저희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치 말며 그를 숭배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 말고
 36 오직 큰 능력과 편 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만 너희가 경외하여 그를 숭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37 또 여호와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너희가 지켜 영원히 행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치 말며
 38 또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들을 경외치 말고
 39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였으나
 40 그러나 저희가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41 그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로새긴 우상을 섬기더니 그 자자 손손이 그 열조의 행한 것을 좃아 오늘까지 그대로 하니라

1. **㉠** 이스라엘의 멸망과 그 원인에 대하여 설명하라.

- ㉠** (1) 본장에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역사가 기록되어 있다.
 (2) 즉 북왕국 이스라엘은 B.C.931년 여로보암 1세에 의해 건국되어(왕상 12:20) 약 200년간 존속되어 오다가 19대 호세아 왕 9년(B.C.722)에 멸망하고 말았던 것이다.
 (3) 이처럼 이스라엘이 멸망한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한 죄에 있다. 이 죄악 때문에 이스라엘은 이방인 앗수르에게 멸망당하고 그들의 수도인 사마리아에는 이방인들이 이주하여 살게 되었다.
 (4) 우리는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거울삼아 우상 숭배의 죄에서 떠나기 위해 늘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생활을 하여야 한다(요일 5:21).
 (5) 우리는 본장에서 죄악의 길을 가는 사람들의 운명과 그들의 실패 원인을 알게 되며 아울러 그들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배우게 될 것이다.

2. **㉠** 호세아의 통치 연대는 어떠한가? (1절)

- ㉠** (1) 호세아는 엘라의 아들로 유다 왕 아하스 12년(B.C.732)에 이스라엘 마지막 19대 왕으로 즉위하였다.
 (2) 호세아는 18대 베가 왕을 반역하여 그를 쳐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된 것이다(15:30).
 (3) 호세아는 즉위 후 9년을 치리하였다(B.C.732-723).
 (4) 그와 동시대에 유다는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왕위를 이어 통치했고 앗수르는 살만에셀 3세(B.C.727-722)와 사르곤 2세(B.C.722-705)가 통치했다.
 (5) 호세아와 이스라엘은 앗수르 왕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다(6절).이로써 호세아 통치의 마지막은 결국 이스라엘 왕국의 마지막이 되고 말았다.

3. **㉠ 호세아의 통치의 성격은 어떠하였는가? (2절)**

- ㉠** (1) 호세아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선임(先任) 왕들과 같은 정도는 아니었다.
- (2) 여기에서 '악을 행한다' 라는 문형은 항상 여호와와 그를 예배하는 일에 관련된다. 이런 점에서 호세아는 이전 왕들보다 경건했다.
- (3) 그러나 호세아가 송아지 예배를 단념했다고는 볼 수 없다. 다만 앗수르 사람들이 벨엘의 금송아지를 가져간 후 다른 것을 세우지는 않았다고 전해진다(호 10:6).
- (4) 어쨌든 이스라엘 왕국의 파멸이 가장 훌륭한 왕들 중의 한 왕의 통치 중에 도래했다는 것은 심각한 사실이다.
- (5)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즉흥적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전부터 쌓여 있던 죄과에 대하여 공의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다.

4. **㉠ 살만에셀은 어떤 사람인가? (3절)**

- ㉠** (1) 살만에셀은 앗수르 왕으로 디그랏 빌레셀 3세(15:29)의 아들이며 후계자인 살만에셀 3세를 가리킨다.
- (2) 그에 이어 열왕기하에 나타나는 왕이 산헤립인테(18:13), 살만에셀은 산헤립 이전인 B.C. 727-722년에 앗수르를 통치했다.
- (3) 또한 이사야서에 나타나는 사르곤 왕은(사 20:1) 살만에셀 3세와 산헤립 사이에 통치한(B.C. 722-705) 왕으로 보아야 한다.
- (4) 이 살만에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 호세아를 공격하여 승리하므로 조공을 받았다.

5. **㉠ 애굽 왕 소는 어떤 사람인가? (4절)**

- ㉠** (1) '소' (So)는 애굽 왕 명부 중에서는 발견되지 않는다. 아마도 그는 제 25 왕조(에디오피아인) 중 최초의 두 왕 중에 한 사람인 것으로 추정된다.
- (2) 고대에 앗수르에 대항할 만한 큰 힘을 가진 나라로 알려져 있던 애굽은 '소'가 다스릴 당시는 분열된 상태에서 매우 약해지고 있었다.

6. **㉠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경위는 무엇인가? (4-6절)**

- ㉠** (1) 호세아는 당시 앗수르의 속국으로서의 명예를 떨쳐 버리기 위해 애굽 왕에게 사자를 보내고 동맹 관계를 맺었다.
- (2) 그는 이스라엘이 앗수르에 대한 조공을 철회하고 반란을 일으키면 애굽 왕이 합세하여 도와 줄 것을 바랐던 것이다.
- (3) 그러나 정작 호세아가 앗수르를 배반했을 때 애굽은 힘이 되어 주지 못했고 3년 동안 맞서 싸웠으나 결국 사마리아 성은 함락되고 말았다(5, 6절).
- (4) 이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와 화해하며, 또 그에게 기도했더라면 오히려 자유와 평안과 명예를 회복할 수 있었을 것이다.
- (5) 하나님 대신 사람을 의지할 때 그 의지는 헛된 것이 될 뿐이다(시 146:3, 4). 인간들은 그물과 씨름해 보았자 아무 것도 얻지 못하고 더욱 그물에 엉키게 될 뿐이다.

7. **㉠ 이스라엘이 멸망한 원인은 무엇인가? (7, 8절)**

- ㉠** (1) 열왕기 저자는 본장에서 열 지파 왕국, 즉 이스라엘의 파멸은 다만 간략하게 언급하고 7절부터 그 멸망의 원인에 대하여 자세한 논설을 하고 있다.
- (2) 이스라엘이 멸망에 있어서 이스라엘 군사력의 약함, 그들의 그릇된 상황 판단, 혹은 앗수르 왕의 증대된 세력 등은 부차적인 원인이고 첫째 원인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있다.
- (3) 이스라엘은 경외해야 할 하나님께는 죄를 범하고 허무한 이방 신들을 경외했다(7절). 그들은 행해야 할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버려야 할 이방인의 규례를 행했다(8절).
- (4) 신자들은 곤경에 처할 때 인간적인 환경의 좋고 나쁨보다는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돌아보아야 한다.

- (5) 만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저해하는 우상들이 있거나 세속적인 사고 방식이나 가치관이 있다면 그것부터 제거해야 한다.

8. **㉠** 이스라엘의 범죄는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가? (9-11절)

- ㉠** (1) 이스라엘은 비밀히 불의를 행하여 하나님을 속였다(9절).
 (2) 그들이 산당과 목상들을 세우고 분향했던 우상 숭배는 이런 불의가 빚어낸 범죄였다.
 (3) 그들은 그러한 우상 숭배를 범죄가 아닌 듯이 여겼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장 대표적인 죄악으로 보시고 격노하셨다(11절).
 (4) 모든 죄악은 이런 은밀한 데서부터 시작된다. 우리가 죄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심각한 죄악으로 간주하실 수 있다.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마6:4, 6) 앞에 정직한 것이 죄를 피하는 첫째 비결이다.

9. **㉠** 본문에서 우상 숭배가 특별히 강조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12절)

- ㉠** (1) 이스라엘에게 많은 부도덕의 죄악이 있고, 10계명의 둘째 법판에 들어 있는 모든 명령들을 어겼음이 분명할지라도 본문에는 첫째 법판의 우상 숭배 이외에는 아무 것도 열거되지 않았다.
 (2) 우상 숭배는 1계명과 2계명이 연합하여 금지하는 죄악이다(12절; 출 20:3-6).
 (3) 이 죄악이야말로 다른 모든 악의 입구(入口)가 된다. 그렇기에 사람 사이에는 잘 드러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는 가장 가증한 불법이다.
 (4) 이러한 우상 숭배는 현대를 사는 신자들에게도 아주 쉽게 빠질 수 있는 죄악이다. 즉 하나님보다 어떤 대상을 더 사랑한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이다.

10. **㉠**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에서 구하려고 하셨는가? (13절)

- ㉠** (1)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선지자와 선견자를 보내어 경계하셨다.
 (2)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악한 길을 지적하시면서 떠나라고 촉구하시고 이제는 선지자가 전해 준 하나님의 말씀(명령, 율례, 율법으로 표현됨) 대로 행할 것을 명하셨다.
 (3) 우리는 성경에서 모든 통치 기간에 선지자와 선견자가 있었음을 읽게 된다.
 (4) 이스라엘에게 제사장이라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없은 적이 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예언자의 후계가 없도록 하시지는 않았다.
 (5) '죄악의 길에서 돌아서려는 자는 역시 연약한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설교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6)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할 것이다"(눅 16:31).

11. **㉠** 하나님의 경계하심에 대하여 이스라엘은 어떻게 반응하였는가? (14절)

- ㉠** (1)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도리어 목을 굳게 했고 우상 숭배를 계속했다.
 (2) 이것은 광야에서의 그들의 조상들의 모습을 재현하는 것 같았다(신 9:6).
 (3) 그 조상들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던 동일한 죄가 이스라엘 열 지파 왕국을 가나안에서 쫓아내었으니 그것은 곧 '불신앙'이란 죄이다.
 (4) 신약 시대를 향하여 사도 바울은 육적 이스라엘은 믿지 아니하므로 꺾어우고 이방인(로마 신자)은 믿음으로 섰다고 증언하였다(롬 11:20).
 (5) 이런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는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순종과 행함으로 나타내야겠다.

12. **㉠** 이스라엘 백성이 허무한 것을 좇아 허망하여 진 이유는 무엇인가? (15절)

- ㉠** (1) '허망하다' (vain)는 상태는 무엇인가를 버렸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이다.
 (2) 같은 문장 형식으로 예레미야는 '나(여호와)를 멀리하고 허탄한 것을 따라 헛되이 행

한다' 라고 기록하였다(렘 2:5).

- (3) 또 바울은 로마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라고 하였다(롬 1:21).
- (4) 왕하 본문에는 '올레와 언약과 말씀' 을 버렸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허망하여졌다고 하였다(15절).
- (5) 종합하면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때' 허망하여지는데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 을 버렸다는 의미이다.
- (6) 오늘날의 신자들도 성경을 소홀히 하고 '하나님의 말씀' 에 귀기울이지 않으면 말씀대신 허무한 것을 좇아 허망하게 되고 만다.

13. **㉠** 이스라엘이 허무하게 되어서 이방주의에 떨어진 증거는 무엇인가? (16, 17절)

- ㉠** (1) 이스라엘은 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또 아세라 형상을 만들었다. 그리고 하늘의 군대(별들과 성운) 들을 새겨 숭배하고 바알 우상을 섬겼다(16절).
- (2) 마침내는 그들의 자녀를 불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였다. 그리고 점성술사에게 자신들을 맡기고 스스로 팔려 완전히 우상 숭배의 노예가 되고 말았다(17절).
- (3) 16절의 성운 숭배는 서아시아 특히 아람인들 중에서 일반적으로 발견되는 자연신 숭배이고 17절의 모든 가증한 일들은 가나안 원주민의 풍속이었다(신 18:9-14).
- (4) 이러한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명백히 지적되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말씀' 을 버렸기에 이방주의에 떨어지고 만 것이다.
- (5) 우리들의 주위에 있는 모든 인본적이고 세속적인 이방주의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결과이다.

14. **㉠** 이스라엘이 이방주의에 떨어진 결과는 무엇인가? (17, 18절)

- ㉠** (1)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야 하는 이스라엘이 이방 우상주의에 떨어진 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할 만한 큰 죄악이었다(17절).
- (2) 하나님께서는 크게 진노하셨고 유다 지파 외에는 모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고 말았다(18절).
- (3) 여기 결론적으로 말하여진 18절은 19-23절에서 더욱 상세하게 해설되고 있다. 이것은 7절이 8-17절에서 상세하게 해설되고 있는 것과 비슷하다.
- (4) 신자들이 형통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난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신자와 하나님 사이가 죄악으로 막혀 있기 때문이다(사 59:2).
- (5) 신자들이 마음에 우상을 둬므로 언행이 일치하지 않는 신앙 생활을 할 때 이스라엘이 가나안에서 쫓겨나듯이 하나님의 축복권에서 밀려나고 말 것이다.

15. **㉠** 이스라엘이 가나안에서 앗수르로 잡혀가게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하여 말씀하셨는가? (23절)

- ㉠** (1) 이스라엘의 멸망은 돌발적 사건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전에 경고해 오셨던 것이 성취된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의 말을 통하여 말씀하셨다.
- (2)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창시자인 여로보암이 범죄할 때부터 선지자를 통하여 경고하셨으나(왕상 14:15, 16) 이스라엘 자손은 회개치 않았다.
- (3) 이 후에 많은 선지자들에 의해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에 포로로 잡혀갈 것으로 예언되었다(사 28:1-4; 호 1:6; 9:16; 암 3:11-15; 5:27).
- (4) 더욱 거슬러 올라가면 그 당시부터 약 700년 전에도 모세가 이스라엘의 포로됨을 예언했다(신 28:63-68).
- (5) 우리는 선지자를 통해(오늘날을 성경 말씀의 강해를 통해)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회개함으로 세상의 멸망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

16. ㉠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되어 잡혀 간 사마리아에는 누가 살게 되었는가? (25절)

- ㉠ (1)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에서 쫓겨나자, 앗수르 왕은 자기 나라에서 다 수용할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을 가나안으로 이주시켰다.
- (2) 그들은 바벨론과 구다, 아와(이와, 18:34;19:13), 하맛과 스발와임으로부터 옮겨왔다.
- (3) 사실 그들은 앗수르에서 없어도 상관인 없는 자들이요, 종과 같은 위치에 있는 이들이었으나 사마리아에 와서는 오히려 주인과 같이 되었다.
- (4) 이렇게 한 땅의 주인이 바뀌는 것은 인류 역사에서 흔히 있는 일이었으나 이스라엘의 거룩한 땅이 이방인의 땅이 되었다는 것은 슬픈 일이다.
- (5) 이것이 죄가 연출하여 낸 비극이다.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고귀한 신분을 상실하고 종의 종과 같은 자리로 전락하여 버린다. 죄를 미워하라!

17. ㉠ 여호와께서 사마리아에 사자(獅子)들을 보내어 이주민 몇 사람을 죽이신 까닭은 무엇인가? (25절)

- ㉠ (1) 당시 전쟁으로 인해 인구가 최소화 된 이스라엘 북부 지역에는 맹수들이 번식했다 (참조, 출 23:29).
- (2) 그러나 앗수르 사람이 사마리아로 처음 이주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자들을 보내신 것은 자연적인 원인만은 아니었다. 무엇보다 그것은 하나님의 손길이였다.
- (3) 그러므로 이주민 몇 사람이 사자들에게 죽임을 당한 것은 ‘여호와를 경외치 않았기’ 때 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던 것이다.
- (4) 이주민들이 자기들의 본국에서도 하나님 없이 살았으나 사자들로 인해 괴로움을 받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들이 거룩한 땅에 와서도 그렇게 산다면, 생명에 위협이 오게 된다.
- (5) 그러므로 거룩한 땅을 받을 만하지 못한 자들이 거룩한 땅에 들어온다면, 그것은 그들에게 축복이 아니라 화가 될 것이다.
- (6) 예수께서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마 7:6)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한다.

18. ㉠ 사마리아의 혼합 종교가 시작된 배경을 말하라 (26-33절).

- ㉠ (1) 이스라엘 땅이었던 사마리아 내에 외국 백성들이 들어오으로써 종교적인 혼란이 야기되었다.
- (2) 사자 사건(獅子事件, 24, 25절)을 인하여 사마리아로 돌아온 한 제사장이 백성에게 ‘여호와 경외하는 법’을 가르쳤으나(28, 32절) 다른 이주민들은 계속 자기들의 신들을 섬겼다(29-31절).
- (3) 또한 이스라엘과 이방 민족 간의 결혼으로 혼혈족이 태어나 그들의 후예는 사마리아인이라 불리웠다(요 4:9).
- (4) 이런 가운데 종교적인 혼합도 이루어져 혼합 종교로서 하나의 종파적인 성격을 띠게 되었고, 후기 팔레스틴의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지니게 되었다.
- (5) 성도에게 있어 가장 주의해야 할 것 중에 ‘혼합주의 신앙’이 있다. 세상에는 살고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성도는 이방 풍속에 물들지 않게 자신을 지켜야 하겠다 (참조, 약 1:27).

19. ㉠ 사마리아의 혼합 종교는 언제까지 계속되었는가? (34-41절)

- ㉠ (1) 열왕기 저자는 ‘오늘까지’라는 말을 씀으로 열왕기를 기록할 당시(B.C.562-536)에도 사마리아의 혼합 종교가 계속되었음을 말했다(34, 41절).
- (2) 그리고 그 후 오랫동안 300년 이상, 즉 알렉산더 대왕 때까지 계속되었다. 알렉산더 대왕 당시 유대의 대제사장 야두스의 형제 므낫세는, 사마리아 총독 산발닷과 결혼하고 대왕에게 그리심 산에다 성전 건축 허락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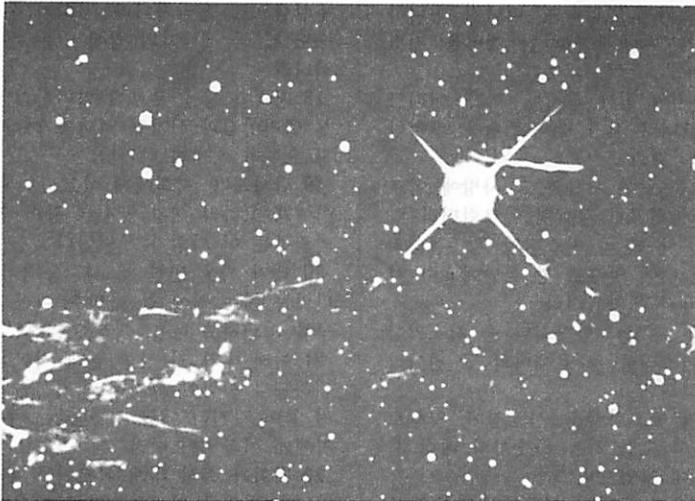
- (3) 그리하여 사마리아인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하나님만을 예배하도록 했다. 그러나 그들의 예배는 너무도 미신과 혼합되어서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고 주님께서 지적하셨다(요 4:22).
- (4) 이렇듯 한번 세속에 물들어 혼합되어 버린 신앙은 그 순수성을 회복하기가 대단히 힘들다. 신자들은 무엇보다 혼합주의를 경계하여 복음과 신앙의 순수성을 지켜야 한다.

20. **㉠** 하나님께서는 언약 관계에 있는 백성들에게 어떤 책임을 강조하셨는가? (35-39절)

- ㉠** (1)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① 당신만을 경외하고 숭배할 것과 ② 언약의 백성을 위해서 기록한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키도록 명령하셨다.
- (2) 이러한 명령과 더불어 하나님께서는 당신만을 경외할 때 그들을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고 약속하셨다.
- (3) 여기에서 ①과 ②의 명령은 별개의 것이 아니고 상호 긴밀한 연결성을 지니고 있다.
- (4) 특히 이 중에서도 ①에 해당되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명령이 34-38절 사이에 3차례에 걸쳐서 언급된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우상 숭배임을 보여 준다.
- (5) 이러한 모든 사실들은 사마리아에 이주해온 이방 민족들을 가르치지 위해 한 제사장이 선포한 것이지만 오늘날 성도들에게 여전히 적용되는 말씀이다.

화보자료

우주의 별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주에는 인간이 셀 수 없을 만큼의 많은 혹성들이 있다.



낮과 밤이 있어서 우리가 해와 달, 별들을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물로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않으신다는 언약의 표시(창 8:22)인데 그것을 모르고 인간이 해와 달, 별들을 섬기는 것은 (16절) 너무도 어리석은 일이다.

제 18 장 유다 왕 히스기야 때 앗수르가 침입하다

단락구분 1-4 히스기야의 통치 서문 / 5-8 히스기야의 형통 / 9-12 북왕국의 멸망 / 13-17 앗수르의 침입 / 18-25 랍사게가 앗수르 왕의 말을 전하다 / 26-35 랍사게가 백성들에게 더욱 모독적인 말을 하다 / 36-37 사신들이 랍사게의 말을 히스기야에게 전하다

1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삼 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2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이십 오 세라 예루살렘에서 이십 구 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아비라 스가리야의 딸이더라

3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4 여러 산당을 제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뿔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 때까지 향하여 분향하므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5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6 곧 저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7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시매 저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앗수르 왕을 배척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8 블레셋 사람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9 히스기야 왕 사 년 곧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칠 년에 앗수르 왕 살만에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에워쌌더라

10 삼 년 후에 그 성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의 육 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구 년이라 사마리아가 함락되매

11 앗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앗수르에 이르러 할라와 고산 하를 하숫가와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

12 이는 저희가 그 하나님 여호와와 말씀준 행치 아니하고 그 언약을 배반하고 여호와와 종 모세의 모든 명한 것을 거스르 듣지도 아니하며 행지도 아니하였음이더라

13 히스기야 왕 십 사 년에 앗수르 왕 산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취하매

14 유다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보내어 앗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앗수르 왕이 곧 은 삼백 달란트와 금 삼십 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로 내게 한지라

15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와의 전과 왕궁 공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16 또 그 때에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와의 전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앗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17 앗수르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매 저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저희가 올라가서 뚝뚝 수도 결 곧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에 이르러서니라

18 저희가 왕을 부르매 힐기야의 아들 궁내 대신 엘리야김과 서기관 셉나와 아삼의 아들 사관 요아가 저에게 나가니

19 랍사게가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고하라 대왕 앗수르 왕의 말씀이 너의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

20 내가 싸울 만한 계교와 용력이 있다고 한다면 이는 입에 붙은 말 뿐이라 내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였느냐

21 이제 내가 저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 손에 찢려 들어 갈지라 애굽 왕 바로는 무릇 의뢰하는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22 너희가 혹시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리라마는 히스기야가 여호와와 산당과 제단을 제하고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명하기를 예루살렘이 단 앞에서만 숭배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셨나니

23 이제 너는 내 주 앗수르 왕과 내기하라 내가 만일 그 말 탈 사람을 낼 수 있다면 나는 네게 말 이천 필을 주리라

24 내가 어찌 내 주의 신복 중 지극히 작은 장관 하나인들 물리치며 애굽을 의뢰하고 그 병거와 기병을 얻을 듯하나

25 내가 어찌 여호와와 뜻이 아니고야 이제 이곳을 떨허러 올라왔겠느냐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이르시기를 이 땅으로 올라와서 처서 떨하라 하셨느니라

26 힐기야의 아들 엘리아김과 션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알아듣겠사오니 청컨대 아람 방언으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씀하시고 성 위에 있는 백성의 듣는데 유다 방언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옵소서

27 랍사게가 저에게 이르되 내 주께서 내 주와 네게만 이 말을 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나 성 위에 앉은 사람들도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게 하고 자기의 소변을 마시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고

28 랍사게가 드디어 일어서서 유다 방언으로 크게 소리 질러 불러 가로되 너희는 대왕 앗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29 왕의 말씀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저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 내지 못하리라

30 또한 히스기야가 너희로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저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정녕 우리를 건지실지라 이 성이 앗수르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않게 하시리라 할지라도

31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앗수르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고 너희는 각각 그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의 우물의 물을 마시라

32 내가 장차 와서 너희를 한 지방으로 옮기리니 그 곳은 너희 본토와 같은 지방 곧 곡식과 포도주가 있는 지방이요 떡과 포도원이 있는 지방이요 기름 나는 감람과 꿀이 있는 지방이라 너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히스기야가 너희를 면려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하여도 듣지 말라

33 열국의 신들 중에 그 땅을 앗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34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스발와임과 헤나와 아와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35 열국의 모든 신 중에 누가 그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능히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36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라

37 이에 힐기야의 아들 궁내 대신 엘리아김과 서기관 션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게의 말을 고하니라

1. ㉠ 본장의 내용과 그 교훈을 말하라.

- ㉠ (1) 본장에는 북왕국을 정복한 앗수르가 유다 13대 왕 히스기야 때에 남왕국 유다를 침입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
- (2) 앗수르 군대는 이미 북왕국을 정복한 데다가 남왕국보다 월등히 우세한 전력을 가지고 있어 기세가 등등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앗수르의 군대 장관은 유다 백성과 그들의 하나님을 향해 극단적으로 모독적인 발언을 하였다.
- (3) 종교 개혁에 힘쓰던 유다에게 있어 이런 매우 절망적인 상황이 찾아왔듯이 하나님을 잘 믿는 성도들에게도 때때로 극한 환난이 임하기도 한다.
- (4) 이런 환난을 당할 때에 성도는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한다. 왜냐하면 성도에게 임하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기 때문이다.(롬5:3).

2. ㉠ 히스기야의 통치 연대는 어떠한가? (1, 2절)

- ㉠ (1) 히스기야는 아하스의 아들로 이스라엘 왕 호세아 3년(B.C.728)에 유다의 13대 왕으로 즉위했다.
- (2) 그는 25세에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29년을 치리하였다.
- (3) 동시대의 이스라엘 왕은 호세아로 히스기야 6년에 앗수르에 의해 멸망하고 말았다.
- (4) 당시 앗수르 제국은 살만에셀 3세(B.C.727-722)와 사르곤 2세(B.C.722-705)에 이어 산헤립(B.C.705-681)이 통치하고 있었다. 이 산헤립이 히스기야 14년에 유다를 침입하였다.
- (5) 이렇듯 히스기야는 매우 어려운 시기에 통치하던 왕이었다.

3. ㉠ 히스기야의 통치의 성격은 어떠한 것인가? (3, 4절)

- Ⓐ (1) 히스기야는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 (2) 정직히 행했다라고 기록된 유다 왕들이 많이 있지만 ‘다윗과 같이’ 정직했다는 표현으로 기록된 왕은 단지 세 명에 불과하다. 그 세 명(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아) 중의 한 사람이 히스기야이다.
- (3) 이처럼 히스기야는 유다의 3대 성군(聖君) 중 한 사람으로 불리우기에 손색이 없도록 선한 정치를 했다.
- (4) 즉 히스기야는 무엇보다 하나님께 범죄의 원인이 되었던 산당을 없애고 우상들을 파괴하는 일에 힘썼다(4절).
- (5) 신자들이 세상에서 ‘왕 같은 제사장’ (벧전 2:9) 으로 불리울 때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우상 문제이다.
- (6) 우상에 주의하여 미혹되지 않는 순수한 신앙을 가진 자는 히스기야와 같이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될 것이다.

4. Ⓒ **놋뱀이 유다 백성 중에서 우상이 되어진 경위는 어떠한가? (4절)**

- Ⓐ (1) 놋뱀은 출애굽 당시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백성을 구원키 위해 하나님의 제시에 의해 모세가 만들었다(민 21:8, 9).
- (2) 그런데 뱀 숭배 사상은 고대의 종교 생활 중에서도 가장 보편적인 것 중의 하나로 팔레스틴, 애굽, 메소포타미아 등에 널리 퍼졌다.
- (3) 그것이 모세의 사적과 관련되어 이스라엘의 종교 생활 속으로 들어와 모세가 만든 ‘놋뱀’은 숭배를 받는 우상이 되어 버렸던 것이다.
- (4) 그러나 이 놋뱀과 여호와 종교는 본래 아무런 관련도 없는 것이다. 놋뱀은 여부스 족속의 제사장이었던 사독이 자기 족속의 전통적인 성물이었던 놋뱀을 지성소에 두어 숭배받게 했다.
- (5) 히스기야가 놋뱀을 ‘느후스단’ 이라고 불렀다는 것은 ‘놋 조각’ 이라는 경멸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 (6) 따라서 히스기야가 놋뱀을 부순 것은 현명한 처사였다. 오늘날 신자들도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야 한다(살전 5:21, 22).

5. Ⓒ **히스기야는 그의 삶에 있어서 누구를 의지하였는가? (5절)**

- Ⓐ (1)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서 우상들을 제거할 때도 담대히 행하였다.
- (2) 즉 그는 자기가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도와 주실 것이며 자기를 해받지 않게 구원해 주실 것을 믿었던 것이다.
- (3) 이 점에서 히스기야는 그의 부친 아하스와 달랐다. 히스기야는 즉위했을 때, 그의 왕국이 원수들에게 둘러싸인 것을 발견했으나 그는 아하스가 했던 것처럼 이방 나라를 의지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보호자이심을 믿었다.
- (4) 이렇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상 주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확고히 믿고 의지하는 일은, 우리가 의무를 행할 때 히스기야처럼 담대하고, 침착하고 지혜롭게 만들어 줄 것이다.

6. Ⓒ **히스기야의 전후 유다 왕 중에 히스기야와 같은 자가 없었다는 말은 무엇을 나타내는가? (5, 6절)**

- Ⓐ (1)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에 있어 유다 모든 왕 중에 뛰어났다는 의미이다.
- (2) 히스기야의 신앙은 전인적(全人的)인 믿음과 행함이 뒤따르는 믿음이었다(약 2:22).
- (3) 즉 히스기야가 여호와께 연합하였다고 함은 그의 인격이 거룩하게 변화되었음을 보여 준다. 이렇게 인격적으로 변화된 자만이 여호와를 떠나지 않게 된다(6절).
- (4) 또한 히스기야는 생활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계명을 지켰다. 이것은 히스기야가 행함으로 온전케 된 믿음을 가졌다는 것을 보여 준다.

(5) 이러한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칭찬하신다(약 2:23-25). 이러한 믿음이야말로 성도들을 세상 만민보다 뛰어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다.

7. **㉠ 하나님께 행함 있는 믿음을 갖고 있던 히스기야가 받은 축복은 무엇인가? (7절)**

- ㉠** (1)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축복을 받았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임재가 그와 함께했을 때 히스기야는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다.
 (2) 그는 왕으로서의 모든 생활 영역, 즉 전쟁, 건축, 그리고 특히 개혁에 있어서 놀라운 성공을 거두었다.
 (3) 이렇게 참된 믿음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하고 하나님의 힘으로 도우심을 받아 일하는 자들은 자기가 하는 일에 형통의 복을 받는다.

8. **㉠ 히스기야가 앗수르 왕을 배척한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7절)**

- ㉠** (1)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섬기는 반면 그의 부친(아하스)이 굴종했던 앗수르 왕을 배척하고 섬기지 않았다(7절).
 (2) 이 사건은 ‘앗수르 왕을 배척 혹은 반역한’ 것으로 말하여진다. 앗수르 왕이 그 사건을 그렇게 불렀기 때문이다.
 (3) 그러나 그것은 히스기야가 자기 왕위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였던 것이었다. 히스기야의 부친 아하스는 힘이 약해 그렇게 할 수 없었을 뿐이다.
 (4) 이제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섬기고 열방의 우상 숭배를 떨쳐 벗어 버렸기 때문에 그 열방의 억압의 멍에를 벗어버리는 것은 마땅했다.
 (5)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도 자유에 이르는 가장 확실한 길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9. **㉠ 히스기야는 블레셋에 대하여 어떻게 행했는가? (8절)**

- ㉠** (1) 히스기야는 블레셋 사람들을 맹렬히 공격했고 가사에 이르기까지 망대와 견고한 성들을 공격했다(8절).
 (2) 그가 공격한 ‘망대와 견고한 성’은 히스기야의 아버지 시대에 블레셋인들이 쳐들어와서 스스로 주인이 되었던 곳이었으나(대하 28:18) 히스기야는 그것들을 탈환했다.
 (3) 히스기야가 그의 부친 아하스가 끌어들이려 왔던 부패를 일소하여 버렸을 때 이제 히스기야는 그 부친이 잃었던 소유물을 회복할 수 있었다.
 (4) 이러한 히스기야의 블레셋에 대한 승리는 이미 선지자 이사야에 의해서 예언되었던 것이다(사 14:28-31).
 (5)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세상의 멍에에서 자유스러워질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세상을 정복하고 지배하게 된다.

10. **㉠ 사마리아가 앗수르에 의해 멸망된 사건이 다시 언급된 이유는 무엇인가? (9-12절)**

- ㉠** (1) 사마리아(이스라엘)가 함락된 사실은 전장(17:1-6)에서 말하여졌는데 여기에 다시 언급된 이유는 그 사건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2) 이스라엘이 멸망되고 앗수르에 포로로 잡혀간 비참한 사건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신 예언(왕상 14:15, 16; 사 28:1-4; 호 1:6; 9:16; 암 3:11-15; 5:27)이 성취된 것이다.
 (3) 또한 이스라엘에 이와 같이 커다란 환난이 임한 것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죄로 인한 것임을 본문은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고 있다(12절).
 (4) 히스기야와 유다는 이러한 사실로 교훈을 받고 각성하여 큰 열심으로 우상을 일소하게 되었고 앗수르의 손에서 구원을 받게 되었다.

11. **㉠ 앗수르 왕의 침입은 유다의 개혁 운동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13-16절)**

- ㉠** (1) 산헤립은 그의 선조들이 이스라엘 침입에 성공한 전례에서 힘을 얻어 유다를 쳐서 변경 지역의 모든 성읍들을 정복했다(참조, 사 10:28-32).
 (2) 산헤립의 침입은 유다에게는 큰 재난이었다. 히스기야는 굴복하고 많은 배상금을 지불

하여 보내려고 하였다(14-16절).

- (3) 히스기야가 이렇게 화친하려 했던 것은 당시 유다는 종교 개혁에 주력하는 일로 국방의 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 (4) 이 사실로 볼 때 종교 개혁은 오히려 유다의 외교와 경제에 손해를 끼친 것같이 보인다. 앗수르 왕에게 바쳐진 배상금은 막대한 액수였다(15, 16절).
- (5) 그러나 결국 앗수르의 침입으로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우심이 나타났고 유다는 큰 승리를 거두었다(19:35-37).
- (6) 앗수르의 침입 사건은 국방과 종교 개혁이 무관하지 않음을 보여 주는 사건이다. 한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로 섬기기 위해 종교 개혁을 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그 나라의 국방 장관이 되어 주신다.

12. **㉠** 앗수르 왕은 예루살렘을 치는 대군을 누구에게 맡겼는가? (17절)

- ㉠** (1) 앗수르 왕은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에게 맡겼다.
- (2) 이들은 모두가 고유 명사처럼 보이고 있으나 실상은 앗수르의 직명(職名)이다.
- (3) 다르단은 앗수르 군대의 지도자이며(사 20:1), 랍사리스는 환관장(傭 39:3), 랍사게는 군대 장관을 의미한다.

13. **㉠** 앗수르 군대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어느 지점까지 진격해 들어갔는가? (17절)

- ㉠** (1) 그들은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 에까지 진격하여 그곳에서 멈추고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히스기야 왕이 나타나도록 요청했다.
- (2) 이 장소는 사 7:3에도 나오는 곳인데 이곳에는 옷 따는 자가 쓰기에 충분한 물이 있었다. 여기서 이사야는 악한 왕 아하스를 만나 앗수르에 의한 하나님의 징벌을 예언했다.
- (3) 이곳은 아마도 '처녀 샘', 즉 지금의 '아인 쉰티 미리암'에서 성내에 있는 실로암 못으로 통하는 수로를 가리키는 것 같다. 예루살렘에서는 포위당할 때마다 식수가 가장 곤란했다.
- (4) 그러므로 히스기야는 '처녀 샘'에서 '실로암 못'까지 지하 수도를 만들어 급수의 안전을 도모했던 것이다(20:20).
- (5) 이러한 요지를 빼앗기는 위기 중에도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앗수르를 물리쳤다.
- (6) 이런 사실은 우리가 어떠한 곤경 중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격려해 준다.

14. **㉠** 랍사게 처음 발언의 요지(要旨)는 무엇인가? (19-25절)

- ㉠** (1) 랍사게는 유대 전송에 의하면 배교한 유대인으로 알려졌다. 그러므로 그의 처음 발언은 매우 유창한 히브리어로 말하여졌다.
- (2) 랍사게는 애굽도(21절), 하나님도(22절), 유다의 군사력도(23, 24절) 의뢰할 수 없으니 항복하라고 권유했다.
- (3) 이어서 그는 예루살렘을 멸하러 온 것은 '여호와와 뜻'에 의함이라고 하나님의 이름마저 도용(盜用)했다(25절).
- (4) 랍사게는 양의 가죽을 쓴 이리였다.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했지만 거짓을 말했다.
- (5) 이것은 마귀가 항상 사용하는 방법이다. 주님도 우리에게 현혹되지 않도록 경고하신 바 있다(마 7:15).

15. **㉠**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고 신뢰해야 하는가? (19, 20절)

- ㉠** (1) 랍사게가 말하는 '네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느냐'라고 한 말은 우리들의 신앙을 진단하도록 도전한다.
- (2) 우리는 부귀와 명성있는 어떤 인간을 의뢰할 수 없다(시 60:11; 146:3, 4; 렘 17:5).
- (3) 또한 우리 자신의 권력이나 지혜와 판단을 스스로 만족히 여겨 신뢰해서도 안 된다(잠 3:5, 7; 고전 1:19, 20).
- (4)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것을 신뢰할 때는 그 모든 것이 상한 갈대에 불

과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겔 29:6, 7).

(5) 우리가 의뢰할 분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뿐이다(시 118:8, 9; 렘 17:7, 8).

16. **㉠** 랍사게는 더욱 모욕적인 발언을 하였는데 그 내용은 무엇인가? (28-35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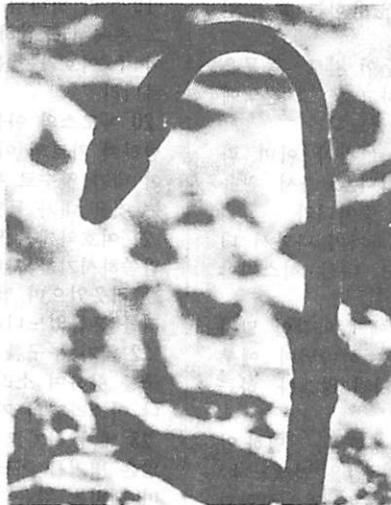
- ㉠** (1) 랍사게는 히스기야를 비방함으로 백성들로 하여금 합리적 권위와 그 선한 지시를 불신하게 했다. 즉 백성들로 왕의 명령에 불만을 품고 거역하도록 이간시키는 말을 했다(29, 30절).
- (2) 두번째로 랍사게는 백성들에게 평화와 번영과 행운을 약속하며 폭군에게서 또 노예 신분에서의 해방을 약속했다(31, 32절). 그러나 이것은 그들에게 멍에를 없기 위해서이다. 그 멍에는 더욱 무겁고 수치스런 것이다(참조, 시 140:5).
- (3) 마지막으로 랍사게는 백성의 신앙을 계몽시킨다는 구실로 그 신앙을 뿌리채 뽑아 버리려 했다(33-35절).
- (4) 이러한 사단의 도전이 있을 때 믿는 자는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해야 한다(고전 16:13).

17. **㉠** 랍사게의 모욕적인 발언에 대하여 백성들의 반응은 어떠했는가? (36, 37절)

- ㉠** (1) 랍사게가 참으로 참기 어려운 모욕적인 발언을 유다 방언으로 백성들에게 하였으나 백성들은 다만 침묵을 지키고 아무 말도 대답지 않았다.
- (2) 어떤 의미에서 침묵은 가장 위력있는 대답이 될 수 있다. 침묵은 때로 웅변보다 낫다. 폭동을 자극하는 말과 선동하는 말에 차라리 귀머거리처럼 침묵한 유다 백성들의 태도는 현명한 처사였다.
- (3) 세상에 속한 자들이 진리와 거짓을 섞어 말하고 시험할 때 우리는 우리 주님처럼 침묵으로 응수하도록 하자(마 27:12-14).

화보자료

뱀의 상(像).
옆의 사진은 아
라비아 사막의
구덩이에서 발
견된 뱀의 형상
인데 금속으로
만들어졌다.



하나님께서 이
스라엘 백성들에
게 놋뱀을 만들
어 바라보게 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뜻이
었는데 어리석게
도 인간들은 하
나님의 능력은
보지 못하고 가
시적인 놋뱀만을
수백년 동안 섬
겨왔다(4절).

제 19 장 히스기야가 기도로 앗수르를 물리치다

단락구분 1-4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기도를 부탁하다/5-7 이사야가 앗수르의 패배를 예언하다 / 8-13 앗수르 왕이 다시 하나님을 모독하다 / 14-19 히스기야가 성전에서 기도하다 / 20-34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 기도에 응답하시다 / 35 천사가 앗수르 군대를 진멸하다 / 36-37 앗수르 왕이 칼에 죽임을 당하다

1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베를 입고 여호와와 전에 들어가서

2 궁내 대신 엘리야김과 서기관 썸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베를 입혀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3 저희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곤란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가 임신하였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4 랍사게가 그 주 앗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사신 하나님을 책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저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을 인하여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 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5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의 신복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니

6 이사야가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고하라 여호와와 말씀이 너는 앗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능욕하는 말을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7 내가 한 영을 저희 속에 두어 저로 풍문을 듣고 그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 본국에서 저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8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앗수르 왕이 이미 라기스에서 떠났다 함을 듣고 립나로 가서 왕을 만났으니 왕이 거기서 싸우는 중이더라

9 앗수르 왕이 구스 왕 디르하가가 나와서 더불어 싸우고자 한다 함을 듣고 다시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며 가로되

10 너희는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의 의뢰하는 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앗수르 왕의 손에 붙이지 않겠다 하는 말에 속지 말라

11 앗수르의 열왕이 열방에 행한 바 진멸한 일을 네가 들었나니 네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12 내 열조가 멸하신 열방 곧 고산과 하란과 레셋과 들라살에 있는 에덴 족속을 그 나라의 신들이 건졌느냐

13 하맛 왕과 아르밧 왕과 스발와임 성의 왕과 헤나와 아와의 왕들이 다 어디 있느냐 하라 하니라

14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 보고 여호와와 전에 올라가서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15 그 앞에서 기도하여 가로되 그들 위에 제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에 홀로 하나님이니라 주께서 천지를 조성하셨나이다

16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산헤립이 사신 하나님을 책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17 여호와여 앗수르 열왕이 과연 열방과 그 땅을 황폐케 하고

18 또 그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니 이는 저희가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 곧 나무와 돌 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19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우리들 그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와는 홀로 하나님인 줄 알리이다 하니라

20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말씀이 네가 앗수르 왕 산헤립 까닭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21 여호와께서 앗수르 왕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처녀 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너를 비웃었으며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22 내가 누구를 꾸짖었으며 책방하였느냐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였으며 눈을 높이 뿔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였도다

23 내가 사자로 주를 책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많은 병거를 거느리고 여러 산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 깊은 곳에 이르러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잣나무를 베고 내가 그 지경 끝에 들어가며 그 동산의 무성한 수풀에 이르리라

24 내가 땅을 파서 이방의 물을 마셨고 나의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하수를 말렸노라 하였도다

25 내가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은 내가 태초부터 행하였고 상고 부터 정한 바라 이제 내가 이루어 너로 견고한 성들을 멸하여 들무더기가 되게 함이니라

26 그러므로 그 거한 백성의 힘이 약하여 두려워하며 놀랐나니 저희는 마치 들의 풀 같고 나뭇물 같고 지붕의 풀 같고 자라기 전에 마른 곡초 같으니라

27 네 거처와 네 출입과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내가 다 아노니

28 내가 내게 향한 분노와 네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로 네 코에 꿰고 자갈을 네 입에 먹여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하셨나이다

29 또 네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고 명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 삼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30 유다 족속의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

로 뿌리가 서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31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 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 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32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앗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저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33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 의 말씀이시라

34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35 이 밤에 여호와 의 사자가 나와서 앗수르 진에서 군사 십 팔만 오천을 친지라 아침에 일찌기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36 앗수르 왕 산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처하니

37 그 신 니스룩의 묘에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저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하매 그 아들 에살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1. ㉠ 본장의 내용을 전장과 관련하여 설명하라.

㉠ (1) 전장(前章)에는 예루살렘의 큰 곤경에 대하여 기록되었다. 즉 예루살렘은 포위되고, 모욕받고, 위협받고, 놀라게 된 사건을 기록하였다.

(2) 그러나 본장에는 어떻게 예루살렘이 영광스러운 구원을 얻었는가에 대해 말하고 있다.

(3) 본장은 '기도와 말씀의 장(章)'이라 볼 수 있다. 총 37절 중 히스기야의 가도에 대한 내용이 10절, 이사야의 예언을 기록한 내용이 18절로 4분의 3인 28절이 기도와 말씀에 관한 내용이다.

(4) 그러므로 본장에서 우리는 기도와 말씀의 위력을 보게 된다. 기도와 말씀은 천사의 손을 통하여 앗수르 군대 185,000명을 하룻밤 사이에 다 멸하였다.

(5) 믿음의 사람들은 가장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어도 기도를 통하여 그 환경을 최선의 것으로 바꾼다(엡 6:16; 벧전 5:8,9; 약 4:7).

2. ㉡ 히스기야는 랍사게의 말을 전해 듣고 어떻게 하였는가? (1절)

㉡ (1) 히스기야는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

(2) 여기서 옷을 찢는 것은 원통함을, 베옷을 입은 것은 슬픔과 회개를 의미한다.

(3) 히스기야가 심히 원통함을 느낀 것은 랍사게가 자기나 유다를 모욕하였기 때문이 아니다. 무엇보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독했기 때문이다(참조, 4절).

(4) 히스기야가 이처럼 철저한 신앙에 입각하여 올바르게 섰으므로 하나님께서 그가 당한 환난을 감찰하시게 되었던 것이다.

(5) 성도는 하나님의 이름에 어떤 불명예가 돌아갔다는 소식을 들을 때 자기가 당하는 어떤 모욕보다도 더욱 분하게 느끼고 슬퍼함이 마땅하다.

3. ㉢ 히스기야는 원통함을 느낄 때 어디로 갔는가? (1절)

㉢ (1) 히스기야는 '여호와 의 전에 올라갔다.'

(2) 이것은 시편 기자가 악한 자의 변성과 높아짐으로 탄식이 나올 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고' 그리고 거기서 '그들의 마지막을 보았다'(시 73:17)라고 고백한 것처럼 믿

음의 지혜였다.

- (3) 이처럼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전으로 들어가 기도하였다. 그래서 그 동요는 지나가고 그의 정신의 안정은 돌아왔다.
- (4) 히스기야는 자신이 무슨 답변을 랍사게에게 할 것인지 생각지 않았다. 다만 하나님께 사실을 아뢰었을 뿐이다. 또한 여호와께서 직접 랍사게에게 대답하시기를 원했다.
- (5) 교회의 대적들이 매우 대담하고 위협적일 때 성도들은 하나님께 의지하고 호소하고 하나님께 말기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요 또한 의무이다.

4. **㉠ 히스기야는 사람들을 누구에게로 보내었는가? (2절)**

- ㉠** (1) 히스기야는 품위있는 사절단을 선지자 이사야에게 보냈다. 보냄을 받은 자 중 엘리야 김과 셈나는 랍사게의 말을 직접 들은 자들로서 누구보다도 이사야에게 사건을 더 잘 알리고 설명할 수 있었다.
- (2) 그 사절들은 베옷을 입고 갔다. 그들은 굵은 베옷을 입은 왕을 대표하는 자들이었다.
- (3) 이사야는 당시 유다의 대표적인 선지자로 유다를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며 충고해 주던 하나님의 사람이었다(참조, 사 19:1-22; 30:1-7; 31:1-3).
- (4) 이처럼 히스기야는 자신이 직접 성전에 나가 기도함과 동시에 신하들을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어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여호와께 그를 위해 도고(禱告)하도록 요청했다.
- (5) 이렇게 우리는 곤란을 당할 때 직접 성전을 찾아 기도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중’들에게 기도를 부탁해야 한다.

5. **㉠ 히스기야는 이사야에게 어떠한 기도를 부탁했는가? (2-4절)**

- ㉠** (1) 히스기야는 곤경을 당한 유다가 무력(無力)한 것을 알리면서 랍사게가 하나님을 꾀방한 것에 대해 말했다.
- (2) 이러한 사실을 아시는 하나님께 ‘남아 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고 히스기야는 부탁했던 것이다.
- (3) 즉 ‘남아 있는 자들’의 운명은 하나님께 달려 있을 뿐이니 히스기야는 ‘남아 있는 자들’의 생사를 건 기도를 부탁한 것이다.
- (4) 여기서 ‘남아 있는 자’란 앗수르가 북이스라엘 10지파를 포로로 잡아간 와중에서도 아직 팔레스틴에 남아 있는 남유다 왕국의 백성들을 가리킨다.
- (5) 우리 교회에 비록 바로 믿는 남은 자들이 소수일지라도 지도자는 그들의 생명을 위해 기도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6. **㉠ 이사야는 히스기야의 신복들에게 어떻게 대답하였는가? (5-7절)**

- ㉠** (1) 이사야는 기도를 부탁하러 온 히스기야의 신복들에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계시의 말씀을 들려 주었다.
- (2)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말(3, 4절)과 같이 이미 랍사게의 말을 다 듣고 계셨으며 신앙을 지키는 히스기야에게 줄 말씀을 이사야에게 들려 주셨던 것이다.
- (3) 하나님께서는 앗수르 왕을 본국에 돌아가게 하고 본국에서 칼에 피살될 것을 예언하셨다. 이 너무도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을 결정지었다.
- (4) 이렇듯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예언은 반드시 실행될 것이나 그를 대적하는 인간의 입에서 나온 무력한 모든 험박들은 허공으로 사라져 버릴 것이다.

7. **㉠ 산헤립은 다시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편지를 보냈는가? (8, 9절)**

- ㉠** (1) 랍사게가 예루살렘 앞에 있는 그의 군대를 다른 지휘관에게 맡기고 자신은 또 다른 명령을 받고자 ‘립나’로 가서 앗수르 왕 산헤립을 만났다(8절).
- (2) 그때 마침 산헤립은 구스 왕 디르하가(애굽 제 25왕조-구스 왕조의 두번째 왕)가 그와 싸우려 나온다는 소문을 들었다(9절).

- (3) 이리하여 산헤립은 좀더 쉽게 예루살렘을 얻기를 원했다. 즉 무력 정복보다는 항복받기를 바랐다.
- (4) 그래서 다시금 히스기야의 신앙을 흐트러뜨리기 위해 감히 하나님을 무시하고 훼방하는 편지를 써서 보냈던 것이다.
- (5) 그러나 그러한 도모는 실패했다. 오히려 자신의 군대와 자기 생명이 파멸되는 더 큰 재앙을 자초했을 뿐이다(참조, 35-37절).
- (6) 이처럼 악인의 피는 자기가 놓은 덫에 자기가 걸리는 결과를 낳고 만다(시 7:15).

8. ㉠ 산헤립의 편지는 어떤 내용인가? (10-13절)

- ㉠ (1) 산헤립의 편지는 이전 랍사게의 말(18:29-35)과 동일한 취지를 갖고 있다.
- (2) 그러나 이 편지는 랍사게의 말보다 더욱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훼방했다. 즉 랍사게는 백성에게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18:29) 했으나 산헤립은 히스기야에게 ‘네 하나님에게 속지 말라’ (10절) 하였다.
- (3) 산헤립은 자신의 전공(戰功)을 과장하고 자신을 각 민족의 왕들과 신들 위에 있다고 자찬했다. 그러나 그는 구스 왕 디르하가를 두려워하고 있는 형편이었다.
- (4) 이로써 산헤립은 명백히 살아계신 하나님께 도전장을 냈다. 그의 앞에는 이제 파멸이라는 결과 이외에는 아무 것도 남아 있지 않게 되었다.
- (5)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마 21:44).

9. ㉠ 히스기야는 산헤립의 편지를 받고 어떻게 했는가? (14절)

- ㉠ (1) 히스기야는 사자의 손을 통해 산헤립의 편지를 받아 읽어 본 후 성전에 올라가서 ‘여호와 앞에’ 그 편지를 찢어 놓고 기도했다.
- (2) 히스기야가 이렇게 한 것은 그 편지를 하나님께 내 보이는 것이 필요해서가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가 편지를 보이기 전에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아신다.
- (3) 다만 히스기야의 그러한 행동은 그가 매사에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을 고백한 것이다(참조, 잠 3:6).
- (4) 즉 히스기야는 모든 것을 하나님과 그의 의로운 심판에 의뢰했다(참조, 시 7:9-11). 그리하여 그는 성전에 가서 기도예 전념하고 싶었을 것이다.
- (5) 우리들도 심각한 모욕과 고난을 당할 때 그 모든 것을 감찰하고 아시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해야 한다.

10. ㉠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의 내용은 무엇인가? (15-19절)

- ㉠ (1) 히스기야는 ‘그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를 시작했다(15절). 그는 유일신(唯一神)이며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고백했다.
- (2) 이어서 하나님의 인격성에 호소했다(16-18절). 즉 앗수르 왕의 교만 방자한 훼방의 말을 듣고 보시기를 구했다. 앗수르 왕의 멸한 신들은 신이 아니고 나무와 돌일 뿐이다.
- (3) 이제 마지막으로 앗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여 주시기를 간구했다(19절).
- (4) 이러한 기도에서 우리는 환난을 당했을 때 활용할 수 있는 실제적인 기도의 원리를 배울 수 있을 것이다.

11. ㉠ 히스기야의 기도에서 우리는 어떠한 기도의 원리를 배울 수 있는가?

- ㉠ (1) 우리는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동시에 구속주와 천하 만국의 통치자가 되신다. 그러므로 그분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다(15절).
- (2) 우리는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16절). 그는 듣고 보고 판단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체적이고 사소한 문제까지도 다 아시고 해결해 주신다.

(3) 우리는 우리의 문제로 기도할지라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19절). 그러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해야 한다(참조, 요일 5:14).

12. **㉠** 히스기야의 기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응답하셨는가? (20절)

- ㉠** (1) 히스기야가 성전에서 기도를 드리고 난 후 선지자 이사야에게서 소식이 왔다.
- (2)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듣고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응답의 말씀을 들려 주신 것이다.
- (3) 오늘날도 성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 듣고 계시며 또 응답해 주신다.
- (4) 다만 하나님께서는 신비적인 영음(靈音)으로 응답하시지 않고 성경 읽기와 설교 등을 통하여 말씀하신다.
- (5) 우리가 그것을 비록 육의 귀로 직접 듣지 못하더라도 마음의 귀로는 생생하게 듣고 이해할 수 있다.
- (6)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를 하고 난 후 갈급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또 설교 말씀에도 귀를 기울일 때 기도의 정확한 응답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

13. **㉠** 이사야를 통하여 히스기야에게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내용인가? (20-34절)

- ㉠** (1) 하나님의 응답은 세 부분으로 나뉘어 질 수 있다.
- (2)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열방을 정복한 앗수르 왕 산헤립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사용당한 도구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밝히셨다(20-28절).
- (3) 그리고 이스라엘의 남은 자(유다 거민)는 비록 2년간 추수를 하지 못하게 되더라도 하나님께서 특별한 섭리로 식량 문제를 해결하여 생존케 해주시리라는 것이다(29-31절).
- (4)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이 앗수르의 손에 떨어지지 않을 것을 재확인 시켰다(32-34절).
- (5)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형편을 소상히 아시고 그가 미처 구하지 못한 부분까지 정확히 응답해 주셨다.
- (6) 성도들의 기도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넘치도록 응답해 주실 것이다(엡 3:20).

14. **㉠** '처녀 딸 시온'이란 무슨 뜻인가? (21절)

- ㉠** (1) 하나님께서는 앗수르 왕이 '처녀 딸 시온'에게 멸시와 조소를 당할 것이라고 하셨다.
- (2) 여기서 '처녀 딸 시온'이란 '시온'을 인격화한 시적 표현이고 도시를 '처녀' 혹은 '딸'로 비유하는 것은 시문학이나 예언서에서 많이 사용하는 표현이다(사 23:10, 12; 47:1; 52:2; 애 2:13; 4:21; 미 4:10).
- (3) 그러한 표현은 히스기야로부터 예레미야 시대까지 특히 성행한 말이다.
- (4) 그런 표현을 쓴 이유는 여러 번 위험한 고비를 당하였으나 한번도 이방인의 발에 짓밟혀 본 일이 없는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이기에 '처녀 딸 시온'으로 높이 호칭된 것이다.
- (5) 우리들도 많은 시험과 위기 중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결코 타락하지 않기에 '정결한 처녀'라고 불리운다(고후 11:2).

15. **㉠** 하나님의 예언은 실제로 어떻게 시행되었는가? (35, 36절)

- ㉠** (1) 히스기야에게 편지를 보낸 날 밤에 앗수르 군대는 예루살렘 성 앞에 진을 치고 야영하고 있었다.
- (2) 바로 그날 밤에 앗수르 군의 주력 부대 185,000명이 천사에 의해 살륙되었다. 이로써 앗수르 군대는 칼 한번 써보지 못하고 무너져 내리고 말았다(참조, 32절).
- (3) 뿐만 아니라 앗수르의 통치자인 산헤립은 그의 수도 니느웨의 산당에서 경배하다가 아들의 칼에 의해 살해당하였다. 이것은 이사야가 전한 말씀(7절)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 (4) 앗수르 병력 185,000명이나 앗수르 왕의 막강한 권세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추풍 낙엽처럼 날아가 버렸다.

(5) 우리가 가장 두려워할 것은 눈에 보이는 인간의 무력(武力)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다.

16. **㉠** 산헤립을 죽인 자들은 산헤립과 어떤 관계에 있는 자들인가? (37절, 대하 32:21)

- ㉠** (1) 본절에 그들은 ‘아드람멜렉’과 ‘사레셀’로 이름이 밝혀졌는데 대하 32:21에는 ‘그 몸에서 난 자들’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다시 말해 산헤립은 그의 아들들에 의해 피살되었다.
- (2) 마땅히 보호할 의무가 있는 아들들이 자기들의 친아버지를 죽였다는 것은 매우 악한 행위이다. 산헤립의 아들들은 매우 극악한 무리들이었다.
- (3)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셨다. 아버지가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거역하고 모독했을 때, 그 자식들 또한 그 아버지를 거역하도록 허용되는 것은 정당하다.
- (4) 불효(不孝)하는 자녀를 둔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늘에 계신 만유의 아버지(엡 4:6)께 불효하지 않았는지 살펴 보아야 한다.

연구자료

산헤립(Sennacherib). 산헤립은 앗수르와 바벨론의 왕(B. C.705-681)으로서 그 이름은 ‘신이 형제들을 강하고 번창하게 하였다’라는 뜻이다. 그는 사르곤 2세(Saragn II)의 아들인데 장자는 아니었으나 황태자로 책봉되었다. 그는 용맹하였으며 또한 정의를 실현하는 강인한 기상이 있었다고 한다. 사르곤 2세가 죽고 그가 왕위에 오르던 해에 강력한 갈대아족 비트 야킨(Bit-Yakin)의 족장 므로닥발라단(Merodach-Baladan, 본명은 말дук 아발 아디나)이 사르곤 2세에 패하여 망명해 있던 엘람(Elam)에서 돌아와 엘람의 도움을 얻어 바벨론의 왕이 되었다. 그리하여 산헤립은 반란자 므로닥발라단을 정벌하려고 출정하였다. 한편 므로닥발라단은 앗수르와 적대 관계에 있던 갈대아족과 아람족들 그리고 아람 족속들을 규합하여 연합 전선을 구축했으나 기스(Kish) 근처에서 패하고 말았다. 산헤립은 바벨론을 약탈한 후 약 208,000명의 죄수를 추방하였으며 니스웨에서 훈련받은 원주민 벨 이브니(Bel-ibni)를 왕위에 앉혔다. 이러한 와중에서 유다 왕 히스기야는 반(反) 앗수르 동맹에 가입하라는 므로닥발라단의 선동을 받아(20:12, 13) 에그론의 친(親) 앗수르 통치자 파디(Padi)를 체포하였다(18:8). 이러한 연고로 앗수르의 서방 정벌이 감행되었다. 이때 예루살렘이 포위당하였으므로 유명한 실로암 못이 건설되었다. 아뭇튼 서방 정벌을 끝내고 돌아간 산헤립은 그들의 신 니스룩의 묘에 경배하다가 두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에 의해 살해당하였다(36, 37절).

제 20 장 히스기야가 병이 나은 후 실수(失手)하다

단락구분 1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틈다 / 2-3 히스기야의 기도와 통곡 / 4-7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낮게 하시다 / 8-11 해 그림자가 심도 물러간 이적 / 12-13 바벨론의 사자에게 모든 것을 다 보이는 실수를 하다 / 14-15 이사야의 방문 / 16-19 히스기야의 실수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 / 20-21 히스기야의 죽음과 므낫세의 즉위

1 그 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저에게 나와서 이르되 여호와와 말씀이 너는 집을 처치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2 히스기야가 낮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3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 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더라

4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5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와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낮게 하리니 네가 삼일 만에 여호와와 전에 올라가겠고

6 내가 네 날을 십 오 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잇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하므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7 이사야가 가로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할 때 무리가 가져다가 그 종처에 놓으니 나오니라

8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낮게 하시고 삼일만에 여호와와 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조가 있나이까

9 이사야가 가로되 여호와와 하신 말씀은 옹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서 왕에게 한 징조가 임하리이다 해 그림자가 심도물 나아갈 것이니이까 혹 심도를 물러갈 것이니이까

10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심도물 나아가기는 쉬우나 그리할 것이 아니라 심도가 물러갈 것이니이다

11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아하스의 일영표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로 심도를 물러가게 하셨더라

12 그 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부로다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저에게 보낸지라

13 히스기야가 사자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 군기고와 내탕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에게 보였는데 무릇 왕궁과 그 나라 안에 있는 것을 저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으니라

14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서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 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가로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15 이사야가 가로되 저희가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저희가 다 보았나니 나의 내탕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16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와 말씀을 들으소서

17 여호와와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무릇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열조가 오일까지 쌓아 두었던 것을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18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19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의 전한 바 여호와와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가로되 만일 나의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대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20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 모든 권력과 못과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중으로 인도하여 들인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21 히스기야가 그 열조와 함께 자고 그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1. ◎ 본장의 내용과 그 교훈을 말하라.

㉠ (1) 앞의 두 장 (18, 19장)에서 앗수르의 공격을 기도로 물리쳤던 히스기야는 이제 본장에

서는 자신의 불치병을 다시 한번 기도으로써 치료받는 놀라운 감격을 체험하게 되었다.

(2) 그러나 그러한 감격 속에서 히스기야는 자만한 마음으로 바벨론의 축하 사절들에게 왕궁 안의 모든 것을 다 보여 주는 실수를 저질렀다.

(3) 뛰어난 기도의 사람이었던 히스기야가 말년에 저지른 그의 실수는 우리에게 큰 경종을 울려 준다.

(4) 즉 우리는 아무리 기도를 통하여 큰 은혜를 체험했다라도 자기를 자랑하거나 과시하지 말고 더욱 절제하고 근신하여 마음을 지켜 분수를 넘어선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

2. ㉠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들었던 때는 언제인가? (1절)

㉠ (1) 1절에 '그때에' 라고 하였는데 산헤립이 처음으로 유다를 공격하기 시작하였을 때(6절)를 가리킨다.

(2) 즉 히스기야의 병은 산헤립이 유다 땅을 공격해 들어온 때에 생겼다(사 38:1-22). 그리고 이때는 그의 아들 므낫세가 태어나기 전이었다(21:1).

(3) 히스기야의 치유를 축하하러 온 바벨론 왕 부로달발라단(B.C.721-710)의 사자들의 문병 기록을 참고할 때 히스기야가 병이 난 해는 B.C.711년으로 추정된다.

3. ㉠ 병든 히스기야에게 죽을 것이라고 예언을 전한 자는 누구인가? (1절)

㉠ (1) 병든 히스기야에게 죽음에 대하여 준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는데 그 경고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전달되었다. 앞장에서는 이사야가 두 번씩이나 히스기야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로 언급되었다(6, 7절과 20-33절).

(2) 참 선지자는 하나님에게서 받은 것 외에 다른 것을 전하지 않는다.

(3) 그러므로 오늘날 성도들은 설교를 들을 때 내용이 자기 기분에 들지 않더라도 그 가운데서 교훈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겸손히 받아들이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4. ㉠ 이사야의 예언은 어떤 내용이었는가? (1절)

㉠ (1) 이사야는 다만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만을 대언했다. '여호와와 말씀이... 하셨나이다.'

(2) 이사야는 히스기야의 병이 '죽을 병' 이라고 지적했다. 즉 히스기야에게 자비의 기적으로 회복되지 않는다면 그는 분명히 죽게 될 것이다.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3) 따라서 히스기야는 아주 신속히 죽음을 맞을 각오를 하도록 해야 했다. '너는 집을 처치하라.'

(4) 이런 일은 우리가 건강할 때에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되었지만 히스기야는 병들었을 때에 재촉을 받았다.

(5) 이것은 신앙인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메시지이다. 죽음 앞에서 성도들은 참회하는 마음으로 새로운 행위와 신앙과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준비해야 한다. 그리고 이 세상과 기꺼이 작별하고 내세를 맞이해야 한다.

5. ㉠ 이사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히스기야는 무엇을 했는가? (2절)

㉠ (1) 히스기야는 기도하였다. 그는 '낮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였다.

(2) 앞장에서 본 바와 같이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지 않으며 믿음의 기도는 평안의 응답을 받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3) 히스기야는 이사야의 예언을 통하여 마음속으로 죽음의 선고를 받아들였다. 그리고 이 운명이 바뀌어질 수 있다면 그것은 기도으로써만 가능하다고 생각했다.

(4)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자비를 베푸시려 할 때 우리에게 기도하려는 마음을 주시고 또 기도하게 하신다(참조, 겔 36:37). 우리가 만일 구하지 않거나 혹은 잘못 구할 때 얻지 못할 것이다(약 4:2, 3).

(5) 만일 우리에게 떨어진 죽음의 선고가 바뀌어질 수 없는 것이라 하더라도, 기도는 죽음에 대한 최선의 준비가 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기도으로써 하나님의 은총과 힘을 얻어 우

리의 생을 잘 마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6. **㉠** 히스기야의 기도는 어떠했는가? (2, 3절)

- ㉠** (1) 히스기야는 침상에 누워서 '낮을 벽으로 향하여' 기도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이다(마 6:6).
- (2) 또한 아파서 올라갈 수 없는 성전을 향하여 마음을 돌린 표시라고도 볼 수 있다(참조, 19:1, 4; 20:5, 8). 우리도 기도할 때 성전되신 그리스도(계 21:22)를 늘 바라봐야 한다.
- (3) 히스기야는 또한 심히 통곡하면서 기도했다(3절). 당시 히스기야는 개혁 사업의 미완 성과 앗수르의 공격과 왕손이 없는 연고로 다윗의 약속에 대하여 안타까와 했다(아들 므낫세는 3년 후에 태어났다).
- (4) 히스기야의 눈물은 그러한 사실에 대한 안타까움의 표현이었고 다윗 왕국에 대한 간절한 애착의 표현이었다.
- (5) 우리는 이처럼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하게 기도해야 할 것이다.

7. **㉠** 히스기야의 기도는 어떤 내용이었는가? (3절)

- ㉠** (1) 히스기야는 자신의 '진실과 진심' 그리고 '선함' 을 아뢰었다. 이것이 그의 행동의 특징이었다.
- (2) 이런 '진실' 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이다.
- (3)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 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덕이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그것조차 하나님의 은총 밑에 두었다.
- (4) 즉 자기에게 이러한 덕이 있으니 하나님께서 보상하셔야 한다고 말하지 않고 단지 '기억하옵소서' 하고 구했다.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은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주어진다.
- (5)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행해야 한다. 그러나 그것조차 그리스도의 은총 뒤에 숨겨져야 한다.
- (6) 단지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여 주시도록 기도할 수 있고 거기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속하고 풍성하게 응답하여 주신다.

8. **㉠** 히스기야의 기도 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하심에서 얻는 교훈은 무엇인가? (4-6절)

- ㉠** (1) 하나님의 응답은 히스기야에게 죽음의 메시지를 전한 이사야가 돌아가는 중에 말씀으로 임하였다. 이것은 하나님의 응답히 신속하게 임하였음을 보여 준다(4절).
- (2)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현실 문제를 해결하여 주셨다. 3일만에 죽을 병에서 치료받을 것이고 15년 동안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리라는 구체적인 응답이었다(5, 6절).
- (3) 뿐만 아니라 히스기야가 안타까와하던 다윗 왕국에 대한 보호의 약속까지 확인하셨다.
- (4)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바른 기도에 대하여 참으로 신속하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또한 풍성하게 응답해 주신다는 교훈을 받게 된다(참조, 마 18:7, 8; 눅 6:32, 33; 엡 3:20).

9. **㉠** 히스기야는 어떻게 병나음을 얻었는가? (7절)

- ㉠** (1) 히스기야는 이사야의 외과적 처방에 따라 약(무화과 반죽)을 종처에 놓음으로 치료함을 받았다. 무화과 반죽은 당시에 종기나 궤양의 치료약이었다고 전해진다.
- (2) 우리가 병들었을 때에도 우리 몸의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어떤 방편을 사용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이다.
- (3) 만일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시험하는 것이 될 뿐이다.
- (4) 따라서 우리는 평범하고 일상적인 치료 약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10. **㉠** 일영표(日影表)란 무엇인가? (11절)

- ㉠** (1) 해 그림자로 시간을 측정하는 기구이다. 일영표는 앗수르나 바벨론에서 처음으로 발명되었다고 전해진다(Herodotus).

(2) 애굽에서 만든 B.C.15세기의 휴대용 일영표도 ‘계자’에서 발견되었다고 한다.

(3) 성경에는 히스기야의 부친 아하스가 일영표를 만들었다고 기록되어 있다(사38:8).

11. **㉠ 일영표의 해 그림자가 뒤로 10도가 물러간 것은 무엇을 느끼게 하는가? (8-11절)**

- ㉠** (1) 이사야가 여호와께로서 징조가 있을 것을 이야기하자 히스기야는 해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게 하는 이적을 제안했다.
- (2) 그때가 정오라면 해 그림자가 뒤로 물러감으로 아침 7시가 되게 하는 셈이다.
- (3) 선지자 이사야가 그것을 간구하자 과연 일영표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갔다(11절).
- (4) 이 같은 현상이 다른 일영표 위에도, 심지어 바벨론에서도(대하 32:31) 관찰되었다.
- (5) 이러한 초자연적인 이적은 하나님께서 기도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크며, 자기의 선택받은 백성들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보여 준다.

12. **㉠ 바벨론 왕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낸 이유는 무엇인가? (12절)**

- ㉠** (1) 당시 바벨론 왕은 ‘부로닥발라단’ (혹은 므로닥발라단, 사 39:1)으로 B.C.721년 바벨론 왕이 되어 약 20년 이상 앗수르와 투쟁하는 상황에 있었다(참조, 17:24).
- (2) 이러한 바벨론 왕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낸 것은 두 가지 이유에서이다.
- (3) 첫째는 정치적인 이유로 앗수르 대군을 물리친 유다와 화친하는 것이 바벨론의 반앗수르 정책에 필요했기 때문이다.
- (4) 둘째는 종교적인 이유로 죽을 병에서 살리실 뿐 아니라 해 그림자를 움직이신 하나님에 대한 명성 때문이었다. 당시 바벨론 사람들은 해를 섬겼다.
- (5) 이 바벨론 사자들의 방문은 히스기야를 존경하는 듯이 보였으나 결과적으로 히스기야에게 자만심을 일으키는 울무가 되었다.
- (6) 우리는 우리를 부추기는 칭찬과 존경이 있을 때 자만하지 않도록 무엇보다 마음을 지키도록 해야 한다(잠 4:23).

13. **㉠ 바벨론의 사자의 방문을 히스기야는 어떻게 맞이했는가? (13절)**

- ㉠** (1) 히스기야는 사자에게 모든 것을 다 보였다. 즉 왕궁과 그 나라 안에 있는 것을 저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
- (2) 히스기야가 사자를 정중하게 영접하는 것은 마땅한 예의였으나 그는 도에 지나치도록 했으며 자기의 재물과 영광을 자랑하는 실수를 범했다.
- (3) 그는 바벨론에서 찾아온 친구들에게 그의 영적인 보배를 보여 주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렸어야 했다.
- (4)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목적에서가 아니라 교만한 마음으로 자신을 자랑한다면 히스기야에게 있어서와 같이 죄를 짓는 것이 된다.

14. **㉠ 히스기야가 실수한 직후 누가 찾아왔는가? (14, 15절)**

- ㉠** (1) 선지자 이사야가 찾아 와서 히스기야에게 ‘그들이 무슨 말을 했는가 어디서 왔는가 무엇을 보았는가’라고 문책하였다.
- (2) 히스기야에게는 종종 위로자요 격려자였던 이사야가 지금은 그의 책망자가 되었다.
- (3) 우리의 성령 보혜사께서도 두 가지 일을 하신다(요 16:7, 8).
- (4) 따라서 복음의 사역자들도 격려자로서 또 책망자로서 양면성을 구비해야 한다.

15. **㉠ 이사야는 히스기야의 실수에 대해 어떤 징벌이 있을 것을 예언했는가? (16-18절)**

- ㉠** (1) 이사야는 히스기야가 그렇게 자랑하던 재물과 보화들이 바벨론에게 약탈당할 것이며 가정도 약탈되어질 것이라고 예언했다.
- (2) 즉 히스기야에게 그토록 호의를 보이고 동맹 관계를 맺고자 했던 바로 그 바벨론이 히스기야 후손에게 약탈자요 원수가 되리라는 것이다.

(3) 이것이 세상의 현실이다. 우리가 참으로 믿고 의지할 친구는 오직 주님이신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요 15:13-15).

16. **㉠** 이사야의 예언에 대하여 히스기야는 어떤 자세로 받아들였는가? (19절)

- ㉠** (1) 히스기야는 이사야가 전해 준 하나님의 징벌에 대한 예언을 듣고 '그 말씀이 선하니이다' 라고 고백했다.
- (2) 그는 징벌을 받아야 했으나 자기의 사는 날에는 '태평과 진실'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긍휼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이다.
- (3) 히스기야처럼 참으로 회개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질책을 받을 때, 그 질책은 정당할 뿐 아니라 선하다고 고백한다.
- (4) 사실 여호와의 말씀은 선하다. 심지어 책망과 심판의 말씀조차 정당하고 선하다. 왜냐하면 그는 아무에게도 잘못을 행치 않으며 따라서 선한 사람들에게 아무 피해도 의도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17. **㉠** 히스기야 이후의 유다 왕국은 어떻게 흘러가게 되는가? (21절)

- ㉠** (1) 히스기야가 죽자 그 아들 므낫세가 그를 이어 유다 왕이 되었다. 그런데 그는 매우 악한 왕이었다(21:2).
- (2)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은총을 물려줄 수는 없다. 악한 아하스 왕은 경건한 아버지의 아들이고, 경건한 아들의 아버지였다. 경건한 히스기야 왕은 악한 아버지의 아들이고, 악한 아들의 아버지였다.
- (3) 선한 통치자 히스기야가 있는 동안에도 개혁이 되지 않던 유다는 마침내 황폐하여지고, 악한 통치자에 의하여 멸망으로 치닫게 되었다.
- (4) 그러나 이후 다시 한번 선한 통치자 요시야가 나타나 개혁을 시도했다.
- (5)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 멸절되는 것을 대단히 싫어하신다는 것을 보여 주는 일이다(대하 21:7).

본장의 요점



‘내가 네 날을
십 오 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잇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하므로 이 성을 보호
하셨다하라 하셨더라’
(6절).

제 21 장 유다 왕 므낫세와 아몬의 악정 (惡政)

단락구분 1 므낫세의 즉위 / 2-9 므낫세와 백성들의 가증한 우상 숭배 / 10-15 므낫세로 인해 예루살렘의 멸망이 예언되다 / 16-18 므낫세가 흘리게 한 피 / 19 아몬의 즉위 / 20-22 아몬의 악정 / 23-26 아몬의 비참한 최후

1 므낫세가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십 이 세라 예루살렘에서 오십 오 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2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서

3 그 부친 히스기야의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 왕 아합의 소위를 본받아 바알을 위하여 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일월 성신을 숭배하여 섬기며

4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와 전의 단들을 쌓고

5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단들을 쌓고

6 또 그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짐치며 사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격발하였으며

7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아세라 목상을 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들지라

8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의 명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 열조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않게 하리라 하셨으나

9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피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열방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10 여호와께서 그 종 모든 선지자들로 말씀하여 가라사대

11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케 하였도다

12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

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13 내가 사마리아를 쟈 즐과 아합의 집을 다림보던 추로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얼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 버릴지라

14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자를 버려 그 대적의 손에 붙인즉 저희가 모든 대적에게 노략과 겁탈이 되리니

15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 열조 때부터 오늘까지 나의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노를 격발 하였음이니라 하셨더라

16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유다로 범하게 한 그 죄 외에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가에서 저 가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17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무릇 그 행한 바와 범한 죄는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18 므낫세가 그 열조와 함께 자매 그 궁궐 동산 곧 옷사의 동산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19 아몬이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이십 이 세라 예루살렘에서 이 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므슬레뻬이라 옷바 하루스의 딸이더라

20 아몬이 그 부친 므낫세의 행함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21 그 부친의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 그 부친의 섬기던 우상을 섬겨 경배하고

22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 길로 행치 아니하더니

23 그 신복들이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이매

24 그 국민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 아들 요시야로 대신하여 왕을 삼았더라

25 아몬의 행한 바 남은 사적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26 아몬이 옷시야의 동산 자기 묘실에 장사되고 그 아들 요시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1. ㉠ 본장의 내용을 요약하라.

- ㉠ (1) 앞의 삼 장(18, 19, 20장)에 걸쳐 경건한 왕 히스기야 시대의 밝은 면을 보았다.
 (2) 그러나 본장에서는 유다의 14, 15대 왕이 되는 므낫세와 아몬의 죄악과 그에 따라 유다에 드리워진 질은 어둠을 보게 된다.
 (3) 더욱 아픈 사실은 이 어둠이 유다의 멸망으로 연결되어진다는 것이다(13절).
 (4) 특히 므낫세는 죄와 온갖 방법의 사악한 행위와 우상 숭배와 살인에 몰두하는 자로 묘사되었고 또 그 아들 아몬도 부친의 길로 행하다가 결국 반역자에게 죽임을 당하였다.
 (5) 한편 유다가 멸망한 원인이 므낫세의 죄에 있다는 사실은(23:26, 27; 24:3) 우리로 하여금 본장을 더욱 주목하게 만든다.
 (6) 결국 우리는 본장에서 죄악의 대표적인 속성과 하나님의 심판을 배울 수 있다.

2. ㉡ 유다 왕 므낫세의 통치 연대를 말하라(1절).

- ㉡ (1) 므낫세는 12세에 유다 왕(14대)으로 즉위하여 55년을 통치하였다(B.C.697-642).
 (2) 그는 유다 20왕 중 가장 오랜 재위기간을 가진 왕이었다.
 (3) 그가 재위 중인 B.C.671년에 에살하돈이 애굽을 침범한 이래 앗수르 군대는 팔레스틴 해안선을 끊임없이 왕래하였다. 그리고 애굽이 다시 독립하게 된 때는 B.C.652년 아수바니팔 때였다.
 (4) 이러한 가운데서 작은 나라 유다가 주변국들의 전란의 틈에서 평화와 안전을 유지한 것은 앗수르의 속국으로서 완전히 그의 정책에 복종했기 때문이다.

3. ㉢ 므낫세가 지은 죄악의 속성은 무엇이었는가? (2-9절)

- ㉢ (1) 므낫세가 지은 죄악의 대표적인 속성은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는 것'이었다. 그 이방 사람들은 그 가증한 일 때문에 가나안에서 쫓겨남을 받았던 자들이었다(2절).
 (2) 므낫세는 가증한 일 때문에 가나안 제민족과 아합의 집이 멸망한 것을 보고도 깨닫지 못했다(3절).
 (3) 오히려 그는 '여호와께서 멸하신 열방보다 더욱 심하게' 악을 행하였다(9절).
 (4) 구별된 백성이 이방인들과 같이 죄를 범하고 타락하면 그들은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보다 더욱 심하게 타락되어진다.

4. ㉣ 므낫세의 죄악은 어떤 행위로 나타났는가? (2-9절)

- ㉣ (1) 이방인의 가증한 일을 본받게 된 므낫세의 죄악은 구체적인 행위로 나타났다.
 (2) 므낫세는 우상 숭배를 위한 산당과 제단을 건축하고 아세라 목상 등 우상들을 많이 만들었다(3절).
 (3) 나아가서 므낫세는 성전을 무시하고 성전 안에도 우상의 제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을 설치하여 하나님 대신 섬겼다(4, 7, 8절).
 (4) 그리하여 므낫세는 그의 모든 종교 생활에 있어 '하나님의 말씀' 보다는 미신(迷信)을 추종하게 되었다(6절).
 (5) 또한 므낫세는 자기만 죄를 짓는데 그치지 않고 백성들을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다.
 (6) 이것들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것으로 여호와와 진노를 사는 큰 죄악들이었다(6절).
 (7) 이처럼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좇는 사람에게는 계속적으로 죄악만이 솟구쳐 나와 그칠 줄 모른다. 죄악의 출발점은 하나님을 떠나 이방 세상을 추종한 데에 있다.

5. ㉤ 므낫세의 우상 숭배에 있어 가장 악했던 점은 무엇인가? (4, 5, 7, 8절)

- ㉤ (1) 유다에 악한 왕들이 있었으나 그들은 성전의 성물을 빼어내고 성전을 소홀히 했을지라도 성전 안에 우상을 설치하지는 않았다.
 (2) 그러나 므낫세는 성전에 우상의 제단들을 쌓고(4절) 아세라 목상을 세움으로 하나님을 모독하였다.

- (3) 이것이 가장 악한 죄악이 된 이유는 성전에 대하여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 (4, 7, 8 절)을 무시하고 거역했다는 사실에 있다.
- (4) 이로써 므낫세와 유다 나라는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저주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참조, 신 28:15-19).
- (5) 우리들도 우리의 몸과 마음으로 성별된 삶을 살지 못하고 성전된 자기 몸을 더럽히면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것이다(고전 3:16, 17).

6. **㉠** 하나님께서는 유다에 대하여 어떻게 심판을 선언하셨는가? (10-15절)

- ㉠** (1)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선언하셨다(10절).
- (2) 그 내용은 므낫세의 죄목(罪目, 11절), 심판의 시행(12-14절), 심판의 이유(15절) 등으로 나누어진다.
- (3) 이러한 선지자의 예언은 심판의 의미도 있으나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기도 하다.
- (4) 이 예언이 므낫세 당대에 성취되지 않고 6대(代) 왕이 지난 후에 시행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유다의 회개를 기다리셨기 때문이다(참조, 벰후 3:9).
- (5) 현대인들은 오늘날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 선포되는 우주적 심판과 종말의 예언을 듣고 회개하여야 한다(마 3:2). 더딘 것 같으나 주의 날은 도적같이 임하여 공의의 심판은 시행되고야 말 것이다(벰후 3:10).

7. **㉠** 므낫세의 죄목은 어떻게 나타났는가? (11절)

- ㉠** (1) 므낫세는 부친의 경건성을 보고 경건하게 사는 길을 알고는 있었으나 오히려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하였다.
- (2) 므낫세는 아모리 사람들을 옳다고 생각했고 그들의 본을 따랐으며 나중에는 그들보다 더욱 심하게 악을 행하였다.
- (3) 그는 또한 백성들을 타락시켰고 우상을 숭배케 했으며 죄를 짓도록 유혹하고 강요했다(참조, 9절).
- (4) 이러한 죄악들은 즉시로 재앙과 심판을 수반한다. 12-14절의 심판의 예언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에 의해 연결된다(12절).
- (5) 오늘날도 신자라면서 불신자보다 더 악하게 사는 자들에게 같은 경고가 주어진다(참조, 5:8). 그러므로 성도는 임박한 진노를 피하기 위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마 3:7, 8).

8. **㉠** 예루살렘에 임할 심판의 기준은 무엇인가? (13절)

- ㉠** (1) ‘사마리아를 잔 줄과 아합의 집을 다림보던 추(錘)’로 심판을 베푸시겠다고 하였다.
- (2) 즉 예루살렘의 죄가 사마리아의 죄와 같기 때문에 그 심판도 사마리아와 아합의 집에 내린 심판의 복사판이 될 것이라는 의미이다.
- (3) 당시 예루살렘은 사마리아처럼 악한 길로 나가고 있었다. 그러므로 타락된 아합 집안이 저주를 받은 것과 같은 파멸의 운명에 처하게 될 것이다.
- (4) 남의 죄를 모방하고 닮는 자들은 그들의 운명 속에 처하게 될 것도 각오해야 한다.

9. **㉠** 예루살렘에 임할 심판의 정도는 무엇인가? (13절)

- ㉠** (1) 그 심판은 완전한 심판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사람이 그릇을 씻어 얹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 버리겠다’고 하셨기 때문이다. 이 말은 세 가지의 뜻을 내포한다.
- (2) 첫째 예루살렘은 뒤집어 엎어진 그릇처럼 혼돈에 빠지고 기초가 제거된 상태가 되고 말 것이다.
- (3) 다음으로 그릇을 씻으면 빈 그릇이 되듯이 예루살렘 도성에 주민들이 없어질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 속에 든 오물과 같았기 때문이다.
- (4)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심판은 궁극적으로 파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정결케 하기 위함이다.

다. 그것은 떨어지거나 산산히 깨어지거나 녹아 버리지 않고 다만 씻겨질 뿐이다.

(5)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은 파괴로서 끝나는 불완전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정결케 함으로 새로운 완성을 이루기 위한 '완전한 심판'이다.

10. **㉠** **므낫세는 유다로 범하게 한 죄 외에 또 무슨 죄악을 행했는가? (16절)**

- ㉠** (1) 그는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다.
- (2) 즉 강포와 폭력은 예루살렘 도성의 곳곳에서 살인을 증가시켰고 마침내 피흘림의 죄악은 예루살렘의 양(量)을 짊 채우고야 말았다(참조, 마 23:32).
- (3) 이 무죄한 자의 피는 하늘을 향하여 호소했고(참조, 창 4:5), 유다는 땅에서 저주를 받고 쫓겨날 수밖에 없었다(24:3, 4).
- (4) 오늘날도 그리스도를 배척하여 그의 사역자를 핍박하고 피를 흘리게 한 자들은 언젠가 하나님께 그 대가를 받아야 할 것이다(참조, 마 23:34-36).

11. **㉠** **므낫세의 남은 사적은 어떠한가? (17, 18절)**

- ㉠** (1) 본문에서는 므낫세의 남은 생애가 유죄 판결로 마무리 되는 것으로 보이나 역대기에는 그의 다른 면모가 기록되어 있다.
- (2) 즉 대하 33:10-20에는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등 환난을 당한 므낫세가 크게 겸비하여 회개했다는 기록이 있다.
- (3) 우리는 본문에서도 므낫세가 회개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하나의 암시를 발견하게 된다.
- (4) 즉 므낫세가 '그의 궁궐 동산'에 장사되었다는 점이다(18절, 대하 33:20에는 '궁'으로 나와 있다).
- (5) 그것은 아마도 므낫세 본인의 명령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는 자기 죄에 대하여 진정으로 겸비해지고 나서는 자신을 '다윗의 아들'이라 불리울 수 없다고 판단하여 '열조의 무덤'에 장사될 수 없다고 생각했다.
- (6) 참된 회개는 스스로 수치를 취한다. '무죄한 자'라는 명예는 잃었으나 '회개하는 자'라는 명예는 므낫세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이었다.

12. **㉠** **아몬은 언제 통치한 왕인가? (20절)**

- ㉠** (1) 아몬은 유다 15대 왕으로 22세 때 즉위하여 2년을 통치했다(B.C.642-640). 그 모친은 '므술레멧'으로 옷바 하루스의 딸이다.

13. **㉠** **아몬의 행위는 어떠한가? (20-22절)**

- ㉠** (1) 아몬은 그 부친 므낫세의 악함을 그대로 본받아 악을 행했다(20절).
- (2) 즉 므낫세처럼 우상을 섬겨 경배했고(21절)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행하지 않았다(22절).
- (3) 아몬은 므낫세가 회개하기 전에 행한 극악한 행위와 가증한 일들을 보면서 심각한 영향을 받았다.
- (4) 이후 므낫세는 회개하였지만 아몬은 그 부친처럼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더욱 범죄의 길로 깊이 빠져 들어갔다(대하 33:23).
- (5) 비록 우리의 죄가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용서받고 치료될 수 있더라도 그 죄가 파생시킨 부작용으로 계속 고통받는 수가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 (6) 질투하시는 하나님은 우상 숭배한 자의 죄를 자손 3, 4대까지 이르게 하신다(출 2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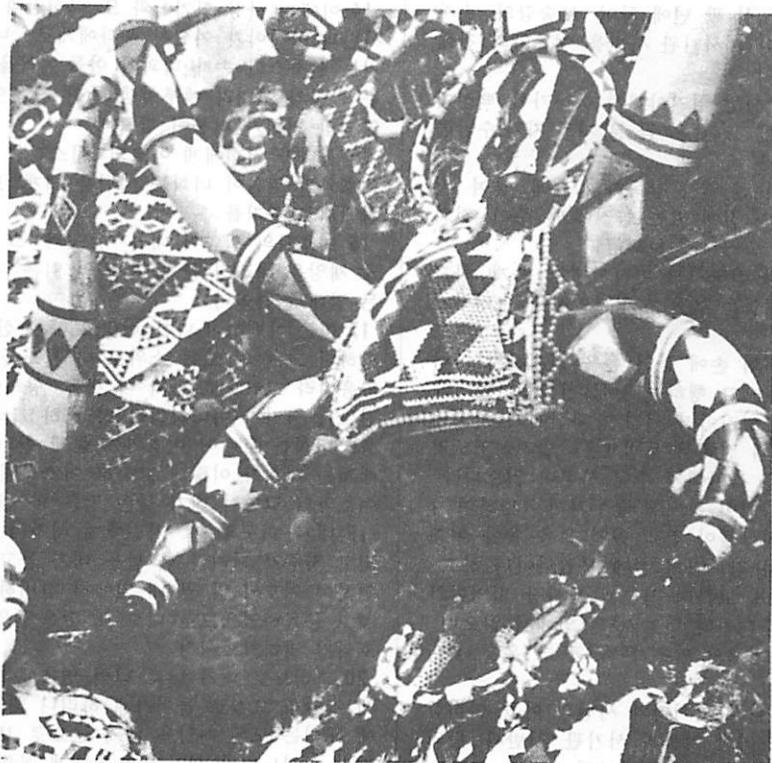
14. **㉠** **아몬의 종말은 어떠한가? (23절)**

- ㉠** (1) 아몬의 종말은 매우 비극적이었다. 하나님을 반역한 그는 신하들에게 반역당했다.
- (2) 이 반역에 의해 아몬은 궁중에서 살해당하고 말았다. 그것은 아마 어떤 개인적인 원인이었을 것이다.
- (3) 어쨌든 므낫세를 보호해야 할 그의 신하들이 그를 살해했다. 또 그의 보호처가 되어야

- 할 그의 궁이 그의 처형 장소가 되었다.
- (4) 느닷없는 그의 우상들로 하나님을 더럽혔는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궁전을 그의 피로 더럽히게 하셨다.
- (5) 왕을 죽인 자들은 불의하지만 그것을 허용하신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화보자료

주술사(呪術師). 아래의 사진은 머리에 소의 뿔로 만든 장식을 쓰고 있는 남아프리카의 주술사로서 일종의 무당인데 자신의 부족 내에서는 종교적 지도자의 역할을 수행한다. 아몽든 인류역사상 과학이 최고로 발달한 현대에도 이러한 주술사가 존재한다는 것은 꺾 아이로니칼(ironical)하다.



인간은 그의 연약성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도 다른 초월자나 무당, 점치는 자 등을 찾게 되는데(3-6절) 이는 하나님께 대한 악행이며 그분의 진노를 유발시키는 행위이다. 인간은 오로지 창조주 하나님만을 섬기고 의지해야 한다(고전 10:31; 계 4:11).

제 22 장 요시아 왕 때에 울법책이 발견되다

단락구분 1-2 요시아의 통치 성격 / 3-7 요시아가 성전 수리를 준비하다 / 8-13 힐기아가 울법책을 발견하다 / 14-20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풀다의 예언

1 요시아가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팔 세라 예루살렘에서 삼십 일 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여디다라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2 요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3 요시아 왕 십 팔 년에 왕이 므솔람의 손자 아살리아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와의 전에 보내며 가로되

4 너는 대제사장 힐기아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와의 전에 드린 은 곧 문 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수하여

5 여호와와의 전 역사 감독자의 손에 붙여 저희로 여호와와의 전에 있는 공장에게 주어 전의 퇴락한 것을 수리하게 하되

6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주게 하고 또 재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전을 수리하게 하라 하니라

7 그러나 저희 손에 붙인 은을 회계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 행하는 것이 진실함이었더라

8 대제사장 힐기아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와의 전에서 울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9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복명하여 가로되 왕의 신복들이 전에 있던 돈을 쏟아 여호와와의 전 역사 감독자의 손에 붙였나이다 하고

10 또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제사장 힐기아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왕의 앞에서 읽으매

11 왕이 울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 옷을 찢으니라

12 왕이 제사장 힐기아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블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신 아사야에게 명하여 가로되

13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열조가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치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발하신 진노가 크도다

14 이에 제사장 힐기아와 또 아히감과 악블과 사반과 아사야가 여선지 홀다에게로 나아가니 저는 할라스의 손자 디과의 아들 예복을 주관하는 살롬의 아내라 예루살렘 들짜 구역에 거주하였더라 저희가 더불어 말하며

15 홀다가 저희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의 말씀이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고하기를

16 여호와와의 말씀이 내가 이 곳과 그 거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의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17 이는 이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 손의 모든 소위로 나의 노를 격발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나의 이 곳을 향하여 발한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18 너희를 보내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고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의 말씀이 네가 들은 말을 의논컨대

19 내가 이곳과 그 거민에게 대하여 빈 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네가 듣고 마음이 연하여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20 그러므로 내가 너로 너의 열조에게 들어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 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네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사자들이 왕에게 복명하니라

1. ㉠ 본장의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하라.

- ㉠ (1) 본장은 유다 16대 왕인 요시아의 선한 통치의 이야기로부터 시작된다. 그의 선은 너무나 극심했던 악행 바로 뒤에 곧 나타났기 때문에 더욱 빛나게 되었다.
- (2) 요시아는 성전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수리하던 중 울법책을 발견케 되었다(1-13절).
- (3) 그 울법책은 유다의 종말에 대하여 경종을 울려 주었고 여선지자 홀다에 의하여 유다

의 종말이 확인되었다(14-20절).

(4)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시야 시대에 저주의 종말이 오지 않음을 알려 주셨다(19, 20절).

(5) 본장에서 우리는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합 3:2) 을 배운다.

2. **㉠** 요시야는 몇 살 때에 즉위하였는가? (1절)

㉠ (1) 요시야는 불과 8세의 어린 나이에 통치하기 시작하여 31년을 치리했다.

(2) 어린 요시야는 그의 아버지와 할아버지로부터 아무런 나쁜 영향도 받지 않았다.

(3) 오히려 일찍부터 그들의 과오를 보고 경고를 받았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총을 베푸사 경고를 삼게 하셨기 때문이다(참조, 궐 18:14).

(4) 아몬은 그의 부친의 나쁜 점을 답습하면서도 좋은 점은 무시했다. 그러나 요시야는 부친의 나쁜 점에서는 경고를 받고 먼 조상 다윗의 좋은 점을 본받았다(참조, 2절).

(5) 우리들도 주위의 악한 사람들의 불경건을 통하여는 경고를 받고 성경에 기록된 성도들의 신앙과 행위를 본받아서 요시야처럼 살도록 해야 한다.

3. **㉠** 요시야의 신앙 행위는 어떠하였는가? (2절)

㉠ (1) 요시야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이러한 평가를 받은 유다의 왕은 모두 20명 중에 8명이다(아사, 여호사밧, 요아스, 아마샤, 아사랴, 요담, 히스기야, 요시야).

(2) 요시야는 그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였다. 이러한 평가를 받은 유다 왕은 위의 8명 중 3명에 불과하다(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이 세 사람을 가리켜 유다의 3대 성군이라 부른다.

(3) 요시야는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표현은 요시야 외에 어떤 유다 왕에게도 주어지지 않았다. 이 점에서 요시야는 성경 기자에 의해 가장 극찬을 받은 것이다.

(4) 우리 신자들은 정직히 행하고 다윗의 길로 행하되 특별히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신앙의 단계까지 나아가야 한다(신 5:32; 수 1:7; 잠 4:27).

(5) 즉 우리의 양 편에 놓여 있는 미신이나 불경건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 말씀 중심의 복음적인 생활을 해야 한다(참조, 빌 1:27).

4. **㉠** 요시야의 개혁 운동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한 것은 언제부터인가? (3절)

㉠ (1) 대하 34:1-8에 의하면 요시야는 즉위한 지 8년되는 해에 그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구하였고 제 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에 우상을 파괴하였다.

(2) 그러나 본격적인 개혁은 왕하 본문에 나타나듯 '여호와와 율법책'을 발견함으로써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할 때 비로소 개혁이 개혁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3) 율법책은 성전 수리 작업 중 힐기야에 의해 발견되었는데 성전 수리를 한 때는 요시야 18년이였다.

(4) 우리의 교회와 사회에 개혁이 필요하다면 '개인'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한다. 그러기 위해 요시야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또한 우상을 버리고 성전되신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할 것이다.

(5)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할 때 개혁은 운동력있게 추진되어진다(히 4:12, 13).

5. **㉠** 요시야가 즉위 18년에 개혁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가? (3절)

㉠ (1) 사실 요시야는 훨씬 전인 즉위 8년 때부터 여호와를 구하기 시작했다(대하 34:8).

(2) 그러나 그는 아직은 어리기에(16세) 개혁 사업이 많은 반대에 부딪힐 것을 고려했다. 그래서 완전히 실권을 장악하기까지는 자기가 계획한 사업을 추진할 수 없었다.

(3) 이제 어렸을 적에 우리가 불가피하게 잃어버린 시간을 생각하면 때가 되어 일하게 될 때 더욱 열성적으로 일하려는 자극을 받게 될 것이다.

(4) ‘천하에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를 때가 있음’(전 3:1)을 기억하고 요시야처럼 침착하게 그리고 열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한다.

6. **㉠ 성전 수리 작업은 어떻게 진행되었는가? (3-7절)**

- ㉠** (1) 요시야는 계통적으로 성전 수리 작업을 지시했다.
- (2) 그 계통은 요시야-서기관 사반-대제사장 힐기야-감독자-공장(工匠)-목수, 건축자, 미장이의 순서를 밟았다.
- (3) 그리고 이들에게 성전에 드러진 은으로 성전 수리 비용으로 쓰게 했는데, 나중에 회계(결산)을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모든 사람이 ‘진실’하게 행하였다(7절).
- (4)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도 서로를 신뢰하여 합당한 일들을 위임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그리고 각 사람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진실되어야 한다(눅 12:42).

7. **㉠ 힐기야가 성전에서 발견한 율법책은 어떤 책인가? (8절)**

- ㉠** (1) 이 책은 전에 악한 왕들이 율법책을 파괴할 때에 어떤 경건한 자가 성전 모퉁이 돌 속에 감춰 두었던 것으로 호세 오경의 원본이든가 아니면 신빙성있는 사본으로 추정된다.
- (2) 이 책의 내용은 당시 유다 사람들의 타락을 도덕적으로 혹은 영적으로 명백히 보여 줄 만한 내용이었다(13, 16, 17절).
- (3) 이 율법책이 발견된 것은 유다가 성전을 수리하고 선한 사업을 하려고 했을 때였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 (4) 이 율법책에 근거한 요시야의 개혁으로 하나님의 심판은 요시야 당대에 임하지 않고 약 20여 년 후로 보류되었다.

8. **㉠ 율법책의 말씀을 들은 요시야의 반응은 어떠했는가? (10, 11절)**

- ㉠** (1) 사반이 율법책을 왕의 앞에서 읽자 귀기울여 듣던 요시야는 자기 백성의 죄를 부끄러워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한 나머지 자기 옷을 찢었다.
- (2) 요시야는 자기 나라의 형편이 악하다는 생각을 오랫동안 품어 왔다. 그러나 이제 율법책을 읽고 냈을 때까지는 그 사정이 그렇게 악한 것인 줄을 미처 몰랐던 것이다.
- (3) 요시야가 옷을 찢었다는 것은 하나님께 치욕을 돌린 사실 때문에 자기 마음을 찢은 것을 의미하며 자기 백성에게 임할 멸망을 알았음을 나타낸다.
- (4) 선지자 요엘은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후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쳤다(욘 2:12, 13).

9. **㉠ 요시야는 율법책의 말씀을 들은 후 신하들에게 무엇을 명했는가? (12, 13절)**

- ㉠** (1) 요시야는 5명의 신하들에게 ‘자신과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해 여호와께 묻도록 명했다.
- (2) 또한 율법책의 말씀을 듣고 ‘자신과 백성과 온 유다’에 큰 진노가 임할 것을 깨달았다.
- (3)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다.
- (4) 그것은 또한 하나님께서도 원하시는 것으로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시 50:15) 라고 말씀하셨다.

10. **㉠ 왕의 신하들은 여호와께 묻기 위해 누구에게 나아갔는가? (14절)**

- ㉠** (1) 그들은 여선지자 홀다에게로 나아갔다. 홀다는 평범한 한 남자의 아내이었으며 예루살렘 들짜 구역에 거주하였다.
- (2)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평범한 여자를 통하여도 말씀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는 것은 남자나 여자가 아닌 궁극적으로 그들 안에 계신 ‘예언의 영’ 이시다(고전 12:10).
- (3) 왕의 신하들은 홀다가 비록 여자이었지만 그녀 안에 예언의 영이 계시고 그녀의 입에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경험했기에 그녀에게 나아간 것이다.
- (4) 오늘날 우리는 사람의 외모를 판단하지 말고 다만 성령과 말씀의 역사를 따라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해야 한다.

11. ㉠ **홀다는 어떤 내용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는가? (15-20절)**

- ㉠ (1) 홀다의 예언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첫 부분은 하나님께서 범죄한 유다 백성들에게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진노와 재앙과 저주를 내리시겠다는 것이다(16, 17절).
- (2) 둘째 부분은 말씀을 듣고 겸비하고 애통해 했던 요시아에게는 평안함을 주시고 그의 생전에 재앙이 임하지 않으리라는 것이다(18-20절).
- (3)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겸비한 마음으로 회개하면 비록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의 땅에서 돌리게 할 수는 없을지라도 우리의 평안함과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된다.

12. ㉠ **본장에서 결론적으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 ㉠ (1) 본장의 중심 사건은 '율법책의 발견'이다. 그 율법책으로 말미암아 요시아는 죄와 심판을 깨닫게 되었다.
- (2) 우리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들었을 때, 하찮은 생각으로 지나쳐 버리지 말고 마음에 깊이 새기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한다.
- (3) 그리고 우리는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성경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인도받아야 한다.

화보자료

성전의 수리. 아래의 사진은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퇴락(頹落)한 성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리하는 모습이다.



요시아 왕의 종교 개혁은 유다 역사상 가장 철저한 종교 개혁이었다. 그는 성전을 수리하는 것으로부터 개혁을 시작했는데(6절)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함으로써 그 개혁은 더욱더 확고한 신앙적인 기반을 갖게 되었다.

제 23 장 요시야의 개혁 운동

단락구분 1-3 요시야가 백성들에게 언약책을 낭독하다 / 4-20 요시야의 우상 파괴 운동 / 21-23 유월절을 지키다 / 24-25 가증한 것을 다 제하다 / 26-27 유다의 열망이 예언되다 / 28-30 요시야의 전사와 여호아하스의 즉위 / 31-34 여호아하스의 악정과 죽음 / 35-37 여호야김의 즉위와 악정

1 왕이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2 이에 여호와와의 전에 올라가며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거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무론 노소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3 왕이 대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며 백성이 다 그 언약을 좇기로 하니라

4 왕이 대제사장 힐기야와 모든 버금 제사장들과 문을 지키는 자들에게 명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기명을 여호와와의 전에서 내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 재를 벨엘로 가져가게 하고

5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고을과 예루살렘 사면 산당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폐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열두 궁성과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폐하고

6 또 여호와와의 전에서 아세라 상을 내어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가 거기서 불사르고 쌓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7 또 여호와와의 전 가운데 미동의 집을 헐었으니 그 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이었더라

8 또 유다 각 성읍에서 모든 제사장을 불러오고 또 제사장이 분향하던 산당을 계곡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더럽게 하고 또 성문의 산당들을 헐어 버렸으니 이 산당들은 부운 여호수아의 때 문 어귀 곧 성문 왼편에 있었더라

9 산당의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여호와와의 단에 올라가지 못하고 다만 그 형제 중에서 무교병을 먹을 뿐이었더라

10 왕이 또 힌놈의 아들 골짜기의 도벳을 더럽게 하여 사람으로 몰록에게 드리기 위하여 그

자녀를 불로 지나가게 하지 못하게 하고

11 또 유다 열왕이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을 제하여 버렸으니 이 말들은 여호와와의 전으로 들어 가는 곳의 근처 시중 나단멜렉의 집 곁에 있던 것이며 또 태양 수레를 불사르고

12 유다 열왕이 아하스의 다락 지붕에 세운 단들과 므낫세가 여호와와의 전 두 마당에 세운 단들을 왕이 다 헐고 거기서 쌓아 내려서 그 가루를 기드론 시내에 쏟아 버리고

13 또 예루살렘 앞 열망 산 우편에 세운 산당을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몬 사람의 가증한 아스다못과 모압 사람의 가증한 아스다못과 모압 사람의 가증한 그모스와 암논 자손의 가증한 밀곰을 위하여 세웠던 것이며

14 왕이 또 석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고 사람의 해골로 그 곳에 채웠더라

15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벨엘에 세운 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쌓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16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묘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묘실에서 해골을 취하여다가 단 위에 불살라 그 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17 요시야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나 성읍 사람들이 고하되 왕께서 벨엘의 단에 향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전하러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이니이다

18 가로되 그대로 두고 그 뼈를 옮기지 말라 하며 무리가 그 뼈와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의 뼈는 그대로 두었더라

19 전에 이스라엘 열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 지어서 여호와와 노를 격발한 산당을 요시야가 다 제하되 벨엘에서 행한 모든 일대로 행하고

20 또 거기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단 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단 위에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21 왕이 못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이 언약

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며

22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열왕의 시대에든지 유다 열왕의 시대에든지 이렇게 유월절을 지키는 일이 없었더니

23 요시아왕 십 팔 년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24 요시아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성한 자와 박수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힐기야가 여호와와의 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25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향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온전히 준행한 임금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26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진노하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격노케 한 그 모든 격노를 인함이라

27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뎨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 두리라 한 이 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28 요시아의 남은 사적과 모든 행한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29 요시아 당시에 애굽 왕 바르느고가 앗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하수로 올라가므로 요시아 왕이 나가서 방비하더니 애굽 왕이 요

시아를 뜨깃도에서 만나본 후에 죽으니라

30 신복들이 그 시체를 병거에 싣고 뜨깃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 묘실에 장사하니 국민이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데려다가 저에게 기름을 붓고 그 부친을 대신하여 왕을 삼았더라

31 여호아하스가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이십 삼 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하루달이라 립나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32 여호아하스가 그 열조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33 바르느고가 저를 하맛 땅 립나에 가두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또 그 나라로 온 일백 달란트와 금 한 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고

34 바르느고가 요시아의 아들 엘리야김으로 그 아버지 요시아를 대신하여 왕을 삼고 그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여호아하스는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저가 거기서 죽으니라

35 여호야김이 은과 금을 바로에게 주니라 저가 바르느고의 명령대로 그에게 그 돈을 주기 위하여 나라에 부과되 국민 각 사람의 힘대로 액수를 정하고 은금을 능복하였더라

36 여호야김이 왕이 될 때에 나이 이십 오 세라 예루살렘에서 십일 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스비다라 루마 브다야의 딸이더라

37 여호야김이 그 열조의 모든 행한 일을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1. ㉠ 본장에 나타난 요시아의 개혁 운동에 관하여 설명하라.

㉠ (1) 전장에서 여호와와의 율법책을 발견한 요시아 왕은 더욱 힘을 내어 개혁 운동을 추진하는 모습을 본장에서 보여 준다.

(2) 요시아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들을 전력(全力)을 기울여 파괴하였고 사무엘 시대 이후 가장 모범적으로 유월절 절기를 지켰다(4-23절).

(3) 그러나 유다의 멸망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돌이켜 지지 않았다. 요시아의 슬픈 죽음과 후계자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시대의 외침(外侵)과 수난은 유다 멸망의 전조였다.

(4) 이렇게 유다의 멸망이 필연적으로 찾아왔듯이 이 세상의 우주적 종말도 반드시 임할 것이다(벧후 3:10). 유다의 멸망이 므낫세를 비롯한 유다 열왕의 죄 때문이듯이 우주의 종말은 아담의 죄를 비롯한 모든 인류의 죄에 대한 심판이다.

2. ㉠ 요시아 왕이 율법책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을 들은 후 제일 먼저 행한 일은 무엇인가? (1-3절)

㉠ (1) 요시아는 유다를 위해 애썼으나 유다와 예루살렘의 멸망을 막지 못하고 오직 자기의 영혼만을 구원해야 했다.

(2) 그러나 요시아는 자기가 하고자 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없다고 절망 가운데 주저앉아 있지는 않았다.

(3) 요시아는 오히려 자기 의무를 다하려고 했고 더욱 새롭게 개혁 사업을 추진했다.

(4) 그리하여 그는 온 유다의 회중을 성전으로 소집하고 언약책의 말씀을 낭독한 후 여호

와 앞에서 언약을 세웠다.

(5) 이렇게 우리는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찾아야 한다. 우리가 자신과 타인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하나님과 바른 언약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다.

3. **㉠ 요시야의 언약 의식과 유다의 멸망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1-3절)**

- ㉠** (1) 요시야의 진지한 언약 의식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한 세대 후 멸망하였다(25:1-7).
- (2) 그 이유는 요시야의 언약 의식에 참여한 유다 백성들이 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지 않고 거짓으로 하였기 때문이다(렘 3:10).
- (3) 이렇게 외적으로는 언약에 참여하는 듯하여도 중심으로 참여하지 못할 때 그 언약은 영원하지 못하다.
- (4) 지금도 우리의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입으로는 약속해 놓고 있지만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마 15:8).
- (5) 겉으로 보기에 말씀을 받아들인 모든 사람에게 마음 중심의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는 기대하지 말아야 한다(마 7:21).

4. **㉠ 요시야의 우상 파괴 운동을 요약하라(4-20절).**

- ㉠** (1) 요시야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새롭게 한 후 우상 파괴 운동에 착수하였다. 하나님을 주(主)로 모시기 위해 하나님 자리에 있던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는 일이 먼저 필요했다.
- (2) 그래서 요시야는 성전 안에까지 들어와 있던 우상과 기구들을 제거하고(4, 6절) 성전 주변의 가증한 집과 기구를 제거했다(7, 11, 12절).
- (3) 또 산당을 파괴하고(8, 10, 13, 15, 19절) 산당의 제사장들을 폐하였다(5, 9, 20절).
- (4)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예언한 선지자의 뼈는 옮기지 않도록 하였다(16-18절). 그는 요시야의 우상 파괴를 예언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왕상 13:31, 32).
- (5) 이와 같이 요시야의 우상 파괴 운동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시행되어진 것이다. 하나님께 서는 오늘날도 우리에게 우상 파괴를 명령하신다.

5. **㉠ 요시야는 태양 숭배에 관련된 유물들을 어떻게 제거했는가? (11절)**

- ㉠** (1) 요시야는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을 없애 버리고 또 태양 수레를 불태워 버렸다.
- (2) 이것들은 매우 수치스런 우상 숭배의 잔재들이었다. 그 ‘말’들은 매일 아침마다 솟아오르는 태양을 추앙하기 위해 타고 나갔던 것이며 함께 사용되었던 ‘태양 수레’는 우상 숭배의 대상이 되었다.
- (3)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이처럼 허망한 종교적 풍속이 있었다는 것은 충격적인 일이다.
- (4) 오늘날의 성도들에게 성경 말씀이 닫히워진 채로 있다면 중세 카톨릭 시대처럼 우상 숭배로 또다시 타락되어질 수밖에 없다.

6. **㉠ 요시야가 더럽게 한 멸망 산 우편의 산당은 언제 세워진 것인가? (13절)**

- ㉠** (1) ‘멸망 산’이란 지금의 감람 산을 말한다. 그 우편에 있는 산당은 옛적 솔로몬에 의해서 우상 숭배를 목적으로 세워졌던 것이다.
- (2) 그 건물들이 300여 년이 지난 요시야 당시까지 남아 있었다. 그 동안 여호사밧과 히스기야 등의 많은 개혁에도 불구하고 존속되어 왔던 것이다.
- (3) 종교에 타락을 끌어들이는 자들은 그 타락이 얼마나 멀리까지 미치며, 또 얼마나 오래도록 계속되는가를 알지 못한다.
- (4) 오래되었다는 것이 진리의 확실한 증거는 아니다. 많은 이단들이 수백년 간 존속되고 있지만(여호와와의 증인-200여 년, 안식교, 물몬교 등) 그것이 ‘진리’는 아니다.

7. **㉠ 요시야의 우상 파괴 운동에서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는가? (20절)**

- ㉠** (1) 요시야는 우상을 파괴하되 불사르고 뺏아서 가루를 만들었고(6, 12, 15절) 우상 숭배에

중사하던 제사장들을 모두 죽이는 등(20절) 매우 단호하고도 철저하게 시행하였다.

- (2) 죄악의 시대에 뿌리 깊은 악을 대항하려면 은유한 정책으로는 효과가 없고 인정 사정 들보지 않는 아주 엄한 정책이어야 효과를 거둘 수 있다.
- (3) 또한 백성의 목자가 되지 못하고 도리어 백성의 유혹자가 되는 자들은 이중으로 처벌을 받아 가차없이 제거되어야 한다.

8. **㉠** 요시야는 우상 파괴 운동을 마친 후에 어떤 명령을 내렸는가? (21절)

- ㉠** (1) 요시야는 뭇 백성에게 유월절을 지키도록 명령했다. 그는 특별히 성전에서 발견된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지키도록 하였다.
- (2) 즉 언약책에서 금지한 우상들을 제거하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언약책에서 명령한 규례를 지키려고 했던 것이다.
- (3) 전에 예후는 바알 숭배를 폐지하고 나서도,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를 준수하는 데에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10:30, 31).
- (4) 그러나 요시야는 모든 가증스러운 습관을 막는 길은 하나님의 책에 제정되어 있는 모든 규례를 준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유월절을 지키도록 명령했다.
- (5) 죄악을 이기는 최선의 길은 죄악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하여 그 말씀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데에 있다(참조, 시 1:1, 2; 119:9-11).

9. **㉠** 유월절 준수는 이스라엘의 타락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

- ㉠** (1) 유월절은 유대인들이 애굽에서 구출된 것을 기념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들을 구출해 낸 하나님께 자신을 헌신하고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을 상징하는 절기였다.
- (2) 유월절은 해마다 새롭게 지키는 절기이다. 이 유월절 절기는 항상 죄악의 묵은 누룩을 청산하는 것을 일깨워 준다.
- (3) 유다 사람들이 절기를 지켰던 것은 오늘날 성도들의 공동적 교회 생활을 상징한다.
- (4) 성도들이 이런 공동적 교회 생활을 소홀히 하면 부패하게 된다. 본문의 유다 백성들이 정한 절기를 잘 지켰다면 그렇게까지 타락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10. **㉠** 요시야의 유월절 준수가 갖는 특징은 무엇인가? (22절)

- ㉠** (1) 요시야의 유월절 준수는 사사 시대 이후 전례가 없을 정도로 모범적인 절기였다.
- (2) 히스기야가 유월절을 지키기는 하였지만(대하 30장), 히스기야 시대에는 성소의 결례법에 따라 몸을 정결하게 하지 않은 자가 많았다.
- (3) 그리고 요시야 이전에는 유월절을 자기 집과 지방 성소에서 지켰는데 요시야 때에는 지방 성소가 아닌,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지키게 되었던 것이다.
- (4) 이런 점에서 요시야의 유월절 준수는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가장 모범적인 행사였다. 역대기 저자는 이 점에 초점을 맞추어 상세하게 기록했다(대하 34:1-19).
- (5) 신약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공동적 행사를 실시해야 한다. 그때 그 행사는 가장 모범적인 행사라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것이다.

11. **㉠** 하나님께서 유다를 향한 그의 진노를 돌이키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26절)

- ㉠** (1) 요시야가 열성적으로 개혁 운동을 시행하였으나 유다는 여전히 멸망으로 운명지어졌다. 이것은 그 모든 사실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기’ 때문이다.
- (2)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렘 28:7, 8) 만약 멸망으로 예정된 어떤 민족이 그 ‘죄악에서 떠나 돌이킨다면’ 하나님도 형벌의 계획을 돌이키신다고 말씀하셨다.
- (3) 따라서 요시야 왕 치하의 백성들은 비록 요시야의 권력에는 복종했으나 요시야의 근본 방침에는 동참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4) 백성들의 마음은 우상에 애착하고 있었고 ‘므낫세’의 범죄 가운데 머물러 있었던 것이

다. 본문에서 ‘므낫세’는 그의 전후 모든 범죄자의 표상으로 언급된 것이다.

(5)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시야 당대에 유다가 멸망하도록 하시지 않았다. 하나님은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기 때문이다(합3:2).

12. **㉠** 요시야 왕의 죽음은 유다의 멸망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 (28-30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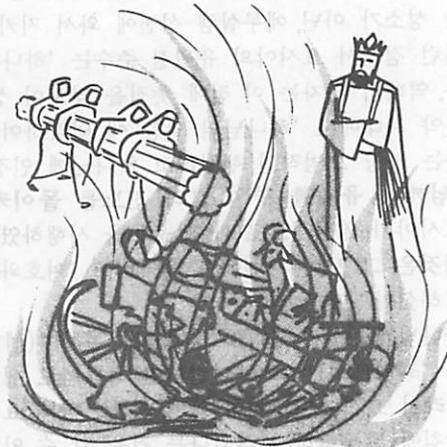
- ㉠** (1) 요시야는 애굽 왕 바로느고의 침입을 막다가 므깃도에서 전사하여 39세란 젊은 나이로 일생을 마쳤다.
- (2) 이렇게 요시야가 일찍 죽은 것은 왕 자신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유다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이다.
- (3) 요시야는 열왕의 묘실에 장사됨으로(30절)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 갔지만 회개하지 않은 유다 나라와 백성은 징벌을 받아야 했다.
- (4) 설령 백성들이 요시야가 행한 개혁에 중심으로 동참하지 않은 것을 후회하며 왕을 아까워하고 애통했을지라도 이미 때는 늦은 것이다.
- (5) 신약의 성도들도 밤이 오기 전에 주님의 일에 동참하여 심판을 면해야 할 것이다(참조, 요9:4, 5).

13. **㉠** 유다 왕 여호아하스와 여호야김의 통치 시대는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가? (31-37절)

- ㉠** (1) 요시야 사후 그의 네 아들 중 네째 아들 여호아하스와 둘째 아들 여호야김이 각각 유다 17대, 18대 왕으로 즉위했다.
- (2) 그들의 통치는 다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고(32, 37절) 나라는 더욱더 쇠퇴의 길을 걷게 되었다.
- (3) 두 왕 모두가 애굽 왕 바로느고에 의해 수모를 겪었다. 여호아하스는 애굽 왕에 의해 폐위되고 포로로 잡혀 갔으며 여호야김은 애굽 왕에 의해 즉위되어 조공을 바치는 위치가 되고 말았다.
- (4) 하나님께 종이 되기를 거부한 자들은 하나님 대신 악한 자의 종이 되어진다.
- (5) 하나님께 종된 자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고 영생에 이르지만 하나님 아닌 자(사단)에게 종된 자는 사망과 멸망의 열매를 맺을 뿐이다(롬 6:20-22).

본장의 요절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기명(器皿)을 여호와와의전에서 내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 재를 벨엘로 가져가게 하고’ (4절).



제 24 장 유다의 마지막 왕들

단락구분 1-4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이 침입하다 / 5-7 바벨론의 감성 / 8-9 여호야김의 악정 / 10-17 여호야김 시대에 다시 바벨론이 침입하여 악탈하다 / 18-20 유다 최후의 왕 시드기야의 즉위

1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 라오매 여호야김이 삼 년을 섬기다가 돌이켜 저를 배반하였더니

2 여호와께서 그 종 선지자들로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 대와 압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3 이 일이 유다에 임함은 곧 여호와와 명하신 바로 저희를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느밧세의 지은 모든 죄로 인함이며

4 또 저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 피로 예 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사 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5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모든 행한 일은 유 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6 여호야김이 그 열조와 함께 자매 그 아들 여 호야킨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7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 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 하수에서부터 유 브라데 하수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취 하였음이라

8 여호야킨이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십 팔 세 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느후스다라 예루살렘 엘라단의 딸이더라

9 여호야킨이 그 부친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10 그 때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에워싸니라

11 그 신복들이 에워쌀 때에 바벨론 왕 느부 갓네살도 그 성에 이르니

12 유다 왕 여호야킨이 그 모친과 신복과 방 백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 왕 팔 년이라

13 저가 여호와와의 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 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와의 전의 금기명을 다 훼파하였으 니 여호와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14 저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방백 과 모든 용사 합 일만 명과 모든 공장파 대장 장이를 사로잡아 가매 빈천한 자 외에는 그 땅 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15 저가 여호야킨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 고 왕의 모친과 왕의 아내들과 내시와 나라에 권세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 잡아 가고

16 또 용사 칠천과 공장파 대장장이 일천 곧 다 강장하여 싸움에 능한 자들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17 바벨론 왕이 또 여호야킨의 아자비 맛다니 야로 대신하여 왕을 삼고 그 이름을 고쳐 시드 기야라 하였더라

18 시드기야가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이십 일 세라 예루살렘에서 십 일 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허무달이라 립나 예레미야의 딸 이더라

19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 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20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저희를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1. ㉠ 본장에 나타난 왕들의 통치 기사가 주는 교훈을 말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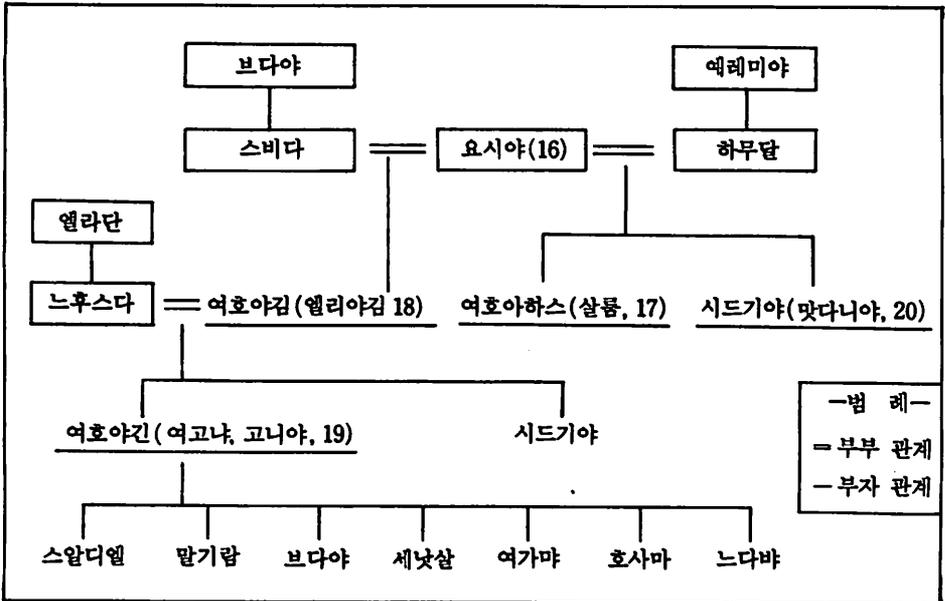
- ㉠ (1) 본장에는 요시아와 여호아하스에 이어 즉위한 유다의 마지막 3왕(여호야김 - 여호야킨 - 시드기야)의 통치에 관하여 기록되었는데 그들은 한결같이 악했고 바벨론에 의해 수난을 겪었다.
- (2) 그 결과 요시아 사후 불과 22년 동안 네 왕이 바뀌고 끊임없이 이방 국가의 침입과 간섭을 받았던 것은 하나님을 버린 백성의 운명을 보여 주는 역사적인 실례이다.
- (3) 우리는 본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가벼운 멍에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결국 악한 자를 만나 더욱 무거운 멍에를 짊어질 수밖에 없다는 교훈을 받게 된다(참조, 마

11:29, 30).

2. ㉠ 요시야 이후 4왕의 계보를 말하라.

㉠ (1) 도표를 참조하라.

- (2) 대상 3:15에 따르면 요시야의 아들들은 네 명이었다. 나이 순으로 보면 요하난, 여호야김, 시드기야, 살룸이다.
- (3) 여기에서 요하난을 제외한 세 아들이 왕위에 올랐다. 여호야김은 18대 왕, 시드기야(맛다니아, 24:17)는 20대, 여호아하스(살룸)는 17대로 즉위했다.
- (4) 오직 19대 왕 여호야긴만이 요시야의 손자였는데 여호야김의 아들로 여고냐라고도 불리었다. 메시아의 계보는 여고냐에게로 이어진다(마 1:11).



3. ㉠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침입을 받게 된 경위는 무엇인가? (1절)

- ㉠ (1)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여호야김 재위 제 4년 때에 통치를 시작했다.
- (2) 여호야김 8년에는 느부갓네살이 여호야김을 포로로 잡아갔지만(대하 36:6), 자기에게 충성을 바치기로 약속하고 그에게 자유를 회복시켜 주었다.
- (3) 즉 3년간은 그 약속이 지켜졌으나, 여호야김이 돌이켜 느부갓네살을 배반하였다. 아마 애굽 왕의 도움을 받을 심산(心算)에서 배반했을 것이다(참조, 대하 36:8).
- (4) 만약 여호야김이 하나님을 바로 섬겼다면, 바벨론 왕의 종이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 (5) 그러나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섬기는 일과 '열방의 왕을 섬기는 일'과의 차이 점을 알려 주셨다(대하 12:8).

4. ㉠ 유다에 재앙과 멸망이 임한 것이 느닷세의 죄 때문이었다고 했는데 그 의미는 무엇인가? (2-4절)

- ㉠ (1) 여호야김이 바벨론을 배반하자 갈대아·아람·모압·암몬의 군대가 침입하여 유다는 큰 곤경에 처하였다(2절).
- (2) 이러한 일은 '여호와와 말씀과 같았고'(2절), 또한 '여호와와 명하신 바'(3절)이었다(참조, 20:17; 21:12-14; 23:27).
- (3) 이렇게 여호와께서 유다를 버리시는 이유는 느닷세의 모든 죄 때문이라고 했다(3, 4절).

- (4) 사실 느닷세는 회개했다(대하 33:12, 13). 그러므로 그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제받게 되었다.
- (5) 그러나 느닷세의 죄들은 민족적인 죄악들이었으므로, 그 나라 유다가 책임을 져야 하며, 민족적 심판을 면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 (6) 이와 같이 지도자의 죄악은 그의 나라를 대표하게 되어 그 징벌이 임하게 됨을 기억하여야겠다.

5. **㉠** 하나님께서 느닷세 당대에 유다를 멸망시키시지 않고 기다리신 이유는 무엇인가? (5-9절)

- ㉠** (1)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 그들을 벌하시기 전에 오랫동안 기다리셨다(참조, 벰후 3:9).
- (2)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요시아 왕이 개혁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조금도 뉘우치지 아니하고 오히려 옛날로 돌아가 과거의 우상 숭배를 다시 끌어 들였다.
- (3) 이제 요시아 이후의 네 왕들도 악을 행하며 옛 습관으로 옷을 갈아 입었으므로 옛 심판을 다시 초래할 수밖에 없었다.
- (4)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기 전에 먼저 기다리신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따라 신속히 회개하여야 한다(롬 2:4, 5).

6. **㉠** 여호야긴이 악정을 행할 때에 바벨론에 의해 어떤 징계를 받았는가? (10절)

- ㉠** (1)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군대들에 의해 포위되었다.
- (2)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유다를 파괴하려고 군대를 보낸 적이 있다(2절). 그런데 이번에는 그가 직접 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한 것이다(11절).
- (3)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이다(신 28:47-52). 즉 '네가...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함을 인하여...여호와께서 원방에서 너를 치러 한 민족을 오게 하시리니, 그 용모가 흉악하며, (먼저) 네 소산을 먹고 (다음에는) 네 성읍을 에워싸리라'하신 말씀이다.
- (4) 우리는 먼저 성경에 경고된 말씀들을 주의깊게 듣고 정직히 행하여 이런 재앙을 만나는 전철을 밟지 말아야겠다.

7. **㉠** 여호야긴은 바벨론의 침입을 당하여 어떻게 대처했는가? (12절)

- ㉠** (1) 바벨론 왕이 몸소 예루살렘을 치러 와 포위했다는 말을 듣고 여호야긴은 협상을 위해 그에게 나아갔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상 무조건 항복이었다. 당시 바벨론 왕의 이름은 매우 큰 공포를 주었다.
- (2) 그리하여 여호야긴과, 그의 모친과 아내들, 그의 종들과 방백은 전쟁 포로로 끌려갔다. 이것이 죄의 종이 된 자들의 당하는 결말이다.
- (3) 만일 여호야긴이 하나님과 화해를 구하고 이와 비슷한 경우에 히스기야가 행했던 방법을 취했다더라면 이런 수욕은 당하지 않았을 것이다.
- (4) 성도들은 아무리 강력한 대적에게 에워싸였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할 때 위기를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다(시 118:10-14).

8. **㉠** 바벨론 왕이 여호야긴과 유대인들을 포로로 끌고 간 의도는 무엇인가?(15, 16절)

- ㉠** (1) 그것은 팔레스틴에 대한 자기의 지배권을 확고히 하고, 피정복민의 반란을 방지하며 또 자기의 재산을 늘리고 일손을 덜기 위한 조치였다.
- (2) 이보다 8년 전(느부갓네살 1년, 여호야김 3년)에도 유배되어 간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 중에는 다니엘과 그의 동료들이 있었다(단 1:1, 6).
- (3) 이번에 끌려간 자들 중에는 에스겔 선지자(겔 1:1, 2)와 모르드개(에 2:6)가 있었다.
- (4) 이렇게 요인(要人)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감에 따라 예루살렘에는 빈천한 자만 남게 되었다(14절).

(5) 세상을 지배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도 하나님께서 떠나면 세상에 포로가 되어 지배를 당하고 만다(신 28:1, 10).

9. **Q** 시드기야는 누구에 의하여 왕이 되었는가? (17절)

- A** (1) 여호야긴이 바벨론에 포로되어 감으로 왕위를 상실했을 때 그의 삼촌인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에 의해 후계자로 지명되어 유다의 마지막 20대 왕이 되었다.
 (2)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자기 백성에게 '저희가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 말미암지 않았다'(호 8:4)고 책망하셨다.
 (3)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왕을 세우던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 대신 이방 왕에 의해 그들의 왕이 임명되는 불명예를 당했다.
 (4) 하나님의 권위에 대항하여 자기들 마음대로 사용하고 주장하는 자유는 이와 같이 상실되고 말 것이다.

10. **Q** 시드기야는 어떤 성품을 가진 통치자였는가? (19절)

- A** (1) 시드기야는 앞의 3왕들을 거울삼아 정직해야 했으나 이복 형인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2) 시드기야에게는 비교적 좋은 성품이 있었다. 그는 백성에 관심을 가졌고(렘 34:8) 선지자 예레미야와 가깝게 지내며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기도 했다(렘 37:3, 17; 38:14-18).
 (3) 그러나 그는 이 모든 것 가운데서도 죄의 노예였다. 그는 물어보고 또 말씀을 들었으나 순종하지는 않았다.
 (4) 시드기야는 하나님보다 인간인 귀족들을 더 두려워하였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용기가 없었으며 이유 없이 두려워하였다(렘 38:19이하).
 (5) 이렇게 시드기야는 좋은 성품이 있었는데도 마침내는 멸망한 표본이다. 그는 세상과 죄를 결코 이기지 못하였다. 사람은 자기 선행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엡 2:8, 9).

11. **Q**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한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20절)

- A** (1) 시드기야는 바벨론 왕과 맹세를 하고 왕이 되었으나 땅의 것을 얻고 땅의 명예를 위해서 그 맹세를 깨뜨리고 바벨론 왕을 배반했다.
 (2)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처사였고 나아가서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배반한 것이 되기도 한다.
 (3) 시드기야는 예레미야의 충고를 무시하고 애굽의 도움을 기대하여 바벨론을 배반한 것이기 때문이다(렘 38:17-19).
 (4) 그리하여 시드기야는 하나님께 멸망을 선고받았다(겔 17:11-21).
 (5) 우리는 불신자들과 적들에 대하여도 신의를 지켜야 한다(참조, 수 9:19).

본장의 요점

'이 일이 유다에 임함은
 곧 여호와와 명하신 바로 저희를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으랏세의 지은 모든 죄로 인함이며'(3절).

제 25 장 유다의 멸망과 여호야긴의 석방

단락구분 1-2 예루살렘이 포위되다 / 3-7 예루살렘이 함락되다 / 8-12 예루살렘이 파괴되다 / 13-17 성전 기구들이 약탈되다 / 18-21 유다 거민이 살육당하다 / 22-24 그달리아가 유다 방백이 되다 / 25-26 그달리아가 피살되다 / 27-30 여호야긴이 석방되다

1 시드기야 구 년 시 월 십 일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사면으로 토성을 쌓으며

2 성이 시드기야 왕 삼 일 년까지 에워싸였더니

3 그 사 월 구 일에 성 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진하였고

4 갈대아 사람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성벽에 구멍을 뚫은지라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결문 길로 도망하여 아라바 길로 가더니

5 갈대아 군사가 왕을 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 미치매 왕의 모든 군사가 저를 떠나 흩어진 지라

6 갈대아 군사가 왕을 잡아 립나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저에게 신문하고

7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저의 목전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때고 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어 갔더라

8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십 구 년 오 월 칠 일에 바벨론 왕의 신하 시위대 장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9 여호와의 전과 왕궁을 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권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10 시위대 장관을 쫓는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헐었으며

11 성 중에 남아 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와 무리의 남은 자는 시위대 장관 느부사라단이 다 사로잡아 가고

12 빈천한 국민을 그 땅에 남겨 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13 갈대아 사람이 또 여호와의 전의 두 놋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전의 놋바다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 가고

14 또 가마들과 부삽들과 활집계들과 술가락들과 섬길 때에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 갔으며

15 시위대 장관이 또 불 옮기는 그릇들과 주발들 곧 금물의 금과 은물의 은을 가져 갔으며

16 또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받침들을 취하였는데 이 모든 기구의 놋 중수를 헤아릴 수 없었으니

17 그 한 기둥은 고가 십 팔 규빗이요 그 꼭대기에 놋머리가 있어 고가 삼 규빗이요 그 머리에 들린 그물과 석류가 다 놋이라 다른 기둥의 장식과 그물도 이와 같았더라

18 시위대 장관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전 문지기 세 사람을 잡고

19 또 성 중에서 사람을 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내시 하나와 또 성중에서 만난 바 왕의 시종 다섯 사람과 국민을 초모하는 장관의 서기관 하나와 성 중에서 만난 바 국민 육십 명이라

20 시위대 장관 느부사라단이 저희를 잡아 가지고 립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21 바벨론 왕이 하맛 땅 립나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더라

22 유다 땅에 머물러 있는 백성은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긴 자라 왕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달리아로 관찰하게 하였더라

23 모든 군대 장관과 그 쫓는 자가 바벨론 왕이 그달리아로 방백을 삼았다 함을 듣고 이에 느다니야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례아의 아들 요

하난과 느도바 사람 단후엘의 아들 스라야와 마아가 사람의 아들 야아사니야와 그 쫓는 사람이 모두 미스바로 가서 그달리아에게 나아가매

24 그달리아가 저희와 그 쫓는 자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 신복을 인하여 두려워 말고 이 땅에 거하여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하니라

25 칠 월에 왕족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니야의 아들 이스마엘이 십 인을 거느리고 와서 그달리아를 쳐서 죽이고 또 저와 함께 미스바에 있는 유다 사람과 갈대아 사람을 죽인지라

26 대소 백성과 군대 장관들이 다 일어나서 애굽으로 갔으니 이는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27 유다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삼십 칠 년 곧 바벨론 왕 에빌므로달의 즉위한 원년

십이월이십칠일에 유다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어 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28 선헌 말하고 그 위를 바벨론에 저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위보다 높이고

29 그 죄수의 의복을 바꾸게 하고 그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고
 30 저의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정수가 있어서 종신토록 굶이지 아니하였더라

1. ㉠ 본장의 내용과 영적 의미를 말하라.

- ㉠ (1) 17장에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B.C.722)한 이후 약 140년 간 존속되어 오던 남왕국 유다가 본장에서 바벨론에 의해 멸망되었다(B.C.586). 이로써 사울 이후 이스라엘 왕국 시대는 완전히 종말을 맞이하고 말았다.
- (2) 유다의 멸망은 완전히 예루살렘 성의 함락으로 결정지어졌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버리신 사실 가운데는(23:27) 궁극적으로 새 예루살렘을 세우시기 위한 섭리가 담겨져 있다.
- (3) 즉 우리는 본장에서 예루살렘 도성에서 벌어진 비참한 파멸을 주로 보게 되지만(1-26절) 동시에 여호야긴의 석방을 통하여 새 예루살렘에 대한 소망의 메시지를 듣게 된다(27-30절).
- (4) 이러한 예루살렘에 대한 메시지는 신약 성경에도 계속 선포되어진다. 예수님 시대에 예루살렘 성은 또다시 파멸이 선고되고(마 23:37-39) 있지만 동시에 하늘의 새 예루살렘이 계시되며 약속되어진다(계 21:2, 10).

2. ㉠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1, 2절)

- ㉠ (1) 전장 마지막(24:20)에서 본 바와 같이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바벨론 왕에 대하여 반역했다.
- (2) 그 결과 바벨론 왕의 침입을 받고 예루살렘 성은 약 1년 7개월 간 포위를 당하였고(시드기야 9년 10월 10일-11년 5월 7일) 그것은 그대로 예루살렘의 함락과 멸망으로 연결되었다.
- (3) 전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방패와 같이 예루살렘을 에워쌌으나, 하나님의 보호가 떠나자 이제는 원수들이 예루살렘의 사면을 둘러쌌다.
- (4) 이처럼 죄로 하나님을 분노케 하고 떠나시게 하는 자들은 결국 무수한 재앙과 멸망이 자기들을 둘러싸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3. ㉠ 예루살렘 성에 임한 또 하나의 재앙은 무엇인가? (3절)

- ㉠ (1) 포위 기간이 만 2년째로 접어들던 시드기야 11년 4월 9일 쯤에는 성중(城中)에 심각한 기근(饑饉)으로 양식이 바닥이 나고 말았다.
- (2) 그들은 오랫동안 '떡을 달아서 조금씩 먹었으나' (겔 4:16) 계속되는 기근은 모든 백성을 굶주리게 했고 자기 자녀를 잡아먹게 하였다(애 2:20; 4:10).
- (3) 이 사건은 선지자들이 예언하면서(렘 19:9; 겔 5:10) 슬피 탄식하였던 비극이었다(참조, 애 4:1-10).
- (4) 선지자를 통하여 명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이렇게 끔찍한 비극이 벌어졌다(참조, 렘 38:17-19).
- (5) 오늘날도 이 세대가 우주적 종말에 앞서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멸망되고 말 것이다(시 2:12; 계 2:16).

4. ㉠ 예루살렘 성은 어떻게 함락되었는가? (4-7절)

- ㉠ (1) 예루살렘 성은 오랫동안 포위를 당하고 기근이 겹친데다 포위자들에 의해 성벽에 구멍이 뚫렸다(4절).
- (2) 포위당한 자들은 더 이상 그 성을 지킬 수 없음을 알고 왕과 군사들과 백성들 모두가

흘어졌고 성은 순식간에 함락되고 말았다(5절).

- (3) 시드기야의 아들들은 죽임을 당하고 시드기야는 두 눈을 뽑히고 사슬에 결박되어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끌려갔다.
- (4) 마지막 세상의 종말도 이렇게 반드시 임할 것이다(마 24:15-23). 깨어 기도함으로써 종말을 준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겠다(벧전 4:7).

5. **㉠ 바벨론 왕이 립나에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6절)**

- ㉠** (1) 당시 애굽의 프삼메티쿠스 2세(Psammetichus II, B.C. 593-588)가 바벨론에 도전하여 바다로 팔레스틴 지방을 습격하곤 하였다.
- (2) 그러므로 신중한 전략가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직접 예루살렘에 주둔하지 않고 본부를 시리아의 립나, 즉 리블라에 두고 거기서 지휘했다.
- (3) 그리고 예루살렘에는 그의 시위 대장 느부사라단이 출정했다.
- (4) 하맛의 립나는 여호아하스 때 애굽의 바로노고가 주둔하였던 고장이기도 하다(23:33).

6. **㉠ 시드기야와 그의 아들들에게는 어떠한 재앙이 임했는가? (7절)**

- ㉠** (1) 시드기야의 아들들은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죽임을 당했다. 이것은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에게 속한 자는 누구든지 믿을 수 없으며, 살려두기에 적합지 않다는 것을 선언한 셈이었다.
- (2)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혀서 쇠사슬에 결박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갔다.
- (3) 이것들은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성취된 것이다. 즉 예레미야는 시드기야와 그의 아내들 그리고 자녀가 바벨론으로 끌려갈 것을 예언했고(렘 32:3-5; 34:3; 38:23) 에스겔도 시드기야가 바벨론에서 죽으며 그 땅을 보지 못하리라고 예언했다(겔 12:13).
- (4)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성취되어진다. 예루살렘의 멸망보다도 더욱 두려운 사실은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이 정확히 성취되었다는 것이다.

7. **㉠ 예루살렘은 어떻게 파괴되었는가? (8-12절)**

- ㉠** (1)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여 택하신 하나님의 도성이었다(23:27). 그러나 그 도성에도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졌다.
- (2) 예루살렘 성은 B.C. 586년(느부갓네살 19년, 시드기야 11년) 5월 7일-10일(렘 52:12)에 바벨론 시위대 장관 느부사라단에 의해 철저히 파괴되었다.
- (3) 느부사라단은 성전과 왕궁과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불사르고(9절)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파괴하고(10절) 성중의 거주민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끌고 갔다(11절).
- (4) 그리하여 예루살렘은 성전도 왕궁도 성벽도 모든 주택도 허물어지고 거주민마저 사라져 버린 채 폐허가 되어 '빈천한 자의 도성' (12절)이 되고 말았다.
- (5) 이렇게 죄가 침투해서 넘어뜨리는 데는 아주 강한 곳도 없고 찬란한 건물도 없고 견고한 성벽도 영웅도 없다. 예루살렘 파괴는 그 한 표본이다.

8. **㉠ 유다에 임한 하나님의 심판에서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는가?(8-17절)**

- ㉠** (1) 유다의 죄악과 회개치 않음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은 당연한 것이었다(롬 2:5-11).
- (2) 이러한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오늘날의 세대를 향한 하나의 경고이다(사 2:10-17; 고전 10:11; 살후 1:8-10).
- (3) 갈대아 사람에게 의해 예루살렘이 파괴된 후 A. D. 70년에 로마 사람에게 의하여 예루살렘 파괴는 재연되었다(마 24:2).
- (4) 인류 역사의 최종적인 종말도 또 한번의 예루살렘 파멸로 찾아올 것이다(계 21:1). 현 세대의 정세를 볼 때 그 종말이 임박해 오고 있다.

9. **㉠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9절)**

- ㉠** (1) 왕의 궁전과 '대신들의 집'이 불탈 때는 사람들이 조금도 의아해 하지 않았다. 그 집

거주자들의 죄가 그 집들을 불태우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 (2) 그러나 '여호와와의 전'이 이 불길 속에서 사라져야 하며 그 거룩하고 아름다운 집이 불에 타야 한다는 것은 매우 이상하게 생각되었을 것이다.
- (3) 다윗이 준비하여 솔로몬이 막대한 경비를 들여 지은 성전이었고 그 위에 항상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자리잡고 있던(왕상9:3) 그 집이 불탈 수밖에 없었던 것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 (4) 당시 부패한 유다는 성전 안에서까지 우상을 세우고 죄악을 저질렀다(21:5,7). 이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예배할 집마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파괴하셨던 것이다.
- (5) 이것은 오늘날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떠나 있으면서 입술로는 하나님을 예배하려는 자들에 대한 경고가 된다(마 15:8).
- (6) 그러한 외식주의자들은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받을 것이다(마 7:21-23; 23:13-36).

10. **Q** 어떤 사람들이 바벨론 왕에게 처형당했는가? (18-21절)

- A** (1) 대제사장, 부제사장, 성전 문지기(3명), 내시(1명), 왕의 시종(5명), 서기관(1명), 일반인(60명) 등이 느부갓네살에게 체포되어 하맛 땅 립나로 끌려가 거기서 처형되었다.
- (2) 이 사람들은 아마도 느부갓네살에게 반란을 일으킨 지도자들이었거나 성을 방어하는 일을 지휘한 지도자들이었을 것이다.
- (3) 바벨론 왕은 이들이야말로 자기를 가장 괴롭힌 반역자라고 생각하여 처형을 명하였던 것이다.
- (4)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는 이들이야말로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을 더럽히고 우상 숭배를 하던 자들이었기 때문에 멸망되어야 할 자로 보시고 심판하셨던 것이다.
- (5) 성경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고전 3:17)고 말씀하고 있다.

11. **Q** 유다 거민이 바벨론 왕의 칼에 의해 심판과 죽임을 당한 것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21절)

- A** (1)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악인과 불신자의 손으로 심판을 행하시는 때가 많다.
- (2) 그러나 이 심판이 악인과 불신자들의 잔인함과 악함을 정당화시키지는 않는다.
- (3) 그들은 단지 진노의 몽둥이일 뿐이다. 그리고 그 몽둥이는 사용한 후에 파괴해 버리신다(사 10:5; 14:3-6).

12. **Q** 그달리야가 유다 총독이 된 후 어떤 사건이 발생했는가? (22-26절)

- A** (1) 느부갓네살은 팔레스틴에 남아 있는 유다 거민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 나라 사람 중에서 한 선한 지도자를 총독으로 세워 주었다.
- (2) 최초의 총독 그달리야는 아히감(렘 26:24)의 아들이며 사반(22:3)의 손자로서 선지자 예레미야의 친구이기도 했다(렘 39:14). 그는 매우 선한 사람으로 평안을 약속했다.
- (3) 그러나 남은 자들은 그달리야를 배척하고 반역하여 왕족 이스마엘이 10인을 거느리고 와서 그달리야를 살해하고 그와 함께 한 유다 사람과 갈대아 사람을 죽였다. 그리고 애굽으로 도주했다(26절).
- (4) 이 악한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이끌어 내신 '애굽 땅 종되었던 집'으로 자기들의 죄악 때문에 다시 들어가고 말았다.
- (5) 하나님께서는 불행을 당해야 마땅한 자들에게까지도 위로를 베푸시는 때가 있다. 그러나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가다가 스스로 파멸해 버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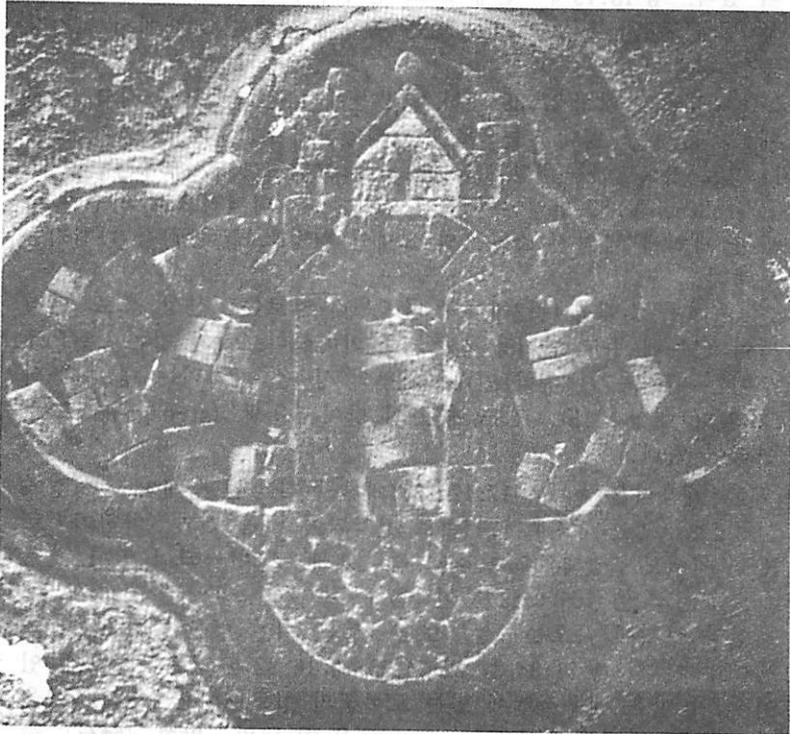
13. **Q** 여호야긴이 감옥에서 풀려나온 것은 어떤 의미를 갖는가? (27-30절)

- A** (1) 유다 19대 왕이던 여호야긴(여고나)은 포로되어 간 지 37년 만에(B.C.562) 바벨론 왕 에빌므르다에 의해 옥에서 석방되고 지위를 회복했다.

- (2) 에월프로닥은 느부갓네살의 아들이며 단 2년(B.C.562-560) 만 통치한 왕이다. 그는 즉위하자마자 피정복국의 왕들에게 관용과 은전을 베풀었다.
- (3) 이러한 여호야긴의 회복은 당시 예레미야가 70년 후에 고토로 귀환되리라고 했던 예언(렘 29:10)이 성취되기 시작함을 보여 준다.
- (4) 나아가서 여호야긴의 회복은 옛 성 예루살렘의 시대가 끝이 나고 이제는 진정한 왕이신 그리스도가 완전한 도성인 하늘의 새 예루살렘의 통치자로 오실 것임을 보여 준다.

화보자료

예루살렘 성의 붕괴. 아래의 사진은 프랑스의 아미앵 대성당에 있는 부조(浮彫)인데 바벨로니아에 의한 예루살렘 함락을 잘 나타내었다.



바벨로니아에 의한 예루살렘의 함락은 처참했다. 그들은 여호와와의 전과 왕궁을 불태웠으며 예루살렘의 모든 가옥을 불사르고 성벽을 헐며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갔다(8-11절).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다시 그들을 불러 모으시며 부흥케 하실 것이라고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참조, 사 11:11; 렘 16:15; 슥 10:10).

연구자료

성(城)

본장 1 절 이하에는 '토성'(土城)에 관한 기사가 나온다. 여기서의 토성은 바벨론 군사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 밖 사면에 쌓은 것이다. 본고(本稿)는 이를 계기로 신·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성(城)에 대하여 원어를 중심으로 살펴보려 한다.

1.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성(城)

① <티라> : 창 25:16; 민 31:10; 대상 6:54 등에 나온다. 한글 개역 성경에는 '부락', '촌락', '향리' 등으로 번역되었다.

② <아르몬> : 왕상 16:18; 시 48:3; 잠 18:19 등에 나온다. 이 단어는 주로 높은 대지나 언덕 위에 세워진 건물을 가리킬 때 사용되었다. 한글 개역 성경에는 '왕궁', '궁중', '성' 등으로 번역되어 있다. 잠 18:19에 '산성'으로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는 '안쪽 성채[城堦]'를 가리키고 있는 듯한데 성채는 요새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다.

③ <딕달> : 대상 27:25; 대하 27:4 등에 나온다. 한글 개역 성경에는 '산성', '망대' 등으로 번역되었는데 KJV에는 '성'(castle)으로, RSV에는 '탑'(tower)으로 그리고 NIV에서는 '망대'(watchtower)로 번역되어 있다. <딕달>은 대체적으로 인구가 희박한 지역에 세워진 소규모의 요새인 위병소(衛兵所)를 가리키는 듯하다.

④ <메찬> : 대상 11:7에 나온다. 우리 말로는 '산성'으로 번역되어 있는데 주로 방어용 건조물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뜻으로 쓰이는 단어는 <메추다>인데 '다윗의 성'을 가리키는 데 사용되고 있다(대상 11:5). RSV에는 이 말이 '요새'(stronghold)로 번역되어 있다.

⑤ <비라니을> : 대하 17:12; 27:4에 나온다. 한글 개역 성경에 '채' [寨] 또는 '영채' [營寨]로 번역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RSV에서도 '성채'(fortress), 즉 '요새'로 번역되어 있다.

2. 신약 성경에 나오는 성(城)

신약 성경에 나오는 '성' 또는 '성읍'이란 말은 헬라어로 <파렘블레>이다. 행 21:34, 37; 22:24; 23:10, 16, 32과 같은 경우에 있어서 이 말은 예루살렘에 있는 로마군의 안토니아(Antony) 성을 가리킨다. 빈센트(L. H. Vincent)는 요 19:13의 '박석'(礮石), 즉 '가바다 리도스프로톤'(Gabbatha-Lithosfroton)이 안토니아 성의 안뜰에 있다는 것을 증명한 책을 저술하였는데 담 드 시옹 교회(church of the Dames de Sion) 밑에서는 실제로 로마 시대의 반석(rock)이 발견되었었다.